

해남문화유산 총서

- 01 해남 우수영 들소리
- 02 해남 씻김굿
- 03 해남 우수영 부녀농요
- 04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
- 05 해남의 성과 봉수
- 06 해남의 고인돌
- 07 해남의 고분
- 08 해남의 우물

해남의 우물

해남의 우물 이야기 95선은 관내 우물의 정비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조사한 보고서에서 주요 우물 95곳을 선정하여 해설한 것이다.

면별로 몇 개소씩 나누어 마을마다 들락 거리면서 조사를 하였다. 그야말로 발품을 팔면서 ‘막고 품는 식’의 조사였다. 한 여름철이라 나들이가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사정 때문에 외지인이 마을에 들어가 어른들을 만나기란 정말 어려웠다. 우물의 유구를 조사하는 것이지만 우물 자체가 생활사 현장이라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마을 어른들은 물론 면사무소나 이장님 등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어느 면에서는 우체국 집배원께서 ‘내 일 처럼’ 동네 안내를 해 주기도 하였다.

처음에 100여 개소를 조사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현장 전수 조사 결과 266개소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서로 제출하여 정비와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일반 이해를 위해서 본 해설서를 내기로 하였다.



해남문화유산
총서 08

해남의 우물

김희태·황호균·장모창·이수경

해남군

발간등록번호 78-4930000-000048-01

해남의 우물



김희태·황호균
장모창·이수경

해남문화유산
총서 08

현장 조사는 우물 위치(지번 주소 우선 표기), 현황, 사진, 규모 등 기록하고 중요 우물은 측량하여 실측도를 넣었다. 주민면담 때나 관련 문헌에 기록된 구전 자료 등도 간략히 정리하였다. 우물별 관리번호 부여와 관리카드 작성을 하여 결과보고서를 정리하였다. 해남 우물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우물의 역사와 생활속의 우물, 우물 관련 기록과 인물, 해남 우물과 샘의 어원, 축조 시기, 명칭, 재질과 형태를 고 정비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해남의 우물은 전수조사 보고서의 관리카드를 기본으로 관리할 것이다.



김희태

전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황호균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장모창

청우요 도자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수경

지역유산연구원장

해남군
HAENAM-GUN

해남문화유산 총서

- 01 해남 우수영 들소리
- 02 해남 씻김굿
- 03 해남 우수영 부녀농요
- 04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
- 05 해남의 성과 봉수
- 06 해남의 고인돌
- 07 해남의 고분
- 08 해남의 우물

해남의 우물

해남의 우물 이야기 95선은 관내 우물의 정비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조사한 보고서에서 주요 우물 95곳을 선정하여 해설한 것이다.

면별로 몇 개소씩 나누어 마을마다 들락 거리면서 조사를 하였다. 그야말로 발품을 팔면서 ‘막고 품는 식’의 조사였다. 한 여름철이라 나들이가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사정 때문에 외지인이 마을에 들어가 어른들을 만나기란 정말 어려웠다. 우물의 유구를 조사하는 것이지만 우물 자체가 생활사 현장이라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마을 어른들은 물론 면사무소나 이장님 등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어느 면에서는 우체국 집배원께서 ‘내 일 처럼’ 동네 안내를 해 주기도 하였다.

처음에 100여 개소를 조사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현장 전수 조사 결과 266개소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서로 제출하여 정비와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일반 이해를 위해서 본 해설서를 내기로 하였다.



해남문화유산
총서 08

해남의 우물

김희태·황호균·장모창·이수경

해남군

발간등록번호 78-4930000-000048-01



해남의 우물

김희태·황호균
장모창·이수경

해남문화유산
총서 08

현장 조사는 우물 위치, 현황, 사진, 규모 등 기록하고 중요 우물은 측량하여 실측도를 넣었다. 주민면담 때나 관련 문헌에 기록된 구전 자료 등, 우물별 관리번호 부여와 관리카드 작성하였다. 해남 우물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우물의 역사와 생활속의 우물, 우물 관련 기록과 인물, 해남 우물과 샘의 어원, 축조 시기, 명칭, 재질과 형태를 정비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해남의 우물은 전수조사 보고서의 관리카드를 기본으로 관리할 것이다.



해남군
HAENAM-GUN

김희태

전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황호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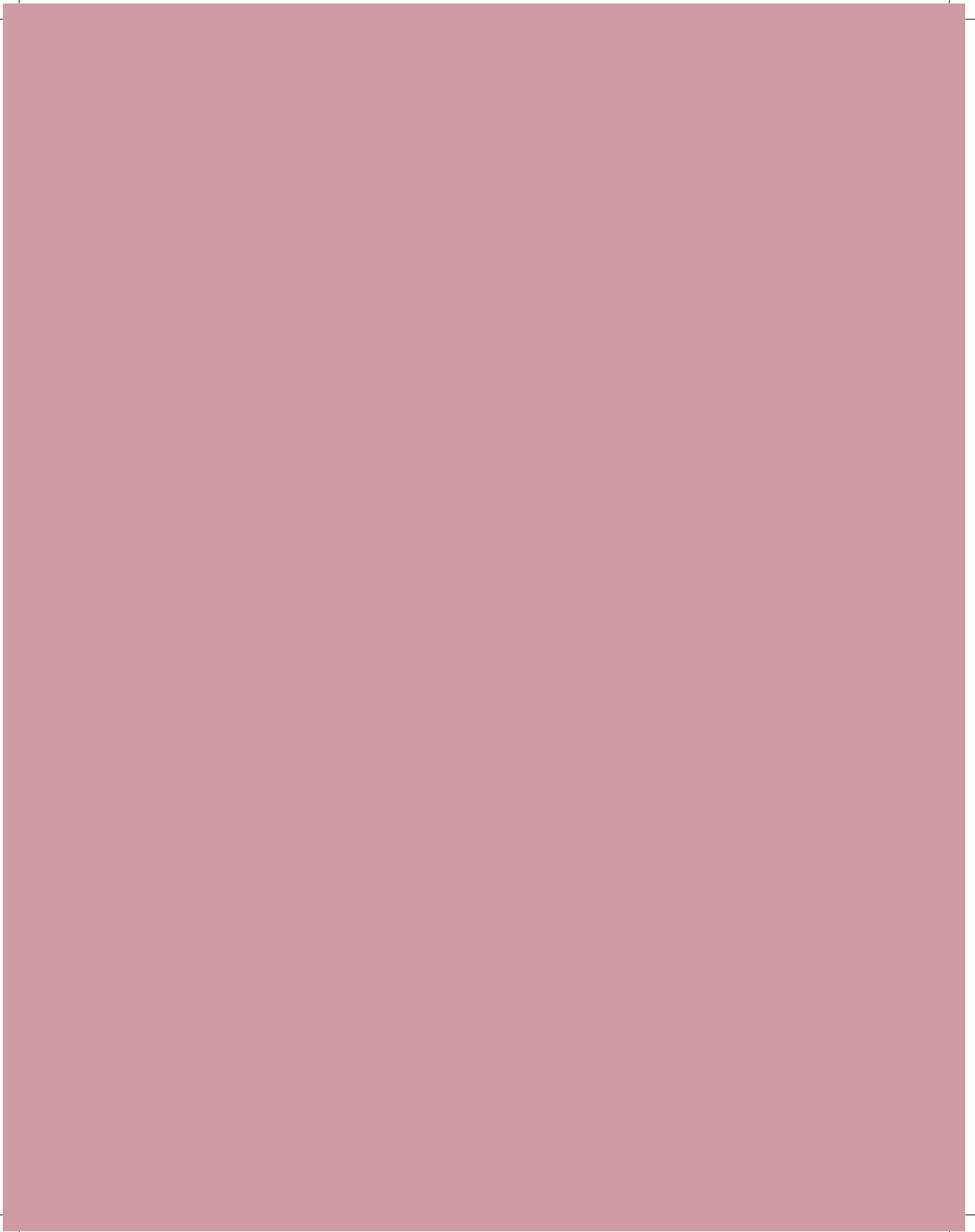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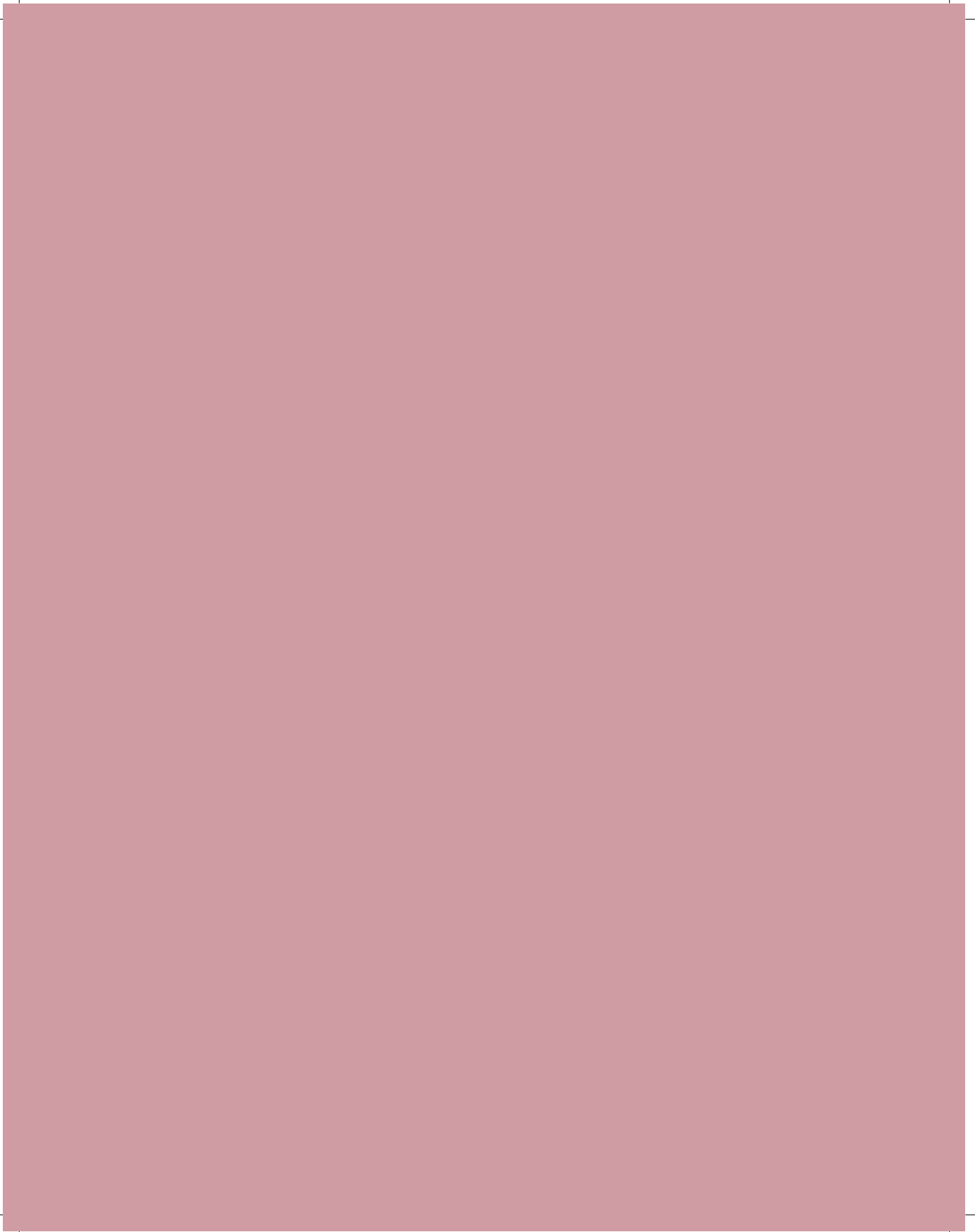
장모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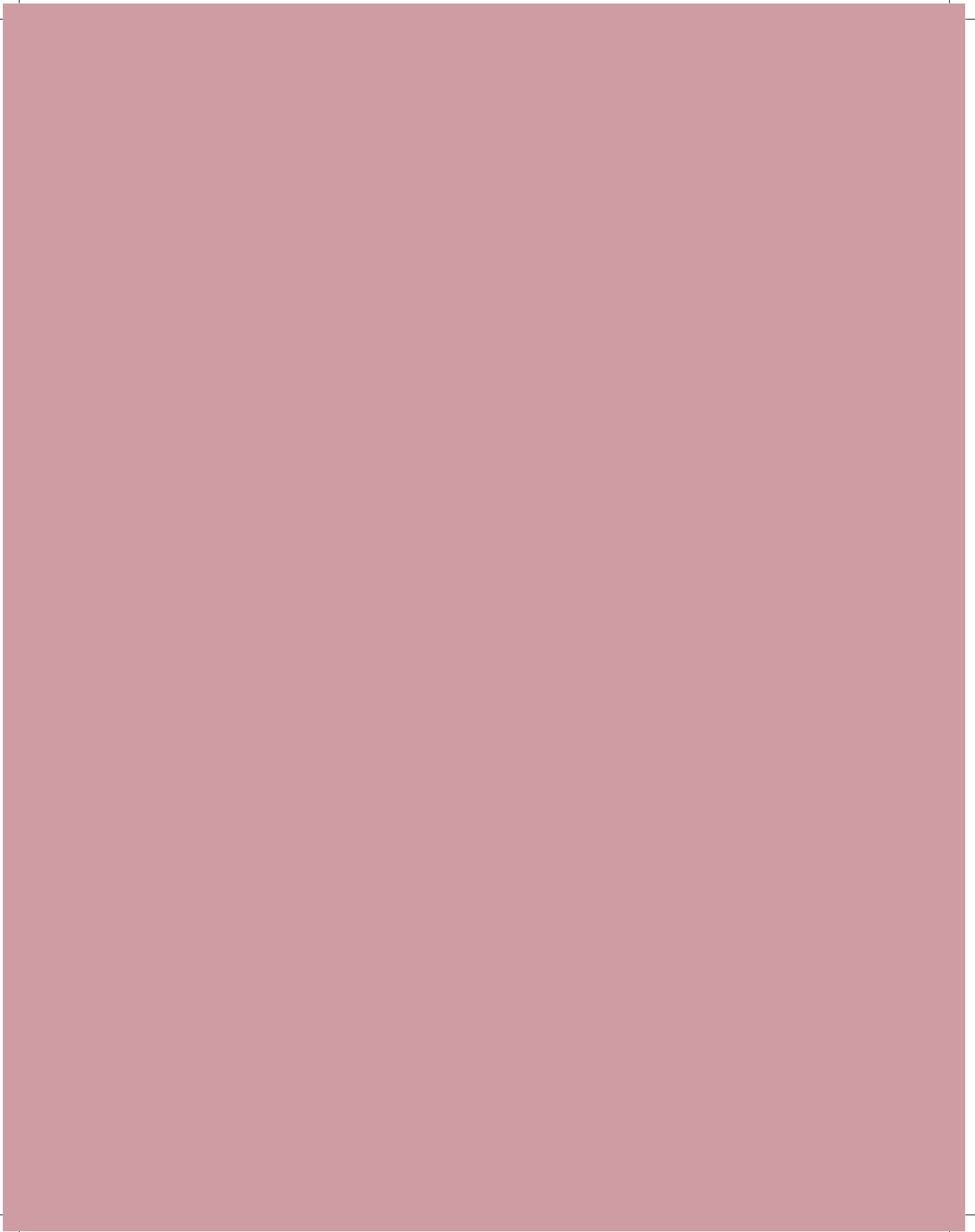
청우요 도자기박물관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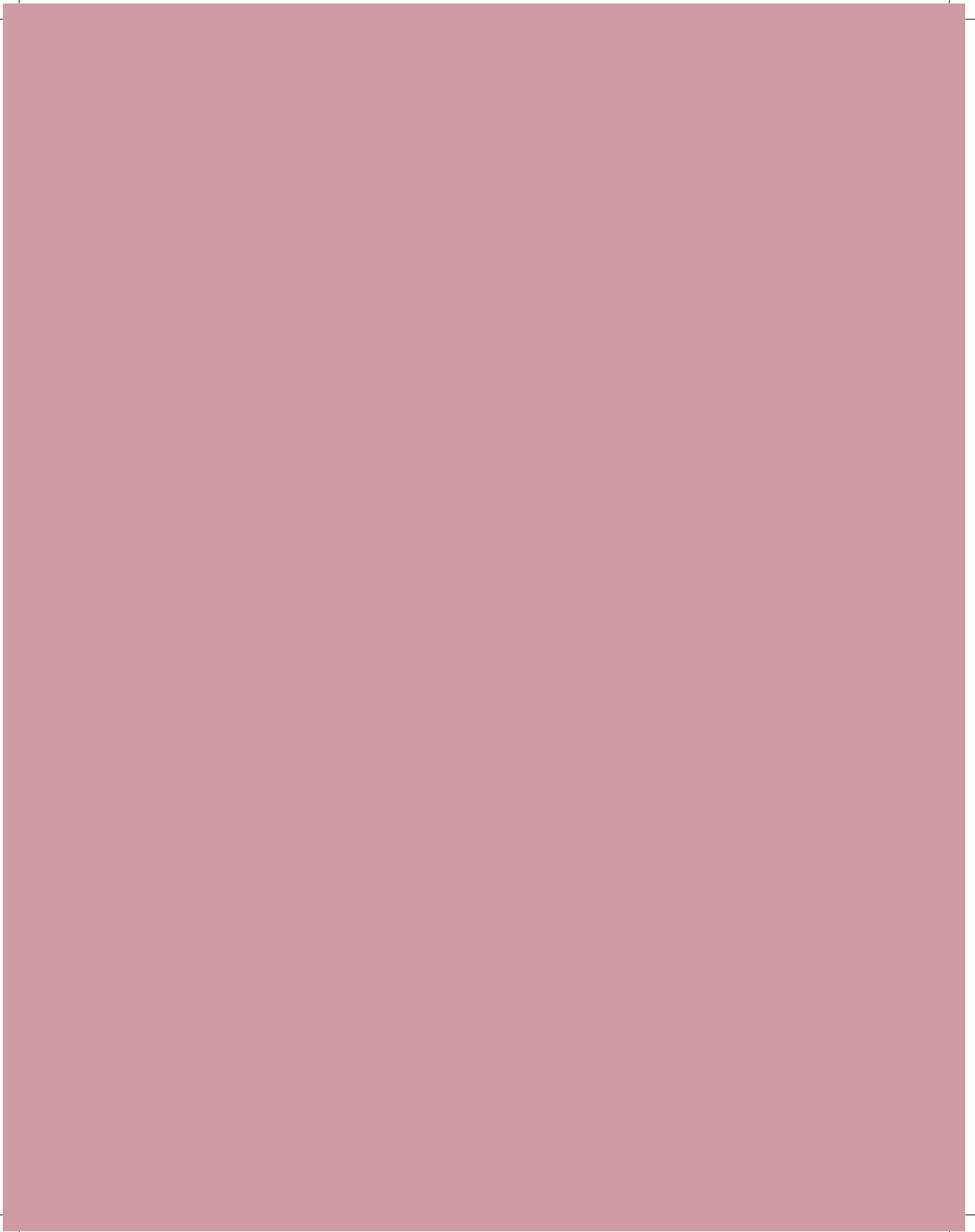
이수경

지역유산연구원장









해남 문화유산 총서 8

해남의 우물

해남 문화유산 총서 8

해남의 우물

인쇄 2021년 12월 20일

발행 2021년 12월 27일

발행처 해남군

59028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Tel. 061) 530-5114 Fax. 061) 530-5599

www.haenam.go.kr

발행인 해남군(군수 명현관)

편집인 재)마한문화연구원(원장 조근우)

조사집필 김희태·황호균·장모창·이수경

디자인 (주)시와사람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119번길 21-1(학동)

Tel. 062) 224-5319(代) Fax. 062) 225-5319

발간등록번호 78-4930000-000060-01

ISBN 978-89-5665-621-2 03090

해남군 2021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해남군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 복제할 수 없습니다.

해남의 우물



해남의 우물을 펴내며

우물은 생명, 정화(淨化), 부활(復活), 농경(農耕) 등의 상징성을 지닌다. 동네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고 물자를 교환하고 공동 노동을 하는 마당이었다. 사회가 발전하고 상수도가 들어서면서 우물은 메워지고 경지정리 하면서 사라져 갔다. 어떤 곳은 흔적만 남아 잡초가 수북하다. 반면에 지금도 정초에 샘제를 올리기도 한다.

해남군에서는 우물의 정비와 활용을 위하여 조사를 하였다. 1차로 군에서 조사한 목록이 165개소, 조사팀에서 문헌 조사 목록이 580개소였다. 이를 토대로 마을마다 드나들며 조사하였다. “코로나19” 사회 사정으로 어려웠지만 면사무소나 이장님 등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었다. 전수 조사 272개소에 대해 위치(지번 주소), 유래, 현황, 사진, 중요우물 실측과 함께 구전도 간략히 정리하였다. 이 보고서를 기본으로 관리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이해를 위하여 95개소를 선정해 해설서를 내기로 하였다.

해남의 우물 관련한 유적으로 고려시대 몽고군의 침입을 대비해 입보용(入保用)으로 쌓은 금강산성 계곡부에서 집수 시설이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1429년 8월 26일 세종실록 기록에 “해진 남면의 구산성(狗山城) 안에는 물과 샘이 있어서 성과 관소를 설치할 만하다는 기록이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해남읍성 안에 우물[井] 12개소, 『대동지지』에 전라우수영 우물 2개소 기록이 있다.

문내면 방죽샘에는 1724년, 1752년, 1804년, 1907년, 1948년 중수비가 있다. 시주와 감동, 감역, 별좌, 공원, 화주, 존위, 좌상, 공양 등 여러 직임과 인명을 기록하고 있다. 1948년 중수비에는 6개마을(서하, 선두, 서상, 남상, 서외, 남하)이 시주로 참여하고 있다. 해남의 대표적 우물이라 하겠다.

이진마을 장군샘은 1806년(순조 6)과 1839년(헌종 5) 명문이 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1597년 8월 20일 이진에 도착하여 배에 머물렀는데 객관이 극심하여 8월 23일 배에서 내려 이진에서 유숙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주민의 정성과 장군샘 정화수의 영험으로 채유되었을 것으로 주민들은 믿고 있다.

고산 윤선도(1587~1671)는 ‘날이 갠 것을 기뻐하며[喜晴]’라는 시에서 “곳곳마다 물 길으며 의복을 세탁하네”라 하여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빨래터가 보이는 경관을 읊었다. 1645년(인조 23) “밥상을 마주하고[對案]”라는 시에서 “샘물 가득 떠서 보리밥 말아먹으면”이라 한다. 『금쇄동기(金鎖洞記)』에도 샘과 우물에 대한 기록이 있다. 대흥사나 미황사의 우물, 달마산의 금샘, 관두산 풍혈 및 샘도 중요하다. 심적암지에서도 우물이 조사되었다.

해남 우물은 방향에 따라 동샘·웃샘·앞샘, 크기에 따라 큰샘·작은샘, 입지 따라 들샘·서당샘·갯샘·절샘, 풍수를 반영하여 청룡골샘, 속신에 따라 쌍둥이샘·불로정샘, 물맛에 따라 두부샘·참샘, 그리고 우수영 관인들이 사용한다해 관샘 등 다양하게 불린다. 우물을 쌓은 재료는 자연석, 판석, 장대석, 시멘트, 토관[土管, 노강]이 사용되었다. 우물의 형태는 원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 다양하다.

해남 우물 272개소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을 것이다. 우선은 최상위 등급 우물은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중요 우물은 등급을 매겨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대표 우물을 방문한 관광객에 특산품을 할인하여 주는 우물 모양의 스텝 투어, 관광 홍보물이나 안내판도 필요하다. 대표 우물의 마을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되 어르신들 일자리사업과 연관시키면 좋을 것이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마을의 여러 어르신들, 해남군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관계관 여러분, 특히 조사와 정리에 협조해 주신 학예연구사 용병주님, 양혜진님, 그리고 교정에 지혜를 모아주신 정운섭님, 김승기님께 감사드린다. 이 책이 해남의 문화관광자원과 민속 생활사 현장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조사위원 일동

해남의 우물

차례

제1장 총설 -해남우물의 이해 19



생활사의 공간 우물의 전수 조사	20
해남의 우물은 언제 만들어졌나	23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우물 유구	26
이순신장군은 장군샘 정화수를 드셨을까	28
방 앞에 우물을 파면 좋을까 - 신앙 관습	31
동네사람들은 우물을 무어라 불렀는가	34
우물은 어떤 재료로 축조했을까	36
우물의 외형은 어떻게 생겼나	39
우리는 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41

해남의 우물

차 례

제2장 해남 우물의 현장 43



해남읍 우물 이야기 46

해리마을 덕봉쟁이샘	50
옥동마을 동네샘	52
기동마을 윗샘, 아랫샘	55
용정마을 아르데미[아랫배미]샘	58

삼산면 우물 이야기 62

상가마을 옷나무샘[들샘]	66
저산마을 참샘[당옥샘, 구슬샘]	68
옹암마을 마을샘	72

화산면 우물 이야기 76

가좌마을 공동샘	81
갑길마을 공동샘	85
흑석마을 공동샘	87
봉저마을 공동샘	90
석정마을 공동샘	93
연정마을 중앙샘	96
월호마을 공동샘	98
호동마을 공동샘	101
율동마을 샘골샘	103
해창마을 중앙샘	106

해남의 우물

차 례



현산면 우물 이야기 110

백포마을 아랫배미샘 114

원진마을 공동샘 117

송지면 우물 이야기 122

송암마을 공동우물 128

화내마을 윗샘 131

화내마을 중간샘 133

방처마을 뒷샘 135

현안마을 공동우물 138

월강마을 가운데샘 140

미야마을 큰샘 144

영평마을 공동샘 147

치소마을 새샘 149

소죽마을 소죽샘 152

어란마을 아랫샘(북문샘) 157

사구마을 아랫샘 160

북평면 우물 이야기 164

동해마을 석정우물 169

와룡마을 짜우락샘(龍淚井) 172

이진마을 북문샘 176

이진마을 장군샘 179

해남의 우물

차 례



북일면 우물 이야기 188

금당마을 동네샘 191

삼성마을 두륜샘 194

옥천면 우물 이야기 198

백호마을샘 202

영신마을 영신샘 208

송운마을 아랫샘 211

호산마을 고래샘 213

문촌마을 동네샘 216

용정마을 용샘 219

탑동마을 시앙샘 222

이목마을 청룡샘 225

계곡면 우물 이야기 230

강절마을 골샘 234

당산마을 참샘[중덕샘], 동쪽샘 238

덕정마을 덕정샘 242

신주마을 현시암 245

마산면 우물 이야기 250

산막마을 산막샘 254

덕인마을 통샘 257

월곡마을 우데미샘[웃샘] 259

지동마을 황소우물 262

해남의 우물

차 례



황산면 우물 이야기 266

초월마을 우덩이샘	272
송호마을 들샘	275
송청마을 청룡골샘	278
외입마을 충신타샘	281
병온마을 공동샘Ⅱ	284
우항마을 수랑샘	286
우항마을 아랫샘	289
남리마을 두부샘	291
남리마을 관샘	293
내산마을 아랫마을샘	295
옥동마을 공동샘	297
관춘마을 뒷샘	299
평덕마을 아랫샘	301

산이면 우물 이야기 304

노송마을 죽마을샘	307
노송마을 동쪽샘	310
지사마을 돌샘	312
상공마을 땅골샘	315

문내면 우물 이야기 320

용암마을 공동샘	326
동내마을 새샘	329

해남의 우물

차 례



명량마을 공동샘 I	331
명량마을 공동샘 II	334
명량마을 서상마을 방죽샘	336
서외마을 갯샘	343
서외마을 큰샘	345
서외마을 작은샘	347
동리마을 옷샘	349
동리마을 아랫샘	351
난대마을 큰샘	353
외암마을 용알샘	356
용정마을 공동샘 II	358
용정마을 공동샘 III	360
증도마을 가운데샘	362
충평마을 아랫샘	364
고당마을 구름샘	366
고평마을 공동샘	369
화원면 우물 이야기	372
상리마을 간땃샘	377
상리마을 주랫샘	379
장수마을 큰샘	381
인지마을 참샘	384
구림마을 큰샘	386

해남의 우물

차 례



섬동마을 공동샘	389
구지마을 큰샘	391
후포마을 통샘	393

제3장 해남 우물의 특징 395

1. 머리말	396
2. 후포마을 통샘	397
3. 해남의 우물 관련 기록과 유적 현황	399
4. 고산 윤선도의 우물 인식과 형상화	405
5. 해남 우물의 유형과 특징	410
6. 맺음말	421
참고문헌	424

일러두기

1. 이 책은 해남의 우물 기초자료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272개소 가운데 95개소를 선별하여 해설하였다.
2. 조사 기간은 2020년 5월 28일부터 2021년 2월 27일까지였다. 착수는 6월 3일, 중간 보고회는 10월 20일, 최종보고회는 12월 7일에 하였다. 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12월에 제출하여 해남군의 검토를 거쳤고 2021년 2월에 마무리하였다.
3. 본 조사의 책임연구원은 조근우(재단법인 마한문화연구원장)가 하였다. 연구원으로 김희태(전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조사 총괄, 제1장, 제3장), 황호균(전라남도 문화재위원, 화산·현산·송지·북평면 조사), 장모창(청우요 도자기 박물관 학예사, 황산·산이·문내·화원면 조사), 이수경(지역유산연구원장, 해남읍·삼산·북일·옥천·계곡·마산면 조사)이 마한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박미라(마한문화연구원 연구실장), 김정미(연구과장)가 수고를 하였다. 연구보조원으로 마한문화연구원의 최희진, 이해정, 김영의, 보조원으로 백준영, 강주영, 김효영, 김순자가 참여하였다. 탁본조사는 성대철(전남문화재연구원 건축문화연구실장)이 협조하였다.

1장

총설

-해남우물의 이해

황산면 부곡리 춘정마을 1960년대 '우물'



생활사의 공간 우물의 전수 조사

우물은 먹을 물을 얻고자 땅을 파서 지하수를 끄게 한 설비를 말한다. 생활사의 중심공간이며 성스러운 곳이기도 했다. 생명, 정화(淨化), 부활(復活), 농경(農耕) 등의 상징성을 지닌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 물자를 교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고 공동 노동을 하는 등 마을 생활의 중심공간이었다. 사회가 발전하고 상수도 시설이 일반화 되면서 우물은 메워지고 없어지고 건물이 들어서고 경지정리 하면서 사라져 갔다. 어떤 곳은 흔적만 남은 채 잡초더미 속에 묻혀 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정초에는 정성을 다해 제를 올리기도 하고 수시로 드나들며 소지를 하고 보호각을 세우는 등 관리를 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관내 우물의 정비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전수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조사 내용은 우물에 대한 문헌과 옛 자료, 기존 조사성과, 주민 면담 등 사전조사에 해당하는 기초조사, 14개 읍면 우물에 대한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등이다. 재단법인 마한문화연구원(원장 조근우)과 계약을 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남군에서 읍면을 통하여 조사한 자료와 해남군, 해남문화원 등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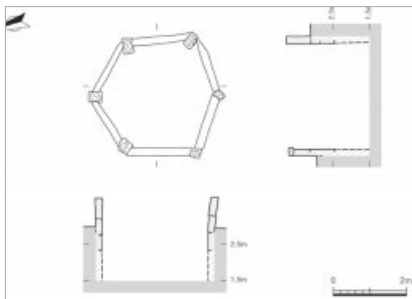
한 기초자료를 모아서 정리 해본 결과 165개소였다. 가장 많은 곳은 송지면으로 57개소였다. 문내면 29개소, 화산면 12개소, 옥천면 11개소, 마산면 11개소 등이었다. 이를 토대로 100여개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조사팀에서 『마을유래지』(해남군, 해남문화원, 1987), 『해남지명유래총람』(해남문화원, 1994), 『해남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상·하(편찬위원회, 2011) 등의 마을유래 자료와 읍면지 등 향토자료, 각종 문화자료 등을 검색하면서 정리한 결과 580개소에 이르렀다. 삼산면이 73개소로 가장 많았고 황산면 54개소, 문내면 44개소 등이었다. 물론 이 자료에는 발간 당시에도 없어졌다고 한 내용까지를 포함한 수치이다. 군청 기초자료와 조사팀이 작성한 기본자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읍면사무소 협조, 이장단 회의, 개별 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우물 소재를 확인하고 조사를 한 곳이 272개소였다. 당초 100여개소로 계획하였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우물이 있었다. 조사단의 노고가 컸음은 물론이다.

현장 조사는 우물 위치(지번 주소 우선 표기), 현황, 사진, 규모 등을 기록하고 중요 우물은 측량하여 실측도를 넣었다. 주민면담 때나 관련 문헌에 기록된 구전 자료 등도 간략히 정리하였다. 우물별 관리번호 부여와 관리카드 작성을 하여 결과보고서를 정리하였다. 해남 우물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우리나라 우물의 역사와 생활속의 우물, 우물 관련 기록과 인물, 해남 우물과 샘의 어원, 축조 시기, 명칭, 재질과 형태를 정리하고 정비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해남의 우물은 전수조사 보고서의 관리카드를 기본으로 관리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이해를 위하여 대표적인 우물 95개소를 선정하여 <해남의 우물-해남 문화유산 총서 8>으로 해설서를 내기로 하였다.

우물 조사 현황


읍면	기초	문헌	조사	해설	주요 우물
해남읍	3	66	9	4	옥동마을 동네샘
삼산면	1	73	8	3	상가마을 옷마을샘
화산면	12	47	22	10	가좌마을 공동샘, 연정마을 중앙샘
현산면	21	33	11	2	백포마을 아랫배미샘, 원진마을 공동우물
송지면	57	46	34	12	소죽마을 소죽샘, 원강마을 가운데샘
북평면	3	19	10	4	동해마을 석정우물, 이진마을 장군샘
북일면	5	27	4	2	삼성마을 행사개두룬샘
옥천면	11	42	16	8	백호마을 큰샘, 문촌마을 동네마을샘
계곡면	3	25	9	4	강절마을 천년샘
마산면	11	40	13	4	산막마을 산막샘, 지동마을 황소우물
황산면	5	54	52	13	초월마을 우덩이샘
산이면	5	38	11	4	노송마을 동쪽샘, 자사마을 돌샘
문내면	29	44	51	17	방죽샘, 동리마을 옷샘, 동리마을 아랫샘
화원면	1	26	22	8	구지마을 큰샘, 구림마을 큰샘
계	165	580	272	95	



실측도면(전라우수영 내 방죽샘)



사진 촬영(방죽샘)

	관리번호및명칭	
	위 치	
	크 기	
	문 화 재 지 정	
	입 지주변환경	
	이 동 상 황	
	특 징	
	현 황	연혁, 현상, 지명 유래, 구전 민속 관리·훼손상황등
	참 고 자 료	
	사 진 번 호	
타본 조사(2020.07.01)		조사 관리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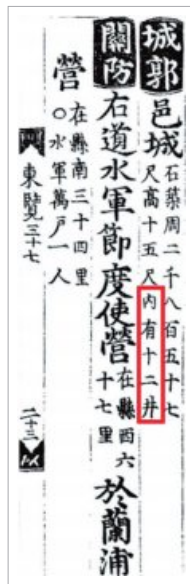
해남의 우물은 언제 만들어졌나

해남 우물이 언제 처음 축조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자세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처음으로 우물이 등장했다. 재료는 나무, 토기로 담을 쌓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돌로 축조한 우물은 삼국시대부터이다. 해남지역은 중기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 다수 분포하여 많은 부족들이 살았을 것이고 그들의 생활공간에서 물은 매우 중요한 요소여서 우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밝혀줄 유적이나 유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우물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나 기록이나 유적은 남아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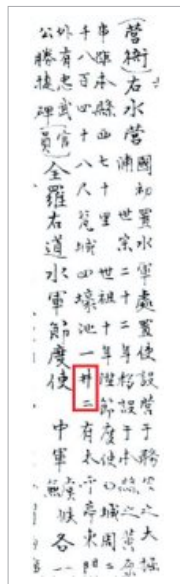
조선시대 초기 국왕의 명으로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권 37) 해남현 성곽조에 “해남읍성은 돌로 쌓았으며, 둘레가 2천 8백 57자, 높이가 15자이

며, 안에 우물 열둘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왕권을 대행하는 읍치공간의 상징 시설물인 읍성 안에 열두군데의 우물이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해남 읍치에 12개의 우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기록인 『대동지지』 해남 영아(營衙)조에는 “우수영(右水營): 국초(國初)에 수군을 두고 영을 설치해둔 곳은 무안(務安)의 대굴포(大掘浦)인데, 세종 22년(1440년)에 본 현의 황원곶(黃原串)에 옮겨 설치하였다. 본 현과의 거리는 서쪽으로 70리이다. 세조 10년(1464년)에 절도사로 승격되었다. 성의 둘레는 2천 4백 48척이며, 웅성이 네 개, 연못이 하나, 우물이 2개며 태평정(太平亭)이 있고 동문 밖에는 충무공(忠武公)의 승첩비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 전라 우수영 군사시설에도 우물이 필수적이고, 우물이 2개소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수영에 있는 우물 2개소에 대한 명칭이나 위치가 남아 있지 않지만 현재 남아 있는 방죽샘이 2개소 가운데 1개소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해남 성곽조



대동지지 해남 영아조



이진마을(이진진) 장군샘 조성기(1806년)



문내 방죽샘(우수영) 중수비(1804년)



1804년 중수비 탁본(2020.07.01)

현재 남아 있는 우물 가운데 조선 전기에 조성된 우물은 남아 있지 않다. 가장 연대가 빠른 것이 문내면 전라우수영 안의 방죽샘이다. 방죽샘에는 총 5기의 중수비가 있는데 연대가 가장 빠른 것이 “옹정이년(雍正二年)…”이라는 명문이 있어 우물의 축조 시기는 1724년(경종 4) 이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진진(梨津鎭) 안에 위치한 이진마을 장군샘에도 “가경 십일년 병인 월 일 수창(嘉慶十一年丙寅月日首朔) 도광 십구년 기해 십일월 일 중수(道光十九年己亥十一月日重修)”라는 명문이 있다. 1806년(순조 6) 병인년에 처음 만들고 1839년(헌종 5) 기해년 11월에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우물 외에도 여러 우물에 명문이 남아 있어 축조 시기를 알 수 있는데 조선 후기부터 1980년대 까지 계속해서 우물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물의 축조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 우물이다. 이들 우물은 해남에 남아 있는 우물의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군사시설 내에 설치된 우물이다. 해남에는 전라우수영과 이진진에 2개소가 남아 있고, 관에서 조성한 우물이라 조성 및 중수 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이 남아 있어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큰 우물이다. 세 번째는 가정집에서 사용하기 위한 개인 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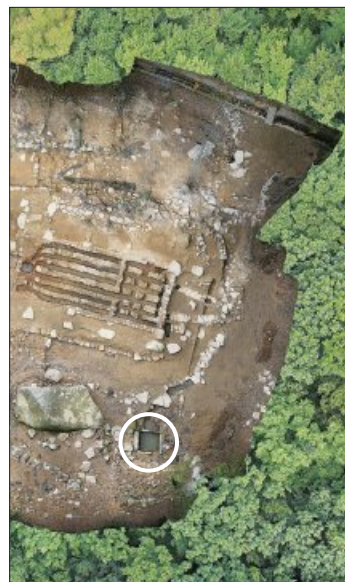
우물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마을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우물이 필요 없게 되어 폐꾸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외에도 경지정리에 우물이 포함된 경우, 도로개설 부지에 우물이 포함된 경우, 지하수 개발로 인한 우물 물이 말라버린 경우 등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우물 유구

옥녀봉토성은 지표조사에 흙과 돌로 쌓은 성으로 둘러져 있고 산 정상에는 제를 지낸 장소와 우물, 군사를 훈련시킨 마장 터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성 곳곳에 패총지와 당시 마한인들이 사용한 토기파편 등 생활유물들이 다량 확인됐다.

금강산성은 고려시대 몽고군의 침입을 대비해 쌓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동우물 성격인 집수시설 안에는 갯가지 그릇 등 그 시대를 대변할 생활용품들이 발굴될 가능성이 크다.

대흥사 심적암은 대한제국기 마지막 의병투쟁 장소이다. 이곳 암자터를 2019년 4월에 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했다. 그 결과 건물지 3



심적암지 우물(사진 민족문화유산연구원, 합성)

동과 문지 1곳, 우물지 1기가 확인됐다. 2동의 건물지는 조선시대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사용한 것이고 1동은 조선시대 후기까지 사용한 곳으로 조사됐다. 유물은 조선시대 평기와가, 건물 기단부에선 18세기 백자편이 출토됐다. 1939년 12월 10일 건물이 파괴되(조선총독부 자료)어 폐사된 뒤 흙과 잡목에 묻혀 빈터로 남아 있었다. 당시 완도와 해남 등 서남해안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은 1909년 7월 8일 연합부대를 만들어 최후 거점지로 심적암을 택했다. 의병연합부대장은 완도로 유배 온 황준성이었으며, 해남에서 활동하던 소부대 의병장인 황두일과 강성택, 추기엽도 함께였다. 하지만 7월 9일 새벽 4시 일본군의 급습으로 심적암 스님 5명을 포함해 의병 24명이 현장에서 순절하고 8명이 포로로 잡힌 후 교수형을 당했다. 심적암의 우물은 스님과 신도의 생활공간이었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떨치고 일어난 의병들의 생명수였다.

이순신장군은 장군샘 정화수를 드셨을까

이진진의 장군샘은 이순신장군의 이야기가 전한다. 임진·정유왜란기에 이진진에서 나흘을 머물렀고 토사곽란의 병세가 위중하였는데 이진 마을에서 유숙하면서 장군샘 정화수의 효험으로 회복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장군샘에는 1806년 조성 기록이 새겨 있다. 우물의 형태도 조선후기에 많이 보이는 판재형 석재 결구 방식이다. 그렇더라도 그 자리는 물이 나는 자리로서 그 이전부터 우물이 있던 자리일 것이다.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장군이 남긴 『난중일기』를 보면 “1597년(정유년) 8월 20일 이진으로 진을 옮겼다[移陣于梨津]. 21일 곽란이 일어나 통증으로 인사불성이 되었다. 22일 곽란이 점점 심해졌다[霍亂漸重]. 23일 병세가 극히 악화[病勢極重]되어 선박은 불편함으로 배에서 내려 바다에서 나와 (이진진에서) 숙박하였다[棄船出海而宿].”는 기록이 있다. 이순신장군은 이진에 도착하여 배에 머물렀는데 곽란이 극심하여 8월 23일 배에서 내려 이진에서 유숙을 한 것이다. 24일 바로 이동한 것을 보면 이진진에서의 유숙이 병세 회복에 큰 구실을 한 것 같다. 그것은 이진 주민의 정성과 장군샘 정화수의 영험이었리라 여겨진다. “장군샘” 이름도 이에 연유한 것 같다. 곧이어 9월 16일 세계해전사에 빛나는 명량대첩을 거둔다.

고산 윤선도의 『고산유고』에 있는 “금쇄동의 기문[金鎖洞記]”에도 우물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바위 돌 사이의 물이 청결해서 마실 수 있다고 하면서도 섬돌과 두 그루의 교목 사이에 작은 우물[小井]이 있다고 나온다. 맑은 물이 있어도 우물은 우물대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관련자료 제3장 참조)

금쇄동(金鎖洞)은 문소동(聞簫洞)의 동쪽 제일봉(第一峯) 위에 있다.... 바위들은 청결해서 앗을 수가 있고, 물은 청결해서 움켜 마실 수가 있으니, 나의

휴식을 기다린 듯도 하고, 나의 갈증을 아는 것 같기도 하다. 흐름을 따라 서쪽으로 백여 보를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물이 시작되는 곳으로 동천의 안쪽 문이 된다. 그 백여 보 사이에 땅에 드러난 바윗돌들이 개 이빨처럼 교차되어 있는데, 사람이 앉을 만하면서 물이 굽이쳐 흐르는 곳이 또 몇 군데 있다. 그곳의 자갈들을 걷어 내고 흙들을 긁어내면 물이 흐르는 곳 모두가 빠짐없이 석조(石槽 돌구유)를 이루어서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 물이 시작되는 곳 북쪽에 2층의 섬돌과 두 그루의 교목(喬木)이 있고 섬돌 옆에 작은 우물이 있는데, 시골 노인의 말에 의하면 이곳이 세속에서 말하는 거사배(居士輩 사당패)가 지내던 불당(佛堂)의 옛터라고 한다.

而下。是亦小瀑也。石淨可坐。水清可掬。如待我之休。知我之渴。緣流西上百餘步。是水之窮處。而洞之內戶也。
孤山遺稿
卷之五下
其百餘步間。露石交牙。人可坐。水曲流者。又有數處。而若屏其亂礫。刮其浮土。則水之所流。必皆石槽。而無非可愛也。水窮之北。有石砌兩層。喬木兩株。砌傍有小井。村翁言。是俗所謂居士輩佛堂古址云。自此折旋南行。

고산 윤산도 금쇄동기의 소정(小井) 기록
(고산유고/한국고전종합DB)

二十日戊寅。晴。前浦窄狹。移陣于梨津。
二十一日己卯。晴。曉。得霍亂重痛。不省人事。達夜坐曉。
二十二日庚辰。晴。霍亂漸重。不能起動。
二十三日辛巳。晴。病勢極重。泊船不便。棄船出海而宿。
二十四日壬午。晴。早到刀掛地。朝飯到於蘭前洋。則到處已為空虛。宿于洋中。

난중일기 1597년(정유년) 8월 20일~24일 기록(이충무공전서)(한국고전종합DB)

대흥사의 우물이나 미황사의 우물, 그리고 달마산의 금샘 등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금샘은 송지면 달마산 봉우리 뒤편 깊은 산 속 석굴에 위치한다. 사람 가슴높이 쯤에서 바위벽이 수평으로 1m 정도 패어 들어간 자리에 30~40cm 깊이로 금빛을 담고 있다. 조금씩 돌 틈새로 넘쳐나는 물은 금가루를 입힌 듯 샛노란 금빛을 낸다. 바가지로 뜨면 금거죽이 물에 섞여 나오는데 물 밖에서는 1~2초 뒤면 금방 사라진다. 물맛은 목젖을 건드리는 질감이 부드럽다. 과연 금이 들어 있어서 일까.



달마산 금샘



금빛이 찬연한 금샘

샘고사나 당제 등도 우물이나 샘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민속문화 조사는 따로 해야 할 것이지만 기 조사된 자료는 각 우물 이야기에서 소개하였다.



위) 삼산면 저산마을 참샘 고사

아래) 문내면 학동마을 당제- 제일 당일 아침에는 마을 공동 우물인 향샘과 빨래터샘을 깨끗이 청소하고 부정 타지 않도록 금줄을 치고 푸른 대나무를 꽂는다.(해남 우리신문, 2019.02.18)



방 앞에 우물을 파면 좋을까 - 신앙관습

우물은 생활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관습이 있다. “어느 방 향에 우물을 파면 길하다.” “방 앞에 우물을 파면 안된다.” “옛 우물을 메우 면 귀먹게 된다.” “바다가 가까운 곳에 우물을 팔 때는 바람이 순한 날을 택 해야 한다.” 등등.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네 어르신 들을 만나기가 어려워 자세한 이야기를 채록하지 못했다. 조선후기 기록에 있는 내용을 옮겨 둔다. 당대의 신앙관습이나 믿음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고, 세세한 내용은 마을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줄거리는 비슷하다고 여겨져서이다.

『산림경제(山林經濟)』의 복거(卜居)편 우물조 기록을 보면 우물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을 모아 놓았다. 『산림경제』는 조선후기 실학자 홍만선(1643 ~1715)이 농업기술과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을 서술한 농업서이자 가정생활서이다. 숙종대 편찬되었는데 복거(卜居)편은 주택의 선정과 건축에 관한 내용이다. 우물 기록은 다음과 같다. (한국고전종합DB 인용)

우물[井]

-본산(本山)의 생왕방(生旺方, 五行으로 따져 길한 방위)에 우물을 파면 길하다.

《고사촬요》

-당(堂)의 전후와 방(房) 앞 청(廳) 안에는 모두 우물을 파서는 안 된다. 《산거사요》, 《거가필용》

-부엌 가에 우물을 파면 해마다 허모(虛耗 심신이 허약해짐을 뜻함)해진다. 《거가필용》

-우물과 부엌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남녀(男女)가 문란해진다. 《거가필용》

-옛법에 우물을 파는 자는 먼저 수십 개의 동이에 물을 담아서 우물을 팔 장소에다 두고, 밤에 이를 관찰하여 동이 가운데 다른 별보다 특이하게 큰 별이 나타난 곳을 파면 반드시 감천(甘泉)을 얻는다. 근래에 신생(愼生)은 이렇게 말하였다. “먼저 몇 개의 구리로 동이를 땅 위에 얹어놓고, 하룻밤이 지난 다음 이를 관찰하여 그 가운데 이슬이 많이 맺힌 곳을 파면 반드시 우물이 난다.” 《농가집성》

-강이나 바다가 가까운 곳에 우물을 팔 때는 모름지기 바람이 순한 날을 택해야 한다. 이것은 만약 강이 우물의 서남쪽에 있는데, 우물을 파는 날 서남풍이 불면 강물이 바람을 타고 들어와 우물이 반드시 감미로울 것이

고, 만약 바닷바람이 순한 날은 바닷물이 바람을 타고 들어와 우물이 반드시 짜게 되기 때문이다.《거가필용》

-납[鉛] 10여 근을 우물에 넣어두면 물이 맑고 감미롭다.《거가필용》

-세속에서는 청명일(淸明日)에 우물을 치는 것을 신전하게 여긴다.《거가필용》

-옛 우물은 메우지 말아야 한다. 이를 메우면 사람이 눈멀고 귀머지게 된다. 《산거사요》, 《거가필용》

-우물물이 용솟음치는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3백 60보(步) 안에서 청석(靑石) 하나를 찾아내어 술에 삶아서 우물에 넣으면 즉시 그친다.《산거사요》, 《거가필용》

-우물에서 발돋움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고금을 통해서 크게 꺼리는 것이다.《산거사요》, 《거가필용》

井本山生旺方開井吉。政
井必腰井於龜邊。虛耗年。必井龜相看。男女內亂。
同上。井必腰井於龜邊。虛耗年。必井龜相看。男女內亂。
古法鑿井者。先貯盆水數十。置所鑿之地。夜視盆中
有。大星異衆星者。必得甘泉。迺有。慎生言。先覆數銅盆于
地上。經夜視之。見其中露氣結聚多者。鑿之。必得泉。果
開井近江海處。須擇風順日。有。如。江。在。井。之。南。風。吹。江。水。入。盆。必日
甘。若。風。順。日。必用。以。盆。十。餘。斤。置。井。中。水。清。而。甘。
俗。以。淸明日。淘井為新。同上。勿塞故井。令人昏聩。
同上。用。如。禳井。沸。東。向。三百六十步內。寬一青石。以酒煮放井
中立止。同上。勿跋井。古今大忌。同上。

산림경제 복거편 우물[井]조
(한국고전종합DB)

동네사람들은 우물을 무어라 불렀는가

우물에 대한 명칭으로는 샘과 우물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 샘의 본디 말은 ‘침’으로, ‘물이 솟는 데’의 뜻이다. 우물은 옛말은 ‘움물’로 ‘움에서 솟는 물’이라는 뜻이다. 『용비어천가』의 ‘적도(赤島) 안해△움물’이 그것이다. ‘움’의 끝소리 ‘ㅁ’이 떨어져 나가 ‘우’로 바뀌었다가 이것은 뒤에 ‘우물’이 되었다.

샘은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자리이다. 중부 이북지역에서는 두레박으로 푸는 우물과 바가지로 뜨는 샘으로 나누지만, 남부 지방에서는 모두 샘이라 부른다. 쪽샘·두레샘·작두샘은 물을 뜨는 방법에 따른 이름이다. 쪽박이나 바가지로 뜨는 쪽샘은 박우물이라고도 한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두레샘은 한끝에 돌을 얹은 장대를 기둥 위에 가로 걸었으며, 두레박을 물속에 넣고 장대에 연결된 줄을 놓으면 자연히 올라온다. 용두레우물이라고도 한다. 펌프로 물을 자아올리는 작두샘은 자루를 위로 들거나 아래로 내리는 동작이 작두를 닮은 데서 왔다. 우물에 도르래를 달아서 물을 쫓는 것은 일제강점기로 보인다. (김광언, 『특별전 ‘타임캡슐을 열다-색다른 고대 탐험’ 연계 강좌 -동아시아의 우물』, 2012, 국립중앙박물관, 1~3쪽)

해남에서는 우물을 대부분 샘이라 불리웠고, 우물이라 이야기 했을 때는 일반인들은 잘 알아듣지 못해 명칭은 샘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물을 조성하거나 중수 등의 기록에 우물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우물 정(井)자와 샘 천(泉)자가 공동으로 사용되었다. 먼저 정(井)자의 사용 예로는 황산면 우항마을 아랫샘의 경우 노깁[토관]으로 사용하여 축조한 우물인데 우물앞에 “共同井戶 昭和拾壹年…”이라는 명문이 있어 1936년에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축조한 우물임을 알 수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용어가 정호(井戶)여서 우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井)자를 사용하였다. 이 우물 외에도 황

산면 기성마을 공동샘에도 “基聖共同井戶 檀紀4290年3月 日 竣功 湧出千斛口給百家”이라는 명문이 기록되어 있어 1957년에 축조한 우물임을 알 수 있고, 이 우물에서도 정(井)자를 사용하였다. 천(泉)자를 사용한 예로는 북일면 삼성마을 두륜샘인데 우물 돌레석에 “頭輪泉 壬申十月十三日”이라는 명문이 있어 1932년에 조성된 우물로 추정되고 이 우물의 명칭에서는 천(泉)자를 사용하였다. 다른 우물에도 우물조성 및 중수 기록이 남아 있지만 우물 명칭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앞의 3개 우물이 전부여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물을 부를 때는 샘으로 부르고 기록할 때는 정(井)자와 천(泉)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우물에서 물을 떠서 먹는 것을 물을 길어다 먹는다고 사용하고 있으며, 마을마다 우물을 부르는 명칭이 다양했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우물 이름과 유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동샘: 마을 동쪽에 있는 샘
- ② 서샘: 마을 서쪽에 있는 샘
- ③ 웃샘: 마을 위쪽에 있는 샘
- ④ 아랫샘: 마을 아래쪽에 있는 샘
- ⑤ 큰샘: 마을에서 우물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규모가 가장 큰 샘
- ⑥ 작은샘: 마을에서 우물이 두 개 있을 때 규모가 작은 샘
- ⑦ 쌍둥이샘: 샘에서 물을 떠 먹고 쌍둥이를 낳은 샘
- ⑧ 들샘: 들판 한가운데 있는 샘
- ⑨ 서당샘: 서당 근처에 있는 샘
- ⑩ 청룡골샘: 마을이 청룡형국이고 청룡이 물을 마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⑪ 용샘: 용셋골에 있는 샘

- ⑫ 앞샘: 마을 앞에 있는 샘
- ⑬ 뒷샘: 마을 뒤편에 있는 샘
- ⑭ 너머샘: 마을 넘어 들판에 있는 샘
- ⑮ 두부샘: 샘물로 두부를 만들어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⑯ 관샘: 우수영을 지나던 관리들이 먹었던 샘
- ⑰ 까치샘: 병든 까치가 이 샘물을 먹고 낳았다고 붙여진 샘
- ⑱ 참샘: 물 맛이 참으로 좋다고 해서 붙여진 샘
- ⑲ 갯샘: 바닷가 근처에 있는 샘
- ⑳ 새터샘: 마을에 새롭게 집터를 잡고 판 샘
- ㉑ 새샘: 새롭게 판 샘
- ㉒ 원샘: 원래부터 있는 샘
- ㉓ 절샘: 절이나 절터에 있는 샘
- ㉔ 가운데샘: 마을 한가운데 있는 샘
- ㉕ 불로정샘: 이 물을 먹고 마을 사람들이 장수를 바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

우물은 어떤 재료로 축조했을까

우물을 축조할 때 쌓은 재료는 자연석, 판석, 장대석, 시멘트, 시멘트 토관(土管·노깁) 등이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이전의 우물에서는 자연석, 판석, 장대석을 사용하여 우물을 축조하였다.

자연석을 사용한 우물은 대부분이 규모가 작고, 원형으로 축조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축조 대상은 마을 공동우물 보다는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우물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우물에도 자연석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송천마을 웃샘, 황산면 병은마을 이참판댁 후처집

우물 황산면 교동마을 공동샘 등이다.

판석을 사용한 우물은 마을의 공동우물을 축조할 때 주재료로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장방형의 판석을 4면을 쌓은 우물이 대부분이고, 6각형으로 쌓은 우물도 3개소가 존재한다. 조선시대 이전의 마을 공동우물이 대부분이 경우이다. 대표적인 우물은 문내면 서상마을 방죽샘, 문내면 명량마을 공동샘Ⅱ, 문내면 동리마을 웃샘과 아랫샘, 북평면 이진마을 장군샘 등이다.

장대석을 사용한 우물은 장대석을 정렬하게 쌓아 조성한 우물로 그 수량은 극히 제한적이며 방형으로 축조한 우물에만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우물로는 화원면 구림마을 큰샘이 대표적이다.

시멘트를 사용하여 축조한 우물은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에 시멘트가 일본에 의해 보급되면서 건축재료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물에서는 대부분 우물을 보수하면서 자연석이나 판석을 사용한 우물을 철거하고 시멘트로 다시 축조하거나, 보수 시 아이들이 물에 빠지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물을 높게 쌓을 때 대부분 시멘트를 사용하여 방형이나, 육각형, 오각형 형태로 보수되면서 우물 축조에 많이 사용되었다. 보수 시기는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도 있지만 대부분이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을 실시 하면서 우물 보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재료는 시멘트가 많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우물로는 황산면 기성마을 공동샘, 화원면 상리마을 간뎃샘, 문내면 동외마을 간대손가락샘 등이다.

시멘트 토관을 사용한 우물은 시멘트 토관만을 사용한 우물과, 자연석 우물에 시멘트 토관으로 보수한 우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멘트 토관을 사용한 경우는 1950년대 이후 새롭게 우물을 조성하면서 시멘트 토관 2~3개 정도를 쌓아서 사용하였다. 우물 보수 시에 원형의 자연석 우물에 시멘트 토관을 사용하여 보수하였는데, 대표적인 우물로는 황산면 일신마을 공동샘, 황산면 우항마을 아랫샘 등이다.



위)
자연석을 사용한 경우
교동마을 공동샘 III

가운데)
판석을 사용한 경우
명량마을 공동샘 II

아래)
장대석을 사용한 경우
구림마을 큰샘



위)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기성마을 공동샘

아래)
시멘트 토관을 사용한 경우
우항마을 아랫샘

우물의 외형은 어떻게 생겼나

우물의 형태는 원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 다양하다. 원형 우물은 자연석을 원형으로 쌓은 우물이 대표적이다. 후대에 우물 보수 시 안전을 위해 높게 쌓으면서 둥근 우물에 위에 시멘트 토관을 사용하여 보수한 우물이나 근현대에 새로 우물을 조성하면서 시멘트 토관만을 사용한 우물들로 원형의 우물 범주에 포함 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우물로는 황산면 교동마을 공동샘 Ⅲ, 황산면 우항마을 아랫샘, 황산면 일신마을 공동샘 등이다.

방형의 우물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부터 방형의 판석을 사용하여 축조한 경우로 문내면 동리마을 웃샘과 아랫샘, 문내면 충평마을 아랫샘, 북평면 이진마을 장군샘 등이다. 두 번째는 자연석을 원형으로 쌓은 우물로 후대에 보수하면서 우물의 격을 높이기 위해 방형으로 상부를 쌓은 경우로 황산면 충정마을 공동샘, 문내면 원문마을 앞샘 등이다.

5각형 우물로는 조선시대 이전에는 없던 형태로 후대에 우물을 보수하면서 시멘트를 사용하여 축조한 우물로 문내면 남외마을 원샘 1곳만 남아 있다.

6각형 우물은 방형의 판석을 육각형으로 쌓은 우물과 시멘트를 사용하여 6각형으로 축조한 우물이다. 방형의 판석을 6각형으로 축조한 우물은 조선 후기에 조성된 방죽샘이 맨 처음 등장하고 후대인 일제 강점기에 이를 모방하여 쌓은 우물로 문내면 난대마을 큰샘과 문내면 외암마을 용알샘 등이 있다. 시멘트를 6각형으로 쌓은 우물은 방죽샘을 모방하여 쌓은 우물로 추정되며, 대표적인 우물로는 문내면 원동마을 새샘과 문내면 원암마을 안샘 등이 있다.



위)
서삼마을 방죽샘(육각형)



가운데)
구림마을 큰샘(사각형)

아래)
동리마을 웃샘(사각형)



위)
우항마을 아랫샘(원형)

가운데)
남외마을 원샘(오각형)

아래)
지동마을 황소샘(팔각형)

8각형 우물로는 원형을 자연석으로 쌓은 우물에 마무리를 긴 장대석을 사용하여 축조한 우물로 지동마을 황소샘이 유일하다.

우리는 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해남군 우물은 14개 읍면에 총 272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 모든 우물을 보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학술 조사에서 S급으로 분류한 우물을 대상으로 전남도지정문화재 및 해남군 향토문화유산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S급 이 외의 우물에 대해서는 우물에 등급을 매기고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물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많은 수량이 축조되었으나 현재 남아 있는 수량은 극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해남에는 총 272개소에 이르는 우물이 남아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물이 남아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 유물 중 각 읍면에 소재한 대표적인 우물을 선정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국내외 곳곳에서 지역마다 대표관광자원을 지정하여 지역 특색에 맞게 보존관리 및 관광자원화 하고 있다. 해남에서도 공동우물에 대해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들 들면 우물 형상이 각각 다르므로 우물 모양의 스탬프를 제작하여 방문객이 찍고, 14개 읍면 대표우물을 다 방문한 관광객에 한하여 지역 특산품을 할인하여 주는 등 관광객 유인책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물을 주제로 한 관광코스 개발도 적극 추진해 볼 만하다.

이번에 조사된 해남지역의 우수한 우물들에 대해 홍보하고, 방문을 유도 하기 위해 해남 우물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제작하고 우물만을 대상으로 한 관광 리플릿도 제작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남군 및 읍면의 지원으로 우물들의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수된 우물들의 일부가 원형을 훼손하거나 현대적인 시설물이 등장하여 보수 전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군에서 우물 보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수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후대에 보수한 시멘트나 토관 같은 경우는 원형을 찾기 위해 제거작업 실시하고, 우물 주변에 보호시설 설치 시 석재 우물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재를 사용할 것, 비가림 시설 설치 시 전통에 미를 살린 한옥 지붕 형태의 비가림 시설 설치 등이다.

현재 대부분의 우물 수질이 식수로는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수준이어서 지정문화재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질 관리를 통해 해남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관광자원화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 있는 우물 주변에 농기계, 나무와 풀, 생활 쓰레기 등에 의해 지저분한 곳이 많아 대표적인 우물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쓰레기 정화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용하여 정화작업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노인분들은 우물을 사용하던 분들로 우물에 친숙하고 자기 마을 우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이런 분들이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물 지정 후에는 지정된 우물에 대해서는 우물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진입을 알려주는 안내판과 우물의 내력 및 특징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가 필요하다. 진입안내판은 우물의 위치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요 거점에 진입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물 안내판은 우물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우물에 대한 역사와 특징 등을 알려주어 해남 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2장

해남 우물의 현장



해 남 읍



해남읍(海南邑) 우물 이야기

1409년(태종 9) 해남현이 진도군과 합하여 해진군(海珍郡)이 되고, 1437년(세종 19) 해진군에서 해남과 진도가 분리되면서 해남현이 되었다. 현재의 해남읍이 읍호(邑號)로 처음 불린 것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남면이 되면서이다. 이후 1955년 해남읍으로 승격하였다.

해남은 1409년에 해남현이 진도군과 합하여 해진군이 되고, 치소를 지금의 삼산면 평활리에 있는 구 녹산지로 옮겼다. 1412년에는 옥산 고현성으로 옮겨 지금의 해남읍 성내리에 읍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 진도와 합군되었던 해진군이 다시 해남현으로 분리된 것은 1437년이며, 이때 비로소 현감이 상주하였다. 영암군 관할하에 있던 전라도 해남현 시절에는 지금의 해남읍이 현일면, 현이면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해남현이 나주부 관할 해남군이 된 1895년 5월 12일 이후에는 군일면, 군이면이라 불렀다.

해남읍 북쪽으로는 만대산과 금강산(金剛山)을 끼고 있고 남쪽으로는 덕음산(德陰山)과 말매봉이 있는 평야 지대가 펼쳐져 있다. 만대산은 동쪽에서 남쪽으로 굽어 뻗고, 중간에 우슬재가 있다. 서쪽에는 남곽산이 있다.

해남읍은 해리(海里), 평동리(坪洞里), 읍내리(邑內里), 고도리(古道里), 남외리(南外里), 성내리(城內里), 수성리(壽星里), 신안리(新安里), 연동리(蓮洞里), 안동리(安洞里), 백야리(白也里), 내사리(內四里), 남동리(南洞里), 남천리(南川里), 용정리



조선시대 후기의 해남현 현이면과 현일면(1872년, 해남현지도 부분 인용, 규장각 소장, 奎 10464, 이하 같음), 1914년 현이면과 현일면이 합해져 해남면이 된다.

(龍井里), 구교리(舊校里), 북평리(湫平里) 등 총 17개 법정리가 있다.

해남읍은 지형으로 보아 배드리[호천리] 안과 밖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드리 안 해남읍은 해남읍의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해남천을 중심으로 마을이 밀집되어 있어 관공서를 비롯하여 학교, 상가가 있는 시가지권을 형성하여 도시적 기능이 강하다. 그러나 배드리 밖은 남북으로 뻗어 있는 국도 제13호선을 경계로 하여 논밭과 산을 배경으로 농업 위주의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 변두리권으로 분리된다.

해남읍의 주요 문화유산으로는 윤두서자화상(尹斗緒自畵像)(국보 제240호), 해남윤씨 가전 고화첩 일괄(海南尹氏家傳古畵帖一括)(보물 제481호), 윤선도 종가 문적(尹善道宗家文籍)(보물 제482호),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尹丹鶴 奴婢許與文

記 및立案)(보물 제483호)이 있고, 사적으로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사적 제167호), 천연기념물로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성내리 수성송(守城松)(천연기념물 제430호)이 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는 해남 고산유고 목판 일괄(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19호), 해남 약수사 불교 전적(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22호),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는 판소리고법(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3호), 전라남도 문화재자료는 해남향교 대성전(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77호), 해남 민정기 가옥(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86호) 등이 있다.

해남군 향토문화유산은 해남 연동리 윤재운 고택(尹在運古宅)[9호, 2003년 11월 24일 지정], 해남 성내리 단군전(檀君殿)[12호, 2006년 1월 1일 지정], 해남 용정사(龍井祠)[16호, 2010년 5월 26일 지정], 해남 죽음사 영모재(竹陰祠永慕齋)[23호, 2013년 8월 1일 지정], 신안리 석불입상 및 석탑(24호, 2015년 6월 29일 지정), 금강산성(金剛山城)[27호, 2015년 6월 29일 지정], 해남 신안리 지석묘군(28호, 2015년 6월 29일 지정)이 있다.

해남읍의 우물 현황은 2011년에 발간된 해남의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上)에서 66개소의 우물이 조사되었으나, 개발로 사라졌다는 우물이 대부분이다.

고도리에는 군동샘, 생꽃샘, 약샘이 있고, 고도리에는 명천, 호천, 말피산 우물이 있었다. 남동리에는 방에들 샘이 있었다. 남외리에는 나자구샘, 땅바지샘, 짐작에샘이 있었고, 수성리에는 젓당샘이 있었다. 신안리에는 공동샘, 가래샘, 통샘이 있었고, 연동리에는 공동샘, 갯샘, 통샘, 개샘, 천드래샘이 있었다. 안동리에는 샘잔등샘이 있었고, 백야리에는 개샘, 구덩이샘, 기갯샘, 우무샘, 항샘, 귀덩이샘, 명기샘, 말뚝샘, 바우배기샘, 백호샘, 통샘이 있었다. 내사리에는 말샘이 있었고, 남천리에는 구덩이샘, 중샘, 오리샘이 있었다. 용정리에는 금샘, 마을샘, 용정우물, 말새미우물, 짓새미우물, 약샘이 있었고, 구교리에는 공동샘이 있었다. 복평리에는 샘, 이끼샘, 공동샘이

있었다고 조사되었다.

동네 곳곳의 지명을 조사하면서 샘 또는 샘터가 조사된 듯하다. 우물이 라고 칭하기보다는 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샘의 이름도 다양한 것 같으나 위치나 모양에 따라 샘 이름이 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정착하면서 촌락은 하천의 계곡을 따라 형성되거나 샘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기에 사람이 사는 곳은 반드시 샘이 존재하였다.

마을이 단장되고 농지정리를 하면서 집집마다 지하수를 놓으면서 이제 샘은 메워졌다. 현재 해남읍에 있는 우물을 동네 어르신을 따라 현장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우물 전수 조사에서 9개소를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4개소를 정리하였다.

연번	설명	리	마을	명 칭	주 소	출전,조사
1	○	해리 海里	해리 海里	덕봉쟁이샘	해남군 해남읍 해리 560	신조사
2	○	연동리 蓮洞里	옥동 玉洞	동네샘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342	마을上 96
3	○	내사리 內四里	기동 基洞	윗샘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 104-1	신조사
4			기동 基洞	아랫샘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 106-1	신조사
5		내사리 內四里	부호 夫湖	너머샘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 1197-1	신조사
6			부호 夫湖	새샘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 1197-1	신조사
7		남천리 南川里	남천 南川	공동샘	해남군 해남읍 남천리 341-1	신조사
8	○	용정리 龍井里	용정 龍井	아르데미샘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847	신조사
9		백야리 白也里	부흥 富興	동네샘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133-11	신조사

해리마을 덕봉쟁이샘

- 위치: 해남군 해남읍 해리 560
- 크기: 원형(圓形), 지름 130cm, 높이 70cm

해리마을 덕봉쟁이샘은 해리 해리마을에 있다. 해리는 조선시대에 현일면(縣一面)에 속했다. 뒤에 군일면이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해리와 신교리·동외리·천변리의 각 일부를 붙여 해남면 해리가 되었다. 1955년 해남읍 해리로 개편되었다. 해리는 현재 해리마을과 성동마을이 있다.

해리마을 덕봉쟁이샘은 해남향교와 금강저수지 중간에 있다. 샘 뒤로는 산이 있으며, 주변은 민가로 둘러져 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샘으로 샘물이 바지락을 삶은 물처럼 뿌옇다. 물이 시원하고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청소는 1년에 2~3차례 정도 마을 사람의 울력으로 청소를 하였지만, 지금은 행하지 않고 있다.

샘은 원형 토관(土管·노깁)으로 시멘트 재질이다. 우물의 뚜껑도 시멘트로 만들어졌다.

해리마을은 북쪽으로는 금강산(金剛山)과 접하고, 동쪽으로는 우슬재와 금강저수지가 위치하며 마을 내에는 해남천이 흐르고 있다. 하나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마을의 중심부를 남에엿, 아랫부분은 구르막거리, 하단

은 우땀물, 남쪽은 소룡골, 저수지 아래는 부천동(富泉洞)이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밀물 때면 바닷물이 해남천(海南川)을 거슬러 올라왔다 하여 본래 ‘갯물’, ‘바닷물’이라고 했다가 해리(海里)로 표기하였다.¹



해리마을 덕봉쟁이샘 근경



해리마을 덕봉쟁이샘 위치도

1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上), 해남문화원, 2011, 74쪽.

옥동마을 동네샘

- 위치: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342(읍옥동길 90)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40cm, 세로 140cm, 높이 30cm

옥동마을 동네샘은 연동리 옥동마을에 있다. 옥동마을은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 중심부를 옥동, 아랫부분을 나금배, 하단을 돌고개라고 부른다. 마을 회관을 비롯하여 노인정, 교회, 공동우물이 있다. 옥동마을에는 약 1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공동샘이 있다.²

옥동마을 동네샘은 방형의 우물로 삼면에 판석이 둘러 있고, 나머지 한 면은 판석이 없다. 조성 당시 판석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돌레석에는 “同治二年…” 명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1863년(철종 14)에 조성된 우물이다. 150년이 넘는 우물이다. 물이 시원하고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던 샘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연동리(蓮洞里)는 현재 연동마을, 옥동마을, 남송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上), 해남문화원, 2011, 96쪽.



조선후기 해남현 현일면 연동리(1872년, 해남현지도, 규장각)

옥동마을의 입향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마을 뒷산인 성례산에 있는 성터로 보아 우씨와 지씨로 추정된다. 성터 밑에 우씨와 지씨가 자리를 잡고 살아서 각각 우사골과 지사골이라고 불렸기 때문이다.

옥동마을은 원래 남연리라고 불렸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막리(造幕里)라 부르게 되었다. 막을 치고 사기를 굽던 곳이라고 하여 ‘조막리’라 불렸다고 하였다. 2008년 옥동이라고 개칭되었다. 옥동(玉東)은 해남의 동쪽에 있는 보배 같은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 당시에는 조막동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꽤 오래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옥동마을 동네샘 근경



옥동마을 동네샘 위치도

기동마을 윗샘, 아랫샘

- 위치: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 104-1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 106-1
- 크기: 원형(圓形), 지름 110cm, 높이 70cm
원형(圓形), 지름 140cm, 높이 80cm

기동마을의 윗샘과 아랫샘은 내사리 기동마을에 있다. 기동마을은 형제 봉 또는 가메봉이라 불리는 산에 둘러싸여 있다. 자연 동네의 중심부를 아데미, 윗부분을 우데미, 좌측을 청룡, 우측을 세누계라고 부른다. 1997년에 지은 마을 회관을 비롯하여 노인정, 공동우물이 있다.³

공동우물이 있다고 하나 우물에 관한 지명이 전해지는 것은 없다. 현재 기동마을에는 우물이 2개소가 있다. 우물은 원형 토관(土管, 노깁)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마을 입구에 위치하며 2곳의 우물이 서로 가까이 있다.

기동마을 윗샘은 샘 바로 뒤에 민가의 쌀 건조실이 있다. 아랫샘은 샘 옆에 공장이 있다. 윗샘과 아랫샘은 농지의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내사리(內四里)는 현재 월교마을, 기동마을, 장활마을, 신리마을 등의 자연

3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上), 해남문화원, 2011, 119쪽.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기동마을은 풍수지리상 소의 구시, 구유처럼 생겨서 사구시라 불리었다고 전한다. 기동마을은 약 200년 전쯤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을 피해온 사람들에 의해 마을이 형성되었다고도 전한다. 입향조는 고씨로 마을에 무덤이 있다. 그 밖에 화산면 신평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이씨가 입향조라는 설이 있으며, 그 전에 안씨가 살았다고도 전한다. 1950년 행정구역 변화로 지금의 기동마을이 형성되었다.⁴



기동마을 뽕샘 전경



기동마을 뽕샘 위치도

4 내사리(內四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기동마을 아랫샘 전경



기동마을 아랫샘 위치도

용정마을 아르데미[아랫배미] 샘

- 위치: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847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50cm, 세로 150cm, 높이 50cm

용정마을 아르데미샘은 용정리 용정마을에 있다. 용정마을 형성에 대해서는 마을 회관 옆 100m 지점에 있는 우물에 표시되어 있다. 가로·세로 1.4m, 깊이 1.4m 크기 우물에 김씨, 서씨가 새겨진 표석이 물에 잠겨있다.

용정마을은 금새미[龍井]가 있으므로 금새미 또는 용정, 정머리라고 하였다. 큰 정머리라고도 하며 약 500년 전에 김씨와 서씨가 들어와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전한다.

용정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하룻날 저녁에 산신제를 지냈다. 산신제는 마을 뒤 남각산 산신령께 마을의 평안을 빌고, 질병과 재액을 방지해줄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제일(祭日)이 되면 제물을 제각으로 옮기고 이때 풍물패가 짓궂(제궂)을 치며 제관을 제각까지 인도한다. 제사를 지내고 마을로 되돌아온 제관과 놀이패들은 진설했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예전에는 산신제를 모시고 난 후에 마을 샘 옆에서 거리지(거리제)를 지내거나 마을 어귀에서 샘굿을 쳤으나, 현재는 산재만 지낸다. 용정마을 굿은 해남에서 알아주던 곳이다.⁵

5 해남문화원, 『우리 마을의 풍속』, 1996, 212~214쪽.



조선후기 해남현 현이면 용정리(1872년, 해남현지도, 규장각)

마을 샘곳을 쳤던 샘은 금새미 우물, 아랫배미샘, 용정에 있는 샘으로 불리고 있다.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⁶

아랫배미샘은 용정경로당에서 오른쪽으로 난 길 가운데 있다. 이 샘은 판석을 이용하여 방형으로 축조하였다. 후대에 보수하면서 상부를 시멘트로 높게 쌓았다. 상부는 우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쇠를 사용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하였다.

용정마을에는 농로를 따라가다 보면 4기의 고인돌이 있는 용정 지석묘군(청동기시대), 용정 마을 회관 남동 쪽의 용정 유물산포지(삼국시대), 임진왜란 다섯 충신을 기리는 해남 용정사(龍井祠)[오충사(五忠祠), 1712년 건립]가 있다.⁷

6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上), 해남문화원, 2011, 144~145쪽.

7 용정리(龍井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용정마을 아르데미샘 전경



용정마을 아르데미샘 위치

도

삼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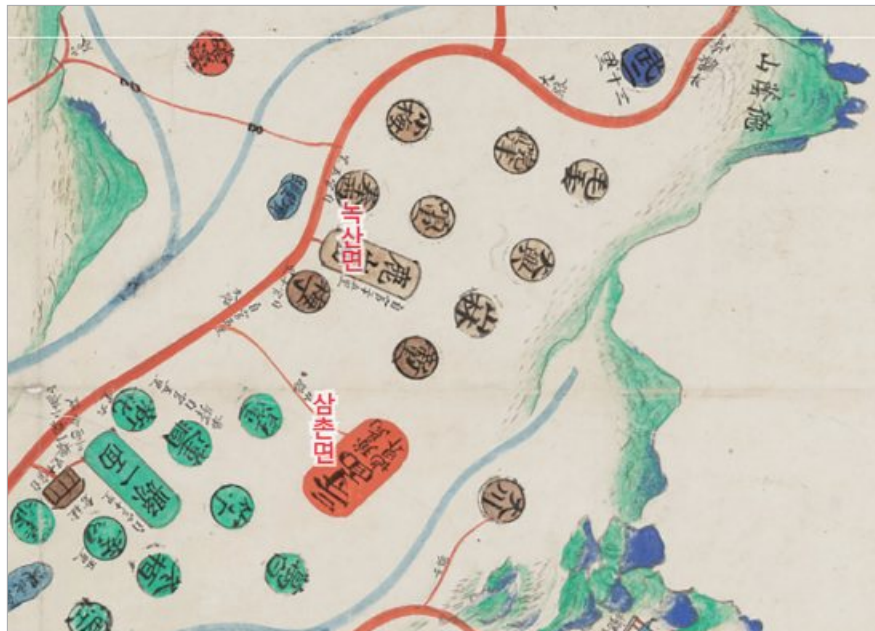
삼산면(三山面) 우물 이야기

삼산면은 본래 해남현 녹산면과 진도군 삼촌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조선시대에 삼촌면 지역은 1437~1906년까지 진도(珍島)의 월경지(越境地, 군현(郡縣) 등 지방 행정 단위의 소속 영역 중 다른 지방 행정 단위의 영역을 넘어 들어가 위치한 지역을 말함)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진도군 삼촌면과 해남군 녹산면을 병합하여 해남군 삼산면이 개설되었다.

삼산면 동쪽으로 옥천면(玉泉面), 서쪽으로 화산면(花山面) 해창포구와 접하고, 남쪽으로 두륜산(頭輪山)을 사이에 두고 북평면(北平面), 북쪽으로는 해남읍과 접한다.

삼산면의 남부에 두륜산이 있고, 그 줄기가 동쪽과 서쪽으로 뻗어 높은 산지를 이루고 있다. 두륜산 장춘동 계곡에서 발원하는 삼산천(三山川) 삼산평야와 어성교를 거쳐 고천암 간척지로 흐른다. 삼산면의 서부에 해남읍에서 완도읍에 이르는 국도가 통하고, 중앙부를 남북으로 해남읍에서 대흥사에 이르는 지방도가 통하여 교통이 편리하다.

삼산면 남쪽에 있는 두륜산 도립공원은 두륜봉을 비롯하여 가련봉, 노성대, 구름다리 등이 있어 계절에 따라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의 해남현 녹산면과 월경처 삼촌면(1872년, 해남현지도, 규장각), 1914년 녹산면과 삼촌면이 합해져 삼산면이 된다.

삼산면은 신흥리(新興里), 창리(昌里), 송정리(松汀里), 봉학리(鳳壑里), 원진리(院津里), 충리(忠里), 구림리(九林里), 평활리(平活里), 상가리(上駕里) 등 총 9개 법정리가 있다.

삼산면의 문화유산으로는 두륜산 대흥사 일원(명승 제66호),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173호), 대흥사(사적 제508호),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국보 제308호), 탑산사명 동종(보물 제88호), 대흥사 북미륵암 삼층석탑(보물 제301호), 대흥사 서산대사탑(보물 제1347호), 대흥사 서산대사 유물(보물 제1357호), 대흥사 금동관음보살좌상(보물 제1547호), 대흥사 천불전(보물 제1807호) 등이 있다. 표충사(전남기념물 제19호), 해남 용두리 고분(전남기념물 제121호) 등이 있다.

삼산면의 우물 현황은 2011년에 조사된 해남의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 (上)』에서 알 수 있다. 삼산면에는 73개소의 우물이 조사되었으나, 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개발로 사라졌다는 우물이 대부분이다.

평활리에는 약샘, 모리샘, 액수샘, 공동샘이 여러 곳에 있었고, 상가리에는 공동샘이 있었다. 신흥리에는 참삼, 백청수, 마구샘, 참샘, 청룡샘, 귀신샘, 천중샘, 장군샘이 있었고, 창리에는 공동샘, 아랫샘, 통샘이 있었다. 송정리에는 개샘, 새밋재, 공동샘이 여러 곳에 있었고, 봉학리에는 방오리샘, 공동샘이 있었다. 원진리에는 샘, 공동샘이 여러 곳에 있었고, 충리에는 꼬작샘, 바가지샘, 빨떡샘, 소태정잇샘, 납쟁이샘, 참샘, 성구샘이 있었다. 구림리에는 금당수, 도선샘, 약샘 등이 있었다고 조사되었다.

동네 곳곳의 지명을 조사하면서 샘 또는 샘터가 조사된 듯하다. 우물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샘의 이름도 다양한 것 같으나 위치나 모양에 따라 샘 이름이 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정착하면서 촌락은 하천의 계곡을 따라 형성되거나 샘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기에 사람이 사는 곳은 반드시 샘이 존재하였다.

마을이 단장되고 농지정리를 하면서 집집마다 지하수를 놓으면서 이제는 샘이 메워졌다. 현재 삼산면에 있는 우물을 동네 어르신을 따라 현장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우물 전수 조사에서 8개소를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3개소를 정리하였다. 한편, 대흥사에는 장군샘 또는 표충시암이라 부르는 샘이 있다.

연번	설명	리	마을	명 칭	주 소	출전,조사
1		평활리 平活里	산림 山林	동네샘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269	신조사
2	○	상가리 上駕里	상가 上駕	웃나무샘 오돌샘	해남군 삼산면 상가리 논 103	상 881
3		창리 昌里	창리 昌里	동네샘	해남군 삼산면 창리 890-1	신조사
4			금산 琴山	금산	해남군 삼산면 창리 359-1	신조사
5		봉학리	신금	동네샘	해남군 삼산면 봉학리 406-1	신조사
7	○	鳳壑里	新今	옹암 甕岩	해남군 삼산면 봉학리 622-1	신조사
6	○	송정리 松汀里	저산 楮山	참샘 당옥샘 구슬샘	해남군 삼산면 송정리 417 앞 논	신조사
8		충리 忠里	대흥 大興	마을샘	해남군 삼산면 충리 1017	신조사

상가마을 옷나무샘[들샘]

- 위치: 해남군 삼산면 상가리 논 103
- 크기: 방형(方形), 가로 240cm, 세로 150cm, 높이 50cm

상가마을 옷나무샘은 상가리 상가마을에 있다. 상가리(上駕里)는 『호구총수』(1789)에 녹산면 상가치리(上加峙里)가 나오며 1945년에 삼산면에 속한다. 현재 상가마을, 중리마을, 계동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상가마을은 덩병산과 앞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고도가 상당히 높은 곳에 마을이 있다. 상가마을은 어성천의 발원지이며 임오년 큰 가뭄에도 산속 골짜기에서 물이 많이 흘러 내려 유일하게 농사를 지었던 마을이다.

상가마을에는 마을회관과 공동우물, 공동 빨래터가 있고, 들 가운데 있는 들샘 옆에 오래된 옷나무가 있는데, 샘을 파면서 심은 것으로 추정한다.¹

상가마을 들샘의 물은 시원하고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1년에 2~3차례 정도 마을 사람의 울력으로 청소를 하고 있다. 최근 샘을 정비하면서 돌담이 둘러 있다.

물청소 하는 것을 ‘우물 친다’라고 하였다. 청명에 벌이는 중국과 달리 우

1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上), 해남문화원, 2011, 880~881쪽.

리는 흔히 칠월칠석에 하였고, 더러는 장마가 지나서 우물 속으로 차오르던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청소하였다. 우물을 칠 때는 그 물을 마시거나 쓰는 집에서 한 사람씩 나섰고, 병이 나거나 하여 빠질 때는 그대로 지나는 것이 관례였다.

우물이 지나치게 크거나 깊지 않으면 사다리를 걸쳐 놓고 사람이 들어서 양동이 따위에 바닥의 흙을 비롯하여 녹슨 두레박과 이것을 건지는 갈퀴리, 삭은 고무신 짝, 실거리하다가 빠뜨린 숟가락이나 젓가락 짝, 비녀 등을 거두었다. 공동우물의 물을 함께 마시는 사람들끼리의 울력은 마을의 큰 행사였다고 한다.



상가마을 뽕나무샘 전경



상가마을 뽕나무샘 위치도

저산마을 참샘[당옥샘, 구슬샘]

- 위치: 해남군 삼산면 송정리 417 앞 논
- 크기: 방형(方形), 가로 210cm, 세로 210cm, 높이 30cm

저산마을 참샘은 송정리 저산마을에 있다. 참샘은 당옥샘, 구슬샘으로 불리고 있다. 샘물은 식수로 사용하는 사용하지만 마을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자연석을 방형으로 쌓은 샘은 들판에 있다. 샘가에 큰 배롱나무가 있으며, 돌담을 둘러 정비하였다. 수조는 방형으로 크고 작은 것이 2개 있다.

저산마을 참샘에서는 매년 양력 12월 27일에 우물 고사[샘제]를 지내고 있다. 우물 고사는 동계와 겹하여 치르고 있으며, 삼산면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다. 매년 우물 고사를 지내고 있는 사례가 드물기에 민속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마을 공동 우물의 경우 대동굿을 할 때 반드시 우물 고사도 함께 올린다. 우물 고사를 지내기 전에는 우물 주변의 잡스러운 오물을 제거하고, 지붕을 씌우거나 금줄을 치기도 한다. 우물 고사는 매년 정해진 날에 하거나, 여름철 홍수로 더럽혀진 우물을 청소한 후 소나 돼지를 잡아서 성대하게 우물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사람들은 우물이 변하지 않고, 늘 맑고 깨끗할 것을 기원했다.

송정리(松汀里)는 진도군 삼촌면의 치소가 있었는데 1906년 해남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저산리와 도토리, 수복리의 각 일부 지역을 합하여 삼산면 송정리가 되었다. 송정마을과 도토마을, 저산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송정리는 굴정(橋亭) 윤구(尹衢)의 동생 윤항이 지은 송정이라는 정자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며, 소나무 정자와 맑은 못이 있어서 송정(松汀)이라 했다고도 한다. 소나무가 많고 물이 좋아서 송호(松湖)라고도 불렀다.

저산마을은 산 밑에 있으며 동북쪽에는 방구재산, 서북쪽에는 왕재산, 동남쪽에는 당산이 있다.

송정리 문화유적으로는 여성운동가이자 시인인 고정희의 생가가 있으며, 2000년대 초부터 고정희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 해마다 송정마을에 있는 고정희 생가와 묘소를 중심으로 고정희 시인의 시와 삶을 기념하는 추모행사를 하고 있다.²

저산(楮山)은 송정 북쪽 산밑에 있는 마을로 대삽골 뒷산에 당신(堂神)을 모시는 당집이 있어 ‘당마을’, ‘당머리’로 불린다. 당 귀신이 있어서 나쁜 일이 있을 때 알려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군수물자로 사용하기 위해 닥나무를 심어 닥나무가 많아지자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닥나무 저(楮) 자를 써서 저산이라고 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저산마을에는 지식묘가 분포하고 있다. 저산마을은 정월 대보름에는 백야마을과 물싸움을 했다.³

2 송정리(松汀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3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上), 해남문화원, 2011, 926~927쪽.



저산마을 참샘 전경



저산마을 참샘 위치도



저산마을 참샘 고사(사진은 해남군 삼산면사무소 제공)



저산마을 참샘 고사

옹암마을 마을샘

- 위치: 해남군 삼산면 봉학리 622-1
- 크기: 원형(圓形), 지름 110cm, 높이 110cm

옹암마을 마을샘은 봉학리 옹암마을에 있다. 마을샘은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 입구에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 샘은 높은 원형 토관(土管)으로 보호각이 씌워져 있다. 보호각 천장에는 도르래를 고정한 흔적이 있다.

고정도르래는 우물의 두레박 등에서 볼 수 있다. 두레박은 바가지를 그대로 쓰거나 양철 또는 판자를 짜서 만드는데, 바닥이 좁아야 물 위에서 쉽게 쓰러져 물을 푸기 쉽다. 흔히 긴 끈이나 긴 대나 작대기로 자루를 박아 쓰기도 한다. 이것은 ‘타래박’이라고 따로 부른다.

두레박질은 흔히 사람이 두 손으로 하지만, 우물가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긴 나무를 가로질러, 한끝에서는 돌을 매달고 다른 한끝에는 두레박을 매달아서 물을 퍼 올릴 때 돌이 내려가는 힘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그 원리가 디딜방아를 닮았다고 하여 ‘방아 두레’라고 부른다. 이밖에 우물 위의 기둥 복판에 수레바퀴를 설치하고, 한 쌍의 두레박을 달아서 번갈아 가며 푸게 한 장치도 있는데, 이것은 ‘쌍 장애’라고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봉학리(鳳壑里)는 마을 뒷산이 매가 나는 지형이라 하여 ‘비매’, ‘비산’이라

부르다가 일제강점기에 ‘봉학(鳳壑)’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봉학마을은 1400년대 중엽에 김해김씨 김세귀(金世貴)가 최초로 들어왔다고 한다. 마을 터가 남향이고, 바람이 잘 통하여 석간수가 나와 살 만한 곳이라 정착하였다고 한다.⁴ 진도군 삼출면에 속했다가 1906년에 해남으로 편입되었다.

봉학리에는 김남주 시인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으며, 봉학리 신금유적(鳳壑里新今遺蹟)이 있다. 이 유적에서는 토기류와 철기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웅암마을 마을샘 전경



웅암마을 마을샘 위치도

4 봉학리(鳳壑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화 산 면



화산면(花山面) 우물 이야기

화산면(花山面)은 고려시대에는 영암군 속현의 한 지역이었다. 조선 초에는 해남과 진도가 합해진 해진군(海珍郡)에서 분리되어 해남현 영역의 일부가 되었다. 조선 말에는 월호 하천을 경계로 북부를 화이면(花二面), 남부를 화일면(花一面)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일과 화이면을 합하여 화산면이 되었다. 화일(花一)과 화이(花二)가 합쳐진 명칭이다.

화산면은 북쪽으로 해남읍, 동쪽으로 현산면, 남쪽으로 현산면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은 바다와 맞닿아 있다. 화산면은 동쪽으로 산악이 즐비하며 구릉과 평야가 서쪽 해안으로 연속으로 펼쳐져 있으며, 서쪽에는 남해의 넓은 바다가 있다. 북쪽에는 고천암호가 있고, 농경지는 바닷가나 호숫가에 발달하여 있다. 토양이 비옥하고 각종 농산물의 생산이 풍부하며, 삼산천(三山川)[16.87km]이 울동리와 연곡리, 금풍리를 지나고 있다.

화산면은 가좌리, 관동리, 금풍리, 방축리, 부길리, 삼마리, 석호리, 송산리, 안호리, 연곡리, 연정리, 월호리, 울동리, 평호리, 해창리 등 총 15개의 법정리가 있다.

화산면의 문화유산으로는 해남 방축리 지석묘군[전라남도 기념물 제115호]과 해남 연정리 지석묘군[전라남도 기념물 제121호]이 있다. 2017년 현재 농업 생산



조선후기의 화일면과 화이면 부근도(반전)(1872년, 해남현지도, 규장각 소장, 奎10464)

현황을 보면 쌀과 고구마, 감자, 배추 등이 생산되고 있는데, 고구마는 생산 면적이 609.6ha, 생산량은 8,430.5M/T로 해남군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다.¹

화산면의 우물 현황은 2011년에 조사된 해남의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하)에서 37개소의 우물이 조사되었으나 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농지정리 등과 같은 개발로 사라졌거나 지금도 있다고 한다.

해창리에는 해창마을 아릿굴-새앎과 웃굴-시앎이 있다. 금풍리에는 명금마을 조산정 시앎, 신평마을 쌍-시앎, 봉저마을 웃-생끼가 있다. 율동리에는 율동마을 샘-골들 샘이 있다. 가좌리 가좌마을 대룡나무-새앎·옴막-샘·통샘, 무학마을 대룡나무-새앎과 옴막-샘이 있거나 있었다고 한다. 관동리에는 관동마을에 건넛-세미·송호리-새미·큰-새미·통-새미가 있다. 월호리에는 선창마을 쌍-새앎·약-새앎, 호동마을 자래밋-시앎, 월호마을 너더릿-새앎

1 화산면(花山面),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이 있거나 있었다고한다. 연정리에는 연정마을 오리-시앰과 주막-시앰, 방축리에는 마명마을 오리-시앰, 석잔마을 꾸리-새암·망치-새암·방애-새암·수랑-새암, 방축마을 대드깨-새앰·복개-새앰·오리-시앰이 있거나 있었다고한다. 부길리에는 은산마을 수랑-새미, 송산리에는 주천마을 강태-새앰이 있거나 있었다고한다. 석호리에는 대지마을 굴-새앰과 통-새앰이 있다. 삼마리에는 삼마마을 굴박-새앰·당념-새앰·말-샘·모잘-새앰이 있다고 한다.

마을 곳곳의 지명을 조사하면서 샘 또는 샘터가 조사된 듯하다. 대부분 샘으로 불리고 있으며 샘의 이름도 위치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화산면은 면지가 발간되지 않아 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많지 않다. 샘들은 마을 길이 단장되거나 농지정리를 하면서 없어지고 집집마다 지하수 관정을 파게 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샘마저도 안전을 이유로 메워지게 되었다.

현재 화산면에 있는 우물을 문헌과 마을 이장의 안내에 따라 현장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우물 전수 조사에서 22개를 확인하였으며 이 가운데 10개소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연번	설명	리	마을	명 칭	주 소	출전,조사
1	○	가좌리 加座里	가좌 加座	공동샘	해남군 화산면 가좌리 331	신조사
2		가좌리 加座里	무학 舞鶴	아랫침샘	해남군 화산면 가좌리 812-3	신조사
3	○	부길리 富吉里	갑길 甲吉	공동샘	해남군 화산면 부길리 599	신조사
4		부길리 富吉里	경도 更島	공동샘	해남군 화산면 부길리 699	신조사
5		부길리 富吉里	부길 富吉	대밭가샘	해남군 화산면 부길리 265	신조사
6		부길리 富吉里	부길 富吉	안샘	해남군 화산면 부길리 274	신조사
7	○	석호리 石湖里	흑석 黑石	공동샘	해남군 화산면 석호리 719	신조사
8		송산리 松山里	시목 柿木	공동샘	해남군 화산면 송산리 883-2	신조사
9		송산리 松山里	탄동 炭洞	공동샘	해남군 화산면 송산리 142	신조사
10		안호리 安湖里	안정 安丁	공동샘	해남군 화산면 안호리 353	신조사
11	○	연곡리 蓮谷里	봉저 峯底	공동샘	해남군 화산면 연곡리 661	신조사
12	○	연정리 蓮井里	석정 石井	공동샘	해남군 화산면 연정리 38	신조사
13	○	연정리 蓮井里	연정 蓮井	중앙샘	해남군 화산면 연정리 610-1	신조사

연번	설명	리	마을	명 칭	주 소	출전,조사
14		연정리 蓮井里	연정 蓮井	공동샘	해남군 화산면 연정리 620-1	신조사
15	○	월호리 月湖里	월호 月湖	공동샘	해남군 화산면 월호길 14	신조사
16	○	월호리 月湖里	호동 湖洞	공동샘	해남군 화산면 월호리 275	신조사
17		율동리 栗洞里	용덕 龍德	공동샘	해남군 화산면 율동리 758	신조사
18	○	율동리 栗洞里	율동 栗洞	샘골샘	해남군 화산면 율동리 247	신조사, 마을下 580
19		율동리 栗洞里	율동 栗洞	안샘	해남군 화산면 율동리 281 (율동길 16)	신조사
20		해창리 海倉里	해창 海倉	동쪽샘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 12 (해창길 5-9)	신조사
21		해창리 海倉里	해창 海倉	서쪽샘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 178-32 (해창길 31-18)	신조사
22	○	해창리 海倉里	해창 海倉	중앙샘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 89	신조사

가좌마을 공동샘

- 위치: 해남군 화산면 가좌리 331
- 크기: 방형, 가로 130cm, 세로 120cm, 높이 40cm, 깊이 180cm, 수심 160cm

가좌마을 공동샘은 가좌리 가좌마을에 있다. 가좌는 조선시대에 해남군 화이면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동리, 입암리와 무학리, 율동리, 관동리의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해남군 화산면 가좌리(可座里)가 되었다.

공동샘은 가좌마을회관에서 인접한 길 건너 논 사이에 위치한다. 우물 자체는 방형 수조형이다. 한 단 높은 논으로 이루어진 남쪽은 지대가 높아 자연적으로 바람을 막아주는 천혜의 지형적 조건을 갖추었으나 북쪽은 지대가 낮아 겨울철에 북풍을 막기 위해 방풍용 돌담을 둘렀다. 이는 빨래터 기능도 겸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돌담의 높이는 사람 가슴의 높이이며 막돌로 쌓아 올렸다. 돌담 상단과 벽체의 돌 사이 사이에 시멘트로 미장하여 담장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보완 공사를 진행하였다. 돌담 3곳에 세로로 길쭉하게 구획을 만들어 시멘트 미장으로 한 개축기 명문이 보인다. 먼저 좌우 돌담 끝 벽에 세로로 음각되었다. 향우는 ‘戊申二月十六日改築竣功 加座公同井戶’이고 향좌는 ‘戊申二月十六日改築竣功’이다. 중앙에도 가로와 세로로 병행 음각된 우물 준공

기 명문은 가로는 ‘우리자랑’, 세로는 ‘一九七一年四月七日 우물준공 조은샘 독에셋작금’이다.

개축준공 연대는 ‘戊申二月十六日’로 1968년 2월 16일에 해당하고 우물 준공 연대는 ‘一九七一年四月七日’로 1971년 4월 7일이다. 서로 3년 이상의 시간적 경과를 보이고 개축준공과 우물준공으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존에 있던 돌 담장을 개축한 연대는 1968년 2월 16일이고 우물을 준공한 연대는 1971년 4월 7일이다.

우물 초축연대는 정확히 판정키 어려우나 수조형 우물은 고식의 방식이고 담장의 명문에 담장 개축연대와 우물준공 연대가 기록된 의미 있는 마을 공동샘으로 그 가치가 높다.

마을에서는 그냥 동네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우물 내부는 이끼가 많이 끼어 있어 알 수 없었으나 마을 주민 증언에 의하면 석축으로 방형 모양으로 쌓고 그 위에 다시 방형으로 시멘트 테두리 마감을 하였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마을 생길 때부터 있던 샘이라고 한다. (김기식, 1944년생)

돌담 중앙일부가 무너졌고 우물 내부에 이끼가 많이 끼어 있다.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다. 논둑을 이용하여 접근해야 하는 관계로 잡초가 우거지면 진입하기도 어렵다.

가좌마을은 박씨와 김씨가 입향하여 터를 마련하였고, 임씨가 살았다는 임텃골이 있다. 약 600여 전에 경주김씨와 한양조씨가 마을의 지세를 보고 화산면 월호리에서 정착하였다고 한다. 이후 본 마을인 입암의 지형이 용꼬리 형태여서 용꼬리가 비틀어지게 되면 가산이 탕진된다고 하여 용머리 형태인 지금의 마을로 옮겨 왔다고 한다. 가좌리는 북쪽으로 울동리, 동쪽으로 월호리, 남쪽으로 관동리와 부길리와 접하고 있고, 서쪽은 바다와 맞닿아 있다. 가좌마을, 무학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기와를 굽는 터였다고 하여 ‘와등’, ‘왓등’, ‘와초’라고 불리었다가 가좌로

명칭이 변하였다.²

가좌리는 간척으로 농토가 생기기 전에는 어업이 중심이었던 마을이었다. 현재 지형을 보면 서쪽은 바다를 접하고 있고, 간척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 마을의 중심에는 간척으로 넓은 농토가 펼쳐져 있어 쌀이 생산되고 있고, 가좌리회관 동쪽으로 저수지가 있어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무학마을은 진도와 관두산이 인접하여 있다.



가좌마을 공동샘 전경



가좌마을 공동샘 위치도

2 가좌리(可座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위)
가좌마을 공동샘 조성기

아래)
가좌마을 공동샘 원경



갑길마을 공동샘

- 위치: 해남군 화산면 부길리 599
- 크기: 방형, 가로 196cm, 세로 183cm, 높이 20cm

갑길마을 공동샘은 부길리 갑길마을에 있다. 갑길은 조선시대에 해남군 화일면 지역에 속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부곡리, 칠암리, 갑길리, 봉황리 일부 지역을 합하여 화산면 부길리(富吉里)가 되었다. 부길마을, 갑길마을, 은산마을, 정도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공동샘은 갑길마을 안쪽인 갑길리길 55-2 삼거리 모서리에 위치한다. 상부는 낮은 방형 시멘트로 샘 테두리를 둘렀으며 하부는 방형 장대석 판석으로 축조된 수조형 샘이다. 가로 세로가 2m 가까이 크기로 규모가 큰 편이다. 최소 일제강점기까지 연대를 올려볼 수 있는 샘이다. 지금도 물이 맑고 수량이 풍부하다. 부서진 철재 대문을 덮어 놓았다. 호수를 연결하여 인근 밭에서 농업용수로 사용 중이다.

갑길마을은 송산리에 살았던 장수황씨 후손이 최초로 입향하였다고 한다. 갑길마을은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화일면 지역 각길(各吉)로 나와 있으나 마을 개편을 하면서 이름을 갑길(甲吉)이라 하였다.³ 문화유적으로는 1986년과 1996년, 2002년 세 차례 목포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부길리 은산 고인돌이 있다.

3 부길리(富吉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갑길마을 공동샘 전경



갑길마을 공동샘 내부



갑길마을 공동샘 위치도

흑석마을 공동샘

- 위치: 해남군 화산면 석호리 719
- 크기: 칠각, 지름 230cm, 깊이 300cm, 수심 220cm

흑석마을 공동샘은 송암리 흑석마을에 있다. 흑석은 조선시대에 해남군 화일면 지역에 속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흑석리, 장명리, 대인리, 대지리, 주천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해남군 화산면 석호리가 되었다.

공동샘은 흑석마을 안길 삼거리인 마을회관에서 북으로 100m거리인 마을 안길 삼거리 길옆에 위치한다. 칠각과 팔각이 중첩된 시멘트로 개축된 지름이 상당히 넓은 우물이다. 우물 상부는 칠각 시멘트로 5년 전에 개축하였으나 내부 상단부에는 훨씬 오래된 8각 시멘트 벽으로 이루어졌고 그 밑은 보이지 않는다. 앞쪽에 물이 넘칠 때 흘러나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았다. 예전에는 물이 넘쳐서 바가지로 퍼내기도 했으며 온천수처럼 김이 모락 모락 날 정도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물이라고 한다.

마을에서는 몇백 년 된 우물이라고 하나 시멘트로 개축된 상태여서 정확히 고증키 어려우나 칠각과 팔각이 중첩되고 규모가 큰 점으로 미루어 최소 1800년대 우물로 추정된다. 시멘트 뒤쪽으로 석축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물 상부를 칠각 시멘트로 5년 전에 개축하였을 정도로 마을에서 깊

은 관심을 두고 관리 중이지만 수질 상태는 좋지 못하다.

흑석마을은 약 1400년경에 김해허씨(金海許氏)가 처음 입향하여 짱바탕이라는 곳에 터를 마련하였다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 왔다고 한다. 이후 임진왜란 때 해남윤씨 윤단중(尹端中)이 우탁산의 형태가 학이 집을 짓는 모양으로 터를 잡기에 좋다 하여 해남읍 연동리에서 들어왔다고 한다. 석호리는 북쪽으로 관동리, 동쪽으로 송산리[화산면], 남쪽으로 평호리, 서쪽으로 바다와 접하고 있다. 석호리는 흑석(黑石), 좌일(佐日), 대지(大只)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⁴

문화유적으로는 흑석마을에 흑석패총(黑石貝塚)이 있다. 또한 해남군 지정 보호수인 수령 250년의 푸조나무가 있다. 1982년 12월 3일 보호수로 지정되었다[지정 번호는 15-14-3-3].

4 석호리(石湖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흑석마을 공동샘 전경



흑석마을 공동샘 내부



흑석마을 공동샘 위치도



봉저마을 공동샘

- 위치: 해남군 화산면 연곡리 661
- 크기: 방형, 가로 173cm, 높이 30cm, 세로 171cm, 깊이 240cm, 수심 220cm

봉저마을 공동샘은 연곡리 봉저마을에 있다. 봉저는 조선시대에 해남군 화이면 지역에 속하였다. 1914년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봉정리, 용덕리의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화산면 연곡리(蓮谷里)가 되었다.

공동샘은 봉저마을 북서쪽인 마을회관에서 북서쪽으로 100m 거리에 위치한다. 방형 수조형 우물로 우물과 빨래터 기능을 겸했다. 빨래터 수조는 130×140cm이다. 우물 수조에서 빨래터 수조로 물이 유입되고 있다. 수조 내부에는 이끼와 녹조로 덮혀 있다. 우물 주변은 봉저길 26 밭과 도로 사이에 시멘블럭 담장을 둘렀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관리상태가 좋지 못하지만 우물과 넓은 빨래터를 겸한 공동샘으로 가치가 높다.

봉저마을은 약 600년 전에 전씨가 처음 입향하였고, 1586년 무렵 원주이씨, 진주강씨가 정착하였다고 한다. 연곡리는 북쪽으로는 삼산천이 흐르고 있고, 동쪽으로 금풍리, 남쪽으로 월호리, 서쪽으로 울동리와 접하고 있다. 연곡마을과 봉저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연곡리는 마을 앞산 형태가 연꽃이 물에 떠 있는 것 같다 하여 연꽃이라

부르다가 한자 연곡(蓮谷)으로 바뀐 데서 연곡리(蓮谷里) 지명이 유래하였다.⁵

연곡마을은 예전에 포구로 이름을 알렸다. 구녕포 또는 구룡포, 고어란, 고어란포, 구해창 등으로 불렸다. 연곡마을 서쪽 끝 구랑 아래 있는 나루터는 제주로 가는 배들이 머물렀으며, 송지면 어란리에 있는 어란포터가 본래는 이곳이었다. 그리고 해연창(海蓮倉)의 터이기도 하다. 이것으로 보아 연곡마을의 형성 시기는 조선시대 이전으로 보고 있다.



봉저마을 공동샘 전경



봉저마을 공동샘 중 샘 근경

5 연곡리(蓮谷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봉저마을 공동샘
빨래터 수조



봉저마을 공동샘 위치도

석정마을 공동샘

- 위치: 해남군 화산면 연정리 38
- 크기: 육각형, 지름 122cm, 높이 67cm, 깊이 560cm 이상, 수심 310cm

석정마을 공동샘은 연정리 석정마을에 있다. 연정은 조선시대에 해남군 화이면 지역에 속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석정리와 연화리, 신평리, 봉저리, 월호리의 각 일부 지역을 합하여 화산면 연정리(蓮井里)가 되었다.

공동샘은 석정마을 남동쪽 석정길 33 가옥 인근이며 마을회관에서 남동쪽으로 100m 거리이다. 상부는 육각형 시멘트로 테두리를 둘렀지만 하부는 정연한 원형 석축이다. 하부 석축은 상당한 크기의 막돌로 쌓았다.

내부에는 pvc관이 6개, 엑셀 파이프가 1개 연결되었다. 30년 전까지도 식수로 사용했고 마을 전성기 때는 43가구가 이용했던 우물이라고 한다. 2년 전에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놓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은 주민들이 허드렛물이나 밭작물에 이용한다. 7월 칠석때 공동으로 우물 청소한다. 철관으로 덮어 놓았으며 관리상태는 양호하다.

석정마을은 약 450년 전에 무안박씨가 입향하였고, 그 뒤 동복오씨가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연정리는 북쪽으로 금풍리, 동쪽으로 해창

리, 남쪽으로 방축리, 서쪽으로 월호리와 접하고 있다. 연정마을, 석정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연정리의 명칭은 연화(蓮花)와 석정(石井)의 이름을 따서 연정리(蓮井里)라고 하였다. 석정마을은 마을에 지석묘와 정자나무가 많아 석정(石丁)이라 하다가 행정구역 개편 때 석정(石井)이라 개칭하였다.⁶

문화유산으로는 청동기시대의 해남 연정리 지석묘군이 1997년 5월 15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165호로 지정되었다. 해남군에는 96개군 1086기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다. 좁은 범위 안에 48기의 고인돌이 군집한 해남 연정리 지석묘군은 53기로 이루어진 화산면 방축리 지석묘군(方丑里支石墓群)에 이어 해남군의 대표적인 지석묘군이다.

6 연정리(蓮井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석정마을 공동샘 전경



석정마을 공동샘 내부



석정마을 공동샘 위치도

연정마을 중앙샘

- 위치: 해남군 화산면 연정리 610-1
- 크기: 방형, 가로 230cm, 세로 210cm, 앞면 높이 27cm, 좌우측면 높이 50cm, 뒷면 높이 80cm, 깊이 140cm, 수심 140cm

연정마을 중앙샘은 연정리 연정마을에 있다. 중앙샘은 연정마을 중앙인 연정길 78 인근에 있다. 방형 수조형 장대석 판석 우물이다.

뒷면은 높고 좌우 옆면은 보통이며 앞면은 낮은 전형적인 방형 수조형 장대석 판석으로 축조된 우물이다. 앞면 중앙 하단에 구멍을 뚫어 물이 흘러 넘치게 하였다. 지금도 많은 물이 흘러넘친다. 뒷면 일부분에 정연하게 다듬어진 부분에 글자가 있는데 돌 이끼가 심해 판독하기 어렵다. 최소 일제 강점기까지 연대를 올려볼 수 있는 우물이다.

주변에는 시멘블럭 담장을 ‘ㄷ’자 형태로 앞쪽이 터지게 둘렀다. 엑셀파이프를 연결해서 농업용수로 사용 중이다. 잡초가 우거지고 쓰레기가 일부 보이지만 관리상태는 양호하다.

연정마을은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 화이면에 속한 연화동으로 나온다. 장흥군 장동면 만연리에서 강릉유씨(江陵劉氏) 유구한(柳龜漢)이 들어와 터를 잡았다고 한다. 연화(蓮花)와 석정(石井)의 이름을 따서 연정리(蓮井里)라고 하였다. 연정마을은 모래가 많고 내(川)가 흐른다 하여 마새내, 사천리라 부르다가 마을 앞에 연못이 있다 하여 연화동(蓮花洞)이라고 불렀다.



연정마을 중앙샘 전경



연정마을 중앙샘 내부



연정마을 중앙샘 위치도

월호마을 공동샘

- 위치: 해남군 화산면 월호리 88
- 크기: 팔각, 지름 156cm, 높이 69cm, 깊이 49cm, 수심 360cm

월호마을 공동샘은 월호리 월호마을에 있다. 월호는 조선시대에 해남군 화이면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선창리, 재동리와 봉저리, 연화리의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해남군 화산면 월호리(月湖里)가 되었다.

공동샘은 월호마을 남쪽 끝인 마을회관으로부터 남서쪽으로 200m 거리에 위치한다. 팔각 시멘트 상부에 정연한 원형 석축으로 조성된 우물이다. 상부는 팔각형 시멘트이다. 하부 석축은 막돌로 정연하게 쌓았으며 그 크기가 상당하다. 내부가 보일 정도로 물이 맑다. pvc관 3개와 쇠 파이프 2개, 엑셀파이프 4개 등이 연결되어 있다. 양철스레트로 뚜껑을 덮어 놓았다. 지금은 가정에서 지하수를 굴착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동네 주민들이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있다. 도롯가에 인접하고 있어 일부 잡초와 영농자재들이 적치되어있기는 하지만 관리상태는 양호하다.

월호의 한 지역인 노하에서는 김씨가 먼저 이주하였다고 전한다. 월호리는 북쪽으로 연곡리, 동쪽으로 연정리, 남쪽으로 부길리, 서쪽으로 가좌리

와 접하고 있다. 선창마을, 재동마을, 호동마을, 월호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월호마을은 ‘노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노하(路下)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월호(月湖)라는 지명도 나온다. 마을 입향조가 월채산에 떠오르는 달이 연못에 비추는 것을 보고 시를 짓다 마을 이름을 ‘월호(月湖)’라 지었다고 전해진다.⁷

2013년 11월 2일 월호리에서는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에서 개최한 ‘해남 고구마캐기체험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해남 고구마 체험 학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남고구마체험학습장’과 ‘해남고구마그림그리기대회’ 등과 더불어 해남 고구마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월호리는 밤고구마 품종을 개량해서 기존 호박고구마보다 당도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해남 꿀고구마 재배지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월호리에는 보호수가 존재한다. 수종은 향나무로 풍치와 수세가 좋다. 희귀 수종으로 관리가 필요하여 1982년 12월 3일 보호수로 지정되었다[지정번호는 15-14-3-1]. 밀양박씨 입향조가 입향하면서 삼은 것이라고 전해지고, 수령은 약 350여 년 정도 되었다.

7 월호리(月湖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월호마을 공동샘 전경



월호마을 공동샘 내부



월호마을 공동샘 위치도

호동마을 공동샘

- 위치: 해남군 화산면 월호리 275
- 크기: 원형, 지름 390cm, 깊이 250cm, 수심 170cm

호동마을 공동샘은 월호리 호동마을에 있다. 공동샘은 호동리 마을회관에서 동쪽으로 도로를 건너 또 다른 호동리마을의 길과 밭 사이에 위치(월울길 84-36 앞)한다. 원형 수조형으로 테두리에 막돌로 석축을 둘렀다. 테두리는 지름이 매우 넓다. 대형 원형 수조형 석축 우물로 매우 독특한 우물 형식이다. 이러한 원형 석축 수조형 우물은 해남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었다. 앞쪽으로 흙을 파서 물길을 내었고 2m 가까이의 배수로를 연도처럼 만들었다. 내부 석축은 깊어질수록 안으로 비스듬하게 좁아진다.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물이 푸르스름할 정도로 맑다.

호동마을은 김해김씨 선조 묘가 있어 김귀혁이 입향하였다고 한다.⁸

◆ 마을역사, 마을지형, 마을명 유래, 자연마을 구성 등은 월호마을 공동샘편 참조

8 월호리(月湖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호동마을 공동샘 전경



호동마을 공동샘 내부



호동마을 공동샘 위치도

율동마을 샘골샘

- 위치: 해남군 화산면 율동리 247
- 크기: 방형우물, 가로 113cm, 세로 153cm, 높이 30cm, 수심 120cm
장방형 빨래수조 가로 83cm, 세로 430cm

율동마을 샘골샘은 율동리 율동마을에 있다. 율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용덕리(龍德里) 일부를 병합하여 해남군 화산면 율동리(栗洞里)가 되었다.

샘골샘은 율동마을에서 도로를 건너 남동쪽에 자리한 북부길 633-13 가옥과 밭 옆에 위치한다. 방형 수조형 우물과 장방형 수조형 빨래터가 2단으로 층을 달리해 물이 연결되었다. 밭과 경계인 시멘트 옹벽에 '준공 1971년 4월27일 감독 윤장호'라는 준공기를 한글로 새겨놓았다. 이 명문은 옹벽과 우물 및 빨래터, 계단 등을 시멘트로 보수한 준공을 의미한다. 400년 전 마을이 처음 생길 때부터 사용한 샘이라고 하나 고증키 어렵다. 1년 사찰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맑으며 수량도 풍부하여 예전에는 아랫녘 논은 이 샘물로 농사를 다지었다고 한다. 샘에서 정월 설날, 정월대보름 때 마을사람 뿐 아니라 타지 사람들까지도 와서 자손 잘되라고 공을 들인다고 한다(윤영철 89세). 지금도 인근 논밭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키 위해 물을 끌어가는 호

스들이 연결되었다. 잡초와 쓰레기가 일부 보이기는 하나 관리상태는 양호하다. 역사적 연원이 깊고 우물과 빨래터가 연결된 사례로 개축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자료적 가치가 높다.

율동마을은 1540년 무렵 송산리 시목마을에서 해남윤씨 윤후강(尹厚綱)이 입향하였다고 한다. 윤후강은 슬하 5형제 중 첫째 윤형은(尹衡殷)과 셋째 윤광은(尹匡殷)이 같이 왔다고 한다. 율동마을은 해남윤씨 동족마을이다. 율동리는 북쪽으로는 황산면 한자리, 동쪽으로 연곡리, 남쪽으로 가좌리, 서쪽으로 바다와 접하고 있다. 율동마을과 용덕마을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율동마을은 밤나무가 많아 밤나무골, 밤골이라고 불리다가 한자로 율동(栗洞)으로 부르게 되었다.⁹

1985년 1월 전라남도는 해남군 황산면(黃山面) 증의도(證衣島)와 화산면(花山面) 율동리를 연결하는 고천암 간척지 조성 사업을 착공하여 1988년에 완공하였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고천암 간척사업으로 넓은 경지가 생겨 생업이 갯벌 일에서 농업으로 변하였다. 간척사업 전에는 조개 채취 등 갯벌 일을 하였으나 간척지가 생기면서 1가구당 농경지 15마지기를 보상받았다. 밭작물로는 마늘, 고추, 깨 등을 재배한다. 간척된 땅의 경계 지역에는 고천암 갈대밭이 있다.

9 율동리(栗洞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울동마을 샘골샘 전경



울동마을 샘골샘
시멘트 보수 준공기



울동마을 샘골샘 위치도



해창마을 중앙샘

- 위치: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 89
- 크기: 내부 팔각, 외부 원형, 지름 250cm, 높이 80cm, 깊이 450cm, 수심 310cm

해창마을 중앙샘은 해창리 해창마을에 있다. 해창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海倉里)가 되었다.

중앙샘은 해창 마을 중앙인 동쪽방향으로 마을회관에서 안길로 100m 거리인 삼거리 모서리에 위치한다. 상부는 팔각시멘트에 하부는 석축으로 축조된 우물이다. 상부 내부는 팔각시멘트로 그대로 남아 있으나 최근에 보호각을 건립하면서 외부를 원형으로 막돌로 석축을 쌓았다. 하부는 비교적 큰 막돌로 정연하게 쌓은 우물이다. 내부 석축으로만 보자면 만든 연대는 일제강점기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상부는 여러 차례 개축되었을 것이다. 근래에 보호각과 샘 외부를 수리하는 등 마을에서 샘 관리에 정성을 다한다. 수질은 내부가 보일 정도로 맑다.

해창마을은 1400년대에 김해김씨가 최초로 입향하여 해창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가 현재 위치로 옮겨온 후 원주이씨, 인동장씨, 밀양박씨가 이주하였다고 한다. 해창리는 동쪽으로 삼산면 원진리, 남쪽으로 현산면 구시리, 서쪽으로 화산면 금풍리, 북쪽으로 해남읍 내사리와 접

하고 있다. 해창리는 해창마을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해창마을 갯가에 정자나무가 많았으므로 석호정(石湖亭)이라 하다가, 연곡리(蓮谷里)에 있는 해창(海倉)이 옮겨 와 창촌(倉村), 신해창(新海倉)이라 한 데서 해창리(海倉里) 지명이 유래하였다. 해창시(海倉市)가 『조선지리지』에서 확인된다.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의하면 해창마을은 화이면(花二面)에 속한 신해창(新海倉)마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해창리에는 해창주조장이 자리하고 있다. 산제(山祭)와 해신제(海神祭)를 지내 왔으나, 고천암 간척으로 인하여 2008년부터 해신제는 지내지 않고 산제만 지내고 있다.

문화유적으로는 해창 지석묘군(海倉支石墓群)이 있다. 삼불산과 양자산 사이의 낮은 구릉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열을 지어 300m 거리에 16기가 분포하고 있다. 해창주조장 맞은편 도로변 민가 담장을 의지하고 이용우 선정비(李洛遇善政碑)[1903] 3개가 일렬로 세워져 있다. 이용우 선정비는 해남군수를 지낸 이용우의 선정(善政)과恤民(恤民)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10 해창리(海倉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해창마을 중앙샘 전경



해창마을 중앙샘 내부



해창마을 중앙샘 위치도

현 산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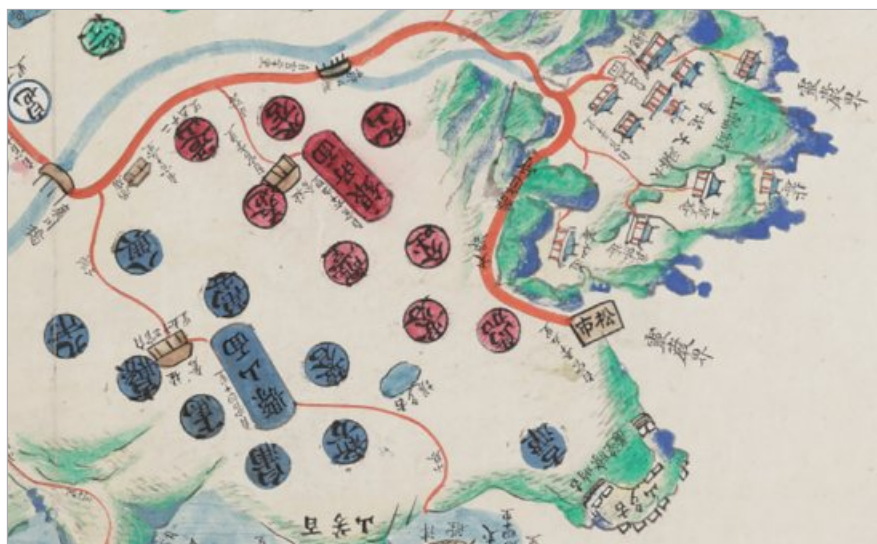


현산면(縣山面) 우물 이야기

현산면(縣山面)은 고려시대 940년(태조 23) 해남으로 고쳐 영암군 임내로 하였고, '해남'의 읍호가 이때 비롯되었다. 조선 초 1409년(태종 9)에는 해남현을 진도와 합하여 해남군으로 하고 치소를 지금 삼산면 녹산역성지로 옮겼다. 임진왜란 후 지방 제정비에 따라 은소면과 현산면으로 나뉘었다. 1895년(고종 32) 나주부 해남군, 1896년 전라남도 해남군에 속하게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은소면 관할 14개 동리와 현산면 관할 38개 동리를 폐합하여 11개 리로 개편하면서 해남군 현산면이 되었다.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송지면 월송리에 속한 6개의 리(里)가 현산면으로 편입되어 12개 리가 되었다. 지금의 현산면은 백제 새금현(塞琴縣)의 현읍이었으며, 새금현은 지금 화산면과 현산면에서 월송(月松)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설립되었다.

현산면은 남동쪽에 도솔봉(673.4m)이 솟아 있고, 구시리에는 구시저수지, 백포리에는 저수지인 신방지가 있다. 현산면에는 현산천(縣山川)[12.38km]이 있다. 현산천은 만안리에서 발원하여 구시저수지를 경유, 신방리 앞 들에서 구산천과 합하여 두모수문으로 흐른다. 기후는 온화한 해양성 내륙 기후로 한서의 차가 심하지 않고, 강우량이 많아 농작물 재배가 적합하다. 현산면



조선후기의 현산면과 은소면 부근도(1872년, 해남현지도, 규장각 소장, 奎10464)

은 북쪽으로 삼산면, 동쪽으로 삼산면, 남쪽으로 송지면, 서쪽으로 화산면과 접하고 있다.

현산면은 만안리, 구시리, 고현리, 덕흥리, 일평리, 읍호리, 백포리, 초호리, 황산리, 구산리, 조산리, 월송리 등 12개 법정리가 있다.

현산면의 문화유산으로는 해남 윤선도 유적[사적 제432호], 해남 윤철하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153호], 해남 공재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232호], 해남 월송리 조산 고분[전라남도 기념물 제86호], 현산 두모리 패총[해남군 향토유적 제5호], 해남 현산면 효열부 나주임씨 정려[해남군 향토유적 제13호]가 있다. 주요 농업 생산물로 쌀과 보리, 고구마, 마늘 등이 있다.¹

화산면의 우물 현황은 2011년에 조사된 해남의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

¹ 화산면(花山面),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하)에서 28개소의 우물이 조사되었으나 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농지정리 등과 같은 개발로 사라졌거나 지금도 있다고 한다.

만안리에는 만안마을 드레박-시암과 쪽박-시암이 조사되었다. 구시리에는 하구시 마을 통-샘, 고현리에는 고현마을 단다리-새샘·뜰정자-새샘·물맞는-새샘·뒷굴 샘·신나밭-새샘·질갓-새샘·희-샘, 학의마을 가쟁-새샘·벽커리-새샘이 있다고 한다. 덕흥리에는 덕흥마을 어덕-새샘, 공북마을, 추네-새샘이 조사되었다. 읍호리에는 읍호마을 학-샘, 고담마을 고담-시암·새땃-시암·절터-시암이 있다고 한다. 백포리에는 백포마을 통샘, 장등마을 범-새샘이 있다고 한다. 초호리에는 초호마을 통-새샘, 신방마을 들 샘·통-새샘, 황산리에는 황산마을 돈-새샘이 있다고 한다. 조산리에는 참샘미, 월송리에는 월송 통-새샘, 중산마을 주-새샘, 향교마을 구렁-새샘이 있다고 한다.

마을 곳곳의 지명을 조사하면서 샘 또는 샘터가 조사된 듯하다. 대부분 샘으로 불리고 있으며 샘의 이름도 위치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현산면은 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많지 않다. 샘들은 마을 길이 단장되거나 농지정리를 하면서 없어지고 집집마다 지하수 관정을 파게 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샘마저도 안전상 이유로 메워지게 되었다.

현재 현산면에 있는 우물을 문헌과 마을 이장의 안내에 따라 현장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우물 전수 조사에서 11개를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2개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번	설명	리	마을	명 칭	주 소	출전, 조사
1		구산리 龜山里	방두 방두	공동샘	해남군 현산면 구산리 56-1	신조사
2		덕흥리 德興里	덕흥 德興	공구터샘	해남군 현산면 덕흥리 170	신조사
3	○	백포리 白浦里	백포 白浦	아랫배미샘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602-5	신조사
4		월송리 月松里	향교 鄉校	구렁아랫샘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1195-2	신조사
5		월송리 月松里	향교 鄉校	새샘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1201-2	신조사
6		읍호리 挹湖里	고담 古潭	들샘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909	신조사
7		일평리 日平里	탑동 塔洞	안골샘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132 (탑동리길 130-2)	신조사
8		초호리 草湖里	신방 新芳	공동샘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541-2	신조사
9		초호리 草湖里	초호 草湖	통샘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96-1	下 493
10		황산리 黃山里	분토 粉吐	공동샘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949-3	신조사
11	○	황산리 黃山里	원진 元津	공동샘 (一九一七年)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732	신조사

백포마을 아랫배미샘

- 위치: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602-5
- 크기: 방형, 가로 130cm, 세로 120cm, 깊이 150cm, 수심 150cm

백포마을 아랫배미샘은 백포리 백포마을에 있다. 백포는 1914년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두모리와 장등리를 병합하여 백포리라 하고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白浦里)가 되었다.

아랫배미샘은 마을 남쪽 방향인 아래쪽인 백포길 125-6 길 옆에 위치한다. 점판암 장대석을 이용해 방형으로 결구된 우물이다. 뒷쪽이 높고 좌우 옆이 중간이고 앞쪽이 낮은 점판암 장대석을 이용해 방형으로 결구된 우물이다. 샘 바닥에는 돌들을 깔아 놓았다. 윗배미샘도 있었으나 매몰되었다. 석질은 송지면 미야리 큰 샘과 동일한 점판암이다. 앞쪽 판석 하부에 뚫어진 구멍을 통해 물이 넘쳐 흐른다. 예전에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 pvc 관 3개를 연결하였다. 장방형 판석과 송지면 미야리 큰샘이나 소죽리샘과 동일한 축조 방식으로 조선후기에서 일제강점기 초기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단부 내외면은 시멘트로 일부 보수되었다. 양철 슬레이트로 덮어놓았다. 샘 주변은 한쪽 면이 길 옆에 위치하여 석축으로 축대를 쌓았으며 다른 두 면은 시멘블럭으로 담을 둘렀다. 샘 외부는 잡초가 많이 우거졌지만 물

이 맑고 샘 내부의 관리상태는 좋다.

백포마을은 약 400여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며, 먼저 장흥마씨가 청룡산 밑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 약 250년 전에 공재 윤두서[恭齋 尹斗緒, 1668~1715]가 백포에 별장을 두었지만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아 오래 살지는 않았다. 그 후 공재의 넷째 아들인 윤덕훈[1694~1757]과, 윤덕후[1696~1750], 윤덕중[1714~1778]이 마을 터가 좋다는 이유로 분가하여 정착하였다고 한다.

백포리는 북쪽으로 화산면 송산리, 동쪽으로 초호리, 남쪽으로 송지면 군곡리와 접하고 있다. 백포마을, 두모마을, 장등마을, 경수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백포리는 백방산 밑에 있는 포구라 하여 백포 또는 백방포라 불렸다. 일설로는 백포마을을 바라보면 하얗게 보여 백포리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간척되기 이전 포구 연안에 굴과 꼬막 껍데기가 패총처럼 쌓여 있어 하얗게 보였다는 것이다.²

문화유산으로는 해남 공재 고택이 있다. 조선시대 가옥으로서 1996년 2월 9일 국가민속문화재 제232호로 지정되었다. 윤두서묘가 백포마을 뒤편 산자락에 있다. 윤재관 고택 옆에 해남윤씨 재실인 모선당(慕先堂)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윤재관이 건립한 정면 5칸, 측면 2칸 반 규모의 건물이다. 2001년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제5호로 지정된 해남 현산 두모리 패총과 2006년 향토문화유산 제13호로 지정된 현산면 효열부 나주임씨 정려가 있다.

2 백포리(白浦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백포마을 아랫배미샘 전경



백포마을 아랫배미샘 내부



백포마을 아랫배미 샘 위치도

원진마을 공동샘

- 위치: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732
- 크기: 방형, 가로 165cm, 세로 160cm, 높이 70cm, 깊이 330cm, 수심 250cm

원진마을 공동샘은 황산리 원진마을에 있다. 원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분토리, 용암리, 원진리, 학동리와 현산면의 봉동리를 병합하여 현산면 황산리(黃山里)가 되었다.

공동샘은 마을 서쪽 끝 밭 가인 원진마을회관에서 서쪽으로 130m 거리에 위치한다. 샘 상부는 방형이나 지하는 원형 석축으로 이루어졌다. 석축은 막돌로 쌓았다. 샘 지하 축조 방식이 상당히 오래된 우물로 추정된다. 샘 정면 외벽에 “一九一七年”(1917년)이라 음각한 명문이 세로로 쓰여있다. 처음 축조한 연대를 후대에 시멘트로 보수하면서 새겨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쪽 일부만 터진 ‘口’형 돌담을 둘러다. 돌담 상부와 외부를 시멘트로 미장하였다. 담장 일부가 무너졌고 샘물을 농업용수로 끌어다 쓴 고무 호스가 주변에 쌓여 있다. 뚜껑은 반만 시멘트로 덮어놓았다.

원진마을은 조선 말에 위씨가 처음 정착하였으나 폐촌되었다가 김해김씨 안경공과 김정일에 의해 다시 형성되었다고 한다. 황산리는 북쪽으로 덕흥리, 동쪽으로 조산리, 남쪽으로 구산리, 서쪽으로 읍호리와 접하고 있다. 황

산마을, 분토마을, 원진마을, 봉동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황산리는 흙이 누래서 누렁메라 불리어 오다가 황산(黃山)이라 개칭된 데서 명칭이 유래하였다.³

현산면 황산리 봉동 구수골 일원에는 계곡과 편백림이 어우러진 현산 봉동 삼림욕장이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남군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과 놀이가 중심이 된 휴양시설로 조성되었다. 또한 2016년에는 해남군에서 마을 행정을 종합평가하여 14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였는데, 여기에 황산리가 선정되었다.

3 황산리(黃山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원진마을 공동샘 전경



원진마을 공동샘 내부



원진마을 공동샘 위치도



송지면



송지면(松旨面) 우물 이야기

송지면(松旨面)은 통일신라 때 신라 지방제의 특수 행정구역인 향(鄉)·부곡(部曲)으로 있었다. 고려시대 초에는 송양현이라는 이름으로 영암군에 속하였다. 향소부곡은 현 단위보다는 작은 규모의 특별행정구역이다.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고적조를 보면 송지부곡(松旨部曲)이 등장하는데 이는 지금의 송지 지역을 말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월경(越境)은 영암의 옛 임내인 목천, 팔마, 신개, 거요량, 홍의, 북평, 송지, 심정의 땅이 군의 남쪽으로 들어왔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해남현과 관련하여 월경처는 군현의 경계를 넘어 소재한 행정구역을 말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송지부곡이 현의 남쪽 60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409년(태종 9) 향·소·부곡의 폐지와 함께 송지부곡은 사라지고 영암군 송지시면과 송지종면으로, 일부 지역은 해남군 은소면 지역으로 편제된다.

1906년에 영암군 관할에서 해남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은소면, 영암군의 송지시면과 송지종면을 합하여 해남군 송지면이 되었고, 면사무소를 미야리(美也里)에 두었다. 1933년 면사무소가 산정리로 옮겨졌다. 1921년 완도군 군외면에 속해 있던 어불리를 어란리에 편입



조선후기의 송지시면과 송지종면 부근도(1872년, 영암군지도 부분 인용, 규장각 소장, 奎10505)

하였고, 어란리가 커짐에 따라 어란리에 속하였던 동현, 내장, 외장의 3개 마을을 갈라서 동현리를 새로 설치하여 16개 리가 되었다. 1973년 월송리를 현산면에 이속시키고, 동현리를 다시 어란리에 합하면서 14개 리가 되었다.

달마산(達磨山)[470m]은 해남읍에서 남쪽으로 28km 지점인 송지면에 있는 산이다.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암석미가 일품이며 천년 고찰 미황사가 있다. 송지천(松智川)[6.75km]은 송지면 달마산 미황사 계곡에서 발원하여 군곡저수지에 들어가 송지면 가차리 송암마을로 흐른다. 송지면의 해안선은 해남군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경치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 남서쪽으로는 크고 작은 산들과 완만한 구릉들이 바다와 접한다. 기후는 온난한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다. 송지면은 북쪽으로 현산면, 동쪽으로 북평면, 남쪽으로 바다, 서쪽으로 바다와 접하고 있다. 1982년 산정마을에 일개 반으로 있던 엄남과 산정2구가 분리되면서 14개의 법정리 42개 행정리가 되었다.

송지면 문화유산으로는 해남 미황사 대웅전[보물 제947호], 해남 미황사 응진당[보물 제1183호], 「미황사 패불탱」[보물 제1342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명승 제59호], 해남 군곡리 패총[사적 제449호], 해남 송호리 해송림[전라남도 기념물 제142호]이 있다. 주요 농업 생산물로는 쌀과 고구마, 마늘, 배추, 화훼가 있고, 수산물은 김이 많이 생산된다. 매년 12월 31일 일몰시부터 다음해 1월 1일까지 송호리 땅끝마을에서 ‘땅끝해넘이해맞이축제’가 열리고 있다.¹

송지면의 우물 현황은 2011년에 조사된 해남의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상)에서 37개소의 우물이 조사되었는데 농지정리 등과 같은 개발로 사라졌거나 지금도 남아있다고 한다.

금강리에는 금강마을 마을우물과 참샘, 월강마을 앞샘, 뒷재샘, 군곡리에는 방치마을 뒷샘, 현안마을 성샘, 신정마을 뒷골샘과 장두샘이 있었다. 가차리에는 송암마을 우물(3개소), 부평마을 부평리 샘(마을 우물 9개)이 있었다. 학가리에는 신평마을 웃골샘과 비선골샘, 꽃샘, 봉루샘이 있었다. 우근리에는 우근마을 양철샘, 미야리에는 미야마을 두꺼비샘, 독샘, 큰샘, 통샘, 영평마을 마을 샘물, 개대기샘이 있었다. 어란리에는 내장마을 참샘골샘, 외장마을 통샘, 어란마을 북문샘이 있었다. 소죽리에는 소죽마을 소죽샘, 송호리에는 송호마을 불셋개샘, 중리마을 용난골 샘이 있었다. 통호리에는 통호마을 용새끼 샘, 사구마을 웃샘과 아랫샘, 참샘골 샘이 있었다. 마봉리에는 마봉마을 시앙골샘, 장척마을 마을샘, 신흥마을 목샘이 있었다. 해원리에는 신기마을 참샘골 샘, 삼마마을 봉좌샘, 서정리에는 서정마을 장군샘이 조사되었다.

마을 곳곳의 지명을 조사하면서 샘 또는 샘터가 조사된 듯하다. 대부분 샘으로 불리고 있으며 샘의 이름도 위치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1 송지면(松旨面),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송지면지(2009년)에서는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상, 2011년)에 수록된 33개소 외에 7개소를 추가하였다.

샘들은 마을 길이 단장되거나 농지정리를 하면서 없어지고 집집마다 지하수 관정을 파게 되면서 그나마 남아 있던 샘마저도 안전상 이유로 메워지게 되었다.

현재 송지면에 있는 우물을 문헌과 마을 이장의 안내에 따라 현장에서 살펴보고있다. 이번 우물 전수 조사에서 34개를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12개소를 정리하였다.

연번	설명	리	마을	명칭	주소	출전, 조사
1		가차리 加次里	부평 扶坪	부평리샘	해남군 송지면 가차리 676-3	하 76 면지 529~530
2		가차리 加次里	송암 松岩	공동우물 (大正九年)	해남군 송지면 송암리 183-4 (송암길 50)	신조사
3	○	가차리 加次里	화내 禾內	윗샘	해남군 송지면 가차리 630	면지 536
4		가차리 加次里	화내 禾內	중간샘	해남군 송지면 가차리 676-3	면지 536
5	○	군곡리 郡谷里	방처 芳處	뒷샘 (戊午)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308-1	하 53-54 면지 477
6		군곡리 郡谷里	현안 縣安	공동우물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299	하 62 면지 491~492
7		금강리 今江里	금강 今江	공동우물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425-1	하 44 면지 456
8		금강리 今江里	금강 今江	참샘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508-3	하 44 면지 461

9	○	금강리 今江里	월강 月江	가운데샘 (隆熙辛亥)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351-2	하 49 면지 467
10		금강리 今江里	월강 月江	동쪽샘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371-2	신조사
11		금강리 今江里	월강 月江	뒷재샘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299-3	하 49
12		금강리 今江里	월강 月江	서쪽샘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343-3	신조사
13		마봉리 馬峰里	마봉 馬峰	공동샘	해남군 송지면 마봉리 554-2	신조사
14		마봉리 馬峰里	신흥 新興	공동샘	해남군 송지면 마봉리 1217	신조사
15		마봉리 馬峰里	신흥 新興	들샘	해남군 송지면 마봉리 1200-1	하 173 면지 731
16		미야리 美也里	미야 美也	마을안샘	해남군 송지면 미야리 401	하 97~98 면지 572~573
17	○	미야리 美也里	미야 美也	큰샘	해남군 송지면 미야리 193-19	하 98 면지 569, 573
18		미야리 美也里	영평 永坪	공동샘	해남군 송지면 미야리 12답 (영평길 11-3)	하 102 면지 584~589
19		산정리 山亭里	산정2리 山亭	감나무골샘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329-3	면지 422
20		산정리 山亭里	석수 石首	공동샘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1074-3	신조사
21		산정리 山亭里	석수 石首	점등샘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168	면지 422
22		산정리 山亭里	엄남 庵南	공동샘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456-1 (엄남포길 29-2)	면지 434

23	○	서정리 西亭里	치소 雉所	새샘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366-2	면지 774
24	○	소죽리 小竹里	소죽 小竹	소죽샘 (嘉慶十三年)	해남군 송지면 소죽리 499-1	하 129 면지 638
25		송호리 松湖里	중리 中里	공동샘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97-1	면지 677
26		어란리 於蘭里	내장 內長	참샘(절샘)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366	하 112 면지 600
27		어란리 於蘭里	동현 東峴	새샘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987-2	면지 593
28	○	어란리 於蘭里	어란 於蘭	아랫샘 (大正四年)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1317	신조사
29		어란리 於蘭里	어불(도) 於佛	목금샘 (大正十八年)(?)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어불	면지 628
30		어란리 於蘭里	어불(도) 於佛도	야학당샘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어불	면지 628
31		어란리 於蘭里	외장 外長	통샘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436	하 114-115 면지 606, 608
32	○	통호리 桶湖里	사구 沙口	아랫샘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63-1 (사구미길 82-3)	하 162 면지 712
33		통호리 桶湖里	사구 沙口	웃샘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160	하 162 면지 712
34		통호리 桶湖里	통호 桶湖	용새끼샘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461	하 159 면지 697, 703

송암마을 공동우물

- 위치: 해남군 송지면 가차리 183-4
- 크기: 방형, 가로 133cm, 세로 132cm, 높이 80cm, 수심 5m 이상

송암마을 공동우물은 가차리 송암마을에 있다. 가차는 『호구총수(戶口總數)』(1789년)에는 가차내(加次乃)로 기록된 이래 1914년에는 행정구역 개편 때 화내리, 송암리와 은소면의 향리를 합하여 해남군 송지면 가차리(加次里)가 되었다.

송암리북지회관에서 서쪽으로 200m 거리인 마을 중앙 옆 송암길 50 가옥 향우 뒤횥에 위치한다. 우물 상부는 방형이지만 하부 석축은 상당한 크기의 막돌로 쌓았다. 우물 상부 내부 시멘트로 미장된 부분에 ‘大正九年六月’(1920년)이라는 음각명문이 새겨졌다. 이 샘 조성기는 시멘트로 우물 상부와 주변 시멘블럭 담장을 보수할 당시(1970~80년대) 적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부 석축은 상당한 크기의 막돌로 쌓았다. 돌은 매우 크고 정연하며 잘 축조되었다. 우물 둘레에 시멘블럭 담장으로 보호구획이 쳐져 있어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가차리(加次里)는 마을 앞이 배 모양이고 뒤는 학이 나는 전선후비학(全船後飛鶴) 형국으로, 배의 앞이 멍에 모양이기 때문에 마을 이름에 멍에 가(駕)를 쓰고, 배를 차에 비유한 수레 차(車)를 써서 마을 이름을 가차(駕車)라 하였다고 전한다. 가차마을, 송암마을, 부평마을, 화내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가차마을의 입향조는 경주이씨 이홍서(李弘緒)로 1600년쯤 충북 청원군 미암면 수락동에서 청원군수로 있다가 부인 서산유씨와 함께 내려와 정착하였다. 송암마을은 바닷가에 연한 포구 마을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백포방조제가 축조되면서 본격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하였다.²

가차리에는 서울상회땅끝염전, 서울염전, 송암염전 등이 있으며, 학가마을은 굴과 꼬막을 채취하고 김 양식을 한다. 문화유산으로는 화내 지석묘군과 화내 패총이 있다.



송암마을 공동우물 전경



송암마을 공동우물 내부

2 가차리(加次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송암마을 공동우물 축조기



송암마을 공동우물 위치도

화내마을 윗샘

- 위치: 해남군 송지면 가차리 630
- 크기: 방형, 가로 178cm, 세로 185cm, 높이 50~80cm, 수심 120cm

화내마을 윗샘[웃샘]은 가차리 화내마을에 있다. 윗샘은 화내마을 맨 위쪽인 서쪽 끝인 가차화내길 99-5 길가에 위치한다. 깊지 않으나 판석형 샘으로 석조 옆에 또 다른 석조를 만들어 빨래터로 이용하고 있다. 장방형 판석 등의 상태로 보아 100년 이상 된 샘으로 추정되며 수량이 풍부하고 지금도 2가구가 식수로 사용할 정도로 물이 맑다.

시멘트로 일부 보수되었으나 장방형 판석으로 잘 짜 맞춰져 있고 물속과 바닥에도 큰 자연석이 보인다. 샘과 빨래터 주변으로 ‘口’자 형으로 석축을 쌓아 샘터를 구획하였다.

화내마을에는 두 개의 샘이 있다. 당산 바로 밑인 마을 제일 위에 있는 샘은 윗샘이며 마을 중간에 있는 샘은 중간샘이다. 웃샘은 물이 달고 맛이 좋아 지금도 마을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샘 주변의 몇 가정은 모터를 이용해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샘가에는 배롱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여름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중간샘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정월대보름날 동네 아낙들이 인근 마을의 샘에 가서 샘물을 훔

쳐오는 풍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동네 물이 많아지고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남자들은 다른 동네의 들독을 몰래 갖다 놓았다.³

뒤에는 대밭이 있고 주변에는 배롱나무가 심어졌다. 뚜껑을 덮어 놓았으며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

◆ 마을역사, 마을지형, 마을명 유래, 자연마을 구성 등은 송암마을 공동우물편 참조



화내마을 뽕샘 전경



화내마을 뽕샘 위치도

3 『마을사』, 『송지면지』, 2009, 536쪽.

화내마을 중간샘

- 위치: 해남군 송지면 가차리 676-3
- 크기: 방형, 가로 115cm, 세로 119cm, 높이 76cm, 샘깊이 5m 이상, 수심 5m 이상

화내마을 중간샘은 가차리 화내마을에 있다. 화내마을 중간쯤인 가차화내길 103 옆에 위치한다. 우물 외형은 방형(사베허트)이나 내부 지하는 원형이며 하부 석축은 상당한 크기의 막돌로 쌓았다.

화내마을에는 두 개의 샘 중에 중간에 위치한 샘이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정월대보름날 동네 아낙들이 인근 마을의 샘에 가서 샘물을 훔쳐오는 풍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동네 물이 많아지고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남자들은 다른 동네의 들독을 몰래 갖다 놓았다.⁴

두레박으로 사용하다가 주변 20~30가구가 양수기로 집마다 연결해 사용하였다. 뚜껑을 덮어 놓았으며 관리상태는 양호하다.

◆ 마을역사, 마을지형, 마을명 유래, 자연마을 구성 등은 송암마을 공동우물편 참조

4 「마을사」, 『송지면지』, 2009, 536쪽.



화내마을 중간샘 내부



화내마을 중간샘 위치도

방처마을 뒷샘

- 위치: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308-1
- 크기: 방형, 가로 195cm, 세로 182cm, 높이 5cm, 깊이 140cm, 수심 90cm

방처마을 뒷샘은 군곡리 방처마을에 있다. 방처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정리, 안곡리와 은소면의 방처리와 완도군 보길면의 삼마리 일부를 병합하여 송지면 군곡리(郡谷里)가 되었다.

뒷샘은 네 모서리의 결구 방식이 독특한 장대석으로 이루어진 샘이다. 샘 구획석에 명문이 있다. 향우에서 향좌 방향으로 음각이다.

방처마을에는 샘이 두 군데에 있다. 마을 중앙에 있는 가운데 샘과 마을 뒤편 군곡 답 2374번지에 있는 뒷샘이 있다. 가운데 샘은 전 주민이 식수로 사용했던 샘이고 뒷샘은 수량도 풍부하며 물이 시원하고 좋아 식수와 빨래 터로도 이용되었다. 뒷샘이 생기기 전에 그 위에 동화수샘이 있었는데 이 물을 먹은 사람들이 디스토마로 죽은 일이 발생하면서 동화수샘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뒷샘 샘들에는 연도가 새겨진 명문이 있으나 마모가 되어서 알 수가 없다. 뒷샘을 만든 돌은 진도에서 가져왔는데 백포방조제가 생기기 전이어서 진도에서 배로 실어다가 방처마을 뺨에 내려서 돌 밑에 나무를 대어서 이동시켰다고 한다. 돌은 사방 2m정도 되는 판석으로 8개를 실

어왔다.⁵

명문은 일부 훼손되었으나 명문은 ‘戊午八口 이후 훼손’이다. 명문과 석재 상태로 보아 조성시기는 ‘戊午八口(年)’인 1918년으로 판단된다. 네 매의 판석을 짜 맞추고 그 위에 다시 네 매의 판석을 덮었다.

샘 주변을 ‘ㄷ’자형으로 시멘블록으로 담을 둘렀다. 예전에는 아낙네들이 저녁에 목욕도 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식수나 빨래터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샘 주변이 어수선하다. 마을 주민들이 양수기를 동원해 하우스에서 농업용수로만 사용하고 있다.

방치마을은 조선 말에 들어온 서씨가 입향조라고 하나 자료나 기록은 없다. 군곡리는 북쪽으로 현산면 백포리, 동쪽으로 현산면 초호리, 남쪽으로 해원리, 서쪽으로 바다와 접하고 있다. 방치마을, 군안마을, 현안마을, 신정마을의 4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주민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주 소득원은 넓은 간척지에서 군곡저수지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쌀이다. 특작물로 마늘을 재배하고 있으며, 무화과도 재배하고 있다.

문화유산으로는 2003년 7월 2일 사적 제449호로 지정된 해남 군곡리 패총이 있다. 철기시대의 패총으로서 규모는 8만 3569㎡이다. 1983년 처음 확인되었다.

5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上), 해남문화원, 2011, 53~54쪽,
「마을사」, 『송지면지』, 2009, 477쪽.



방척마을 뒷샘 전경



방척마을 뒷샘 조성기



방척마을 뒷샘 위치도

현안마을 공동우물

- 위치: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299
- 크기: 방형, 가로 146cm, 세로 146cm, 높이 30cm, 깊이 200cm, 수심 190cm

현안마을 공동우물은 군곡리 현안마을에 있다. 공동우물은 마을 중앙인 현안마을회관에서 동쪽으로 100m에 위치한다. 방형 우물로 내부 바닥에 판석이 깔려 있고 벽은 돌, 테두리는 시멘트로 조성되었다.

마을에는 샘이 두 곳 있다. 마을 중암샘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아 인근 신정마을과 방치마을 사람들까지 사용할 정도였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마을 동남쪽 당산 산기슭에서 흘러나오는 성샘은 손때가 묻어있지 않은 샘으로 지름이 30cm 정도 되는 웅덩이다.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으며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따뜻하다. 이 성샘은 마을주민들이 비손(두 손을 비비면서 치성을 드림)을 할 때 길어다가 정한수로 썼다. 며칠 전부터 왼새끼로 켜 새끼줄을 치고 새끼줄 사이사이에 빨간 형짚을 끼워놓아 부정 타는 것을 막고 뗏다. 현안마을 노인들은 모두 큰 병이 없이 여생을 보내는데 마을 샘물이 좋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⁶

6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上), 해남문화원, 2011, 62쪽.

「마을사」, 『송지면지』, 2009, 491~492쪽.

우물 주변은 뒷집과 옆집의 축대와 돌담으로 구획하였다. 공동 상수도용 양수기 보관 슬라브 건물이 옆에 있다. ‘서기 1979. 12. 2. 준공’이라는 슬라브 건물 건립기를 음각했다. 샘 테두리에는 앞쪽으로 물이 빠지도록 홈을 파놓았다. 지금도 인근 주민들이 허드렛 물로 사용하고 끓여 먹기도 한다. 관리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군안리(郡安里)는 1789년 편찬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안곡(安谷)으로 나오며, 현안 앞마을인 방처·군안 지역을 군안골이라 하였다.

◆ 방처마을 뒷샘편 참조



현안마을 공동우물 전경



현안마을 공동우물 위치도

월강마을 가운데샘

- 위치: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 351-2
- 크기: 방형, 가로 150cm, 세로 140cm, 높이 55~110cm, 깊이 220cm, 수심 160cm

월강마을 가운데샘은 금강리 월강마을에 있다. 월강은 1906년(광무 10)에 영암군 송지시면과 송지종면이 송지시종면으로 합하여 해남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동리, 월강리, 만수리를 합하여 해남군 송지면 금강리(今江里)가 되었다.

가운데샘은 월강마을 회관에서 서쪽으로 100m 거리의 마을 중앙에 위치한다. 장대석 판석으로 짜 맞춘 방형 우물이다.

마을에는 샘이 네 군데에 있다. 앞샘이라고 부르는 샘에는 마모가 심하여 원본을 알아볼 수 없으나 희미하게나마 ‘隆熙三年己酉(1909년 추정)’이라고 보이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목재에 있는 뒷샘은 주로 빨래를 많이 했던 곳이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여름이면 목욕도 많이 했다. 마을이 예능 대회에 참가하거나 체육경기에 출전할 때는 이곳에 있는 샘독을 뒤집고 나갔다. 이런 일 이외에는 이곳의 샘독을 뒤집으면 건너편 두모리 처녀들이 바람이 난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마을 가운데 샘에는 정월 초이튿날 당제를 모실 때 음식과 허수아비를 놓고 샘굿을 친다. 월강 샘은 모두 매몰되

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⁷

4개의 샘은 가운데샘, 동쪽샘, 뒷재샘, 서쪽샘이다.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그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가운데샘은 7년 전까지 정월 초이튿날에 샘제를 지냈다. 우물 바닥과 물속 벽은 장대석으로 잘 짜 맞추어 놓았다. 여기에서는 잣밥을 드시니 빨래를 못한다고 한다. 앞면을 시멘트로 보강했다. 높은 벽석 안쪽에 세로로 5줄의 명문이 음각되었다. ‘隆熙辛亥七月日(혹은 三年己酉) 金致具 林雨成 □同 □下□□’ 隆熙三年己酉는 1909년, 隆熙辛亥七月日是 1911년이다. 金致具와 林雨成가 우물 조성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조선말기 우물이다.

금강리(今江里)는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에 금강(錦江)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을 앞 가공산[335m]이 옥녀가 비단을 짜는 옥녀직금(玉女織錦) 형국인데, 산의 오른쪽에 물레재, 바람재가 있어서 짠 비단을 펼쳐 놓은 곳이어서 비단 금(錦) 자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금(今) 자로 바뀌었다.⁸ 금강마을과 월강마을이 있다.

월강마을에는 당제(堂祭)가 있다. 음력 1월 14일 밤 8시경에 마을 뒷산에 위치한 당집에서 당제를 지내며, 마을의 평안과 무사고를 기원한다. 제를 주관하는 제관은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보고 2명을 선정한다. 제관들은 당집에서 지낸 후 마을에 있는 술대에서 소지를 올린다. 이후 마을회관 앞에 마련된 거리제장에서 만들어진 허수아비를 얹혀 놓고 마을의 액을 가져가기를 기원한 후 마을 인근에 위치한 금강교 밑에 갖다 버리는 행위를 한다. 술대는 과거에 2개가 있었으나 1개만 남아 있다. 마을에서는 술대가 마을로 침입하는 재앙을 막아준다고 믿고 있으며, 진대·남자장승과 여자장승으로도 불리고 있다.

7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上), 해남문화원, 2011, 49쪽.

『마을사』, 『송지면지』, 2009, 467쪽.

8 금강리(今江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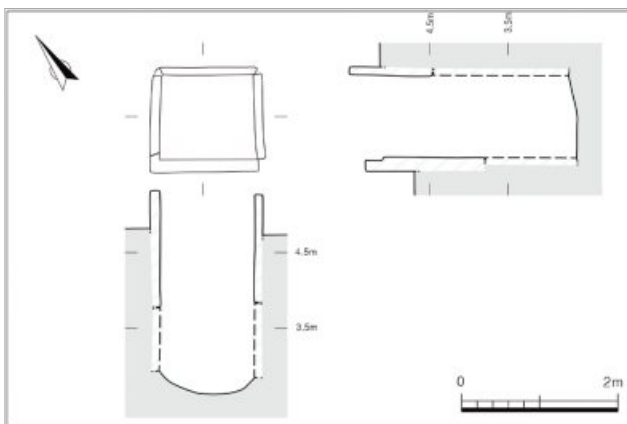
월강마을 가운데샘 전경



월강마을 가운데샘 조성기



월강마을 가운데샘 위치도



월강마을 가운데샘
평면도, 입면도

미야마을 큰샘

- 위치: 해남군 송지면 미야리 193-19
- 크기: 방형, 가로 171cm, 세로 160cm, 높이 30~40cm, 수심 135cm

미야마을 큰샘은 미야리 미야마을에 있다. 미야는 조선시대에 은소면 지역에 속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마원리, 미학리 일부를 합하여 송지면 미야리(美也里)가 되었다. 미야리에는 두꺼비샘(미야리 북쪽에 있는 샘), 통샘(미야리 북쪽에 있는 샘, 쇠젓등 사람들이 먹고 살았으나 지금은 없어짐)이 있었다고 한다.⁹

큰샘은 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400m 거리인 미야마을 맨 위쪽인 북쪽에 위치한다. 큰샘은 마을 200여호가 모두 이 샘물을 이용할 만큼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았다. 큰샘은 식수로만 사용했으며 샘 아래로 빨래터를 두어 흘러내린 물로 빨래를 하였다.

점관암 장대석 판석으로 결구 된 우물이다. 네 개의 장대석으로 샘 테두리를 형성하고 그 아래로도 두 줄이 더 연결되어 모두 세 줄의 장대석 판석으로 조성되었다. 뒷면이 높고 좌우 옆면은 중간이며 앞면이 낮은 형태로

9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上), 해남문화원, 2011, 98쪽.
「마을사」, 『송지면지』, 2009, 569·573쪽.

결구되었다. 앞면 하단에 물이 흘러 빠지도록 사각 구멍을 마련했다. 높은 판석 부분 중앙에 명문을 새겨 넣으려고 다듬어 놓은 부분이 있으나 명문은 새기지 않았다. 석질은 현산면 백포리 아랫배미샘과 같은 점판암이다. 장방형 판석과 결구 방식 등이 소죽리샘과 동일한 축조 방식으로 조선후기에서 일제강점기 초기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판 중앙 상면 일부가 인위적인 타격으로 파손되었다. 주변 논과 길 사이에 입구쪽이 터진 ‘口’자형 시멘블록 담을 둘렀다. 잡초가 자라고 있으나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

미야마을은 1627년 사화를 피하여 송지면 대죽리에 정착하였던 경주정씨 정진의 증손 정대흥(鄭大興)이 미야리로 넘어와 살았다고 하며, 일설에는 배씨, 백씨, 유씨 등이 먼저 살았다고 한다. 미야마을, 강남마을, 영평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에 해남군 은소면에 속한 독야전(禿也田)으로 나와 있다. 미야마을 경주정씨 집안 호구단자에도 은소면 독야지(禿也只)로 나타난다. 1862년 마을의 풍속이 아름답다 하여 민둥산을 뜻하는 독(禿) 자 대신 아름다울 미(美) 자를 써 미야(美也)라 하였다.¹⁰

미야리(美也里)의 위쪽으로 산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대부분 간척지로 마을의 중앙에는 미야지가 있어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1918년 우근방조제로 형성된 농경지를 ‘개들’이라 부르고 있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주 소득원은 쌀이다. 특작물로 마늘, 양파,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2009년 5월 9일 마을 입구 도로변에 ‘마을 유래 전통비’를 세웠다. 팽나무 수령은 약 200년이며 1982년 12월 3일 보호수로 지정되었다[지정번호: 15-14-5-1]. 수령 약 300년의 해송은 1982년 12월 3일 보호수가 되었다[지정번호: 15-14-5-4].

10 미야리(美也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미야마을 큰샘 전경



미야마을 큰샘 위치도

영평마을 공동샘

- 위치: 해남군 송지면 미야리 12답(영평길 11-3)
- 크기: 방형, 가로 147cm, 세로 175cm, 높이 20cm, 수심 87cm

영평마을 공동샘은 미야리 영평마을에 있다. 영평리사무소 동쪽 길 바로 옆 논 가에 위치한다. 장방형의 판석형 돌로 잘 결구된 식수원과 빨래터가 수평으로 연결되었다.

영평마을은 콩나물이 유명하다. 콩나물의 맛이 좋고 잘 자라나는 것은 마을 샘물 덕택이다. 이 샘물을 길어 콩나물을 기르면 다른 물로 기른 것과 달리 맛이 다르다고 한다. 마을샘은 장방형으로 생겼으며 마을 식수로 이용되었고 샘 밑으로는 빨래터가 있다. 샘물이 좋아 정월대보름에는 인근 마을에서 이 샘물을 몰래 길어다가 자기의 샘에다 붓기도 했다.¹¹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두 개의 장방형의 수조가 구멍을 뚫어 연결하여 식수원과 빨래터 기능을 한다. 빨래터에는 수조 좌우 옆에 빨래판으로 사용하기 위한 돌판 바닥에 여러 개 마련되었다. 식수원 수조 위에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네 개의 기

11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上), 해남문화원, 2011, 102쪽.
「마을사」, 『송지면지』, 2009, 584~589쪽.

등을 세운 슬라브 형태의 지붕을 마련했다. 장방형의 판석형 돌로 잘 결구되었다. 1980~1990년대에 시멘트로 보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영평마을 공동샘 전경



영평마을 공동샘 위치도

치소마을 새샘

- 위치: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366-2
- 크기: 원형, 지름 110cm, 높이 69cm, 수심 515cm

치소마을 새샘은 서정리 치소마을에 있다. 치소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산리, 장춘리, 운곡리와 패소리, 등리, 우분리를 합하여 송지면 서정리(西亭里)가 되었다.

새샘은 치소마을회관에서 동쪽으로 100m 거리인 마을 앞 치소길 49 가옥과 밭 사이에 위치한다. 원통형 토관(土管, 노깡)이 이중으로 중첩되고 그 아래의 하부 석축은 상당한 크기의 막돌로 쌓았다.

마을에는 통샘과 새샘 두 개의 샘이 있는데 통샘은 샘의 지상 부위를 여느 마을샘들이 돌이나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나무를 이어 붙여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통샘은 마을이름을 치소라고 일러준 스님이 치소마을에 물이 없다는 마을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금 통샘이 있는 자리를 일러주며 그곳을 파면 물이 나올거라고 하였다. 마을사람들이 그곳을 가보니 오래된 고목이 서 있었기 때문에 샘을 파지 못하였다. 그 후 100년이 지나 고목이 썩어 죽어버리자 그곳에 샘을 파니 물이 나와 식수로 사용하였

다. 통샘은 현재 나무통 형태는 없어지고 대신 시멘트로 개조되었으며 규모도 훨씬 작아졌다.¹²

지상부는 통샘에서 시멘트로 된 원통형 토관(土管, 노깡) 형태로 바뀌었으나 지하는 원통형 석축이 정연하게 잘 축조되었다. 지금은 노인회장(서종오, 1943년생)이 농업용수로 사용 중이다. 마을 식수는 10여 년 전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식수로 사용한다.

치소마을은 약 300년 전 밀양박씨 박진건이 치소마을 동쪽 엄골에 거주하면서 형성되었다고 한다. 서정리(西亭里)는 북쪽으로 현산면 월송리, 동쪽으로 북평면 이진리, 남쪽으로 마봉리, 북평면 평암리, 서쪽으로 해원리와 접하고 있다. 서정마을, 치소마을, 장춘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해남군 은소면 원서정마을에서 명칭이 유래하였다.¹³

서정리는 산을 끼고 있어 고구마, 콩, 마늘 등과 배추 같은 밭작물이 많이 생산되지만, 주소득원은 역시 쌀이다. 서정리에는 달마산 중턱에 통일신라 749년 창건된 미황사(美黃寺)가 있다. 달마산 정상에는 달마산 봉수지가 있다.

12 「마을사」, 『송지면지』, 2009, 774쪽.

13 서정리(西亭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치소마을 새샘 전경



치소마을 새샘 내부



치소마을 새샘 위치도

소죽마을 소죽샘

- 위치: 해남군 송지면 소죽리 499-1
- 크기: 방형, 가로 170cm, 세로 180cm, 높이 10~20cm, 수심 100cm

소죽샘은 소죽리 소죽마을에 있다. 소죽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대죽리, 월현리를 합하여 해남군 송지면 소죽리(小竹里)가 되었다.

소죽샘은 마을 중앙인 마을회관과 마을 길가인 소죽길 67의 바로 위에 위치한다.

소죽마을은 샘물과 미나리로 유명하다. 마을 중앙에 있는 샘은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물맛이 좋아서 정월대보름 풍속으로 물맛이 좋고 수량이 많은 샘물을 길어 자기 마을의 샘에다 부었던 샘물대기를 할 때는 인근 마을에서 소죽마을의 샘물을 길어 갔다고 한다. 수량이 많은 곳의 물을 갖다 부으면 그해 샘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마을 샘 밑에는 미나리밭을 마련하여 미나리를 키웠는데 맛이 좋고 많은 양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송지면 일대에서 미나리를 사려면 모두 소죽마을 것만 샀다고 한다. 마을에서 미나리로 간재미회무침을 하는데 간재미는 꼭 내장리 간재미만을 썼다고 한다. 봄철 바쁜 농사일을 끝내고 미나리와 간재미를 썰어서 회를 무쳐 봄나들이를 가는데 이를 ‘회체’한다고 한다. 회체는 주로 지대봉(비루

꼴 앞, 너른돌 뒷산 봉우리)으로 올라가서 했다. 회체 풍속은 지금은 경로잔치로 남았다. 소죽마을 미나리깡은 1980년대 초에 매립하고 그 터에 마을 회관을 건립했다.¹⁴

정월대보름 풍속 가운데 ‘샘물대기’는 유독 송지면의 여러 마을에서 유포되고 있다. 소죽리 소죽마을 소죽샘을 비롯해서 미야리 영평마을 공동샘, 가차리 화내마을 중간샘 등 3개 마을에서 그 사례가 조사되었다. 그만큼 바닷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간기 없는 수질과 풍부한 수량을 기원하는 열망에서 이러한 ‘샘물대기’ 풍속을 낳게 한 것이다.

방형 장대석 판석으로 결구 된 전형적인 조선 후기 우물이다. 뒷면 판석 안쪽에 명문이 있다. ‘嘉慶十三年 戊辰七月 口七月’으로 판독되어 환산해 보면 1808년이다. 해남군 관내에서 비교적 이른시기의 샘이다. 문내면 서상마을 방죽샘(『雍正2년(1724) 甲辰』 축조, 『乾隆17(1752) 壬申九月』 및 『嘉慶9년(1804) 甲子』 중수), 북평면 이진리 이진마을 장군샘(嘉慶11년 丙寅, 1806년) 다음으로 조성연대가 이른 시기의 우물이다.

예전에는 마을 70여 호가 식수로 사용하였던 마을의 유일한 샘이다. 정월대보름에 마을청년들이 인근마을에서 샘물대기(물도둑)를 못하도록 지켰다고 한다. (박달명 노인회장)

장대석 판석으로 축조되었다. 뒤가 높고 옆이 보통이며 앞이 낮은 구조이다. 네 매씩 이중으로 결구하여 모두 여덟 매의 장대석을 사용하였다. 샘 오른쪽에 토관(土管, 노깡) 형태의 원형샘이 더 있었는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메웠다고 한다.

30~40년 전에 샘 주변에 슬라브 건물을 지어 집수장을 만들어 양수시설을 하고 마을 꼭대기에 저장 탱크를 만들어 간이상수시설로 사용했다고 한

14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上), 해남문화원, 2011, 129쪽.
「마을사」, 『송지면지』, 2009, 638쪽.

다. 지금은 송지저수지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 샘 주변을 시멘블럭으로 담을 둘렀다. 샘 관리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소죽마을은 1300년경 양천허씨 허신집(許信集)이 남쪽을 유랑하다가 마을 앞 대섬을 보고 처음 정착하여 경주이씨와 혼인하였다고 한다. 소죽리는 북쪽으로 산정리, 동쪽으로 마봉리, 남쪽으로 송호리, 서쪽으로 바다와 접하고 있다. 소죽마을, 대죽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소죽리(小竹里) 서쪽 바다에 섬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하나는 크고 다른 하나는 작다. 섬에는 대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큰대섬, 작은대섬으로 부른다. 소죽마을은 작은대섬에서 이름을 따와 소죽(小竹)이라 하였다. 소죽마을은 통일신라 말에서 조선 초까지 존재하였던 지방의 특수행정조직인 향·소·부곡 가운데 영암군에 있던 심정부곡(深井部曲)으로 추정된다.¹⁵

소죽리에는 수령 약 300년의 은행나무가 1982년 12월 3일 보호수로 지정되었다[지정번호: 15-14-5-2]. 또한 수령 약 400년의 해송도 2002년 3월 13일 보호수로 지정되었다[지정번호: 15-14-5-7].

15 소죽리(小竹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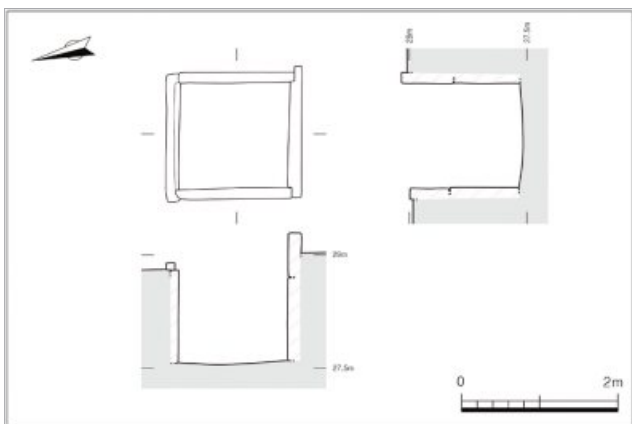
소죽마을 소죽샘 전경



소죽마을 소죽샘 조성기



소죽마을 소죽샘 위치도



소죽마을 소죽샘
평면도, 입면도

어란마을 아랫샘(북문샘)

- 위치: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1317
- 크기: 방형, 가로 166cm, 세로 164cm, 높이 35cm, 깊이 300cm

어란은 조선시대에 영암군 송지종면(松旨終面)에 속했다가 1906년에 해남군으로 편입되었다.

어란마을 아랫샘(북문샘)은 어란리 어란마을에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외장리, 동현리, 내장리 일부를 병합하여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於蘭里)가 되었다. 1921년 완도군 군외면의 어불도를 편입하는 동시에 동현, 외장, 내장의 세 마을을 떼어 동현리가 되었다가 다시 어란리로 편입되었다.

아랫샘(북문샘)은 어란마을 북쪽에 밭 옆으로 난 길가인 어란진성 북문 밖에 위치한다. 점판암 장대석 판석을 짜 맞춘 방형 우물이다. 사면 벽은 점판암 장대석으로 결구 된 제작 기법이 우수한 샘이다. 석질은 송지면 미야리 큰샘이나 현산면 백포리 아랫배미샘과 같은 점판암이다. 뒤쪽과 좌우 옆보다 앞쪽이 낮다. 장대석을 이용한 결구방식은 송지면 미야리 큰샘과 송지면 소죽리 소죽샘과 같은 방식이다.

시멘트로 된 뚜껑을 덮어 놓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일부 보이는 틈에서

명문이 확인된다. ‘大正四年 乙卯十一月 □□□□’으로 관독되어 연호와 간지를 환산해 보면 1915년에 조성된 우물이다.

샘 안쪽에 양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인급 밭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두레박은 마을 주민들이 갯가에서 수확한 것을 씻는 용도이다. 어란마을에는 아랫샘 외에도 두 개의 샘이 더 있었다. 남문샘은 원통형 토관(土管, 노깡) 형태는 남아 있으나 완도해양경찰서 어란출장소를 지으면서 내부를 메웠다. 성너머샘은 남문샘과 아랫샘을 지나는 도로 중앙에 위치해 30~40년 전에 도로를 내면서 메웠으나 배수시설과 도로 사이에 일부 뚜껑 흔적은 남아있다.

어란마을은 1300년쯤 창원황씨 황석기(黃石奇)가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수군만호진이 설치되고 진성이 축조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의 식량보급소가 있었다. 일본군 보급소와 송지어업조합이 있었던 관계로 마을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으며 지금도 일본인들이 살았던 집이 남아있다. 어란리 동쪽으로 우근리가 있고, 3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다. 동현마을, 내장마을, 외장마을, 어란마을, 어불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어란리는 지형이 바다쪽으로 길게 뻗어 나온 것이 마치 난(蘭)처럼 생겼다 하여 어란(於蘭)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 수군만호진(水軍萬戶鎭)이 있어 어란진이라고도 부른다.¹⁶

문화유산으로는 2011년 7월 6일 해남군 향토유적 제20호로 지정된 송지어란당집과 어란진성지(於蘭鎭城址)가 있다.

16 어란리(於蘭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어란마을 아랫샘
(북문샘) 전경



어란마을 아랫샘
(북문샘) 샘조성기



어란마을 아랫샘
(북문샘) 위치도



사구마을 아랫샘

- 위치: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63-1(사구미길 82-3)
- 크기: 원형, 지름 110cm, 높이 15cm, 수심 66cm

사구마을 아랫샘은 통호리 사구마을에 있다. 사구는 조선시대에 영암군 송지종면 지역이었고 1906년(광무 10) 해남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사구리를 합하여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桶湖里)가 되었다.

사구리 마을에는 윗샘과 아랫샘이 있다. 두 샘은 지금도 매몰되지 않고 남아있다. 두 샘 모두 뛰어난 약효를 지녔는데 특히 결핵이나 폐병환자가 이 물을 먹으면 3년 이내에 나았다고 한다.¹⁷

아랫샘은 마을회관 바로 옆인 사구마을 앞쪽에 위치한다. 원통형 토관(土管, 노깡)의 샘을 스테인리스 뚜껑으로 덮어 놓았다. 설치한 지 오래된 10개 이상의 식수용 PVC관이 연결되어 있다. 최근에 검은 호스를 연결해 농업 용수로 사용 중이다. 샘 아래로는 가로로 장방형의 수조를 만들어 빨래터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윗샘과 아랫샘은 낮은 원통형 토관(土管,

17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上), 해남문화원, 2011, 162쪽.
「마을사」, 『송지면지』, 2009, 712쪽.

노깅)과 빨래터 형태가 동일하다. 지금도 사용될 정도로 수량도 풍부하고 수질도 좋다. 샘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사구마을은 1592년 창녕조씨 조애필이 임진왜란을 피하여 정착하여 해주씨와 혼인함으로써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한다. 통호리(桶湖里)는 북쪽으로 마봉리, 동쪽으로 북평면 영전리, 남쪽으로 바다, 서쪽으로 송지면 송호리와 접하고 있다. 통호마을, 사구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사구마을은 1960~1970년대 김 양식이 활발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김 양식이 쇠퇴하면서 경제 기반이 많이 상실되었다. 2005년 사구마을은 '사구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었다.



사구마을 아랫샘 전경



사구마을 아랫샘 내부



사구마을 아랫샘 위치도

북평면



북평면(北平面) 우물 이야기

북평면(北平面)은 백제 시기 새금현(塞琴縣)에, 통일신라 시기 침명현(浸溟縣)에 속했다. 영암군에 속한 달량진(達梁鎭)이 있었고 이진진도 있었다. 달량진은 고달도 지명도 있다. 조선 시대에는 북평시면(北平始面)과 북평종면(北平綜面)으로 나뉘어 있었고 영암군의 관할을 받았다. 근대에 들어서 1906년(광무 10)에 영암군 소속에서 해남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북평시면·북평종면과 강진의 백도면의 일부를 합하여 지금의 해남군 북평면이 되었다. 1983년 70여 년의 역사를 남기고 북평면과 북일면과 두 개의 면으로 나뉘어 오늘에 이르렀다.

북평면은 바다와 육지부를 잇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완도대교가 건설되기 전에는 완도군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상륙선이 달도와 원동에서 남창을 왕래하던 시기에는 면의 소재지로서 어느 중소도시를 방불케 하는 인구의 밀집 지역이었다. 당시 상가와 5일 시장 등이 활성화되어 운영되었으나 1969년 구 완도대교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개통되면서부터 소도시로서의 그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말았다. 이 ‘완도대교’는 1985년에 확장해 새롭게 만들어 운용해오다 다시 철거했고 2012년 3월 ‘신 완도대교’를 건설하여 차량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평면이 어느 시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정착을 이루며 살게 되었는가



조선후기의 북평시면과 북평중면 부근도(1872년, 영암군지도, 규장각 소장, 奎10505)

는 뚜렷한 기록은 없다. 선사시대의 고인돌이 있고 유물들이 출토되고 두루산 아래 해안 쪽(현 북일면)과 구룡지대인 성마산을 중심으로 신방, 용일, 내동마을 등에서 고분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선사시대에 육지부의 따뜻한 기후와 자원이 풍부한 해안선 부근에 많은 인구가 유입 정착하고 살았음을 추정해 볼 수가 있다.

북평면은 해남군의 14개 읍면 중, 가장 동남쪽에 위치하며, 해남의 첫 관문으로서 자리해 왔다. 전라남도 해남군의 해남반도 남동쪽 끝에 위치한 면이다. 해안과 나란한 방향으로 북쪽에서부터 위봉, 대둔산, 달마산 등이 남해안의 바닷가까지 뻗어있어 높은 지대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진도군과 마주하고 있는 평암리 일대에도 중마산이 솟아 있다. 그래서 평지는 이들 산지 사이와 중마산 남북의 영전리와 서흥리에 존재하고 있다.¹

북평면(北平面)은 해남군의 남단에 있으며 북쪽은 현산면·삼산면·북일면,

¹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남쪽은 바다, 서쪽으로는 달마산을 경계로 송지면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완도군을 바라보고 바다와 접하고 있다. 북평면은 남창리(南倉里), 이진리(梨津里), 서흥리(西洪里), 평암리(平岩里), 영전리(永田里), 오산리(烏山里), 동해리(東海里), 와룡리(臥龍里) 등 8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문화재로는 이진성지(梨津城址: 전라남도기념물 120), 만호산성(萬戶山城), 달양포성지(達梁浦城址), 칠성암(七星庵) 등이 있다.

북평면의 우물 현황은 2011년에 조사된 해남의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상)에서 17개소의 우물이 조사되었는데 농지정리 등과 같은 개발로 사라졌거나 지금도 있다고 한다.

남창리에는 신기마을 공동우물과 차경마을 공동우물, 이진리에는 이진마을 북문샘·남문샘·선창샘, 산마마을 대청샘이 조사되었다. 서흥리에는 서흥마을 공동우물과 묵동마을 공동우물(2개소), 평암리에는 평암마을 독-새얌(7개소)이 조사되었다. 영전리에는 영전마을 웃생-계와 남전마을 공동우물(2개소), 오산리에는 오산마을 들-새얌(5개소)·새-새얌·통-새얌이 있거나 있다고 한다. 와룡리에는 와룡마을 공동우물(5개소)·바닷가 우물, 신용마을 공동우물이 조사되었다.

마을 곳곳의 지명을 조사하면서 샘 또는 샘터가 조사된 듯하다. 대부분 샘으로 불리고 있으며 샘의 이름도 위치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북평면지(2018년)에서는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상, 2011년)에 수록된 6개소 외에 1개소를 추가하였다. 그 가운데 동해마을 석정우물이 2019년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우물이나 샘들은 마을 길이 단장되거나 농지정리를 하면서 없어지고 집집마다 지하수를 놓으면서 그나마 남아 있던 샘마저도 안전상 이유로 폐위졌다.

현재 북평면에 있는 우물을 문헌과 마을 이장의 안내에 따라 현장에서 살

펴보았다. 이번 우물 전수 조사에서 10개를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4개소를 정리하였다.

연번	설명	리	마을	명 칭	주 소	출전, 조사
1		남창리 南倉里	신기 新基	아랫마을샘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704-1	상 647 면지 555
2	○	동해리 東海里	동해 東海	석정우물 돌샘(癸亥)	해남군 북평면 동해리 802	향토유산 보고서, 면지 686
3		서홍리 西洪里	묵동 墨洞	공동샘	해남군 북평면 서홍리 393-1	신조사
4		영전리 永田里	영전 永田	공동샘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430	신조사
5		오산리 烏山里	오산 烏山	새샘	해남군 북평면 오산리 321-1	상 697, 면지677~ 678
6	○	와룡리 臥龍里	와룡 臥龍	짜우락샘	해남군 북평면 와룡리 79-5	상 707 면지699, 702~703
7		이진리 梨津里	산마 山馬	대청샘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1150	상 658 면지 587
8	○	이진리 梨津里	이진 梨津	북문샘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1228	상 655, 면지 567
9		이진리 梨津里	이진 梨津	장군샘 (嘉慶十一年)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216-1	상 655, 면지 567
10		이진리 梨津里	이진 梨津	선창샘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419	상 655



1872년 영암군 이진진지도 奎 10453(영인본 재편집)

동해마을 석정우물

- 위치: 해남군 북평면 동해리 802
- 크기: 장방형, 가로 385cm, 세로 117~119cm
- 문화재지정: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제38호(2019.01.04.)

동해마을 석정우물은 동해리 동해마을에 있다. 동해는 조선시대에 영암군 북평시면에 속하였다. 1906년(광무 10) 해남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흥리, 흥해리, 대청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해남군 북평면 동해리(東海里)가 되었다.

석정우물은 동해리 마을회관에서 서쪽으로 약 200m 거리에 위치한다. 마을 당산목과 노거수 보호림과 함께 있는 장방형 구유형 석조 우물로서 위아래 샘이 2단으로 높낮이를 달리해 조성되었다.

두륜산 줄기의 누룩봉 골짜기를 수원으로 삼아 마을의 높은 지대에 샘을 조성하였다. 동해마을은 15~20년 전까지 안골산 나무 밑 제단에서 복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당나무 옆 샘에서 새벽까지 샘굿을 치기도 했는데 샘굿을 쳤던 곳이 돌샘(정화수 역할)이라고 불리는 동해리 석정이라고 추정된다. 위아래샘 밑에 세로로 길게 물이 흘러내린 수로가 조성되었다. 지명유래로는 틈새에서 흘러나온다는 석간수, 형상이 소먹이통과 같다고 해서 구시샘, 그리고 돌샘이 조사되었다. 석정 주위에는 150~200년 된 팽나무, 후

박나무, 푸조나무(당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주변 암벽면에 “癸亥十月日穿井記”라는 우물을 뚫은 기록으로 참여 인명이 음각으로 된 우물 건립 기록이 새겨졌다. “癸亥”라는 간지로 보아 1923년에 조성한 우물로 추정된다. 지금도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문화재지정 명칭을 ‘동해마을 석정’ 혹은 ‘동해마을 돌샘’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석정(石井) 자체가 돌샘을 의미하므로 석정우물은 우물을 반복 사용하는 중복명칭이기 때문이다.

동해마을 입향조는 밀양박씨로 알려져 있다. 제주양씨 양은휘(梁殷輝)가 420년 전 화산면 울동에서 화재를 피하여 정착한 후 박씨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동해리는 북쪽으로 삼산면 구림리, 북일면 홍촌리, 동쪽으로 북일면 금당리, 남쪽으로 오산리, 서쪽으로 현산면 조산리와 접하고 있다. 동해리는 동해마을과 동촌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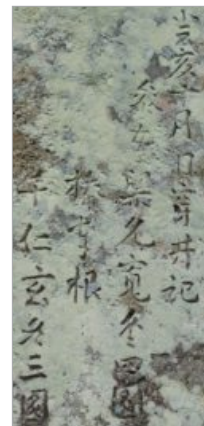
동해리는 배의 모양, 즉 구레, 배바통을 닮았다 하여 ‘배성국’이라 하였고,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홍해(洪海)로 나오는데, 1914년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마을 좌향이 동(東)이고 바다가 보인다고 하여 동해(東海)라 개칭하였다고 한다.²

동해리(東海里) 앞에는 들이 펼쳐져 있으며, 도로 건너에는 갯벌이 펼쳐져 있다. 동네의 모든 집들의 돌담이 잘 보존되어 있다. 마을 뒷산에는 황금박쥐가 서식하는 동굴이 있다.

동해마을은 2007년 행정안전부 지정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어, 해남 김치마을로 이름을 짓고 김치를 특화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김장축제도 열고 있다. 특작물은 마늘, 배추, 양파이다. 동촌마을의 주 생업은 농업이며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다. 밭농사는 배추와 마늘을 재배하고 있으며 최근에 양파 재배가 늘고 있다. 배추는 월동배추와 김장배추를 재배하고 있다.

2 동해리(東海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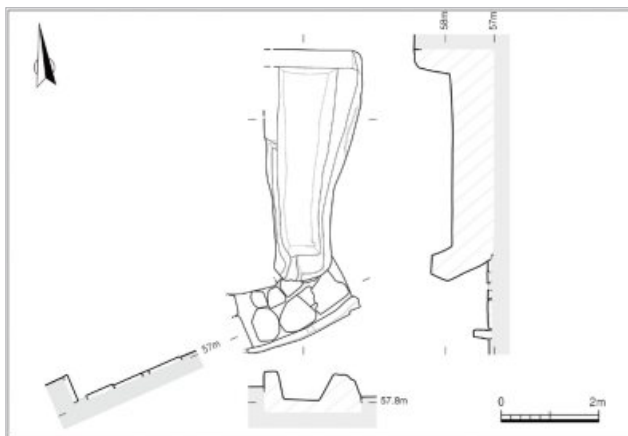
동해마을
석정우물 전경
및 천정기 명문



동해마을 석정우물 위치도



동해마을 석정우물 배치도



와룡마을 짜우락샘(龍淚井)

- 위치: 해남군 북평면 와룡리 79-5
- 크기: 원형, 향좌(지름 167cm, 높이 67cm, 수심 138cm), 향우(지름 133cm, 높이 45cm, 수심 130cm)

와룡마을 짜우락샘(龍淚井)은 와룡리 와룡마을에 있다. 와룡은 조선시대에 영암군 북평시면 지역에 속하였으며 1906년(광무 10)에 해남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북평시면의 대청리 일부와, 강진군 백도면의 향리 일부를 병합하여 해남군 북평면 와룡리(臥龍里)가 되었다.

짜우락샘(龍淚井)은 와룡리노인정에서 남쪽 500m 보들길 53 앞 개펄에 위치한다. 바닷가 개펄 속에서 바닷물에 잠겨있다가 썰물 때 드러나서 물이 솟아오르는 용천수이다.

1800년대 말부터 사용한 바다 샘으로 용의 두 눈에서 솟아오르는 신비의 바다 샘이다. 샘 복원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바다 가운데 있는 우물 샘. 믿기지 않겠지만 해남군 북평면 와룡마을에 실제 존재한다. 북평 와룡마을에 있는 짜우락 샘은 특이하게도 바다 안에 샘이 위치하고 있다. 밀물이 들면 사라졌다 썰물이 되면 다시 나타나는 신비의 바닷길과도 흡사한 이 샘은 철철 흐르는 물 때문에 바가지로 바닷물을

조금만 거뒀다면 금새 깨끗하고 맑은 샘물로 바뀌는데 그 물맛 또한 일품이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이 샘을 복원하기 위해 모두들 나섰다. 어느 해부터인가 방치했던 이 샘을 복원하게 된 이유도 정말로 전설 같은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1년 전 마을을 지나가던 한 노인이 ‘누가 누워있는 용의 두 눈을 가렸을꼬’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처음엔 미친 사람의 중얼거림으로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은 예사 노인이 아닌 것 같아 노인을 불러 이유를 물었다. ‘노인장 방금 무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을 뜸 들이던 노인은 ‘바닥에 엎드려 잠시 쉬고 있는 용의 두 눈을 가려 놓았으니 마을에 변고가 생기지’라고 답한다. 노인의 말은 1년 사이 마을의 젊은 청년 7명이 급사한 것을 두고 한 말이라 생각한 주민들은 걱정이 앞섰다. 이어 노인은 ‘가려진 용의 두 눈을 뜨게 해줘야 마을이 무사할 수 있다’ 하며 홀연히 마을을 떠났다. 그렇지 않아도 젊은 청년들이 근래 들어 비명횡사하고 있어 불안해 하던 마을 사람들은 용의 두 눈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몰라 전전긍긍하다 순간적으로 한 가지를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지난 20여 전까지만 해도 마을의 식수원으로 사용하다 지하수 개발로 방치했던 짜우락 샘(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는데, 두 개의 샘이 나란히 있어 실제로 용의 두 눈처럼 생겼다)이 생각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을 청년들의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샘을 원상태로 복원키로 하고 부녀회가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³

마을에 우물 4~5개가 있었으나 30여 년 전에 없어지고 지금은 바닷가에 있는 우물만 남아 있다. 이곳도 거의 쓰지 않다가 2010년에 다시 정비하였다. 밀물 때는 물이 차고, 썰물이 되면 우물에 고인 바닷물이 짜지 않아 식수가 된다. 용이 누워있는 마을의 형상 중 눈에 해당하는 위치에 생긴 용천 샘으로 2010년 마을 주민들이 복원하였다. 와룡(臥龍)이란 이름은 마을에 용

3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上), 해남문화원, 2011, 707쪽. ; 『바다 속에 있는 신비의 우물샘』, 해남우리신문, 2010.02.28. ; 『마을사』, 『북평면지』, 2018, 702~703쪽.

못이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샘 진입로와 돌레 담장, 원형의 샘 테두리를 강
돌에 시멘트에 섞어 쌓아 올렸다. 관리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와룡마을의 입향조는 김해김씨 김현미(金顯微)로 강진군 작천에서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와룡마을은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따르면 강진 도암면의
항리(項里)로 나타난다. 와룡리(臥龍里)는 북쪽으로 동해리, 북일면 만수리,
동쪽으로 북일면 만수리, 남쪽으로 바다, 서쪽으로 오산리와 접하고 있다.
와룡마을, 신용마을, 용수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와룡(臥龍)이라 하였는데 마을의 형상이 용이 누
워있는 모습이라고 한 데서 나온 지명이다.⁴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으며, 갯벌에서는 겨울에 굴과 파래를
채취한다. 굴은 와룡마을의 겨울철 특산물이다.



와룡마을 짜우락샘(龍淚井) 공사이전 모습
(〈바다 속에 있는 신비의 우물샘〉
해남우리신문, 2010.02.28.)

4 와룡리(臥龍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와룡마을 짜우락샘
(龍淚井) 전경



와룡마을 짜우락샘(龍淚井)
2010년 7월 19일 공사 모습
(〈바다 속 신비의 샘
세상밖으로〉
해남우리신문, 2010.07.23.)



와룡마을 짜우락샘
(龍淚井) 위치도

이진마을 북문샘

- 위치: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1228
- 크기: 원형, 지름 163cm, 높이 78cm, 뚜껑지름 161cm

이진마을 북문샘은 이진리 이진마을에 있다. 이진은 조선시대에 영암군 북평중면 지역에 속하였고 1906년(광무 10) 해남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진리 일부를 병합하여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梨津里)가 되었다.

이진마을에는 전라남도 기념물 제120호로 지정된 이진성지(1648년)가 위치한다. 그 가운데 북문샘은 북문 입구 웅성 안에 위치하며 우물 주변으로 성벽이 둘러싸여 있다.

재질은 시멘트이며 원형으로 우물 뚜껑까지 만들어 덮어놓았다. 1970~80년대에 유행한 토관(土管, 노깡)을 연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음력 정월 14일에 당제를 모신다. 옛날에는 북문샘 위에 당집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으나 모셔 온 관례대로 샘 제를 모실 적에는 당제도 함께 모신다. 2등분 된 뚜껑에 '2000 음 1월 14일 북문 일동'이라는 글이 각각 음각되었다. 우물 주변 바닥은 시멘트로 되었으며 우물에서 양수 모터통을 지나 성 안으로 볼록하게 연결된 구조물이 이어진다. 이진성 당시에도

옹달샘 정도의 우물이 존재했고 그러한 이유로 주변 성벽이 이 우물을 에워싸고 있다. 배수시설도 보인다. 이미 존재하던 우물을 2000년 음 1월 14일에 시멘트 보수 정비하였다. 주변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⁵

이진마을에는 1598년 이진진(梨津鎭)이 설치되고, 1627년 수군 만호(萬戶)가 주둔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이 시기 이전에 이미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진리(梨津里)는 북쪽으로 북평면 남창리, 동쪽으로 바다, 남쪽으로 서흥리, 서쪽으로 현산면 월송리, 송지면 서정리와 접하고 있다. 이진마을, 산마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의 생김새가 배 같이 생긴 나루라 하여 배진 또는 이진(梨津)이라 부른 데서 명칭이 유래하였다.⁶

이진마을의 주 생업은 농업과 어업이다. 농업은 주로 벼농사와 마늘과 배추를 경작한다. 어업은 어선을 이용해 숭어와 낙지를 잡는다. 갯벌에서는 꼬막과 굴을 양식하고 있다.

이진마을에는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이 있다. 이진리 현무암은 제주도에 서 이진에 말을 신고 올 때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배 밑창에 깔았던 것인데, 배가 제주도로 돌아갈 때는 곡식 등을 신고 가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어 버리고 간 것이다. 또 이진마을에는 석축으로 쌓은 이진성지가 있으며, 이진초등학교 앞에는 이진진의 만호를 역임한 인물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이진리 만호비군이 있다.

5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上), 해남문화원, 2011, 655쪽.

『마을사』, 『북평면지』, 2018, 567·574쪽.

6 이진리(梨津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이진마을 북문샘 전경



이진마을 북문샘 위치도

이진마을 장군샘

- 위치: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216-1
- 크기: 방형, 가로 175cm, 세로 170cm, 높이 73cm, 깊이 310cm

이진마을 장군샘은 이진리 이진마을에 있다. 이진마을에는 전라남도 기념물 제120호로 지정된 이진성지가 있다. 그 가운데 장군샘은 이진성지 내 마을 남동쪽 하단 이진1길 39-2와 39-8 사이에 위치한다. 이진성의 성내 우물로 지금의 우물 구조물은 1806년에 처음 만들고 1839년의 중수한 기록이 새겨졌다.

네 귀퉁이에 기둥석을 세우고 네 면에 판석 여러 개를 연결하여 만든 우물이다. 다른 세 기둥석보다 좀 더 크고 석질도 좋은 기둥석에 두 줄로 음각된 명문이 새겨졌다.

원 문: 嘉慶十一年丙寅月日首勑 道光十九年己亥十一月日重修」

번역문: 가경11년(1806년, 순조 6) 병인년에 처음 만들고道光19년(1839년, 현종 5) 기해년 11월일에 손 보다.

장군 샘은 네 귀퉁이에 기둥석을 세우고 네 면에 판석 여러 개를 연결하

여 만든 형식으로 조선 후기에 성행하던 우물 제작 기법이다. 특히 네 모퉁이의 기둥석은 ‘해남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사적)’ 내의 방죽샘과 형태나 축조방식이 유사하다. 언제부터 샘이 있었는지 밝히기 어렵다. 다만, 을묘왜란 때인 1555년(명종 16) 5월 11일에 왜선 70여척이 달랑포 밖에서 정박했다가 이진포와 달랑포에서 상륙하여 성저(城底)의 민가를 불태워버리고 성을 포위했다는 기록이 있어 이 시기에는 우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상부관석의 석질과 형태로 보아 1806년 처음 만들고 1839년에 명문 기둥석과 그 옆 대형관석 정도가 교체 수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진마을은 정월달에 모시는 샘제를 3곳에서 분담하여 모셨다. 남문이 샘제를 정월 초이튿날 제일 먼저 모셨다. 남문 샘제를 모실 적에는 유별난 관행이 있었다. 남문 샘으로부터 1.5km 떨어진 달마산 밑 아래몽달이라는 약샘에서 병에 물을 가득 담아 남문 샘을 향해 내려오면서 그 물을 계속 뿌리고 남은 물을 남문 샘에 쏟아 넣어 가뭄에도 마르지 말기를 기원하는 풍속이었다. 그런데 그 약 샘 위에 해남군이 양돈장 허가를 내준 후에는 영험이 없다는 이유로 그 관행을 지키지 않고 있다.

천제(天祭)는 연 1회 음력 6월 초 하룻날 밤에 이진 주민이 이 고장을 대표하여 달마산 신께 모신 유일한 기우제이다. 달마산 천제 터에 올라가 황황상제(皇皇上帝)께 모시는 기우제(祈雨祭)이다. 축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진 이민이 목욕재계하고 제사 하루 전에 살아있는 검은 돼지를 잡어지고 4, 5명이 올라가 현장에서 도살하여 제사를 지낸다. 지금도 어김없이 이진리와 산마리가 번갈아 가며 제사를 모시고 있다. 제사상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자연석을 정교하게 이를 맞춰 두고 이를 항상 제사상으로 사용을 한 게 특징이다.

천제축문은 다음과 같다.

天祭祝文
 維歲次甲午六月吉日丁巳
 梨津里民沐浴齊戒敢昭告于
 皇皇上帝照臨下土
 維茲臣庶陟罰臧否
 雨順風調時和年豐
 百穀用成六畜繁殖
 使此衆生病則除愈
 各安其堵勿替引之
 謹以玄酌 庶羞祇薦
 歲事尙 饗

마을이 커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정제(井祭: 정월달에 모시는 샘제) 날짜나 축문 내용이 각기 다르다.

남문은 정월 초이튿날 샘제를 모시고, 북문은 샘제 겸 당제를 정월 14일 모시고, 선창은 도제(都祭) 라고 하여 개포(介浦) 제사와 뒷되 샘제를 정월 초이렛날 모신다. 지금은 편의상 합하여 정제를 모시지만 옛날에는 각 구역 구장이 중심이 되어 정제를 모셨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히 선창에서 모시는 정월 도제를 중요시하여 크게 모셨는데 이 도제는 생업에 관계되는 개포제를 겸하기 때문이었다. 남문 샘제를 모실 적에는 남문 샘에서 1km 이상 떨어진 <아래 몽달>이라고 하는 달마산 밑에서 물을 길어와 남문 샘에 붓고 제사를 올렸는데 그 위에다 해남군이 양돈장 허가를 내준 바람에 주민들의 관심이 해이해져 지금은 그 관행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매년 우물제, 도제, 당제, 산신제를 한다. 이곳 우물제가 첫 번째이다. 특히 선창(도제)은 정월 초이렛날에 도제라고 하여 개포제와 2곳의 샘 제를 합해서 모신다.

이진은 당시 반농반어(半農半漁)마을이기에 바다에 관심이 많아 개포제를 도제(都祭)라 하여 정성껏 모셨다. 샘제도 겸하여 새 샘과 뒷피 샘 2곳에도 별도로 음식을 준비하여 모셨다.

이진마을은 호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1597년 8월 20일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은 군사의 출입이 비교적 원활한 포구를 찾아 나선 후 강진 마량 앞바다를 거쳐 도착한 곳이 해남(당시 영암) 이진이었다. 이곳은 완도 해역과 연결되는 해로의 요충지였다. 그런데 이때 이순신의 건강에 큰 위기가 왔다. 잦은 군사훈련으로 심신이 지쳐 있어서였는지,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구역질까지 하며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난중일기』에는 토사곽란이 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병세가 무척 심각해지자 8월 23일 이순신은 배에서 내려 이진마을에서 유숙하였다. 이진마을에 내린 이순신은 마을 주민들의 극진한 도움을 받으며 치료를 받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샘물도 먹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도 이진마을 주민들에게 구전으로 전해 오고 있다. 주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몸에 좋은 것을 가져와 이순신을 봉양하였다. 비록 이진에 머문 시기는 3일에 불과하였지만 이순신이 조선 수군을 재건하면서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끄는 과정에서 이진마을과의 인연은 매우 소중하였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승리를 위한 전략을 고민하던 이순신에게 큰 힘이 되었던 해안가 포구 마을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⁷

근래에 보호각을 새로 건립하고 안내판까지 세워놓았다. 주변 경관이 단정하며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이진마을 복문샘’편 참조)

7 이순신을 살린 마을이자 항일운동의 성지, 이진마을[李舜臣-抗日運動-聖地梨津-](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김희태, 「해남 이진성 우물과 정조대왕 정화수」인지의 즐거움 022-(향토학인 블로그[<https://blog.daum.net/kht1215>] 2016.4.24.)



이진마을 장군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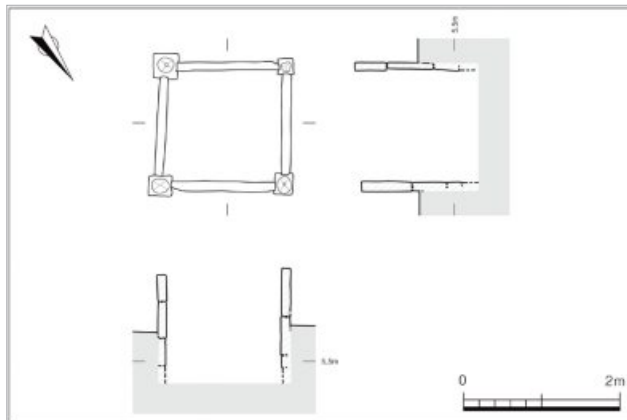
이진마을 장군샘 조성기



이진마을 장군샘
근경 및 명문



이진마을 장군샘 위치도



이진마을 장군샘
평면도, 입면도

영암지방이진진지도 중
이진성 부근도
(1872년, 규장각 소장,
奎10453)



난중일기 1597년(정유년) 8월 20일 24일
기록(이충무공전서)(한국고전종합DB)
"8월 20일 이진으로 진을 옮겼다.[移陣于
梨津], 21일 객란이 일어나 통증으로 인사
불성이 되었다. 22일 객란이 점점 심해졌
다[霍亂漸重]. 23일 병세가 극히 악화[病勢
極重]되어 선박은 불편함으로 배에서 내려
바다에서 나와 숙박하였다[棄船出海而宿]."
-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장군은 이진에 도
착하여 배에 머물렀는데 객란이 극심하여
8월 23일 배에서 내려 이진에서 숙박한다.
이진 주민의 정성과 장군샘 물의 영험이 그
를 도왔으리라.

一十日戊寅。晴。前浦窄狹。移陣于梨津。
一十一日己卯。晴。曉。得霍亂重痛。不省人事。達
夜坐曉。
一十二日庚辰。晴。霍亂漸重。不能起動。
一十三日辛巳。晴。病勢極重。泊船不便。棄船出
海而宿。
一十四日壬午。晴。早到刀掛地。朝飯到於蘭前
洋。則到處已為空虛。宿于洋中。



북일면



북일면(北日面) 우물 이야기

북일면은 조선시대에 영암군 북평시면 지역에 속하였는데, 1906년에 해남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강진군 백도면의 일부 지역과 북평종면과 합하여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으로 편입되었다. 1983년 북평면에서 분면되어 해남군 북일면이 개설되었다.

북일면은 해남군의 해남반도 동쪽에 있으며, 두륜산 후면에 있다. 북쪽으로 삼산면과 옥천면, 동쪽으로 강진군 신전면, 남쪽으로 완도군, 서쪽으로



조선시대 후기의 영암군 북평시면과 북평종면(1872년, 영암군지도, 규장각)



조선시대 후기의 강진현 백도면
(1872년, 강진현지도, 규장각 소장, 奎 10465)

북평면과 접하고 있다.

북일면은 금당리(金塘里), 내동리(內東里), 만수리(萬樹里), 방산리(方山里), 신월리(新月里), 용일리(龍日里), 운전리(雲田里), 흥촌리(興村里) 총 8개 법정리가 있다.

북일면의 문화유산으로는 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전라남도 기념물 제85호), 해남 신월리 방대형고분(전라남도 기념물 제102호), 해남 용일리 용운 고분(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32호), 해남 방산리 독수리봉고분(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33호), 해남 내동리 발섬고분군(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34호) 등이 있다.

북일면의 우물 현황은 2011년에 조사된 해남의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上)』에서 알 수 있다. 북일면에는 27개소의 우물이 조사되었으나, 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개발로 사라졌다는 우물이 대부분이다.

금당리에는 개샘, 신남샘, 약샘이 있고, 신월리에는 공동샘, 냉기샘이 있었다. 홍촌리에는 공동샘, 구무샘이 있었다. 운전리에는 공동샘, 목단개샘이 있었고, 용일리에는 오심재 약수, 용일샘, 공동샘, 마을샘, 텃물샘, 개샘, 참샘이 있었다. 방산리에는 새샘, 돌샘, 통보샘, 공동샘, 용산샘이 있었고, 내동리에는 노리샘, 아래대미샘, 통샘, 노리샘, 서리샘이 있었다고 조사되었다.

동네 곳곳의 지명을 조사하면서 샘 또는 샘터가 조사된 듯하다. 우물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샘의 이름도 다양한 것 같으나 위치나 모양에 따라 샘 이름이 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정착하면서 촌락은 하천의 계곡을 따라 형성되거나 샘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기에 사람이 사는 곳은 반드시 샘이 존재하였다.

마을이 단장되고, 농지정리를 하면서, 집 집마다 지하수를 놓으면서 이제는 샘은 메워졌다. 현재 북일면에 있는 우물을 동네 어르신들 따라 현장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우물 전수 조사에서 4개소를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2개소를 정리하였다.

연번	설명	리	마을	명 칭	주 소	출전,조사
1	○	금당리 金塘里	금당 金塘	동네샘	해남군 북일면 금당리 515-2	상 568
2		용일리 龍日里	용일 龍日	동네샘	해남군 북일면 용일리 749-1	신조사
3		내동리 內東里	내동 內東	마을샘	해남군 북일면 내동리 305	신조사
4	○	홍촌리 興村里	삼성 三省	행사개 두룬샘	해남군 북일면 홍촌리 1183-1	신조사

금당마을 동네샘

- 위치: 해남군 북일면 금당리 515-29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70cm, 세로 170cm, 높이 30cm

금당마을 동네 샘은 금당리 금당마을에 있다. 금당마을 식수나 농업용수는 모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물이 귀한 동네이다. 현재 마을 공동 우물 한 곳을 복원 중이다. 마을 지명 중 개샘은 금당 동남쪽에 있는 우물로 기록되어 있다.¹

금당마을 동네샘 인근에는 1938년에 건립된 해남윤씨 재실이 있다. 북일 금당 해남윤씨 재실은 1938년 건립된 이후 동지공 난계 윤만항(同知公 蘭溪 尹萬恒)의 재실로 쓰다가 이후 윤만항의 4형제[동훈공 윤만태(尹萬泰), 동정공 윤만관(尹萬觀), 동훈공 윤만겸(尹萬謙)]를 비롯한 후손 132위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11월 제사를 지내고 있다. 북일 금당 해남윤씨 재실은 2009년 9월 30일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제15호로 지정되었다.²

1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上), 해남문화원, 2011, 566~568쪽.

2 북일 금당 해남윤씨 재실(北日金塘海南尹氏齋室),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이 우물은 사용하지 않으나, 몇 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방형의 수조가 2곳이 있다. 윗단과 아랫단을 차이를 두어 샘물이 흐르게 하였다. 아랫단의 물은 개울로 흘러가게 하였다. 샘 상부는 뚜껑으로 보호하고 있다.

금당리(金塘里)는 조선시대에 강진현 백도면에 속한 지역으로 ‘상금당리’, ‘하금당리’, ‘갈두리’라 불렸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해남군 북평면 금당리로 개설되었다. 1983년 북평면에서 북일면이 분면되어 북일면 금당리로 개편되었다. 현재 금당마을, 갈두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금당마을 왼쪽에는 옥금산(玉金山)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주령산(珠嶺山)이 싸고 있어 풍수적으로 당(塘)[연못]과 같다고 하여 금당(金塘)이라 불린 데서 명칭이 유래하였다.

금당마을은 500년 전 제주고씨가 바다를 건너와 살다 떠났다고 하며, 그 후 약 400년 전에 강진군 성전에 살던 해남윤씨 윤자해(尹自諧)가 집을 짓고 정착하였다고 한다.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상금당리, 하금당리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면 큰 마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갈두마을은 200년 전 김해김씨 김서봉(金西奉)이 터를 잡고 삶으로써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호구총수』에 강진 백도면에 갈두라는 지명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그 전에 이미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당마을 뒤로는 응봉산(鷹峰山), 갈두마을 남쪽 앞에는 솔섬[소리섬]이 있다. 식수나 농업용수 모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물이 귀한 편이다. 갈두마을은 저수지 한 개와 방죽, 지하 관정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³

금당마을은 예전에는 마을 주민의 80%가 해남윤씨였다. 금당마을은 새 마을 사업으로 마을 도로정비 및 안길 확장, 지붕 개량 등을 하였다.

3 금당리(金塘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금당마을 동네샘 전경



금당마을 동네샘 위치도

삼성마을 두륜샘

- 위치: 해남군 북일면 흥촌리 1183-1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60cm, 세로 160cm, 높이 30cm

삼성마을 두륜샘은 흥촌리 삼성마을에 있다. 삼성마을에는 공동우물과 공동 빨래터가 남아 있고, 우물은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으나 지금은 이용 하는 사람이 드물다.

두륜샘은 흐르는 냇물 옆에 있으며, 가까이에 오래된 정미소가 있다. 우물은 방형이며 우물 사각 귀퉁이에 육각형의 기둥을 세우고 사면을 판석으로 짜 맞추었다. 현재 사용하지 않으나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마을 이장의 제보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북평면장 김권진이 석공을 데려다 둘레 석을 쌓고 정비하였다고 한다. 우물 둘레 석에는 ‘頭輪泉 壬申十月十三日’ 기록 있으나, ‘임신년’은 1922년 임신년으로 보이며, 두륜천이라 명명하고 있다. 김면장은 애국근로단을 조직하여 농촌계몽활동을 한 인물이라고 한다.

흥촌리(興村里)는 조선시대에 영암군 북평시면 지역에 속하였는데, 1906년 해남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흥리, 만흥리,



조선시대 후기의 영암군 북평시면의 신평리(1872년, 영암군지도, 규장각)

신평리 일부와 강진군 백도면의 남촌리, 월성리 일부를 병합하여 해남군 북일면 홍촌리로 개설되었다. 1983년 북평면에서 북일면이 분면되어, 북평면 홍촌리에서 북일면 홍촌리로 개편되었다. 현재 홍촌마을, 삼성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홍촌리는 본래 신평(新風), 선성국(船成國), 만흥동(萬興洞)으로 불렸으며, 홍촌(興村)이란 이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만흥과 신평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딴 것이다. 마을이 흥하기를 바라는 명명이다.

삼성마을의 입향조는 김해김씨, 보은이씨, 밀양박씨로 알려져 있다. 삼성마을은 1954년 자치조례에 따라 홍촌마을에서 분리될 때 공자의 제자 중에 효행으로 유명한 증자의 말 ‘일일삼성(一日三省)’에서 마을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⁴

삼성마을은 ‘만홍’, ‘어은동’, ‘언동’으로 불리었다. 마을은 어은동과 만홍마을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삼성마을은 운교봉와 투구봉이 마을 뒤에 있어 바람이 적고 물이 맑다. 경관이 수려하고 살기가 좋아 외지에서 들어와 터를 잡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삼성마을 두륜샘 전경



삼성마을 두륜샘 위치도

4 홍촌리(興村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옥천면



옥천면(玉泉面) 우물 이야기

옥천면은 통일신라 때는 냉천부곡(冷泉部曲)이 있던 지역이었는데, 고려 때 옥천현(玉泉縣)으로 격상이 되어 영암군에 속하였다. 향소부곡은 현 단위보다 작은 규모의 특별행정구역이었다. 1448년(세종 30) 해남으로 이속시켰다가 영암군으로 옮겼다. 영암군 옥천을 남북으로 양분하여 북부를 옥천시면(玉泉始面), 남부를 옥천종면(玉泉終面)이라 불렀다. 1906년에 해남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옥천시면, 옥천종면을 병합하여 해남군 옥천면으로 개설되었다. 위치상으로 보아 조선 시대에는 옥천이 강진과 해남을 사이에 둔 영암의 월경지(越境地)였다.

옥천면 북쪽으로는 마산면, 동쪽으로는 강진군 도암면, 남쪽으로는 삼산면, 북일면, 서쪽으로는 해남읍과 접하고 있다.

옥천면은 대산리(大山里), 백호리(白虎里), 봉황리(鳳凰里), 성산리(星山里), 송산리(松山里), 신계리(新溪里), 신죽리(新竹里), 영신리(永信里), 영춘리(永春里), 용동리(龍洞里), 월평리(月坪里), 청신리(淸新里), 팔산리(八山里), 흑천리(黑泉里) 총 14개 법정리가 있다.

옥천면의 문화유산으로는 옥산서실 소장품 일괄[9종 113점](전라남도 유형문화



조선시대 후기의 영암군 옥천시면과 옥천종면(1872년, 영암군지도, 규장각), 1906년 해남군에 속하고, 1914년 옥천시면과 옥천종면이 합해져 옥천면이 된다.

제 제181호), 정운 충신각(전라남도 기념물 제76호), 해남 옥천 고분군(전라남도 기념물 제248호)이 있다.

옥천면의 우물 현황은 2011년에 조사된 해남의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下)』에서 알 수 있다. 삼산면에는 42개소의 우물이 조사되었으나, 조사 내용을 보면 개발로 사라졌다는 우물이 대부분이다.

영춘리에는 엄샘, 고래샘, 앞샘이 있었고, 영신리에는 영신샘, 양한묵샘이 있었다. 신계리에는 동막골샘, 신죽리에는 마랍샘, 배기샘, 수량샘, 앵밑에샘, 관정샘이 있었다. 용산리에는 용샘, 가족샘, 개샘, 문등샘, 용샘이 있었고, 성산리에는 뒷골샘, 창포샘이 있었다. 흑천리에는 곰샘, 개샘, 뒷샘, 말샘, 통샘이 있었고, 청신리에는 고래시암, 시암샘, 꾸꾸리샘이 있었다. 대산리에는 담안샘, 시루샘, 오래샘이 있었고, 백호리에는 큰샘, 약샘, 양지동샘,

새터샘이 있었다. 용동리에는 청룡샘이 있었고, 송산리에는 공동샘이 있었다고 조사되었다.

동네 곳곳의 지명을 조사하면서 샘 또는 샘터가 조사된 듯하다. 우물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샘의 이름도 다양한 것 같으나 위치나 모양에 따라 샘 이름이 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정착하면서 촌락은 하천의 계곡을 따라 형성되거나 샘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기에 사람이 사는 곳은 반드시 샘이 존재하였다.

마을이 단장되고 농지정리를 하면서 집 집마다 지하수를 놓으면서 이제 샘은 메워졌다. 현재 옥천면에 있는 우물을 동네 어르신을 따라 현장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우물 전수 조사에서 16개소를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8개소를 정리하였다.

연번	설명	리	마을	명 칭	주 소	출전 및 신조사자료
1		대산리 大山里	대산 大山	오래샘	해남군 옥천면 대산리 260	하 347
2	○	백호리 白虎里	백호 白虎	양지동 가운데샘	해남군 옥천면 백호리 428	하 354
3				마을샘	해남군 옥천면 백호리 95	하 357
4				양지동 아랫샘	해남군 옥천면 백호리 438-1	하 354
5				양지동 윗샘	해남군 옥천면 백호리 414-1	하 354
6				큰샘	해남군 옥천면 백호리 471-1	하 357
7	○	영신리 永信里	영신 永信	영신샘 양한묵샘	해남군 옥천면 433 이희춘 덕 안	하 232 군청자료

연번	설명	리	마을	명 칭	주 소	출전 및 신조사자료
8	○	영춘리 永春里	송운 松云	아랫샘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969	하 221
9	○	영춘리 永春里	호산 虎山	고래샘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102	하 226
10	○	용산리 龍山里	문촌 文村	동네마을샘	해남군 옥천면 용산리 681	하 글머리 군청자료
11	○		용정 龍井	용샘	해남군 옥천면 용산리 638-4	하 305 군청자료
12	○	청신리 淸新里	탑동 塔洞	시양샘	해남군 옥천면 청신리 22-1	하 337
13		흑천리 黑泉里	학동 鶴洞	동네윗샘	해남군 옥천면 흑천리 174-1	신조사
14			흑천 黑泉	개샘	해남군 옥천면 흑천리 302-1	하 321
15	○	용동리 龍洞里	이목 梨木	청룡샘	해남군 옥천면 용동리 832-5	하 383 군청자료
16		송산리 松山里	송산 松山	마을샘	해남군 옥천면 송산리 352-1	하 389

백호마을 샘

- 위치: 해남군 옥천면 백호리 471-1
해남군 옥천면 백호리 414-1
해남군 옥천면 백호리 438-1
해남군 옥천면 백호리 95
해남군 옥천면 백호리 428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00cm, 세로 100cm, 높이 30cm
원형(圓形), 지름 120cm, 높이 20cm
방형(方形), 가로 100cm, 세로 100cm, 높이 30cm
원형(圓形), 지름 100cm, 높이 30cm
육각형, 지름 100cm, 높이 30cm

백호마을 샘은 백호리 백호마을에 있다. 백호마을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집들이 밀집하여 있다. 마을 회관과 5개의 공동우물이 있다. 해남에서 가장 많은 공동 샘이 존재하는 마을이다. 5곳의 우물은 지금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우물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물맛 좋기로 이름난 샘이다. 샘은 양지동에 3곳, 새터에 2곳이 있으며, 지금도 마을 주민은 이곳에서 빨래하고 들녘을 오가다 물을 축인다.

양지동 샘은 이곳에 터를 잡은 해남윤씨가, 새터 샘은 평산신씨가 이주하면서 만들었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샘물을 지속해서 관리하여 주민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마을 뒤편에 약샘으로 소문난 샘이 2곳이 더 있었다고 한다. 앓은뱅이가 이 물을 마시고 벌떡 일어나 걸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약샘의 효험을 믿고 병을 고치려는 환자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70여 년 전 백호리 뒤편으로 도로공사를 하면서 ‘쥐독재’를 잘라버렸는데, 이때부터 샘물이 줄어들고 약효가 떨어져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지금도 샘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약샘 골이라고 부른다.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은 백호마을 앞들의 농업용수로 쓰인다.

정월 대보름에는 백호마을과 화촌마을이 불싸움과 물싸움을 하였다. 물싸움은 상대 마을의 샘물을 떠서 자기 마을의 샘에 부으면 그해 물맛이 좋아진다는 속설 때문에 자기 마을의 샘물을 지키면서 상대 샘물을 퍼오는 싸움이다. 백호마을 앞에 있는 큰 샘 부근을 큰샘끼[큰 샘 거리]라고 부른다.¹

백호마을의 샘은 방형 2곳, 원형 2곳, 육각형의 모양이며, 대부분 수조가 2개씩이다. 큰 수조의 샘물은 식수로 사용하고, 작은 수조의 샘물은 빨래할 때 사용하였다고 한다. 5곳 모두 우물 보호각과 담장을 설치하여 우물을 보호 관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우물은 회관 앞에 있는 통 샘거리의 통 샘이다.

백호리(白虎里)는 현재 백호마을, 청룡마을, 백운마을, 용심마을, 가성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백호(白虎)라는 지명은 마을이 풍수상으로 원경산(源鏡山)의 오른쪽(백호)에 자리를 잡고 있기에 붙여졌다고 한다. 본래 망골, 양지물동, 새터를 합하여 백호동, 백오동이라 칭했는데, 망골은 백호의 큰마을로 고려시대에는 옥산현과 이웃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옥천면 소재지였다.

백호마을의 입향조는 1470년쯤에 이주한 평산신씨라고 전한다. 이후 해

¹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下), 해남문화원, 2011, 353~357쪽.

남윤씨가 이주하면서 평산신씨는 새터를, 해남윤씨는 양지동을 터전으로 삼았다 한다. 평산신씨는 망 골에서 옮겨 새로 터를 잡았으므로 새터라 불렀고, 해남윤씨는 마을 서쪽 양지바른 곳에 잡았기에 양지동이라 불렀다.

백호마을 고인돌 폐를 상여 바위라 부른다. 또 백호마을에는 400년 정도 되는 소나무 일곱 그루가 있다.²



백호마을 새터의 큰샘
[통샘] 전경



백호마을 새터의 큰샘[통샘] 위치도

2 백호리(白虎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백호마을
새터의 마을샘 전경



백호마을
새터의 마을샘 위치도



백호마을
양지동 뒷샘 전경





백호마을
양지동 뿔샘 위치도



백호마을
양지동 가운데샘 전경



백호마을
양지동 가운데샘 위치도

백호마을
양지동 아랫샘 전경



백호마을
양지동 아랫샘 위치도



영신마을 영신샘

- 위치: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433. 이희춘 댁 안
- 크기: 방형(方形), 가로 200cm, 세로 200cm, 높이 50cm

영신마을 영신샘은 영신리 영신마을에 있다. 영신마을 영신샘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유일한 호남사람인 지강 양한묵(芝江 梁漢默, 1862~1919) 선생의 생가가 복원된 곳에서 위쪽으로 1km 이동하여 이희춘 씨 댁 마당에 있다. 영신샘은 낮은 방형의 샘으로 현재는 민가 안에 있지만, 옛날에는 마을의 중심지에 있는 샘으로 추정된다.

영신샘은 수백 년 동안 장마와 가뭄에도 항상 적당한 양만큼 찰랑거리고, 최고 물맛을 자랑하는 영험하고 신비한 샘이었다. 샘물은 깊이 않은 바위틈에서 솟구치는 석간수로, 간이상수도가 설치되기 전까지 마을 주민이 이용하던 공동우물이었다.

샘물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마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있다. 영신의 옛 지명인 영계(潁溪)도 이 우물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물 ‘영(潁)’자, 시내 ‘계(溪)’자인 영계는 마을 뒷산에서 흘러내리던 남쪽의 옛 계곡과 이곳 샘에서 따온 것이다.³

3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下), 해남문화원, 2011, 229~236쪽.

영신리는 만대산에서 흘러내린 산자락과 평지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영신마을은 만대산이 호두봉을 타고 내려와 치마처럼 펼쳐진 곳에 터전을 잡고 있다.

조선시대에 영암군 옥천시면의 지역으로 영신원(永信院)이라 부르다가 영신으로 바뀌었다. 마을 이름에 원(院)자가 붙은 것은 많은 사람이 묵고 갔기 때문이다. 여기서 영신리(永信里) 명칭이 유래하였다. 1906년 해남군으로 편입되었다.

영신마을은 1634년 용정에서 이주한 양도남(梁道南)이 최초 입향하였다고 전한다. 양도남의 할아버지인 양산형(梁山迥)이 1567년 하동정씨와 혼인하여 화순 능주에서 옥천 대산으로 이거하였고, 양산형의 둘째아들 양범용이 옥천 대산에서 용정으로 이주하였으며, 양범용의 장남인 양도남이 용정에서 영신으로 이주하였다. 제주양씨가 영신으로 이주하기 전에 박씨들이 선주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양도남의 행장에 영신마을에 박 씨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영신마을 영신샘 근경



영신마을 영신샘 위치도

송운마을 아랫샘

- 위치: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969
- 크기: 방형(方形), 가로 200cm, 세로 200cm, 높이 70cm

송운마을 아랫샘은 영춘리 송운마을에 있다. 샘 거리 들판 한가운데 있는데 낮은 방형이다. 송운마을 식수는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박명등 아래 마르지 않는 샘이 있으며, 그 샘은 가끔 샘물이 끓어 넘쳤다. 끓어 넘치는 물을 받아 마시면 무병장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200년 전에 끓어 넘쳤다고 한다. 샘의 영험이 알려지자 정월 대보름이면 이웃 동네에서 샘물을 퍼 가려고 몰려오면 이를 막는 물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⁴

농지정리가 되기 전 마을의 공동우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예전에는 우물 보호각을 설치하여 우물을 보존하였으나, 일대가 논으로 변화하면서 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도 보호각 일부와 우물 틀이 흔적만 남아있다.

영춘리는 북쪽으로 영신리, 동쪽으로 성산리, 남쪽으로 송산리, 서쪽으로 해남읍 해리, 해남읍 신안리와 접하고 있다. 영춘리는 조선시대 영암군 옥천면에 속한 호산리, 송운리, 영춘리, 만석리, 학하리 지역이었다. 1906년에

4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下), 해남문화원, 2011, 220~221쪽.

해남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에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로 통합되었다. 옥천면 소재지이다.

송운마을은 만대산 자락 아래 들어선 평야촌이다. 마을 주변에 소나무가 울창하여 송동(松洞)이라 불렀고 송운(松雲)이라고도 하였다. 울창했던 소나무 숲은 김 공장이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송운마을 아랫샘 근경



송운마을 아랫샘 위치도

호산마을 고래샘

- 위치: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102
- 크기: 방형(方形), 가로 200cm, 세로 100cm, 높이 70cm

호산마을 고래샘은 영춘리 호산마을에 있다. 호산마을은 들판에 들어선 평야 촌으로 집들이 한군데로 모여 있는 집촌이다. ‘뒷까끔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 하천이 마을을 에둘러 흐르고 있다, 마을 중심에 마을 회관과 쉽터가 있다. 식수는 지하수를 이용하며 약 40여 년 전에는 공동우물을 식수로 이용하였다.

호산마을에서는 예전에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의 평안과 풍년, 잡귀를 쫓는 것을 빌기 위하여 도제(都祭)를 지냈다. 이 도제를 마을에서는 ‘도지, 당제, 당산제, 별신제’라 불렀다. 도제는 뒤 소나무 거리, 벽수 거리, 짐때배미 순으로 지냈다. 제관은 정월 14일 아침에 샘과 지터나무, 벽수, 짐대 나무를 청소하고 제장 주위에 금토(황토)를 뿌리고 왼새끼를 쳤다. 정월 대보름에는 도제 뿐만 아니라 쥐불놀이와 우물 퍼오기 싸움을 하였다.⁵

호산마을 고래샘은 호산마을 창고 앞에 있다. 예전에는 마을의 중심지로 보이거나 현재는 우물 바로 옆에 건물이 지어졌다. 고래샘은 낮은 방형의 샘

5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下), 해남문화원, 2011, 225~227쪽.

으로 현재는 물이 말라 우물 바닥이 보인다. 우물 내부를 자연석으로 쌓았으며, 우물 틀은 시멘트로 둘러쳤다.

고래샘은 연중 생수가 흘렀으며, 최근까지 샘 아래에 있는 논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하였다고 한다. 고래샘 아래에 있는 논을 구래시들이라 부르며 고래샘 덕분에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호산마을에는 고래샘 외에도 앞샘을 공동우물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메웠다고 한다.

영춘리(永春里) 호산마을은 서쪽으로 만대산이 보이는 옥천평야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호산마을은 서쪽으로 만대산 정기가 옥천평야를 향해 흘러 내려오다가 들판 가운데 뭉친 곳에 자리 잡은 마을로 형국이 마치 호랑이가 힘차게 뛰어나오는 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호산(虎山)’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영암군 옥천시면에 속한 지역이었는데 1906년 해남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해남군 옥천면이 되었다.

또 이곳에 여우가 집단으로 서식했다고 하여 여우 ‘호(狐)’자를 썼다가 이것을 범 ‘호(虎)’자로 바꾸어 ‘호산(虎山)’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호산마을의 입향조는 1597년에 정착한 경주정씨 정산해(鄭山海)로 본다. 마을 뒤편에 경주정씨 16대조 묘가 있어서 경주정씨가 오래전부터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호산마을 고래샘 근경



호산마을 고래샘 위치도

문촌마을 동네샘

- 위치: 해남군 옥천면 용산리 681
- 크기: 원형(圓形), 지름 700cm, 높이 30cm

문촌마을 동네샘은 용산리 문촌마을에 있다. 문촌마을 중심부에는 마을 회관과 정미소, 공동우물과 빨래터가 있다. 공동우물은 물맛이 유난히 좋아 지금도 마을 주민이 이용하기는 하나, 대부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⁶

공동우물은 문촌마을 입구 삼거리에 있다. 작은 규모의 방형 우물은 식수로 사용하였고, 그 아래에 큰 규모의 원형 우물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 위 물통의 샘물은 보호각을 씌워 동네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문촌마을에서는 정기적으로 우물 주변 관리하고 있다. 2020년 봄에 옥천면사무소에서 도로정비를 하는 차에 면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우물 주변을 정비하였다.

용산리(龍山里)에는 지석묘군과 입석, 그리고 옹기 요지 등이 있다. 용태산 아래에 있어서 용산(龍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구전에 따르면, 마을 형국이

6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下), 해남문화원, 2011, 296~297쪽.



조선시대 후기의 영암군 옥천시면 용산리 일원(1872년, 영암군지도, 규장각).

용의 분비물 같아 땅이 비옥하고, 가뭄도 타지 않아 해마다 풍년을 누렸다고 한다.⁷

용산마을과 한마을이었던 문촌마을은 용산마을에서 분리되었다. 문촌(文村)은 문인들이 많이 배출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의 풍수가 배를 짜는 도투마리 형국이고, 지형이 북창과 용정으로 향하는 용의 배설물 형태여서 토지가 비옥하고 급수 사정이 원만한 곳이다.

조선시대에 영암군 옥천시면에 속하였는데 1906년에 해남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옥천시면의 구암리, 문촌리, 용정리, 야곡리, 만연리, 용산리 일부 등을 합하여 옥천면 용산리라 하였다.

⁷ 용산리(龍山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문촌마을 동네샘 전경



문촌마을 동네샘 위치도

용정마을 용샘

- 위치: 해남군 옥천면 용산리 638-4
- 크기: 방형(方形), 가로 220cm, 세로 220cm, 높이 30cm

용정마을 용샘은 용정(龍井)마을 삼거리에 있다. 낮은 방형의 샘으로 보호 시설이 있고 뚜껑을 덮어 우물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맨눈으로 보아도 샘물은 맑아 사용중이며 마을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용샘의 용이 하늘로 올랐다 전하고 있다. 정월 대보름에는 이웃에서 물을 훔쳐가서 밤새워 지키기도 하였다고 한다. 정월 보름에 마을끼리 물싸움을 하였으며,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관광버스로 관광객이 들어왔다고 한다.⁸

이는 용정마을이 새마을 운동이 시행되기 전에 재건사업을 먼저 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62년 해남군 옥천면 용정과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등 4개 마을이 모범마을로 지정되어 재건사업을 처음 실행하였다. 당시 3성 모범마을로 마을 앞에 별 세 개가 그려진 표지판을 붙여놓고 전남에서 가장 먼저 재건사업을 하였다.

재건사업은 이장을 중심으로 지붕 개량, 마을안길 넓히기 등을 실시하였다. 인근 지역인 장흥, 강진, 영암, 완도, 진도 등의 수많은 마을에서 용정마

⁸ 용정마을 노인회장 제보.

을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재건사업은 1970년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던 새마을 운동의 효시로 보기도 한다.⁹

정월 대보름에는 우물 훔치기도 벌였다. 물맛이 떨어지거나 물이 자주 마르는 집에서는正月 대보름날 새벽 마을의 물맛 좋은 집의 물을 몰래 떠와서 자기집 우물에 부었다. 이 행사는 마을 단위로도 벌어졌다. 용정마을의 용샘은 물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이웃 마을에서 우물 훔치기를 벌이니 지켜내는 재미도 있었다고 한다.

용산리(龍山里) 용정(龍井) 마을은 용산 서쪽 옥천면 중심부에 있는 마을로 용샘이 있어 ‘용정’, ‘용샘골’, ‘용샘 골’이라 불렀다. 구전에 따르면 용 형국을 가진 제봉산 줄기가 마을을 향해 있는데, 마을에 목마른 용이 목을 축이는 용샘이 있어 용샘 골이라 불렀다고 한다.¹⁰ 마을은 소쿠리 형국으로 소쿠리 안쪽에 집촌의 마을구조를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영암군 옥천시면에 속했는데 1906년 해남군으로 편입되었다.

용정마을에는 김해김씨와 제주양씨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제주양씨가 영신마을로 옮겼다고 전한다. 김해김씨는 1597년에 입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9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下), 해남문화원, 2011, 301~302쪽.

10 해남문화원, 『마을 유래지』, 해남군, 1987, 463쪽.



용정마을 용샘 전경



용정마을 용샘 위치도

탐동마을 시앙샘

- 위치: 해남군 옥천면 청신리 22-1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20cm, 세로 30cm, 높이 30cm
원형(圓形), 지름 110cm, 높이 30cm

탐동마을 시앙샘은 청신리 탐동마을에 있다. 탐동마을은 청신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로, 산 밑으로 집들이 넓게 흩어져 있다. 마을 가운데 탐이 있어 탐동이라 불렀다. 고려 때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덕룡사(德龍寺)라는 절이 있었던 곳에 형성되었다. 덕룡사는 폐찰되고 탐만 남아 있는데, 마을의 입향조들은 이 탐을 중심으로 정착하였다고 한다. 예전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지냈다고 한다.

탐동마을에는 물이 잘 나오는데, 이 마을이 백호와 청룡 사이 음에 해당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 공동 제사로 탐제를 지낸다. 탐제는 탐에 금줄을 두르고, 장군바위 부근에 있는 시앙샘에서 정화수를 떠와 오층 석탑 앞에 놓고 마을 발전을 기원한다. 예전에는 이날 이웃 마을과 물싸움도 했는데, 물싸움을 하는 이유는 마을의 샘물이 마르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¹¹

11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下), 해남문화원, 2011, 334~337쪽.

탐동마을 시양샘은 탐동마을 입구 삼거리에 있으며 논과 인접해 있다. 우물은 낮은 방향의 샘과 낮은 원형의 샘이 나란히 있다. 식수용과 그 외 용도로 구분된 물통이다. 우물 주변에는 담을 설치하였다.

청신리(淸新里)는 조선시대에 영암군 옥천중면 지역에 속하였는데, 1906년(광무 10) 해남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탐동리, 동리, 흑천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해남군 옥천면 청신리가 되었다. 현재 청신마을, 탐동마을, 조운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청신리의 문화유산으로는 고인돌군과 선돌, 오층석탑이 있다.¹²

청신리 185-2번지에 있는 해남 탐동 오층석탑은 원래 오층석탑인데, 현재는 4층 옥개석만 남아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탑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마산면 공세포로 반출하여 배에 실어 떠나려 할 때마다 태풍이 불어서 결국 못 가져갔다. 옥천 유지들이 돈을 모아 이 탑을 가져와 복원하였다. 2006년 1월 1일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제14호로 지정되었다.

청신리는 북쪽으로 성산리, 동쪽으로 흑천리, 남쪽으로 대산리, 서쪽 송산리와 접하고 있다. 고래 시암이 있어 고래샘, 고래정이라 불렀다가, 이후 구시반, 청신정(淸申丁)으로 불리었고, 청신(淸新)이라 칭하게 되었다. (1872년 영암군 지도 참조)

12 청신리(淸新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탐동마을 시양샘 근경



탐동마을 시양샘 위치도

이목마을 청룡샘

- 위치: 해남군 옥천면 용동리 832-5
- 크기: 원형(圓形), 지름 70cm, 높이 20cm

이목마을 청룡샘은 용동리 이목마을에 있다. 이목마을 식수는 지하수와 마을 앞에 있는 청룡샘을 이용하고 있다. 청룡샘은 물맛이 좋아 마을의 자랑이다. 이 물로 술을 빚거나 김치를 담그면 맛이 일품이다. 청룡샘은 음폭 한 곳에 물이 고여 이루어진 자연 샘이다. 아마도 마을 터를 잡고, 식수를 얻기 위해 바위틈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이는 곳을 다듬어 우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물 옆으로 이어진 산줄기가 호룡불[동진] 형국인데, 호룡불에서 기름이 새듯이 물이 흘러 모인 것이 청룡샘이라는 것이다. 예전에 이 산줄기에 정 씨들이 묘를 썼다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 이장한 뒤로 묘를 쓰지 않고 있다고 한다.

최근 청룡샘이 약수터로 알려지자 타지 사람들도 간간이 물을 길어가고 있다. 여름이면 20분 이상 손을 담그지 못할 정도로 시리고, 겨울이면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물이 따뜻하다.¹³

13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下), 해남문화원, 2011, 382~384쪽.

이목마을 입구에 있는 청룡샘은 별도의 우물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용동리는 용동마을, 도림마을, 이목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용동(龍洞)은 용이 승천하는 형국으로 생겼는데, 용뚝병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비룡골, 비룡동, 비렁골로 부르다가 용동이라 하였다.¹⁴ 조선시대에 영암군 옥천 종면에 속했다가 1906년에 해남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목리, 용동리, 도림리, 자경리가 옥천면 용동리가 되었다.

이목(梨木)마을은 오마산에 둘러싸인 마을로 송계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양촌제를 축조하면서 이목마을이 수몰되자 옛 신동마을로 마을 터전을 옮기고 마을 이름도 이목으로 바꾸었다. 원래 배나무가 많아 ‘배나뭇들’이라 하다가 이목이 되었다. 이목은 신동과 이목, 두 동네로 이루어졌으며, 신동이 먼저 생겼고 이목이 나중에 형성되었다.

1980년대까지 삼베, 무명베, 명주베를 많이 짰다. 이목마을에는 백자요지가 있다.

14 용동리(龍洞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이목마을 청룡샘 전경



이목마을 청룡샘 위치도

계곡면



계곡면(溪谷面) 우물 이야기

계곡면은 백제 시기 고서이현(古西伊縣)에, 통일신라 시기 고안현(固安縣) 혹은 동안현(同安縣)에, 고려 때는 죽산현(竹山縣)에, 조선 초에는 해남현에 속했고 해남 삼역의 하나인 별진역(別珍驛)이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해남현 청계면(淸溪面)과 비곡면(比谷面), 영암군 곤이시면(昆二始面) 일부로 나뉘어 있었다. 1906년에 곤이시면은 해남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청계면의 ‘계’와 비곡면의 ‘곡’을 따와 계곡면(溪谷面)이라 부르게 되었다.

계곡면은 해남군의 14개 읍면 가운데, 가장 동북쪽에 위치하며, 해남의 첫 관문으로서 자리해 왔다. 계곡면의 역사는 지석묘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서 이곳이 고대부터 역사의 큰 줄기로써 자리했음을 알 수 있다.

계곡면은 북쪽으로 영암군 학산면 학계리, 동쪽으로 강진군 강진읍 서산리, 남쪽으로 옥천군 신계리, 마산면 화내리, 서쪽으로 마산면 연구리, 영암군 미암면 호포리와 접하고 있다.

계곡면 북쪽으로는 흑석산(黑石山)과 서기산(瑞氣山)이 솟아 중산간지대를 형성하고 있어 농경지가 좁으며, 산록에 가학산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다. 서남쪽으로 형성된 등성평야(燈成平野)에는 흑석산에서 발원하는 성진천



조선시대 후기의 해남현 청계면과 비곡면(1872년, 해남현지도, 규장각), 1914년 청계면과 비곡면, 1906년에 해남으로 편입된 영암군 곤이시면 일부가 합해져 계곡면이 된다.

(星津川)이 흘러 비옥한 토지를 만들고 있다.

계곡면은 가학리(駕鶴里), 강절리(康節里), 당산리(堂山里), 덕정리(德鼎里), 반계리(磻溪里), 방춘리(芳春里), 법곡리(法谷里), 사정리(士丁里), 선진리(船津里), 성진리(星津里), 신평리(新坪里), 여수리(呂水里), 잠두리(蠶頭里), 장소리(將所里), 황죽리(篁竹里) 등 총 15개 법정리가 있다.

계곡면의 문화유산으로는 별진사지(別珍寺址), 운곡사(雲谷寺), 방춘서원(芳春書院)(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성진리 지식묘, 용연사(龍淵祠) 등이 있다. 해남 진양주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5호로 1994년 1월 31일 지정되었다. 매년

5월 흑석산 철쭉제가 열린다.

계곡면의 우물 현황은 2011년에 조사된 해남의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상)에서 알 수 있다. 계곡면에는 25개소의 우물이 조사되었으나, 조사 내용을 보면 개발로 사라졌다는 우물이 대부분이다.

성진리에는 말샘, 법곡리에는 순풀샘, 강절리에는 골샘, 당산리에는 참샘, 선진리에는 개샘, 반계리에는 자아샘이 있었다. 방춘리에는 국수샘, 방애다리샘, 비럭끝샘, 은골샘이 있었고, 덕정리에는 덕정샘, 죽샘, 통샘이 있었다. 여수리에는 통샘, 도래샘이 있었고, 사정리에는 통샘, 잉글배미샘, 맹수샘, 냉수샘, 통샘, 서답샘, 줄샘, 부엌샘이 있었다. 가학리에는 구무샘, 장구샘이 있었다고 조사되었다.

동네 곳곳의 지명을 조사하면서 샘 또는 샘터가 조사된 듯하다. 우물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샘의 이름도 다양한 것 같으나 위치나 모양에 따라 샘 이름이 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정착하면서 촌락은 하천의 계곡을 따라 형성되거나 샘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기에 사람이 사는 곳은 반드시 샘이 존재하였다.

마을이 단장되고 농지정리를 하면서 집집마다 지하수를 놓으면서 이제는 샘은 메워졌다. 현재 계곡면에 있는 우물을 동네 어르신을 따라 현장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우물 전수 조사에서 9개소를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5개소를 정리하였다.

연번	설명	리	마을	명칭	주소	출전, 조사
1	○	강절리 康節里	강절 康節	천년골샘 (골시암샘)	해남군 계곡면 강절리 336	상 207
2	○	당산리 堂山里	당산 堂山	동쪽샘	해남군 계곡면 당산리 522	신조사
3		당산리 堂山里	당산 堂山	중덕샘 (참샘)	해남군 계곡면 당산리 525	상 207 군청자료1
4	○	덕정리 德鼎里	덕정 德鼎	덕정샘 (진양주)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 423	상 249 군청자료1
5		반계리 磻溪理	반계 磻溪	자아샘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361-1	상 236
6		사정리 士丁里	용지 龍池	서답샘	해남군 계곡면 사정리 32-1	상 269
7	○	선진리 船津里	신주 新舟	헌시암샘 (개시암샘)	해남군 계곡면 선진리 430	상 231
8		성진리 星津里	성진 星津	시암샘	해남군 계곡면 성진리 271-8	신조사
9		여수리 麗水里	여수 麗水	통시앰	해남군 계곡면 여수리 120	상 258

강절마을 골샘

- 위치: 해남군 계곡면 강절리 336
- 크기: 원형(圓形), 지름 300cm, 높이 50cm

강절마을 골샘은 강절리 강절마을에 있다. 강절은 조선시대에 해남군 비곡면 강절리(康節里)에 속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사촌리(沙村里)를 합하여 계곡면 강절리가 되었다.

골샘은 강절마을 들판 가운데에 있는 샘으로 잔돌을 막쌓기한 샘이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보호각을 세워 관리를 하고 있다. 주변도 돌담을 쌓았으며, 옆에는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강절마을 골샘은 마을이 형성되기 전에 살던 할머니 한 분이 우연히 지나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곳을 가보니 물이 솟아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물길을 찾아 샘을 만들었다고 한다.

20년 전 별세한 임상일님(백세 장수)은 샘이 끓어오르면서 물거품이 난 것을 보고, 거기에서 세수를 하니 피부병이 낫고 장수를 하였다고 전한다. 골샘은 마을 식수이면서 약수로 사용하기도 한 샘이다.

일년 중 한번 샘물이 끓어 오를 때 마시거나 피부에 바르면 장수하거나 피부병이 낫는다고 한다.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빨래감이 있

으면 이곳에서 빨래를 했고, 또 몸이 가렵거나 발목에 통증이 있으면 이곳에서 주무르거나 담구고 있으면 나왔다고 한다. 정월 대보름 전날에는 샘에 불을 켜고 지키기도 했으며 이곳에서 치성을 드리기도 하였다.

상수도가 들어온 이후 방치되다시피 했다. 2008년에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대상마을로 선정되어, 지원금으로 담을 다시 쌓고 골목 곳곳에 벽화를 그렸다. 옛 지명을 찾고 상징적인 장소에는 설명문을 걸들인 안내판도 세웠다.

강절리 골샘이 계곡면에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계곡가(溪谷歌, 작자미상)에 기록되어 불리고 있다.¹

금강제 높이 올라 해월을 바라보니
 신평세계 여기로다
 황죽에 뿌린 눈물 생배의 회원이라
 오릿재 바빠 넘어 무이촌 돌아드니
 주부자 간 곳 없네
 장산에 피는 꽃은 하락등에 떨어지고
 서기산을 바라보고 연봉장 돌아들어
 굴레보 단속하고 용호에 배를 띄워
 소금 많이 싣고 장소를 찾아가니
 굴령이 완연하다 용당지 깊은 못은 고령만
 잠겨있고 개성당 놓은 봉은 무슨 성이 나섰는고
 원진을 묻자하고 해주로 내려와서
 혼모령 돌아들어 고뱅이 쌓인 곡식
 집집마다 두고 지고 모동에 불을 휘어

1 「선조들의 생활」, 『계곡면지』, 2011, 268쪽.

당산을 비취보니 청산춘락이 분명구나
 은암에 유달승은 동백유로 치리하고
 윤대절을 찾아가서 너희 스승 어데 갔나
 상사바위 깊은 골로 약을 캐러 가셨으나
 매미봉 구름 깊어 가신 곳을 모르겠소
 상사말고 기다리요 신동에 노선들아 새터라고
 자랑하모 백의 호촌 등마실도 잣등만 남아 있네
 조산에 지은 집은 또 다시 신행이요
 동산에 뜨는 달은 서편으로 넘어가고
 불명자명 명성굴은 종성자명 완연하고
 기석자석 동속굴은 기동자동 완연하네
 태인독골 사람들아 가산치리 그만하고
 배악재 높이 올라 신선따라 놀아보세
 사촌의 농부들은 갈마중 그만 갈고
골샘에 목욕하고 탁동에 놀아보세
 안다하는 소강들도 죽어지니 허사로다
 망월도 하여보세 원신동이 이 앞에서
 천재인지 인재인지 이제보니 범곡이라
 옥등아 저 낭자는 별진을 이별말자
 비석에 가게있고 반계에 축속하야
 맹진포로 흘러가고 남당포 짙은 안개
 월암으로 휘여든다
 북창에 비친 달은 동정지에 날이 샌다
 금강재 다시 올라 천재소리 들으려니
 송실정이 부련하다

차라리 종이되어 세상사를 잊으리라

-제공: 임병선/강절리



강절마을 골샘 전경



강절마을 골샘 위치도

당산마을 참샘[중덕샘], 동쪽샘

- 위치: 해남군 계곡면 당산리 525, 522
- 크기: 방형(方形), 가로 300cm, 세로 200cm, 높이 50cm
방형(方形), 가로 300cm, 세로 500cm, 높이 30cm

당산마을에는 2개의 우물이 있다. 마을 안쪽의 동쪽에 있는 동쪽샘과 참샘 또는 중덕샘이라 부르는 우물이다. 당산리(堂山里)는 조선시대에 해남 비곡면 지역이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동리, 춘언리, 신광리, 동백리, 모동리 일부를 합하여 해남군 계곡면 당산리가 되었다. 현재 당산마을, 신기마을, 태인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당산마을에서 샘을 2곳 조사하였다. 당산마을에는 참샘 말고도 고봉이샘, 통샘, 지금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큰골샘, 마을 중앙에 있는 중돔샘[중돔 바가지샘], 동쪽샘이 있는데 큰골샘은 상수도로 연결이 되고 나머지 샘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동쪽샘[동쪽 바가지샘]은 현재 10여 농가가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도 잘 되고 물맛도 아주 좋다.²

통샘[안내판에는 '흔의 우물'이라고 함]은 낮은 방형의 샘이며, 샘 인근에는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통샘은 마을 중앙에 위치하

2 「마을편 당산리 전래지명」, 『계곡면지』, 계곡면지편찬위원회, 2011, 383쪽.



조선시대 청계면 당산리(1872년, 해남현지도, 규장각)

고 있다.

통샘은 당산마을 역사와 같이하여 450여 년 동안 마르지 않고 긴 세월을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우물로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항상 물이 가득하여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옛 조상들이 ‘혼의 우물’이라 불렀다고 한다.

우물 주변에는 돛자리 재료인 왕골나무도 무성히 있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이용되었으며, 1940년 간이상수도가 설치되면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었으나 예전의 그 혼을 다시 느끼고자 2012년 군의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지원을 받아 ‘혼의 우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³

3 당절마을 통샘 우물 안내판 인용.

당산 지명 유래는 마을이 ‘산(山)’자 형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마을 전체가 한 집안이라는 의미로 당(堂)자를 넣어 당산(堂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당산마을은 1400년경 연산군 폭정이 있자 장흥임씨 임서규(任瑞圭)가 들어와 자리를 잡아 입향조가 되었다. 신기마을은 당산마을에서 1962년 분가된 마을이며, 태인마을은 1550년경 임서규의 후손 임희경이 신기마을에서 분가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다. 장흥임씨 7인을 배향하고 있는 운곡사(雲谷祠)가 있다.



당산마을 참샘 전경



당산마을 참샘 위치도



당산마을 동쪽샘 전경



당산마을 동쪽샘 위치도

덕정마을 덕정샘

- 위치: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 423
- 크기: 육각형, 지름 200cm, 높이 50cm

덕정샘은 덕정리 덕정마을에 있다. 덕정리(德鼎里)는 조선시대에 해남 청계면 지역에 속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가 되었다. 현재 덕정마을, 둔주마을, 월암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덕정리는 평야에 들어서 있는 마을이다. 마을 형국이 술과 같아, 샘을 파는 것은 술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 하여 마을 앞 공동샘 하나로 식수를 이용하였다 한다. 따라서 지금껏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샘 하나로 식수를 해결해 오고 있으며 이 샘은 마을이 생길 때부터 생겨났다고 전한다.

마을의 역사와 샘의 역사가 같으니 마을 주민들의 사랑 또한 대단하다고 하는데, 특히 덕정리샘은 물맛이 간간하고 독특해 한번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어 배앓이와 같은 뱃병도 쉽게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이 물로 빚어진 '진양주(眞釀酒)'는 맛이 특이해 그 맛 또한 덕정마을에서만 낼 수 있는 술로 알려져 과거에는 옆 마을에서도 진양주를 만들 때는 꼭 덕정마을 샘물을 길어다 진양주를 빚었다고 한다. 진양주의 독특한

맛은 덕정리 샘의 물맛이 약간 짜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말한다.⁴

진양주는 원래 궁중 양조술이다. 진양주의 유래는 현종 때 궁중 소주방에서 술을 빚던 최씨 성의 궁인이 있었는데, 영암군 덕진면에 살던 이조좌랑(吏曹佐郎)과 사간(司諫)의 벼슬을 지낸 광산김씨 김권(金權)의 부인으로 들어가서 그의 손녀에게 주조비법을 전수했다고 한다. 그 손녀가 덕정리 임재중씨에게 시집와 가양주로 빚어 먹었는데 그 맥이 최옥림(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에게 이어진 것이다. 진양주는 덕정리 외에도 인근의 북창, 둔주포, 맹진 등에서도 양조되고 있으나 덕정리 우물로 빚어야 제 맛을 낸다고 한다.

덕정샘은 덕정마을 회관 뒤편에 있으며, 500m 거리에 해남 진양주를 빚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5호 보유자가 거주하고 있다. 현재 덕정샘은 사용하지 않으며, 육각형의 높은 토관의 모습이다.

덕정마을 입향조인 임희성(任希聖)은 약 450년 전에 이주하였다. 임희성은 진도군수를 지냈는데, 처가가 해남이었다. 처가에 왕래하던 차에 마을 지형이 술(鼎)과 같아 터를 잡으면 큰 덕을 보고 자손만대에 인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 하여 정착하였으며 마을 이름을 덕정(德鼎)이라 하였다고 한다.⁵

4 「선조들의 생활-옛이야기」, 『계곡면지』, 계곡면지편찬위원회, 2011, 257쪽

5 덕정리(德鼎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덕정마을 덕정샘 전경



덕정마을 덕정샘 위치도

신주마을 현시암

- 위치: 해남군 계곡면 선진리 신주마을(신주길 77)
- 크기: 방형(方形), 지름 100cm, 세로 100cm, 높이 30cm

신주마을 현시암은 선진리 신주마을에 있다. 신주마을은 신주산(新舟山)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에 영암군 곤이시면에 속했다. 1906년에 해남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영암군 곤이시면 원진리(院津里), 선산리(船山里), 신주산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해남군 계곡면 선진리(船津里)가 되었다. 현재 선진마을, 신주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신주마을의 가신당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10여 가호가 살았던 곳으로 샘이 하나 있다. 이 샘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 아침에는 김이 모락모락 났고 이곳 샘은 물이 항상 흘러넘쳐 그 물로 아래 논농사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마을에는 원샘[현샘] 이외에는 샘이 없어 여러 집에서 샘을 뚫으나 끝내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비가 오면 마을 곳곳에서 물은 나긴 했으나 이내 멈추어 원샘을 더욱 신성시 여겨 정월대보름에는 계란의 윗부분만을 깨어 내 참기름을 붓고 창호지로 심지를 만들어 제를 올리며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샘은 그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 40여 호가 이용했는데 가뭄이 들 때는 물이 부족하여 정월대보름이나 2월 초하루, 하루 달에는 물끄기 풍습을 해왔다. 언젠가는 성전면 처인마을 샘물을 정월대보름날 밤, 병에 떠오다 마을 뒤편 골짜기에서 처인 주민들에게 붙잡혀 병이 깨져버렸는데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물이 나와 지금까지도 물이 솟아나고 있다.

또 깃대봉 넘어 강진 성전면 낭동마을 샘의 물줄기가 같다하여 서로 물을 끌어오다 그곳 주민들과도 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 뒤 1998년대에 장길남이 원 마을과 가심당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했으나 물이 부족하여 2002년 이상호가 관내 사업인 대형 관정을 인가받아 물탱크를 설치하였다. 새마을 상수도는 사업 당시 있었으나, 식수 부족으로 이장 김대식이 인가를 받아 김종식 이장 무렵 2007년 5월 상수도를 완료하여 식수를 해결하였다.⁶

현재 이 샘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주민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선진리는 배가 떠나는 행주형(行舟形)이라 하고, 또 마을 주위에 해주(海舟), 신주(新舟), 원진(院津), 띄배성굴과 같이 배와 관련된 지명이 있으며, 마을 앞에 배를 매어두었다는 표석이 있는 것을 볼 때 과거 포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주마을은 선진마을에서 분리된 마을이다. 최초 입향자는 광해군 때의 전주이씨 이현각(李顯珪)이라고 한다.⁷

해남의 관문인 신주마을은 마을 동쪽으로는 강진군이 있고, 북쪽으로는 영암군이 접하고 있다. 이웃마을로는 원 마을 뒷길 정골재를 넘으면 강진군 성전면 처인마을이 있고, 깃대봉 너머에는 강진군 성전면 낭동마을이 있다.

6 「마을편 선진리」, 『계곡면지』, 계곡면지편찬위원회, 2011, 443~444쪽.

7 선진리(船津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신주마을 현시암 전경



신주마을 현시암 위치도

마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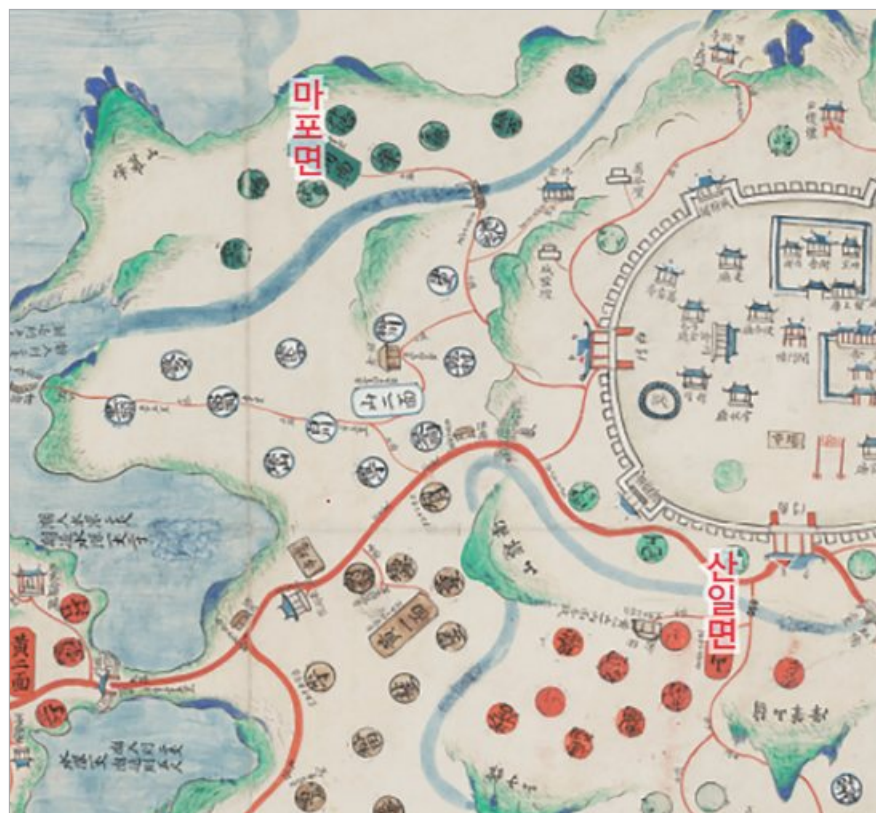
마산면(馬山面) 우물 이야기

마산면은 백제 시기 고서이현(古西伊縣), 통일신라 시기 고안현(固安縣), 고려와 조선 초까지 죽산현(竹山縣)이라 칭하였다. 임진왜란 뒤에는 마포면(馬浦面)이 되었고, 1914년 마포면과 산일면(山一面)이 합해지면서 마산면으로 되었다.

마산면은 해남군 1읍 13개면 가운데 하나로 해남군의 북서쪽에 있고, 면소재지는 화내리이다. 동쪽으로는 옥천면과 계곡면에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산이면, 황산면과 경계하고 있다. 또한 남쪽으로 해남읍에 접하고, 북쪽으로 간척지 건너 영암군 미암면에 닿아 있다.

본래 면 서북쪽은 드넓은 개펄이 펼쳐져 어장이 풍부한 바다였으나, 1980년대 영산강 제2단계 간척사업으로 농경지화 되면서 일부는 담수호로 바뀌었다.

마산면의 동부에는 해발 500m의 만대산(萬垓山), 남부에는 금강산(金剛山), 서부에는 역마산(驛馬山)이 우뚝 솟아 그 위상을 뽐내고 있다. 은적골에서 쉽게 내려오는 맑은 물은 영산호를 향하여 흐르며 깊은 골짜기에서 저녁에 울려 퍼지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종소리는 은적사의 은사모종(隱寺暮鍾)은 최



조선시대 후기의 해남현 마포면과 산일면(1872년, 해남현지도, 규장각), 1914년 마포면과 산일면이 합해져 마산면이 된다.

근까지 해남팔경으로 꼽혔다.

마산면은 노하리(路下里), 맹진리(孟津里), 산막리(山幕里), 상등리(上磴里), 송석리(松石里), 연구리(燕邱里), 외호리(外湖里), 용전리(龍田里), 장촌리(長村里), 학의리(鶴儀里), 화내리(禾內里) 등 총 11개 법정리가 있다.

마산면의 문화유산으로는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전남유형문화재 86호), 해남 맹진리 암각매향비(전남기념물 137호), 영산사(英山祠) 소장문서 일괄(전남문화재자료 139호), 원주이씨 효자문, 동산성(東山城), 은적사(隱跡寺), 민신묘(閔伸

墓), 맹진산성(孟津山城), 예양사(禮陽祠), 산막리산성(山漠里山城), 예양사(汜內陽祠), 배씨열녀문(裴氏烈女門) 등이 있다.

마산면의 우물 현황은 2011년에 조사된 해남의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上)에서 알 수 있다. 마산면에는 40개소의 우물이 조사되었으나, 조사 내용을 보면 개발로 사라졌다는 우물이 대부분이다.

화내리에는 무지개샘, 사시시샘이 있었고, 장촌리에는 말샘, 보리샘, 중시샘, 진서시샘, 큰샘, 폰너머샘이 있었다. 맹진리에는 독샘, 약샘, 창샘이 있었고, 송석리에는 기당샘, 문턱바우샘, 불당골샘, 절태샘, 도추샘이 있었다. 산막리에는 둥병샘, 작은샘, 큰샘이 있었고, 노하리에는 개샘, 구수샘, 피고리샘, 말뚝샘, 무등샘, 작은샘, 차나락샘이 있었다. 연구리에는 작살샘, 구시샘, 동막샘이 있었고, 학의리에는 개비샘, 독샘, 맹지샘, 관대샘, 사그샘, 참샘, 쌍샘이 있었다. 용전리에는 쪽박샘, 드레샘이 있었다. 상들리에는 새태샘이 있었고, 송석리에는 우대미샘이 있었다고 조사되었다.

동네 곳곳의 지명을 조사하면서 샘 또는 샘터가 조사된 듯하다. 우물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샘의 이름도 다양한 것 같으나 위치나 모양에 따라 샘 이름이 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정착하면서 촌락은 하천의 계곡을 따라 형성되거나 샘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기에 사람이 사는 곳은 반드시 샘이 존재하였다.

마을이 단장되고 농지정리를 하면서 집집마다 지하수를 놓으면서 이제 샘은 메워졌다. 현재 마산면에 있는 우물을 동네 어르신을 따라 현장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우물 전수 조사에서 13개소를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4개소를 정리하였다.

연번	설명	리	마을	명칭	주소	출전, 조사
1		송석리 松石里	월산 月山	동네샘	해남군 마산면 송석리 668	신조사
2		외호리	외호	마을샘	해남군 마산면 외호리 30	신조사
3		외湖里	外湖	동네샘	해남군 마산면 외호리 39	신조사
4	○	산막리	산막	산막샘	해남군 마산면 산막리 471	신조사
5		山幕里	山幕	타래박샘	해남군 마산면 산막리 141-2	신조사
6	○	노하리	덕인 德仁	바가지샘 (통샘)	해남군 마산면 노하리 536	마산면지 70
7		路下里	노하 路下	네모샘 (통샘)	해남군 마산면 노하리 170-1	마산면지 70
8		학의리 鶴儀里	학의 鶴儀	동네샘	해남군 마산면 학의리 451-3	마산면지 69
9		상등리	덕정 德亭	동네샘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391-2	신조사
10		上燈里	상등 上燈	동네샘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580-1	신조사
11	○	송석리 松石里	월곡 月谷	우데미샘	해남군 마산면 송석리 564	마산면지 70 군청자료1
12		화내리 禾內里	후동 后洞	후동샘	해남군 마산면 화내리 51-1	마산면지 70
13	○	연구리 燕邱里	지동 池洞	황소우물	해남군 마산면 연구리 530	마산면지 69

산막마을 산막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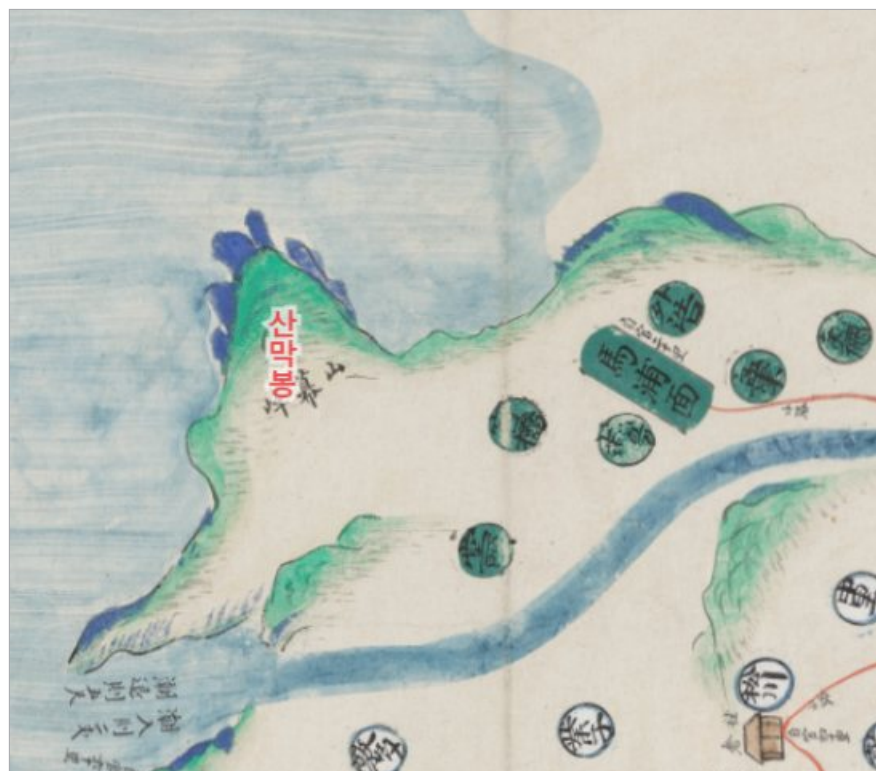
- 위치: 해남군 마산면 산막리 472
- 크기: 방형(方形), 가로 230cm, 세로 200cm, 높이 30cm

산막마을 산막샘[통샘]은 산막리 산막마을에 있다. 산막마을에는 참샘, 둥병샘, 약샘터, 작은샘, 큰샘, 통샘 등이 지명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경지 정리로 대부분 없어졌으며, 현재 보존된 샘은 통샘이다. 통샘은 ‘산막정(山幕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산막샘 뒤로는 낮은 산이 있으며, 샘 주변으로는 민가가 웅기종기 몰려있다.

배산임수의 뒷산 경사진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은 대부분 맑고 깨끗하며 물이 풍부하고 물맛이 좋았다고 한다. 가뭄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았으며 대지의 경사를 따라 배수가 쉽다. 대개 물이 풍부하고 물맛 좋은 동네는 인심도 후한 것을 알 수 있다.

산막샘은 큰 규모의 방형으로 크고 작은 2개의 낮은 수조를 갖고 있다. 마을 사람이 앉아서 물을 뜨기에 편한 높이이다. 그러나 수심은 상당하다. 샘을 비롯하여 주변이 잘 단장되어 있다. 현재도 샘의 청소나 시설물 따위의 관리는 이들 집에서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산막리 북쪽은 영암호 상류이며 건너편은 계곡면이다. 산막리는 무진봉



조선시대 후기의 해남현 마포면 산막봉(1872년, 해남현지도, 규장각)

과 제봉산 사이에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을 입구에는 은적사 계곡으로부터 흘러내린 산막천이 흐르고 있다. 1992년 영암호 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가 드나드는 포구가 있었다.

산막마을은 1457년 강릉대도호부사 원주이씨 이영화(李英華, 1430~1517)가 단종 때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개탄해 벼슬을 버린 후 경기도 광주에서 마산면 산막리로 입향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마을 안에 당산, 용호, 유목 등 3개의 작은 마을이 있다.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에는 산막리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1872년에 제작된 해남현지도에는 마포면에 산막봉(山幕峰) 지명이 나온다.
1914년에 산막리, 유목리, 지동리 일부가 합해져 마산면 산막리가 되었다.

산막리에는 조선 시대 세곡을 저장, 반출하였던 공세포(貢稅浦)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공세포에서 면화와 곡식 등의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마산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물산의 집산지라 할 수 있었다.¹

산막마을 입구에는 500년 수령을 가진 노송과 함께 15기의 지석묘가 있다. 주민들은 이곳을 ‘독배기’라 부른다.



산막마을 산막샘 근경



산막마을 산막샘 위치도

¹ 산막리(山幕里), 해남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덕인마을 통샘

- 위치: 해남군 마산면 노하리 536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80cm, 세로 180cm, 높이 20cm

덕인마을 통샘[바가지샘]은 노하리 덕인마을 입구에 있다. 덕인마을에는 개샘, 차나락샘, 통샘 등이 지명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경지정리로 없어졌으며, 현재 보존된 샘은 통샘이다. 통샘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마을 정자가 있으며, 오른편에는 덕인마을 회관이 있다.

덕인마을 통샘은 방형으로 낮은 수조 형태이다. 앉아서 바가지로 물을 푸기에 적당한 높이이다. 현재는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빨래와 남새를 다듬기도 한다. 샘은 도로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며, 배수시설을 한 쪽에 하여 물을 흘려보낸다. 마을에서는 일 년에 몇 차례 공동으로 우물을 청소하고 있다. 물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붕을 만들었다.

노하리(鰲河里)는 해남군 마포면 지역에 속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마포면의 원항리와 노하·덕인·추당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마산면 노하리가 되었다.

덕인마을은 지석묘 군집이 있어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보이며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에 마포면의 한 마을로 나온다.



덕인마을 통샘 전경



덕인마을 통샘 위치도

월곡마을 우데미샘[웃샘]

- 위치: 해남군 마산면 송석리 564
- 크기: 방형(方形), 지름 120cm, 세로 120cm, 높이 30cm

월곡마을 우데미샘은 송석리 월곡마을 북쪽에 있다. 이 공동우물은 ‘웃샘’이라 불리며 현재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 북동쪽에 있는 ‘아랫샘’은 농지정리를 하면서 메워졌다.

우데미샘은 월곡마을 회관에서 왼편으로 들어가서 만날 수 있다. 윗마을을 ‘우데미’, 아랫마을을 ‘아래데미’로 구분하고 있다.

마을에는 작은 개천이 흐르고 있으며, 우데미샘은 개천에 있다. 개천을 건너 샘으로 갈 수 있는 무지개 다리가 놓여 있으며,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각이 세워져 있다. 우데미샘은 다른 곳의 우물과 달리 나무로 방형 틀을 짜서 관리하고 있다. 몇 년 전 우물 정비사업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옆에는 작은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150년 된 이 우물은 정월 대보름에 물싸움하며 지켜왔다.’

월곡리 우데미샘과 구렁이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우데미샘은 1급수로 수질과 물맛이 매우 좋았으며, 주민 전체가 마실 수 있을 만큼 물의 양이 많았다. 또한 한 여름에도 손이 시릴 정도로 시원하여 상수도가 없던



조선시대 후기의 해남현 마포면 송석리(1872년, 해남현지도, 규장각)

시기에 월곡리 주민 대부분이 우데미샘의 물을 길어다 먹었다. 어느 날 월곡리 주민이 물을 길고자 갔다가 샘 안에 큰 구렁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민들이 모두 모여 구렁이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잡지 못하였다. 그날 이후 우데미샘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이전의 시원함도 없어졌다. 주민들은 구렁이 때문에 샘의 물이 말라 간다고 믿고 있다.

아마도 우데미샘의 물의 양이 줄어든 원인을 구렁이에게 전가하려는 월곡리 주민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 구렁이를 샘에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구렁이가 인간보다 우위에 있는 듯하지만 ‘물의 양이 줄어든 이유가 구렁이 때문이다.’로 책임을 전가하여 인간이 구렁이보다 우위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²

2 해남군, 『설화로 꽃피는 땅끝 해남』 상권, 2017; 「월곡리 우데미 샘과 구렁이」(月谷里), 해남군 한

송석리(松石里)는 조선시대에 마포면에 속했는데 속했는데 1914년에 월곡리, 원덕리, 오산리, 송석리, 평촌리 일부가 마산면 송석리로 합해졌다. 현재 송석마을, 원덕마을, 월곡마을, 월산마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월곡마을 우데미샘 전경



월곡마을 우데미샘 위치도

국향토문화전자대전.

지동마을 황소우물

- 위치: 해남군 마산면 연구리 530
- 크기: 육각형, 지름 250cm, 높이 30cm

지동마을 황소우물은 연구리 지동(池洞)마을에 있다. 마을 입구에서 들어갈 적에 왼편에는 지동마을회관, 오른편에는 펼쳐진 들판에 있으며, 우물 옆에는 팔각정이 있다. 우물은 육각형이며, 석축도 다른 우물과 달리 낮은 편이다. 우물의 규모는 다른 곳과 비교될 만큼 크다. 우물 옆에는 대리석 빨래판이 있으며, 현재도 빨래 및 허드렛물로 이용하고 있다. 식수로도 사용하지 않으나 매일 청소하므로 깨끗하다. 이곳에는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동은 마을 앞에 있는 우물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못골’이라고도 불린다. 지동(池洞)이라고 한다.

‘못골’은 예로부터 물이 풍부해 농사가 잘되어 인심이 좋고 부자 마을로도 유명하다. 샘의 물이 많이 나와서 논외의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었으며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물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현재도 유지·관리하고 있다.

지동 마을이 황소의 형국으로 우물이 소가 오줌을 누는 줄기이고, 엉덩이 부분은 현재 박동식씨 집과 마을 뒤편이 황소의 등이며 머리는 연구마을 가

는 방향의 산이다.

연구리(燕邱里)는 조선시대 마포면 지역이고 1914년에 연구리, 당두리, 덕인리, 속당리, 지동리 일부가 마산면 연구리가 되었다. 지동마을에는 아내미, 하점패, 외얏골, 서재등 등 4개의 동네가 있다.



지동마을 황소우물 근경



지동마을 황소우물 위치도

황산면



황산면(黃山面) 우물 이야기

황산면은 백제 시기 황술현(黃述縣)에, 통일신라 시기 황원현(黃原縣), 고려 시대에는 황원군(黃原郡)으로 승격되었다가 1018년(현종 9)에 황원현이 되었다. 1448년(세종 30) 해남현에 속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면리제 정비에 따라 황원면과 산일면 지역이 개칭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황원면 19개 동리와, 산일면(山一面) 20개 동리를 합하여 해남군 황산면 13개 리로 개편하였다.

황산면은 동으로 산이면·마산면에 접하고 있고, 서로는 문내면에 접하며, 진도로 통하는 18번 국도를 중심으로 양분되어 있다.

화원반도의 중간에 있으며 면의 동부는 비교적 높은 지대이며, 서부는 구릉평야지대이고, 남북에 걸쳐 82km의 해안선을 끼고 있다. 산은 국사봉, 행치산, 한사봉, 부아산, 명암산, 관두산, 덕암산, 옥매산, 보타산 등이 자리하고 있다. 바다와 호수는 만호바다, 뒷개바다, 금호호, 고천암호가 있다.

황산면의 13개 법정리는 관춘리(冠春里), 남리리(南利里), 부곡리(富谷里), 송호리(松湖里), 연당리(蓮塘里), 연호리(燕湖里), 옥동리(玉洞里), 외입리(外笠里), 우항리(牛項里), 원호리(院湖里), 일신리(日新里), 한자리(閑子里), 호동리(虎洞里) 등



조선후기 산일면과 황일면 부근도(1872년, 해남현지도, 규장각 소장, 奎10464)

이다.

문화유산으로는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화석 산지[천연기념물 제394호, 1998.10.17], 해남 정명식가옥[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제8호, 1986.2.7],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보살좌상과 복장 유물[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43호, 2020.12.24. 지정] 등이 있다.

항산면의 우물은 2011년 간행된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 지명유래편에 남리마을 관샘을 포함한 54개소가 기록되어 있다.

이번에는 남리 두부샘을 포함한 총 52개소의 우물이 조사되었는데 실제 현지조사결과 마을 상수도의 보급, 농지정리, 도로개설, 상수도보급 등으로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해남군에서는 가장 많은 우물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우물 13개소의 우물을 소개한다.

연번	설명	리	마을	명칭	주소	출전, 조사
1		옥동리 玉洞里	삼호 三湖	동샘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222-1	하 973
2		외입리 外笠里	초월 初月	큰샘	해남군 황산면 외압리 33-2	하 932
3		외입리 外笠里	초월 初月	속샘	해남군 황산면 외압리 39-1	하 932
4	○	외입리 外笠里	초월 初月	우댕이샘	해남군 황산면 외압리 97-1	신조사
5		송호리 松湖理	송호 松湖	송호리 269-1번지 우물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269-1	신조사
6		송호리 松湖理	송호 松湖	송호리 219-1번지 우물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219-1	신조사
7		송호리 松湖理	송호 松湖	송호마을길 23 우물	해남군 황산면 송호마을길 23	신조사
8		송호리 松湖理	송호 松湖	송호마을길 24 우물	해남군 황산면 송호마을길 24	신조사
9		송호리 松湖理	송호 松湖	송호마을길 22 우물	해남군 황산면 송호마을길 22	신조사
10		송호리 松湖理	송호 松湖	송호마을길 9 우물	해남군 황산면 송호마을길 9	신조사
11		송호리 松湖理	송호 松湖	송호마을길 17 우물	해남군 황산면 송호마을길 17	신조사
12		송호리 松湖理	송호 松湖	송호마을길 20 우물	해남군 황산면 송호마을길 20	신조사
13	○	송호리 松湖理	송호 松湖	들샘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241-2	신조사

연번	설명	리	마을	명칭	주소	출전, 조사
14		우항리 牛項理	기성 基聖	공동샘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570-5	하 888
15	○	외입리 外笠里	송청 松靑	청룡골샘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 390-2	하 935
16		외입리 外笠里	송청 松靑	아랫샘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 500-4	하 894
17		외입리 外笠里	송청 松靑	웃샘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 579-2	하894
18		외입리 外笠里	송청 松靑	아랫샘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 590-1	하894
19	○	외입리 外笠里	외입 外笠	충신타샘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 838-2	하929
20		연당리 蓮塘里	덕암 德巖	덕암샘	해남군 황산면 연당리 35-1	신조사
21		호동리 虎洞里	한아 閑牙	웃샘	해남군 황산면 한아길 16	하896
22		호동리 虎洞里	한아 閑牙	조정샘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669-1	하896
23		호동리 虎洞里	한아 閑牙	큰샘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679-1	하896
24		호동리 虎洞里	한아 閑牙	쌍둥이샘	해남군 황산면 한아길 59	하896
25		일신리 日新里	일신 日新	공동샘	해남군 일신리 354-2	신조사
26		일신리 日新里	이목 梨木	용샘	해남군 용쇄골길 39	하851

연번	설명	리	마을	명칭	주소	출전, 조사
27		원호리 院湖里	원호 院湖	공동샘 (앞샘 추정)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613-3	하854
28		원호리 院湖里	교동 橋洞	공동샘 I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251	하856
29		원호리 院湖里	교동 橋洞	공동샘 II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324-4	하856
30		원호리 院湖里	교동 橋洞	공동샘 III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277-4	하856
31		원호리 院湖里	교동 橋洞	공동샘 IV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285-9	하856
32		원호리 院湖里	교동 橋洞	공동샘 V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313-1	하856
33		연호리 燕湖里	연호 燕湖	연호길 20-6 우물	해남군 황산면 연호길 20-6	신조사
34		송호리 松湖里	병온 竝溫	공동샘 I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883-8	신조사
35		송호리 松湖里	병온 竈溫	병온마을 이참관댁 후처집 우물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883	신조사
36	○	송호리 松湖里	병온 竈溫	공동샘 II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821	신조사
37		연호리 燕湖里	청룡 靑龍	와청길 201-1 우물	해남군 황산면 와청길 201-1	신조사
38		호동리 虎洞里	호동 虎洞	동샘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108-4	하893
39		우항리 牛項里	우항 牛項	서쪽샘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610-4	신조사

연번	설명	리	마을	명칭	주소	출전, 조사
40	○	우항리 牛項里	우항 牛項	수랑샘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322	하887
41		우항리 牛項里	우항 牛項	우항길 79 우물	해남군 황산면 우항길 79	신조사
42		우항리 牛項里	우항 牛項	너멧샘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250-2	하887
43	○	우항리 牛項里	우항 牛項	아랫샘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324-1	하887
44	○	남리리 南利里	남리 南利	두부샘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846-4	신조사
45	○	남리리 南利里	남리 南利	관샘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770-2	하 915
46		남리리 南利里	남리 南利	공동샘 I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709-2	신조사
47		남리리 南利里	남리 南利	공동샘 II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942-3	신조사
48	○	관춘리 冠春里	내산 內山	아랫마을샘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1067-19	신조사
49	○	관춘리 冠春里	옥동 玉洞	공동샘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108	신조사
50	○	관춘리 冠春里	평덕 平德	아랫샘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926	하 960
51	○	관춘리 冠春里	관춘 冠春	뒷샘	해남군 황산면 관춘길 118	신조사
52		부곡리 富谷里	춘정 春井	공동샘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494-1	신조사

초월마을 우땡이샘

- 위치: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 150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65cm, 세로 169cm, 높이 54.5cm

우땡이샘은 외입리 초월(初月)마을에 있다. 초월마을은 황산면 소재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1.5km 거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한아마을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외입·송청마을과 이웃하며, 북쪽으로는 남리마을과 인접한다. 남쪽으로는 바다와 닿아 있다. 마을 뒤는 낮은 구릉지대이다. 이 마을도 간척사업이 이루어졌으며 간척사업 이전에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한다.

1789년에는 『호구총수』에 황원면에 속한 지역으로 1914년 초월리와 연당리를 합하여 황산면 외입리에 편입되었다.

마을 우물은 『황산면지』에 큰샘, 속샘, 들샘, 우대미샘 등 4개소를 식수로 사용하였고 1984년 지하수를 개발한 후 자체 상수도를 시설하여 우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에는 들샘을 제외한 큰샘, 속샘, 우대미샘 등 3개소가 있다. 우대미샘은 마을 사람들이 우땡이샘으로 부르는 샘으로 면지에는 사수등들이라 하고 회관에서 보면 남쪽에 위치한 등성으로 과거 통천최씨 선산이 자리하

였고 너머터를 넘어가는 초입 부근이다. 원래 이곳은 진주강씨가 살았는데, 한 해 농사가 700~800백석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자연적으로 조성된 우데미샘이 있었는데 통천최씨 선대에 우물을 판다고 하는 기록으로 이 우물의 내력을 알 수 있다. 이 마을 이장님 또한 현재는 농지이지만 옛날에는 집터로 부잣집에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판 우물로 전해지고, 부잣집이 망해 이주한 후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우물로 이야기하고 있다.

초월마을회관 서쪽 160m정도 떨어진 농로 주변에 위치한 우물로 주변에는 농사용구와 양수기 등이 널려 있어 현재는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우물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내부는 물이 수질이 좋지 못하여 정확히 알기 어렵고 보이는 부분은 판석을 이용하여 방형으로 쌓았는데 동쪽면 만 다른 면에 비해 높게 쌓았다. 판석들의 일부는 깨져 있다.

자연석을 쌓고 그 상부에 방형으로 쌓은 초월마을 우데미샘은 우물 건립 내력이 전해지고, 방형의 우물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 후기에 가정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우물로 생각된다.



초월마을 우덩이샘 근경



초월마을 우덩이샘 위치도

송호마을 들샘

- 위치: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241-2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49cm, 세로 142cm

들샘은 송호리 송호(松湖)마을에 있다. 송호마을은 면소재지에서 동쪽으로 약 2km정도 떨어져 있고, 집들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황산면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교동마을과 학동마을이 경계하며, 남쪽으로는 만년마을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호동마을과 관두마을이, 북쪽으로는 병온마을과 인접해 있다.

1789년 『호구총수』에는 산일면의 한 지역으로 1914년 만년리, 병온리, 교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황산면 송호리에 편입되었다.

마을 우물에 대한 기록은 『황산면지』에는 1970년대에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쓰던 공동우물에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의 부녀자들이 앞치마에 돌을 나르는 등 해괴한 일이 많이 발생해 주민들은 큰 곶을 하고, 우물에 개를 잡아 넣는 등 갖은 애를 다 썼지만 효험이 없어 결국 매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보통의 다른 지역은 1980년 후반부터 우물의 사용이 줄어들거나 메꾸어지는데 송호마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 10여년 전에 공동우물이 사용이 멈춘 것인데 그 이유는 현재 송호마을 내에 각각의 가정집에 총 7개소의 개

인 우물이 남아 있어 공동우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식수를 사용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가정집 우물의 주소는 송호리 269-1, 송호리 219-1, 송호마을길 9, 송호마을길 17, 송호마을길 20, 송호마을길 22, 송호마을길 23 등이다. 이들 우물 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연석을 원형으로 쌓은 우물에 후대에 보수하면서 시멘트 토관(土管, 노깁)을 사용한 것이다.

송호마을의 공동샘인 들샘은 마을 서남쪽 들판 한가운데 건립한 우물이다. 현재는 가정집이 들어서면서 집 뒤에 위치하고 있다. 이 우물은 총2회 이상 보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형태는 방형이다. 첫 번째 보수는 상부를 시멘트로 보수한 것이고, 두 번째 보수는 우물 상부에 보수 2014. 5. 17. 이라 음각으로 기록되어 있어 집을 2014년에 신축하면서 지면보다 높게 시멘트를 방형으로 쌓아 보수하였다. 우물 상부에 철재 뚜껑이 덮어져 있어 내부는 확인할 수 없다. 현재는 집주인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개인 우물화 되어 있다. 집주인에 따르면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마을에서 1년에 1차례씩 공동으로 청소를 하였다고 한다.

처음 건립 시기는 내부의 형태나 전해지는 이야기가 따로 없어 알 수 없다.



송호마을 들샘 근경



송호마을 들샘 위치도

송청마을 청룡골샘

- 위치: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 150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65cm, 세로 169cm, 높이 54.5cm

청룡골샘은 외입리 송청(松靑)마을에 있다. 송청마을은 면소재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4km정도 떨어져 있으며, 외입마을에서 보면 바닷가 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동쪽으로는 초월마을과 경계하고, 남쪽으로는 만호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서쪽으로는 성산마을과 이웃하고, 북쪽으로는 외입마을과 인접하고 있다.

1789년 『호구총수』에는 황일면의 외입암리(外笠岩里)에 속한 지역으로 1914년 초월리와 연당리를 병합하여 황산면 외입리에 편입되었다. 1958년 행정구역 개편 때 외입마을에서 분리되어 송청마을이 되었다. 송청마을로 불리우게 된 계기는 그 당시 마을 뒤편에 200~300년 된 소나무가 마을을 감싸 안으면서 아늑한 풍광을 자랑한다고 하여 붙여졌다.

마을 우물은 『황산면지』와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에 우물이 크다고 하여 장군샘과 마을 뒤 큰 산이 청룡 형국이고 이곳에 있는 샘으로 용이 물을 마셨다고 하는 청룡골샘, 웃샘, 아랫샘, 깔딱샘 등 5개소가 기록되어 있다. 이 중 현재 남아 있는 샘은 청룡골샘, 웃샘, 아랫샘 2개소 등이 남아 있다. 이

중 청룡골샘을 제외한 다른 우물들은 마을 간이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 우물은 황산면 외입길 267-7번지 가옥 앞에 위치해 있고, 자연석을 원형으로 쌓은 우물인데 후대에 2차례 정도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수가 이루어지면서 우물의 상부가 원형에서 방형으로 바뀌었으며 마지막 보수 시 육각형의 형태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주변에는 돌담이 쌓여 있으나 훼손이 심하다.

송청마을 이송동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송청4반 15호가 먹던 우물로 주민들이 매일 관리를 하였으며, 7~8년 전까지 사용한 우물이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현재는 우물 앞의 집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송청리 전체가 가뭄이 들면 송청리 사람들이 같이 먹었을 정도로 우물이 마르지 않았다. 시멘트로 보수 한지는 약 30여년 전이고 옛날에는 손으로도 물을 뜰 수 있을 정도로 낮았다고 한다.

우물 주변에 시멘트에 음각으로 명문이 새겨져 있으나 훼손이 심하여 판독이 불가능하며, 이 우물이 정확히 언제 건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송청마을 청룡골샘 근경



송청마을 청룡골샘 위치도

외입마을 충신터샘

- 위치: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 838-2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97.5cm, 세로 199cm, 높이 87cm

충신터샘은 외입리 외입(外笠)마을에 있다. 외입마을은 면소재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떨어져 있으며 동쪽으로는 초월마을과 경계하고, 남쪽으로는 송청마을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춘정마을과 이웃하며, 동북쪽으로는 연당마을과 인접해 있다.

1789년 『호구총수』에는 황일면의 외입암리(外笠岩里)에 속한 지역으로 1914년 초월리와 연당리를 병합하여 황산면 외입리에 편입되었다.

마을 우물은 『황산면지』와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에 장구새샘과 충신터 2개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는 충신터샘 1곳만 남아 있다.

충신터샘에 대한 기록은 『황산면지』에 예부터 이곳은 발이나 어깨 등의 뼈가 부러졌거나 발목을 뺀 사람들이 자주 찾아 왔는데, 해남의 유도선수들은 탈골을 당하면 거이 대부분 이곳을 찾아 왔다. 동네 꼬마 아이와 황산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운동 도중 다치면 이 물로 치료를 하였고, 통통 부은 다리를 이끌며 50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특히 처녀 때 이곳으로 물을 맞으러 온 여자들은 서울과 광주 등지로 시집을 가서도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현재까지 이곳으로 물을 맞으러 올 정도라고 한다.

전언에 따르면 이곳은 황산의 명산 부아산이 뒤로 하여 산세는 그지없이 홀륭하나 그에 견줄 수 있는 물줄기가 없어 원주이씨 선조가 이곳에 인위적으로 물줄기를 솟개 하여 음양을 맞추었다는 일화가 내려온다고 기록하고 있어 해남 관내에서는 피 약수로 효험이 있는 우물로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에는 옛 자리는 오염되어 지금의 자리로 옮겨서 산속에 상수도를 묻고 수로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 우물이 옮겨졌음을 알 수 있으나 원래의 위치는 알 수 없다.

이 우물은 외입마을 중앙의 밭에 있는 우물로 형태는 정방형인데 자연석을 쌓은 후 다시 시멘트를 높게 쌓았으며 상부는 우물의 오염을 막기 위해 보호각을 설치하였다.

외입마을 한윤순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맨 처음에는 자연석을 원형으로 쌓은 우물이었으나 마을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으로 우물이 마르게 되었고, 군에 건의하여 2019년 보수하고 지붕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이 우물의 처음에 언제 건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외입마을 충신타샘 전경



외입마을 충신타샘 위치도

병온마을 공동샘 II

- 위치: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 821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33cm, 세로 107cm, 높이 54cm

공동샘 II는 송호리 병온(竝溫)마을에 있다. 병온마을은 면소재지에서 북동쪽으로 17번 군도를 따라 약 2km쯤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연자마을과 경계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관두·송호마을과 이웃하며, 서쪽으로는 우항마을, 북쪽으로는 산이면 예정리와 마주 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해남군 산일면 지역으로 만년동과 봉문리(송호리)가 『호구총수』(1789)에 기록되어 있고, 1914년 송호리, 만년리, 병온리, 교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황산면에 편입되었다.

병온마을에는 마을을 수호하는 서낭신을 모셔 놓은 신당인 서낭당이 마을 어귀에 위치해 있다. 다른 마을의 서낭당과 다르게 서낭나무와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누석단(累石壇) 형태이다.

각종 기록에 병온마을 우물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으며 현재에는 3개소의 우물이 남아 있는데 우물의 명칭은 전해지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우물로 생각된다.

병온마을 공동샘 II은 병온마을 회관에서 남서쪽으로 460m정도 떨어져 있으며 연못 앞에 위치해 있다.

판석을 방형으로 쌓은 우물을 후대에 상부를 시멘트로 보수하였다. 시멘트에 새마을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이 우물이 새마을 운동 때 시멘트로 보수했음을 알 수 있다.

박종학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병온마을 3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우물로 공동관리를 하였으나 마을 공동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농업용수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우물은 판석을 방형으로 쌓은 점, 마을의 입향이 300여년 전이라고 전해진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 후기에 조성된 우물로 추정된다.



병온마을 공동샘 II 근경



병온마을 공동샘 II 위치도

우항마을 수랑샘

- 위치: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322
- 크기: 육각형(六角形), 한 변의 길이 66cm, 높이 66cm

수랑샘은 우항리 우항(牛項)마을에 있다. 우항마을은 면소재지 북쪽에 있고 해남-진도간의 18번 국도가 지나고 있다. 동쪽으로는 관두마을과 경계하고, 남쪽으로는 시등마을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기성마을과 이웃하고, 북쪽으로는 금호호와 인접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해남군 산일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황원면의 백동리, 삼성리, 시동리, 신기리와 신일면의 우항리 일부를 합하여 황산면 우항리에 편입되었다.

한편 이 지역은 화원면의 전역과 더불어 황원목장이 있었던 지역으로 황원목장에는 황원목장과 진도목장을 관리하는 감목관이 설치되었던 지역이다.

마을에는 전통가옥인 해남 정명식 가옥(도 민속문화재 제8호)과 공룡 발자국 화석·익룡 발자국 화석·새 발자국 화석이 세계에서 한 장소에서 발견되는 하나뿐인 화석지인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화석 산지(천연기념물 제394호)가 있다.

『황산면지』에는 백년새암, 수랑새암, 새새암, 아랫새암 등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에는 너멧새암에 추가되어 총 5개소가 기록되어 있다.

현재에는 수랑샘, 아랫샘, 너멧샘, 서쪽샘 등 4개의 공동우물이 전해진다. 수랑샘과 서쪽샘, 너멧샘은 마을의 식수로 사용하였으며, 아랫샘은 허드렛물로 사용했다고 전한다.

수랑샘은 우항마을 회관에서 동쪽으로 90m 정도 떨어진 곳의 나대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황산면지』에는 마을 앞 우측에 있는 샘으로 논두렁에서 물이 잘 난다고 하여 수랑샘으로 불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방형의 판석을 이용하여 육각형으로 쌓은 우물을 후대에 시멘트로 보수하면서 상부를 시멘트를 이용하여 다시 육각형으로 쌓았다.

한국진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우항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었던 우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농업용수로만 사용한다고 한다. 현재 관리가 되지 않아 수질은 좋지 못하다.

이 우물의 조성 시기는 마을이 1500년경에 입향 했다고 전해지고, 판석을 쌓아서 조성한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조성된 우물로 추정된다.



우항마을 수랑샘 근경



우항마을 수랑샘 위치도

우항마을 아랫샘

- 위치: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324-1
- 크기: 원형(圓形), 지름 110cm, 높이 49cm

아랫샘은 우항리 우항마을에 있다. 우항마을은 면소재지 북쪽에 있는데 경계에 해남-진도간의 18번 국도가 지나고 있다.

『황산면지』에는 백년새암, 수량새암, 새새암, 아랫새암,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에는 너멋새암에 추가되어 총 5개소가 기록되어 있다. 현재에는 수량샘, 아랫샘, 너멋샘, 서쪽샘 등 4개의 공동우물이 전해진다. 수량샘과 서쪽샘, 너멋샘은 마을의 식수로 사용하였으며, 아랫샘은 허드렛물로 사용했다고 전한다.

아랫샘은 우항마을 회관 남쪽 60m 떨어진 논 가운데 있으며,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에는 수량샘 아래에 있는 우물로 기록하고 있다.

시멘트 토관(土管, 노깁)을 사용한 원형의 우물로 앞쪽에 우물 조성된 명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1936년 6월 12일이다.

共同井戸」昭和拾壹年〇〇」六月拾貳日〇〇」用之不渴」飲而無〇」

한국진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먹지는 앓았고 빨래 등 허드렛물로 주로 사용하던 우물이라고 한다. 우물 주변은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시멘트 토관을 사용한 우물 중 1936년에 조성한 명문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 토관의 최초의 사용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우항마을 아랫샘 근경



우항마을 아랫샘 명문



우항마을 아랫샘 위치도

남리마을 두부샘

- 위치: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846-4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40cm, 세로 130cm, 높이 70cm

두부샘은 남리리 남리(南利)마을에 있다. 남리마을은 황산면사무소 남서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 『호구총수』(1789)에 의하면 남리리와 장등리(시등리)는 황일면 지역이었다. 1865년 이후 황원면으로 속하였다가 1914년 황원면의 원 남리리와 시등리, 신기리의 각 일부가 병합되어 황산면 남리리에 편입되었다.

남리마을은 해남의 3역 중 하나인 남리역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인 1596년 10월 22일 남리역을 지나 해남현으로 갔다는 기록이 『난중일기』에 보인다. 동학농민혁명 때는 전라우수영을 공격하기 위한 동학군의 집결지였고, 삼지원으로 가는 관리들이 쉬어가는 숙식소가 자리했던 곳이다.

『황산면지』에는 참샘, 관샘 등 2개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는 두부샘, 관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동샘 2개소가 남아 있다.

두부샘은 남리마을회관에서 남동쪽으로 250m 정도 떨어진 농로 주변에 위치한다. 긴 장방형의 장대석을 방형으로 쌓았는데, 상부 일부를 제외하고

는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현재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우물의 수질은 관리가 되지 않아 좋지 않다.

이중언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이 우물로 두부를 만들면 맛있다고 해서 두부샘이라 부르고 있다. 조선 시대부터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며 마을에서 공동관리했던 우물이다.

남리마을은 고려 시대부터 남리역 역승(驛丞)이 있었고, 우물의 형태가 방형의 장대석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쌓은 우물로 추정된다.



남리마을 두부샘 근경



남리마을 두부샘 위치도

남리마을 관샘

- 위치: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770-2
- 크기: 방형(方形), 가로 205cm, 세로 205cm, 높이 90cm

관샘은 남리리 남리(南利)마을에 있다. 남리마을은 황산면사무소 남서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 남리마을은 동쪽으로 시등마을과 경계하고 서쪽으로는 연당마을과 인접해 있다. 남쪽으로는 초월마을과 이웃하고 북쪽으로는 덕암마을과 접하고 있다.

『황산면지』에는 참샘, 관샘 등 2개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는 두부샘, 관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동샘 2개소가 남아있다.

관샘은 『황산면지』에 조선 시대 남리역 부근에 있던 샘으로 관부(官府)의 샘이라 불리게 되었고, 현재 마을회관 아래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관샘은 남리마을회관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장방형의 관석을 방형으로 쌓은 우물을 2019년에 대리석으로 상부를 높게 쌓아 올렸고 우진각지붕형태의 보호각도 같이 건립되었다. 우물은 관리가 잘되어 수질도 매우 좋다.

이중언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이 우물은 전라우수영으로 지나던 관리가 먹었다고 하여 관샘이라 하고, 말이 쉬어 가는 곳이라 해서 말죽거리가 마을에 있었다. 관샘은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공동으로 사용한 우물로 정월

보름에 샘굿을 하여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였다. 주변에 관정을 파서 물이 말라 방치되다가 2019년 주변 관정을 메꾸고 해남군의 지원으로 우물을 정비하였다.

남리마을에 있던 남리역의 관리들이 사용한 우물로 보이며, 우물의 형태가 방형이고, 장방형의 판석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쌓은 우물로 추정되며 방형의 우물치고는 규모가 매우 크다.



남리마을 관샘 근경



남리마을 관샘 위치도

내산마을 아랫마을샘

- 위치: 해남군 황산면 관촌리 1067-19
- 크기: 방형(方形), 가로 230cm, 세로 220cm, 높이 70cm

아랫마을샘은 관촌리 내산(內山)마을에 있다. 내산마을은 면소재지에서 24번 군도 북서쪽 약 6km 떨어진 곳에 있다. 『호구총수』(1789)에 의하면 두리구(斗里丘)라는 기록이 보이고 황일면에 속했다. 뒤에 황일면과 황이면이 황산면으로 합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관촌리, 신성리, 내외리, 평덕리를 합하여 황산면 관촌리가 되었다. 마을 뒤 보타산에 전통사찰인 도장사가 있으며 석가여래좌상과 보살좌상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이다.

내산마을 우물은 『황산면지』에는 간땃샘과 건넛샘 2개소,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에는 식수는 예전에는 각시샘, 간땃샘, 큰샘 등을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상수도를 사용한다고 했다. 현재 아랫마을샘 1개소만 있다.

아랫마을샘은 내산마을회관에서 아랫쪽으로 180m 정도 거리이다. 자연석을 방형으로 쌓은 우물을 후대에 상부를 70cm정도 시멘트로 높게 쌓았다. ㄷ자 형태의 돌담이 둘러져 있다. 시멘트 상부에 “1971년 4월 27일 준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김영길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아랫마을 가구 30여호가 사용하였으며, 공

동으로 한달에 1번 정도 공동으로 청소를 하였다. 이 우물 외에도 마을회관 근처에 웃샘이 있었으나 메꾸었다고 한다. 이 우물의 정확한 조성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우물의 크기는 큰 편이다.



내산마을 아랫마을샘 근



내산마을 아랫마을샘 위

옥동마을 공동샘

- 위치: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108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12.5cm, 세로 118cm, 높이 72cm

공동샘은 옥동리 옥동(玉洞)마을에 있다. 옥동마을은 면소재지에서 18번 국도를 따라 6.2km 떨어진 곳에 있다.

『호구총수』(1789)에는 황일면에 속한 언항리(堰項里)로 기록되어 있다. 황일면과 황원면이 황원면으로 합해졌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옥동리와 삼호리를 합하여 황산면 옥동리에 편입되었다.

마을 뒷산인 옥매산은 조선시대에 옥(玉)을 생산하고, 전라우수영의 관아나 군함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는 국가 봉산(封山)이었다. 또 명량대첩의 승전지로 잘 알려진 울돌목의 입구에 있어 왜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강강술래를 하였다는 설화가 전하는 곳이기도 하다. 『동국여지승람』에는 매옥산(埋玉山)에서 화반석이 난다는 기록이 있다. 우물에 대한 기록은 『황산면지』와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에 용샘 1개소만 기록되어 있다. 옥동마을 회관에서 70m 정도 떨어진 밭에 위치해 있는 우물로 주변에는 ㄷ자 형태의 돌담이 둘러져 있다.

자연석을 방형으로 낱게 쌓은 우물을 후대에 상부를 72cm정도 시멘트로

쌓았다. 수질은 양호한 편이고 깊이는 매우 낮은 편이고, 다른 우물과 다르게 작은 잔돌을 수평 쌓기하여 조성하였다. 우물 상부에 있는 음각 명문은 판독이 어렵다.

운영중 이장에 따르면 옥동마을 2반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공동관리하였다. 우물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 우물의 정확한 조성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물이 깊이가 낮고 작은 잔돌을 수평 쌓기한 특이한 우물이다.



옥동마을 공동샘 근경



옥동마을 공동샘 위치도

관춘마을 뒷샘

- 위치: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331-2(관춘길 118)
- 크기: 육각형(六角形), 한 변의 길이 76cm, 높이 50cm

뒷샘은 관춘리 관춘(冠春)마을에 있다. 관춘마을은 면소재지에서 18번 국도 서쪽 약 3km 거리이다. 『호구총수』(1789)에는 황일면에 속한 관춘리(冠春里)로 나오고 뒤에 황일면과 황이면이 황원면이 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성리, 내외리, 평덕리를 합하여 황산면 관춘리가 된다.

마을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팽나무 1그루가 있는데 예전에는 마을 당산제를 지냈다고 한다. 『황산면지』와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에 남쪽에 있는 우물로 개를 자주 잡아서 개새얌 이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뒷샘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황산면 관춘길 118의 개인 주택 뒤편에 위치해 있는 우물로 원래는 별도로 존재했으나 가정집이 들어서면서 집 뒤편에 위치하게 된다. 판석을 육각형으로 정교하게 쌓은 우물을 후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로 육각형으로 쌓았다.

문순철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마을주민 80여 가구가 사용했고 뒷샘이라 불렸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고, 이 우물 외에도 앞샘(개새얌)이 있었으나 메꾸어졌다고 한다. 조성 시기는 관춘마을이 이미 『호구총수』에 기록되어 있고, 판석을 사용하여 육각형으로 정교하게 쌓아 조성한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로 추정된다.



관촌마을 뒷샘 근경



관촌마을 뒷샘 내부



관촌마을 뒷샘 위치도

평덕마을 아랫샘

- 위치: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926
- 크기: 육각형(六角形), 한 변의 길이 90cm, 높이 62cm

아랫샘은 관춘리 평덕(平德)마을에 있다, 평덕마을은 면소재지에서 18번 국도 서쪽으로 약 4km 거리이다. 『호구총수』(1789)에는 황일면에 속한 평덕리(平德里)로 나온다. 뒤에 황일면과 황이면이 황원면으로 합해진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관춘리, 신성리, 내외리, 평덕리를 합하여 황산면 관춘리가 된다.

우물에 대한 기록은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에 아랫샘과 웃샘 2개소가 나온다.

이 우물은 평덕마을 회관에서 아래쪽 남쪽으로 130m 정도 떨어진 밭 가운데 있다. 판석을 육각형으로 정교하게 쌓은 우물을 후대에 우물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시멘트를 사용하여 육각형으로 쌓았다.

윤성주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평덕마을 20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했고 아랫샘으로 불렀고 공동관리 하였다. 현재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우물의 조성 시기는 평덕마을이 이미 『호구총수』에 기록되어 있고, 판석을 사용하여 육각형으로 정교하게 쌓아 조성한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로 보인다.



평덕마을 아랫샘 근경



평덕마을 아랫샘 내부



평덕마을 아랫샘 위치도

산 이 면



산이면(山二面) 우물 이야기

산이면은 백제 때는 고서이현에 속했고, 통일신라 때는 양무군에 딸린 고안현(또는 동안현) 지역이었으며, 고려 때는 영암군 관할 죽산현 지역이었다.

조선조 태종 9년(1409) 죽산현에서 나뉘어 진산현이라 하여 해남군의 속현이 되었으며, 1437년(세종 19)에는 해진군에서 복구한 해남현에 속하여 산일면과 산이면으로 분면하게 된다. 『여지도서』(1759년)에 보면 구진산현에서 산일면과 산이면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 서(西)는 해남현의 서쪽임을 뜻하는 표기였다. 산일면과 산이면의 명칭은 『호구총수』(1789)에도 보인다. 1871년(고종 8)과 1895년(고종 32)의 『호남읍지』의 해남편에는 산포일도면·산포이도면으로 바뀌어 이때의 산이반도는 산포가 중심임을 알 수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산일면은 마포면과 합하여 마산면의 지역이 되고, 신덕리(新德里)에서 학의리(鶴儀里)에 걸치는 15개 동리를 제외한 화원반도(花源半島) 우항리(牛項里)까지는 황산면에 합쳤으며, 산이면은 40개 동리로 조정 개편하여 관할하게 되었다.

산이면은 해남읍에서 서북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반도이다. 삼면이 바다이며, 남으로 마산·황산면 일부에 접하고 있으며, 동으로 계곡



조선후기 산이면 부근도(1872년, 해남현지도, 규장각 소장, 奎10464)

면, 서로 화원면, 북으로 목포시와 영암군을 바라보고 있다.

산이면은 해남반도의 서남단에 돌출한 산이반도로 지형이 세장하고 높은 산이 없으며, 야산이 이어져 있다. 산세는 마산영매산맥(馬山永梅山脈)에서 발기하여 소구릉이 기복하고, 남단에 주성산(周城山)이 있다.

산이면의 13개 법정리는 노송리(老松里), 금송리(琴松里), 덕호리(德湖里), 예정리(禮丁里), 송천리(松川里), 초송리(草松里), 진산리(珍山里), 대진리(大津里), 덕송리(德松里), 구성리(九星里), 상공리(相公里), 부동리(富洞里), 금호리(錦湖里)이다.

문화유산으로는 해남 진산리 청자 요지[사적 제310호, 1985.1.4. 지정], 해남 덕송리 황조별묘[해남군 향토문화유산 제10호], 해남 송천리 미륵불[해남군 향토문화유산 제11호] 등이 있다.

산이면의 우물은 2011년 간행한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에 부동마을 향샘을 포함한 38개소가 기록되어 있다. 이번에는 지사마을 돌샘을 포함한 총

11개소의 우물이 조사되었다. 노송리 죽마을샘을 포함한 산이면의 대표적인 우물 4개소를 소개한다.

연번	설명	리	마을	명칭	주소	출전, 조사
1	○	노송리 老松里	노송 老松	동쪽샘	해남군 산이면 노송리 95-2	상 728
2	○	노송리 老松里	노송 老松	죽마을샘	해남군 산이면 노송리 768-6	상 728
3		금송리 琴松里	업자 業子	공동샘	해남군 산이면 금송리 249-2	상 735
4		금송리 琴松里	업자 業子	까치샘	해남군 산이면 금송리 230-2	상 735
5	○	대진리 大津理	지사 智士	돌샘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443-5	상 809
6		대진리 大津理	지사 智士	공동샘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476-1	상 809
7		덕송리 德松里	덕송 德松	공동샘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1030-7	상 816
8		덕송리 德松里	황조 皇朝	아랫마을샘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1023-4	신조사
9		송천리 松川里	송천 松川	동쪽샘	해남군 산이면 송천리 318-1	신조사
10	○	상공리 相公里	상공 相公	땅골샘	해남군 산이면 상공길 40-1	상 834
11		상공리 相公里	당후 堂後	웃샘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706-1	신조사

노송마을 죽마을샘

- 위치: 해남군 산이면 노송리 768-6
- 크기: 육각형(六角形), 한 변의 길이 160cm, 높이 30cm, 입구높이 10cm

죽마을샘은 노송리 노송(老松)마을에 있다. 노송마을은 면소재지에서 동남쪽 6km 거리이다. 동쪽으로 육일시마을, 서쪽으로는 금송마을과 이웃하며, 북쪽으로는 주성산이 있다. 남쪽으로는 건촌마을이 인접해 있다.

1789년 편찬된 『호구총수』에는 산이면 노송리로 기록되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산이면의 노송리, 석연리, 구교리, 금동리·엽자리 각 일부를 합하여 해남군 산이면 노송리가 되었다.

마을에는 청동기 시대 지석묘군 2개소와 뒷산인 주성산(周城山) 정상부에 해남읍성 방비를 위한 변방성 주성산성지가 있다. 주성산 자락의 노송사(老松祠)는 1728년(영조 4) 지어졌다가 1868년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된 뒤, 1889년에 복설하였고, 1949년 현 위치에 다시 건립하였다. 해남 노송사 소장 고문서는 2017년 7월 27일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282호로 지정되었다.

마을 우물은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에 동아셋골에 있는 동아수샘과 증말 앞에 있는 두령새암 2개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죽마을샘과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노송마을 서쪽 끝의 삼거리 주변 농지 끝쪽 도로변에 위치한다. 6각형으로 쌓은 우물로 위편은 높고 아래편은 낮게 단차를 두고 있다. 상부는 시멘트로 조성된 것이 확실하나 내부는 이끼가 많이 끼어 있어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단차가 있어 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리고 있으며 우물 바깥에도 작은 수로를 만들어 놓았다. 현재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노송마을 김병석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약 300여 년 전에 마을이 형성되었을 때부터 사용한 우물로 전해지며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서쪽편에 사는 사람들이 식수와 세탁용수로 사용하였다. 깊이는 약 2.5m이며 물이 마른 적이 없으며, 1년에 2~3차례 물을 소독하고 청소하였다고 한다.

우물의 형태가 육각형이고, 마을에서 마을의 형성과 함께 사용한 우물로 전해져 이 우물의 조성시기는 조선 후기로 추정된다.



해남현지도 산이면 노송리 일원(1872년, 규장각 소장)



노송마을 죽마을샘 근경



노송마을 죽마을샘 위치도

노송마을 동쪽샘

- 위치: 해남군 산이면 노송리 95-2
- 크기: 육각형(六角形), 가로 180cm, 세로 170cm, 높이 20cm

동쪽샘은 노송리 노송(老松)마을에 있다. 노송마을은 산이면 소재지에서 동남쪽 6km 거리이다. 마을 우물은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에 동아셋골에 있는 동아수샘과 증말 앞에 있는 두렁새암 2개소가 있는데 이 동쪽샘과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이 우물은 노송마을 동쪽 끝에 있는데 이 지표면에 비해 낮다. 주변을 시멘트로 포장하여 주변이 깔끔하다. 장방형의 판석을 방형으로 쌓았고 상부는 후대에 시멘트로 보수하였다. 우물에 단차를 두어 물이 조금씩 흘러 내리고 있다. 내부는 이끼가 많이 끼어 있다.

노송마을 김병석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약 300여 년 전에 마을이 형성되었을 때부터 사용한 우물로 전해지며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60여 가구가 식수로 썼다. 깊이는 약 2m이며 물이 마른 적이 없으며, 1년에 2~3차례 소독하고 청소하였다.

이 우물의 조성시기는 장방형의 판석을 사용하여 방형으로 조성했고 마을의 형성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조선 후기로 보이며 우물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노송마을 동쪽샘 근경



노송마을 동쪽샘 위치도

지사마을 돌샘

- 위치: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443-5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68cm, 세로 168cm, 높이 60cm

돌샘은 대진리 지사(智士)마을에 있다. 지사마을은 면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약 3.5km정도 떨어져 있으며 동쪽으로는 대진마을과 서쪽으로는 신농마을과 접해있다. 남쪽으로는 원항마을과 북쪽으로는 향도마을과 영암호가 인접하고 있다.

1789년 『호구총수』에는 산이면 지사마을이 기록되어 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산이면의 신농리, 대진리·원항리 각 일부를 병합하여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가 되었다.

문화유산으로는 청동기 시대 묘제인 지사마을 지석묘군과 삼국시대 패총인 지사패총이 남아 있어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마을 우물은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에 지사 동쪽에 있는 작은 우물인 개새샘과 개새샘 아래에 있는 통모양처럼 생긴 통샘 2개소가 기록되어 있다. 마을의 지명도 지사벼슬을 지낸 사람이 피난을 와서 산이면 8개 샘 중의 하나인 개샘의 물을 먹고 거주하였다고 해서 지사라 불리고 있어 우물과 매우 관련이 있는 마을이다. 현재에는 돌샘과 공동샘 2개소가 남아 있다. 돌샘이

지사대감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개새암으로 추정된다.

이 우물은 지사마을 회관 앞에 위치하는데 장방형의 판석을 쌓아서 만든 우물로 최근에 보수가 이루어졌다. 보수로 인해 위편에는 지붕 시설과 주변을 철제 난간으로 둘러져 있고, 내부는 우물을 보수하면서 위쪽에 황토를 두르고 외부를 화강암 판석으로 돌려 쌓았다.

지사마을 김호일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지사대감이 내려와 금을 떨어뜨렸던 곳에 만든 우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지하수를 파 우물이 마르게 되자 물을 채워 놓았고, 우물의 깊이는 20~30m에 이를 정도로 깊었다고 전해진다고 한다.

이 우물의 조성 시기는 장방형의 판석을 방형으로 축조한 점, 지사마을의 입향이 1600년대로 전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 후기에 조성된 우물로 추정된다.



지사마을 돌샘 근경



지사마을 돌샘 위치도

상공마을 땅골샘

- 위치: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542-1
- 크기: 방형(方形), 가로 220cm, 세로 220cm, 높이 30cm

땅골샘은 상공리 상공(相公)마을에 있다. 상공마을은 면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약 5.5km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산이농협경제사업소와 산이서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광활한 농지가 펼쳐지며, 서쪽으로는 유동마을과 이웃하며, 북쪽으로는 상공산이 있다.

『호구총수』(1989)에 상공마을이 기록되어 있고, 1914년 당후리, 양지리, 원항리 일부를 병합하여 산이면에 편입되었다.

상공마을에는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풍습이 전해온다. 정월 대보름에 마을 북쪽 상공산 정상에 있는 제각 뒤에 시멘트로 만든 제단에서 지낸다. 제관은 미리 뽑고, 3일 전부터는 제단 주변을 통제해 부정한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 소머리를 제물로 올리고 제를 모실 때에는 부녀자는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지하수가 개발되면서 현재는 기우제를 지내지 않는다.

마을 우물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현재는 상공마을 땅골샘 1개소만이 남아 있다.

땅골샘은 상공마을 한가운데에 남아 있는 우물로 주변 지형에 비해 낮은

곳에 위치 한다. 도로에서 우물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웬스가 쳐져있다. 우물은 시멘트를 방형으로 쌓은 우물로 상부와 하부에 단차를 두어 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려가게 하였으며 바깥은 빨래터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주민 편의를 위해 비가림 시설이 우물이 아닌 빨래터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우물에 이끼가 많이 끼어 있어 내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상공마을 오종두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샘이 마르거나 샘을 막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전설이 있다. 현재는 빨래터로 사용하고 있고, 상수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식수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과거 윗마을샘과 아랫마을샘이 있었으며 아랫마을샘은 메꾸어지고 윗마을샘인 땅골샘만 남아 있다. 과거에는 윗마을샘과 아랫마을샘을 지키기 위한 행사로 쥐불놀이 했다고 한다고 한다.

이 우물의 처음 조성 시기는 알 수 없다.



상공마을 땅골샘 근경



상공마을 땅골샘 위치도

문내면



문내면(門內面) 우물 이야기

문내면은 백제 시기 황술현(黃述縣)에, 통일신라 시기 황원현(黃原縣)에 속했다. 고려시대에는 황원군(黃原郡)으로 승격되었다가 1018년(현종 9)에 황원현이 되었다. 조선시대 1448년(세종 30) 해남현에 속한 지역이다.

문내면은 조선시대에는 황일면(黃一面), 황이면(黃二面)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문내면의 이름이 처음 보이는 것은 우수영이 혁파된 1895년(고종 32)이며 해남현은 해남군으로 개칭하였다. 문내면의 이름은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영문(營門)에서 유래했다.

문내면은 해남읍에서 서쪽으로 30km 지점에 있다. 동쪽으로 황산면, 북쪽으로 화원면과 인접하여 있으며, 남서쪽으로 이순신 장군의 대첩지인 명량해협[울돌목]을 사이에 두고 진도군, 동북쪽으로 금호호를 사이에 두고 산이면과 마주 보고 있다.

문내면은 좁은 반도 지형에 구릉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산이 높지 않고, 하천이 발달 되지 않았다. 이 지역의 산은 호암산[136.9m], 서승산[108.5m], 망해산[78.4m], 대덕산[85m], 청룡산[74.8m] 등 해발 100m 내외이다.

문내면은 난대리(蘭大里), 용암리(龍岩里), 동외리(東外里), 석교리(石橋里), 선



조선후기 황일면과 황이면 부근도(1872년, 해남현지도, 규장각 소장, 奎10464)

두리(先頭里), 고평리(固坪里), 서상리(西上里), 예락리(曳洛里), 무고리(武古里), 충평리(忠坪里), 고당리(古棠里), 학동리(鶴洞里) 등 12개 법정리와 46개 행정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유산으로는 해남 명량대첩비[보물 제503호, 1969.6.16. 지정], 강강술래[국가무형문화재 제8호, 1966.2.15], 해남 전라우수영[사적 제535호, 2016.9.30. 지정], 우수영부녀농요[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 1987.8.25. 지정] 등이 있다.

문내면의 우물은 2011년 해남문화원에서 간행한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 지명유래편에 동외마을 방죽샘을 포함한 44개소가 기록되어 있다.

이번에는 동리마을 웃샘과 아랫샘을 포함한 총 51개소의 우물이 조사되었는데 실제 현지조사결과 마을 상수도의 보급, 농지정리, 도로개설, 상수도보급 등으로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다른 해남의 읍면에 비해 많은 수의 우물이 남아 있다. 문내면 우물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문내면을 대표하는 18개소의 우물을 소개한다.

연번	설명	리	마을	명칭	주소	출전, 조사
1	○	용암리 龍巖里	용암 龍巖	공동샘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981	신조사
2		용암리 龍巖里	원동 院洞	새샘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669-1	신조사
3		용암리 龍巖里	원동 院洞	안샘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668-2	신조사
4		용암리 龍巖里	원동 院洞	새터샘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597-2	신조사
5		용암리 龍巖里	사교 四郊	너덜이아랫샘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453-4	신조사
6		용암리 龍巖里	신월 新月	공동샘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271	신조사
7		용암리 龍巖里	원문 元門	앞샘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101-6	신조사
8		용암리 龍巖里	원문 元門	뒷샘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197 주변	신조사
9		용암리 龍巖里	원문 元門	공동샘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254	신조사
10		석교리 石橋里	목삼 木三	샘터샘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131	신조사
11		석교리 石橋里	삼덕 三德	건넛샘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1685-1	상 456
12		석교리 石橋里	송정 松汀	공동샘 I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산261-1	신조사
13		석교리 石橋里	송정 松汀	공동샘 II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1835-2	신조사

연번	설명	리	마을	명칭	주소	출전, 조사
14		석교리 石橋里	송정 松汀	공동샘Ⅲ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1810-3	신조사
15		동외리 東外里	동외 東外	간대손가락샘	해남군 문내면 970-2	신조사
16	○	동외리 東外里	동내 東內	새샘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1134-4	상 467
17		동외리 東外里	동내 東內	공동샘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1168	신조사
18		동외리 東外里	동내 東內	동외리 1154-1 우물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1154-1	신조사
19		동외리 東外里	남외 南外	원샘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1015-1	신조사
20		선두리 先頭里	선두 先頭	새샘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288	신조사
21		학동리 鶴洞里	충무 忠武	절샘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177-2	신조사
22	○	학동리 鶴洞里	명량 鳴梁	공동샘 I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479	신조사
23	○	학동리 鶴洞里	명량 鳴梁	공동샘 II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070-4	신조사
24	○	서상리 西上里	서상 西上	방죽샘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688	상 462
25	○	서상리 西上里	서외 西外	갯샘(해수정)	해남군 문내면 남문길 44	상 497
26	○	서상리 西上里	서외 西外	큰샘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172-1	신조사
27	○	서상리 西上里	서외 西外	작은샘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216	신조사

연번	설명	리	마을	명칭	주소	출전, 조사
28		예락리 曳洛里	예락 曳洛	공동샘 I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1196	신조사
29		예락리 曳洛里	예락 曳洛	공동샘 II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990-6	신조사
30		예락리 曳洛里	예락 曳洛	예락길 70-1 우물	해남군 문내면 예락길 70-1	신조사
31		예락리 曳洛里	예락 曳洛	예락길 80 우물	해남군 문내면 예락길 80	신조사
32	○	예락리 曳洛里	동리 東里	웃샘(서편샘)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86	상504
33	○	예락리 曳洛里	동리 東里	아랫샘 (동편샘)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648-1	신조사
34		예락리 曳洛里	영정 良汀	큰마을샘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443	신조사
35		예락리 曳洛里	영정 良汀	벗등샘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459	신조사
36	○	난대리 蘭大里	난대 蘭大	큰샘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 673-12	신조사
37	○	무고리 武古里	외암 外岩	용알샘	해남군 문내면 외암길 60-1번지 앞	신조사
38		무고리 武古里	공영 共營	큰샘	해남군 문내면 공영길 55-19	상522
39		무고리 武古里	공영 共營	버들샘	해남군 문내면 공영길 55-27	상522
40		무고리 武古里	공영 共營	웃들샘	해남군 문내면 공영길 783-7	상522
41		무고리 武古里	용정 龍頂	공동샘 I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883	신조사

연번	설명	리	마을	명칭	주소	출전, 조사
42	○	무고리 武古里	용정 龍頂	공동샘Ⅱ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881-2	신조사
43	○	무고리 武古里	용정 龍頂	공동샘Ⅲ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886	신조사
44	○	무고리 武古里	증도 甞島	가운데샘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998	신조사
45		무고리 武古里	증도 甞島	웃샘	해남군 문내면 증도길 27	신조사
46		충평리 忠平里	충평 忠平	웃샘	해남군 문내면 충평리 391-3	상532
47	○	충평리 忠平里	충평 忠平	아랫샘	해남군 문내면 충평리 553-6	상532
48		충평리 忠平里	신평 新坪	웃샘	해남군 문내면 충평리 684-3	신조사
49	○	고당리 高棠里	고당 高棠	구름샘 (탑선골샘)	해남군 문내면 고당리 178-3	상541
50	○	고평리 古坪里	고평 古坪	공동샘	해남군 문내면 고평리 873-5	신조사
51		고평리 古坪里	고대 古大	불로정샘	해남군 문내면 고평리 262	신조사

용암마을 공동샘

- 위치: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981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60cm, 세로 150cm, 높이 40cm

공동샘은 용암리 용암(龍巖)마을에 있다. 용암마을은 문내면 소재지에서 서남쪽에 있고, 대덕산 아래에 위치해 있다. 1789년 『호구총수』에는 황일면의 한 지역이고, 1914년 원문, 원동, 사교, 석교일부와 함께 법정리인 용암리에 포함되어 문내면에 편입되었다.

마을은 면소재지에서 동쪽방향에 위치하며 구릉성 평지에 자리한 마을로 동쪽으로는 원동마을이 서쪽으로는 동영마을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장포마을 북쪽으로는 심동마을과 접하고 있다.

명물로는 마을 뒷산인 대덕산에 자리한 용바위로, 이 용바위에서 마을 지명이 유래했으며 주민들은 정월대보름날 용바위 아래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용암마을 공동샘은 마을 중심부에 있고 판석을 사용하여 방형으로 쌓았다. 주변에 방형의 시멘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둥근 원형의 나무기둥을 세웠다. 그 위에 연목을 놓고 우진각 지붕을 설치하였다. 원 지붕은 토기와

를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은 칼라강판이다. 현재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목재뚜껑이 덮어져 있다.

정도군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공동상수도가 없을 때까지는 아주 활발하게 이용하였던 샘으로, 마을에서 공동 관리를 하였으며, 2015년 마을 자체적으로 우물 지붕을 보수하였다고 한다. 또한 대덕산에서 용암산재를 지낼 당시에는 이 샘에서 물을 길어 제관들이 목욕을 하였으며, 일반인들은 이 기간에 샘물을 사용할 수 없어 미리 길러 두었으며 청소는 1년에 2번 정도 실시하였는데 청소 전 장닭의 머리를 땅에 묻은 뒤에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바닥이 도로로 바뀌어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우물의 깊이는 약 15m정도 되고 우수영 사람들도 물이 없을 때는 이 샘을 먹었다고 한다.

정확한 우물의 조성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방형의 판석을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제 강점기 이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암마을 공동샘 근경



용암마을 공동샘 위치도

동내마을 새샘

- 위치: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1134-4
- 크기: 방형(方形), 가로 85cm, 세로 185cm, 높이 68cm

새샘은 동외리 동내(東內)마을에 구 우수영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다. 『호구총수』(1789)에는 황일면의 한 지역으로 1914년 동영, 동외, 남외, 나대일부와 함께 법정리인 동외리에 포함돼 문내면에 속하게 되었다. 마을에는 전라우수영의 동헌이 자리했으며, 수사(水使) 공적비군이 있는 비석거리가 있다.

화강암 판석을 사용하여 방형으로 쌓은 우물로 형태는 장방형이다. 우물 보호를 위해 시멘트로 된 뚜껑이 덮여 있어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

김백화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동내마을 50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했고 주변 동외리와 남상리 주민들도 함께 사용하였으며, 사용하지 않게 되자 안전을 위해 시멘트 뚜껑을 설치했고, 새로 판 샘이라 하여 새샘이라 했다고 한다.

이 새샘은 2011년 발행한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에 나오는 동내에서 새로 판 우물인 새새암으로 생각된다. 이 우물 외에도 동내마을에는 현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동샘과, 개인집에서 사용한 우물이 남아 있다.

정확한 우물의 조성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동내마을은 1400년대 전주이씨

이강근(李康根)이 전라수영이 설치되자 전주에서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생성된 마을인 점, 방형의 판석을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 시대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내마을 새샘 근경



동내마을 새샘 위치도

명량마을 공동샘 I

- 위치: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479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56cm, 세로 176cm, 높이 46cm

공동샘 I 은 학동리 명량(鳴梁)마을에 있다. 명량마을은 면소재로부터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학동마을, 서쪽으로는 충무마을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바다와, 북쪽으로는 선두마을과 인접해 있다.

조선후기 지도(1872년)에 황이면 명량이 보인다. 1914년 학동, 삼정, 충무, 보동 일부, 안동 일부와 함께 학동리에 포함돼 문내면에 편입되었다.

마을은 정유재란 당시 명량해전이 있었던 곳으로 울돌목 물살이 세게 운다하여 울 명(鳴)과 다리 량(梁)을 써서 명량, 또는 맹량, 울두목으로 불리웠다. 명량 건너편 뒷산이라 부르는 산 안쪽 골에 몇 가구가 살았는데, 그 마을 이름이 뒷산에 기러기가 서식한다고 하여 ‘안골’로 불리웠다. 그래서 명량마을은 명량마을과 안골마을이 합쳐졌다고 하여 명안(鳴雁)마을로 불리다가 2008년 명량마을로 개칭하였다. 마을에는 우수영 국민관광단지와 진도대교가 위치해 있다.

현재 명량마을에는 울돌목 바닷가쪽에 위치한 구 명량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던 공동샘과 명량 건너편 뒷산의 안골이라 불렸던 마을에 위치한 공동

샘 2곳이 남아 있다.

명랑마을 공동샘 I 은 수정가든 아래쪽 바닷가에 위치한 우물로 판석을 방형으로 쌓은 우물이다. 우물 상부가 시멘트로 보수가 이루어져 있어 1회 이상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상부는 나무 뚜껑이 덮여 있다. 나무와 풀에 가려 우물은 보이지 않아 찾기가 쉽지 않다. 주변에 낮은 장대석 1단이 놓여 있다.

전영중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명랑마을 바닷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우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 우물의 조성 시기는 이 마을이 1870년 경주최씨 몽철(夢喆)이 화원면에서 들어왔고, 진주강씨 기홍(己洪)이 완도에서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해져 마을이 생겼을 때 이 우물도 같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상수도가 들어온 이후 사용이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해남현지도 황이면 명랑 부근도(1872년, 규장각)



명량마을 공동샘 | 근경



명량마을 공동샘 | 위치도

명량마을 공동샘 II

- 위치: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070-4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33cm, 세로 131cm, 높이 80cm

공동샘 II는 학동리 명량(鳴梁)마을에 있다. 명량마을은 면소재로부터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학동마을, 서쪽으로는 충무마을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바다와, 북쪽으로는 선두마을과 인접해 있다.

명동마을 공동샘 II는 우수영유스호스텔에서 작은 언덕길을 지나면 7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명량마을 안골이라는 곳의 아래편의 안골길 76 주택 앞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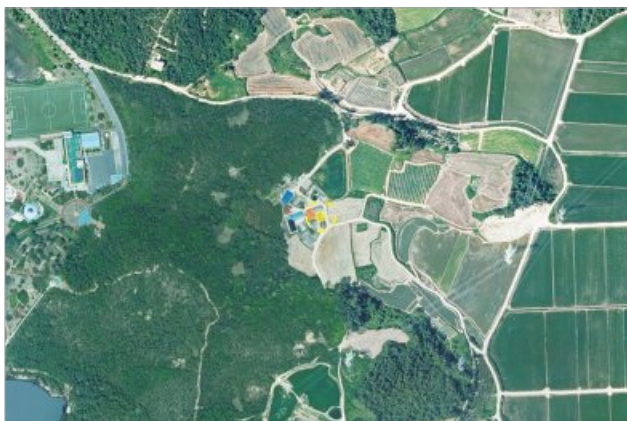
방형의 판석을 사용하여 조성한 우물인데 형태는 정사각형에 가깝다. 상부가 시멘트로 보수되어 있어 1회 이상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주변에는 안골길 76 주택에서 조성한 작은 화단이 있다.

전영중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명량마을 안골 주민 7~8가구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우물로 현재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물의 특별한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 우물의 조성 시기는 방형의 판석을 사용한 점, 이 마을이 1870년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해져 마을이 생겼을 때 이 우물도 같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상수도가 들어왔으며 2007년 이후 이 우물의 식수 사용이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명량마을 공동샘Ⅱ 근경



명량마을 공동샘Ⅱ 위치도

서상마을 방죽샘

- 위치: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688
- 크기: 육각형(六角形), 길이 140~175cm, 높이 127cm

방죽샘은 서상리 서상(西上)마을에 있다. 서상마을은 면소재지로부터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동외마을, 서쪽으로는 서외마을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서하마을, 북쪽으로는 동리마을과 인접해 있다.

1789년 『호구총수』에 황일면의 한 지역으로 1914년 서하, 서외, 남상 일부, 동리 일부와 함께 법정리인 서상리에 포함되어 문내면에 속하게 되었다.

마을 뒷산 망해산(77.6m)에는 망해루가 있는데, 이곳은 우수영성과 임진왜란 당시 왜구의 침입을 감시하며 봉화를 올렸던 곳이다.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하루에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서상마을 방죽샘은 서상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에 주변을 정비하여 관리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1861년부터 1866년경에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와 1903년 고종의 명에 의해 간행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우수영기록에 우물이 2개소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방죽샘이 전라우수영에 있었던 2개소

의 우물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이 우물은 기둥 6개를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장방형의 판석을 사용하여 쌓았는데 길이가 각각 달라 정육각형이 아닌 부정형이다. 기둥의 상부는 연꽃 봉우리가 조각되어 있으며 곳곳에 시멘트 보수 흔적이 보인다. 또한 우물 옆에 『雍正2년(1724)甲辰』, 『乾隆17(1752)壬申九月』, 『嘉慶9년(1804)甲子』, 『光武11년(1907)』, 『檀紀 4281년(1948)戊子』 등 총 5개의 비가 남아 있어 중수연대와 참여자를 알 수 있다. (중수비 해설은 제3장 참조)

이 지역에서는 방죽샘과 동내마을 새샘이 풍수지리상 호랑이 눈을 상징한다고 전해지고 1970년까지는 마을에서 금줄을 치고 방죽샘 제사를 모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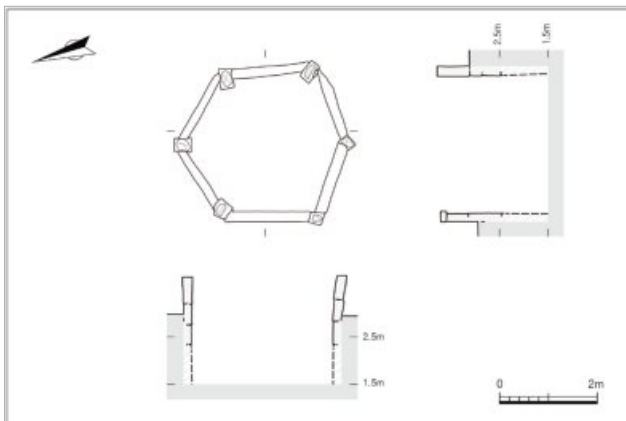
우물의 축조연대는 1724년 이전으로 해남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물로 생각되며 중수연대와 참여자를 알 수 있어 조선 시대 우물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서상마을 방죽샘 근경



서상마을 방죽샘 위치도



서상마을 방죽샘 도면

방죽샘 중수비 명문[2020. 7. 1. 탁본조사]

□ 1724년(경종 4, 雍正 2) 중수비[좌1]

[앞면]

張漢柱

施主 丁南奎 文尙彩

丁南樞

大施主 梁 潯 尊位 朴桂益

監役 折衡 李枝萬 座主 朴世九

閑良 葛敏弼 公 崔泰潤

金大呂 供養 金時鳴

李義昌 郭時海

[뒷면]

雍正二年甲辰三月 日

□ 1752년(영조 28, 乾隆 17) 중수비[좌5]

[앞면]

朱德三 廉又興 幹事 金世奉

朴千水 金項石 別佐 邵回芳

施主 金命大 施主 金明九 施主 金益厚

監役 朴師謙 公員 崔啓亨 化主 金萬壽

朴重大 化主 廉又儉 丁昌說

尊位 崔錫泰 宣□□ 田有秋

[뒷면]

乾隆十七年壬申九月 日立

□ 1804년(순조 4, 嘉慶 9) 중수비[좌4]

[1면]

監役 朴碧東 梁達洙 尊□

李喜苓 李時恒 公□

化主 金鱗海 幹事 崔奉世 石□

張再良 林啓喆

田昌垈 梁達泓 治□

申元淡 別座 李應啓 助口

[2면]

治石告訖 乳復燕山 製車

繼古述今 泉甘盤谷

嘉慶九年[甲子]三月日

渾淵不渴 天且萬年 書李

飛出無窮 不頽不濁

□ 1907년(光武 11) 중수비[좌2]

[앞면]

監董 前主事 田豐主

金章煉 林玟根

前主事 張亨遠

李道俊

田俊錫

社首 金在云 林璟楨

朴武(晨)

大施主 □

[뒷면]

光武十一年

□ 1948년(단기 4281) 중수기념비[좌3]

[앞면]

西下里 先頭里

施主 西上里 南上里

西外里 南下里

重修紀念碑

監役 金相午 朴泰春

李明奎 文有一

金泰俊 鄭金南

[뒷면]

檀紀四千二百八十一年戊子二月 日立



탁본조사(2020.7.1)



방죽샘 중수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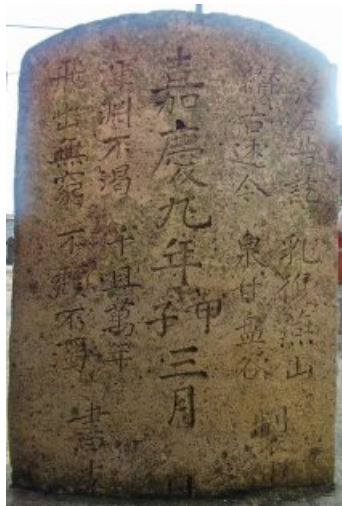
전 1752년 중수비(좌 5)



1907년 중수비 탁본(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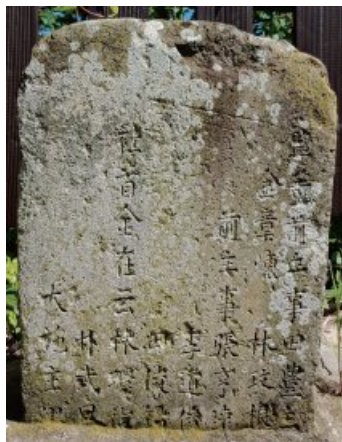
1804년 중수비 1면 탁본(좌4)



1804년 중수비 2면(좌4)



1752년 중수비(좌5)



1907년 중수비(좌2)



1948년 중수비(좌3)

서외마을 갯샘

- 위치: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252-2
- 크기: 방형(方形), 가로 202cm, 세로 202cm, 높이 53cm

갯샘은 서상리 서외(西外)마을에 있다. 전라우수영성 서문밖에 위치해 있다고 하여 서외마을로 불리고 있다.

1789년 『호구총수』에 황일면의 한 지역으로 1914년 서상, 서하, 남상 일부, 동리 일부와 함께 서상리에 포함되어 문내면에 속했다.

마을에는 전라우수영이 자리했을 때 연화봉 서쪽에 있던 봉화대의 일종인 육상대 터가 전해오고 있다.

서외마을에는 현재 총 3개의 우물이 있는데 바닷가 바로 앞에 갯샘, 마을 중앙에 큰샘과 작은샘이 남아 있다. 이 중 갯샘이 규모가 가장 크고 수량이 많으나 수질은 관리가 되지 못해 좋지 않다.

이 우물은 서외마을 회관 옆 서쪽에 있고 주변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긴장방형의 석재를 쌓아서 만든 방형우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홍재환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바닷가 앞에 있어 갯샘이라 부르고 있고, 물이 짚으며 서외마을 공동우물로 한해에는 물이 말랐다고 한다, 그리고 백중날 보리개떡을 먹으면서 청소하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2011년 발간된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에는 해수정에서 백중날에 샘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하는 샘씻기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우물의 조성연대는 조선 후기 우물의 일반적인 형태인 방형을 하고 있고, 마을의 형성이 1481년경으로 전해지고 있어 조선시대로 추정된다.



서외마을 갯샘 근경



서외마을 갯샘 위치도

서외마을 큰샘

- 위치: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216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22cm, 세로 126cm, 높이 55cm

서상리 서외마을 회관에서 북서쪽으로 150m 정도 떨어진 곳의 밭 한가운데 있다. 우물 바로 위쪽에 큰소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우물 주변에 작은 돌담이 둘러져 있으며,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철로 된 긴 장방형의 뚜껑을 이용하여 덮어 놓고 있다. 우물의 수질은 관리가 되지 않아 좋지 못하다.

이 우물의 형태는 방형으로 규모는 소형이고 정사각형에 가깝다. 긴장방형의 석재를 쌓아서 만든 우물로 후대에 우물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를 이용하여 약 55cm정도 쌓았다.

홍재환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갯샘을 제외한 두 개의 우물 중 크기가 크다고 해서 큰샘으로 불리고 있으며, 마을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사용을 하지 않고 현재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우물의 조성연대는 조선 후기 우물의 일반적인 형태인 방형을 하고 있고, 마을의 형성이 1481년경으로 전해지고 있어 조선 후기로 추정된다.

서외마을은 조선시대 후기 『호구총수』(1789년)에 황일면 서문의 지역이었

고 뒤에 문내면 서외리가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서상리, 서하리, 남상리, 서외리, 동리 일부가 서상리로 합해졌다.



서외마을 큰샘 근경



서외마을 큰샘 위치도

서외마을 작은샘

- 위치: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216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15cm, 세로 115cm, 높이 57cm

이 우물의 위치는 서상리 서외마을 회관에서 북서쪽으로 160m 정도 떨어진 곳의 집과 집사이의 작은 골목길 위의 공터에 있고, 돌담이 쌓여져 있다. 뚜껑은 슬레이트를 이용하여 덮고 있다. 주변에 각종 생활용품들이 놓여 있고, 우물의 수질은 관리가 되지 않아 좋지 않다.

이 우물의 형태는 방형으로 규모는 소형이고 정사각형이다. 긴장방형의 석재를 쌓아서 만든 우물로 후대에 우물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를 이용하여 약 57cm정도 쌓았다.

홍재환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갯샘을 제외한 두 개의 우물 중 크기가 작다고 해서 작은샘으로 불리고 있으며, 마을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사용을 하지 않고 현재는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우물의 조성연대는 조선 후기 우물의 일반적인 형태인 방형을 하고 있고, 마을의 형성이 1481년경으로 전해지고 있어 조선 후기로 추정된다.



서외마을 작은샘 근경



서외마을 작은샘 위치도

동리마을 옷샘

- 위치: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86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70cm, 세로 160cm, 높이 70cm

옷샘은 예락리 동리(東里)마을에 있다. 동리마을은 면소재지로부터 서북쪽에 있다. 1914년 예락, 양정, 임하, 서외 일부와 함께 법정리인 예락리에 포함되면서 문내면에 속하게 되었다. 마을은 최근까지도 음력 정월 초하룻날 저녁, 앞산에 당 할머니와 뒷산에 당 할아버지에게 당제를 지냈던 전통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고장이다.

동리마을 우물기록은 2013년 발행한 『문내면지』에 등병샘, 뒤밀재, 마당베미, 옷샘 등 총 4개소가 동·서·남·북 방향에 있다고 하였다. 어르신들의 제보에도 동서남북에 4개소가 있었으나 2개소 만 남아 있다고 한다. 이 동리마을 옷샘은 『문내면지』에 옷샘으로 나오며 서편샘이라고도 부른다.

위치는 마을정류장 아래편 논 상부에 있으며, 형태는 방형으로 정사각형에 가깝다.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긴장방형의 판석으로 사면을 쌓고 그 위를 다시 장대석으로 마무리하였다. 주변에는 비가림 시설의 기둥으로 생각되는 기둥석 2개가 남아 있다.

바깥쪽 난간석에 “을미년삼월육일(乙未年三月六日)」 창설자(創設者) 주남용(朱

南龍)」명문이 세로로 새겨져 있어 1895년 을미년 이전에 주남옹이 건립한 우물로 추정된다. 우물의 건립연대와 설립자 등을 알 수 있어 조선 후기 우물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동리마을 옷샘 전경



동리마을 옷샘 위치도

동리마을 아랫샘

- 위치: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648-1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78cm, 세로 190cm, 높이 70cm

아랫샘은 예락리 동리마을에 있다. 『문내면지』에 마을 동쪽에 위치한 샘으로 기록된 마당메미로 생각된다. 동쪽편에 위치해 있다고 하여 동편샘으로도 불리고 있다.

위치는 동리마을 동쪽 끝 밭 상부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형태는 방형으로 정사각형에 가깝다.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긴장방형의 판석으로 사면을 쌓고 그 위를 다시 장대석으로 마무리하였다. 주변에는 비가림 시설의 기둥으로 생각되는 기둥석 4개가 남아 있다.

우물은 경작하고 있는 밭보다 위치가 조금 높으나 매우 협소하다. 원래는 더 넓은 공간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이나 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해 상부 공간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 우물의 형태나 크기가 동리마을 웃샘과 거의 비슷하고 우물 축조 방법도 동일하여 동리마을 웃샘과 함께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우물은 동리마을 웃샘과 다르게 우물 조성 기록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조선 후기 우물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동리마을 아랫샘 전경



동리마을 아랫샘 위치도

난대마을 큰샘

- 위치: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 673-12
- 크기: 육각형(六角形), 한 변의 길이 120cm, 높이 50cm

큰샘은 난대리 난대(蘭大)마을에 있다. 난대마을은 면소재지로부터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심동마을, 서쪽으로는 동리마을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동영마을, 북쪽으로는 외암아들과 인접해 있다.

1789년 『호구총수』에 황이면 난고리(蘭槁里)로 기록이 나오며 1872년 해남 현지도에는 난대(蘭臺)로 표기되었다. 문내면에 편입되고 1914년 난대, 동리 일부와 함께 법정리인 난대리에 포함돼 문내면에 속하게 되었다.

1990년대까지 정월대보름에 마을주민들의 단합을 위해 걸궁을 쳤다고 전해진다.

난대마을의 우물은 2013년 간행된 『문내면지』에 말샘과 벼락샘이 전래지명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 난대마을 큰샘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위치는 난대마을 남쪽 편인 난대길 70 앞에 있고, 도로지변에 포함되어 있다. 형태는 정육각형으로 6개의 기둥을 세우고 긴장방향의 판석으로 육면을 쌓고 그 위를 다시 장대석으로 마무리하였다. 기둥 상면에는 상부를 뾰족하게 깎았다. 우물 주변에 원형의 석기둥을 세우고 우진각형태의 지붕

시설을 설치하였다. 지붕기와는 시멘트 기와를 사용했다. 뚜껑은 육각의 나무로 제작되었으며, 관리가 잘되어 수질은 양호한 편이며 우물의 깊이는 약 4m에 이른다.

박은자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이 우물은 장문경 반장이 100여년 전 난대리 422번지에 집을 지을 때 이 우물을 함께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며 5년 전인 2015년 해남군의 지원으로 보호시설을 보수하였다고 한다.

이 우물은 서상마을 방죽샘과 축조방식과 형태가 비슷하여 후대에 우물을 축조하면서 방죽샘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며, 구전이긴 하나 약 100여년 전인 1920년경의 축조 사실이 전하고 있어 일제 강점기 우물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해남현지도 황이면 난대 부근(1872년, 규장각)



난대마을 큰샘 전경



난대마을 큰샘 위치도

외암마을 용알샘

- 위치: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485(외암길 60-1 곁)
- 크기: 육각형(六角形), 한 변의 길이 103cm, 높이 71.5cm

용알샘은 무고리 외암(外岩)마을에 있다. 1789년 『호구총수』에 황이면 외암리(外岩里)가 나오며 뒤에 문내면에 편입되었다. 1914년 무고, 중도, 궁항, 공영, 난대 일부, 충평 일부와 함께 법정리인 무고리에 포함되어 문내면에 속하게 되었다.

매년 정월초하룻날 밤 11시에 당 할머니에게 당제를 지내는데 2009년부터는 낮 12시에 지낸다. 당집은 ‘제 잡수는 산’이라고 불리는 마을 뒷산에 있다.

용알샘은 외암길 60-1번지 앞쪽의 길가에 있다. 주변에 둥근 원형의 돌담이 쌓여져 있고, 그 뒤 다시 블록시멘트벽돌을 이용하여 앞 도로까지 높게 쌓았다. 우물을 진입하기 위한 계단이 있다. 형태는 육각형으로 6개의 기둥을 세우고 긴장방형의 관석으로 육면을 쌓아 마무리하였는데 석재는 청석이다. 원형의 쇠기둥을 세우고 우진각형태의 지붕시설을 설치하였고 양철지붕이다. 관리가 잘되지 않아 수질은 좋지 않고 우물의 깊이는 약 5m에 이른다.

외암마을 김석중씨의 제보에 따르면 약 120여년 전에 마을의 석공들이 청석을 사용하여 조성하였고, 75호 정도가 식수로 사용하다가 공동상수도

가 들어오면서 사용을 하지 않고 현재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1972년 새마을 사업 때 주변을 정비하였으며, 2019년에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이 우물은 서상마을 방죽샘과 축조방식과 형태가 비슷하다. 방죽샘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구전으로 120여년 전인 1900년경의 축조 사실이 전하고 있어 조선 말기 우물로 생각되며 난대마을 큰샘보다는 시기가 앞설 것으로 보인다.



외암마을 용알샘 전경



외암마을 용알샘 위치도

용정마을 공동샘 II

- 위치: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881-2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26cm, 세로 102cm, 높이 64cm

공동샘 II는 무고리 용정(龍頂)마을에 있다. 용정마을은 면소재지로부터 서쪽에 위치해 있다. 1973년 무고, 중도, 궁항, 외암과 함께 법정리인 무고리에 포함되어 문내면에 속하게 되었다. 용정마을은 공영마을에 속해 있다. 가 분촌하였다. 용정마을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무렵 입향하였고, 1910년대에 일본인 길촌강령이 문내면과 화원면 사이의 바다 360ha를 간척하여 농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마을이 형성되었다.

용정마을에는 총 3개의 우물이 전해진다. 용정마을 공동샘 II은 마을 중간 상부의 대숲에 위치한 우물이다. 아래는 자연석의 잔돌을 사용하여 불규칙적으로 쌓은 뒤 상부는 판석을 이용하여 방형으로 쌓은 우물이다. 우물 조성 후 보수를 하지 않아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우물이 관리가 되지 않아 수질은 좋지 않다.

용정마을 김범석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용정마을 중앙부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우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우물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 우물은 마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자연석과 관석을 함께 사용하여 조성한 특이한 예에 속한 우물이다.



용정마을 공동샘Ⅱ 전경



용정마을 공동샘Ⅱ 위치도

용정마을 공동샘Ⅲ

- 위치: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886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51cm, 세로 145cm, 높이 73cm

공동샘Ⅲ은 무고리 용정(龍頂)마을에 있다. 용정마을에는 총 3개의 우물이 전해진다. 이 우물들은 마을이 형성되고 집들이 들어서면서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용정마을 공동샘Ⅲ은 용정마을 회관에서 남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발한가운데 위치한 우물이다.

우물의 형태는 아래는 자연석의 잔돌을 사용하여 원형으로 쌓은 후 상부는 판석을 이용하여 방형으로 쌓은 우물이다. 후대에 우물을 보수하면서 시멘트로 상부를 약 8cm정도 쌓았다. 관리가 되지 않아 수질은 좋지 못하다.

용정마을 김범석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용정마을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우물로 현재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름은 특별히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 우물은 마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우물로 추정되며, 우물의 조성이 자연석과 판석을 함께 사용하여 조성한 특이한 예에 속한 우물이다.



용정마을 공동샘Ⅲ 전경



용정마을 공동샘Ⅲ 위치도

증도마을 가운데샘

- 위치: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998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53cm, 세로 153cm, 높이 60cm

가운데샘은 무고리 증도(甌島)마을에 있다. 증도마을은 면소재지로부터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용정마을 서쪽과 남쪽으로는 바다와 접해있고, 북쪽으로는 궁항마을과 인접해 있다.

증도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고, 공영, 궁항, 외암, 난대일부와 충평 일부와 함께 문내면 무고리에 속하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초하룻날 마을 당집에서 당 할머니에게 당제를 지내며 마을의 평안과 풍년 바다에서의 무사고를 기원하고 있다.

증도마을에는 총 3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하며 현재는 가운데샘과 옷샘 등 2개소가 남아 있다.

문내면 증도길 25 주택 앞쪽의 밭 끝에 위치한 우물로 판석을 이용하여 방형으로 쌓은 우물로 정사각형이다. 우물 전체가 판석인지는 현재 수질이 좋지 못하여 확인할 수 없다.

증도마을 최일욱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증도마을 60여 가구가 3개의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30여년전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사용하지 않

았으며, 이중 가운데샘이 가장 오래된 우물로 전해지며 현재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우물은 우물의 형태가 방형이고, 마을이 처음 입향한 시기가 1780년 경으로 전하고 있어 조선 후기에 조성된 우물로 생각된다.



증도마을 가운데샘 전경



증도마을 가운데샘 위치도

충평마을 아랫샘

- 위치: 해남군 문내면 충평리 553-6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98cm, 세로 190.5cm, 높이 67cm

충평(忠平)마을은 면소재지로부터 북쪽에 있고, 조선 후기에 황이면 지역으로 뒤에 문내면에 편입된다. 1914년 신평, 갈우, 무고 충평 일부와 함께 문내면 충평리에 속하게 되었다.

마을 앞으로 서삼산(해발188m), 뒤편으로 호암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충평마을에서 신평마을로 넘어가는 구릉에 10여기의 지석묘가 군집해 있다.

『문내면지』에는 충평마을에 시룻들새샘, 왕짓골새샘, 유왕새샘(서쪽에 위치한 우물), 통샘(동쪽에 있는 우물) 등 4개소라 했으나 현재는 웃샘과 아랫샘만 남아 있다. 웃샘은 마을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 통샘, 아랫샘은 서쪽에 위치해 있어 유왕새샘으로 추정된다.

아랫샘은 충평마을 회관에서 남서쪽으로 185m 정도 떨어진 길 좌측편에 있으며 정확한 내부는 알 수 없다. 들어난 부분은 4면에 기둥을 세우고 각면에 판석을 끼워 넣었다. 상부 마무리는 긴장대석으로 마무리 하였다. 약간 떨어진 사면에 있는 방형 석재기둥은 우물 보호시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해남군의 지원으로 최근에 보호시설 설치공사가 이루어졌다.

윤익준 이장에 따르면 마을 아랫 편에 있어 아랫샘이라 불리고, 40여 가구 정도가 공동으로 사용했던 우물로 지금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우물은 방형으로 판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마을의 입향이 1600년대 인점으로 미루어 보와 조선 후기에 조성된 우물로 추정된다.



충평마을 아랫샘 전경



충평마을 아랫샘 위치도

고당마을 구름샘

- 위치: 해남군 문내면 고당리 178-3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76cm, 세로 176cm, 높이 54cm

구름샘은 고당리 고당(高堂)마을에 있다. 고당마을은 면소재지로부터 동북쪽으로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고대마을, 서쪽으로는 갈우마을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고평마을, 북쪽으로는 신평마을과 인접해 있다.

조선 후기 황이면의 한 지역으로 1872년 해남현 지도에는 고당(古堂)으로 나온다. 뒤에 문내면에 편입되며 1914년 고전, 고당, 장서면 방하 일부와 함께 문내면 고당리에 속하게 되었다.

마을에는 일성산 봉수터, 청동기 시대 유물산포지, 지석묘군, 백제시대 황술현지(黃述縣址), 많은 절터가 남아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2013년 간행된 『문내면지』에는 유왕당에 있는 샘인 유왕당새앎과 탑선골에 있는 샘인 탑선골새앎 등 우물이 2개소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는 구름샘 1개소만 남아 있다.

구름샘은 고당마을 회관에서 50m 떨어진 도로 아래편에 위치해 있다. 이 우물은 판석을 정방형으로 쌓은 우물로 주변에는 보호각의 기둥으로 보이는 방형의 기둥이 4개가 남아 있는데 앞쪽 좌측의 기둥만 다른 기둥에 비

해 짧아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상부는 보수하면서 시멘트를 54cm 정도 높게 쌓았다. 우물에 사람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최근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주변에는 쇠석이 깔려있다.

우물로 내려오는 계단에 석탑의 부재인 옥개석이 있어 이 주변에 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의 지명에도 질등꼬자기가 등장하고 이를 질등 밑에 있는 골짜기로 탑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 옥개석이 질등 골짜기에 있었던 탑재로 추정된다. 이 우물 주변에 탑재가 있어 탑골새암으로 추정된다.

이 우물이 구름샘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동네 사람들도 알지 못한다. 현재 관리가 되지 않아 수질은 좋지 못하고, 농업용수로만 사용하고 있다.

이 우물은 방형으로 관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마을의 입향이 1560년대 인점으로 미루어 보와 조선 후기에 조성된 우물로 추정된다.



해남현지도 황이면 고당 부근도 (1872년, 규장각)



고당마을 구름샘 전경



고당마을 구름샘 위치도

고평마을 공동샘

- 위치: 해남군 문내면 고평리 873-5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91cm, 세로 176cm, 높이 33cm

공동샘은 고평리 고평(古坪)마을에 있다. 고평마을은 면소재지로부터 동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고대마을, 서쪽으로는 갈우마을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고전마을, 북쪽으로는 고당마을과 인접해 있다.

조선 후기 황이면의 한 지역으로 뒤에 문내면에 편제되었다. 1914년 고평과 문내면 고평리에 속하게 되었다.

마을 남쪽 단두들에는 삼국시대에 조성된 유물산포지가 발견되었고, 정월보름 마을 뒷산 수령이 300년 된 소나무 아래 도지터에서 마을의 안녕과 평온을 비는 당제를 지내고 있다.

2013년 간행된 『문내면지』에는 고평마을에는 남쪽에 있는 고랑새앰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현재의 고평마을 공동샘도 남쪽에 위치해 있어 고랑새앰이 현재의 공동샘으로 추정된다.

이 우물은 고평마을회관 남쪽 200m정도 떨어진 고평리 411-3번지의 논 앞에 위치해 있다. 우물은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가 되지 않아 수질은 좋지 않고 주변에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양수기가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어 수질은 풍부한 것으로 보인다.

우물은 방형으로 4면에 방형의 기둥을 세우고 관석을 기둥에 끼워서 만든 우물로 수리한 흔적은 보이지 않아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한춘열 이장의 제보에 따르면 고평마을 40여 가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우물로 따로 이름은 없었다고 한다.

이 우물은 방형으로 관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마을의 입향이 1600년대 인점으로 미루어 보와 조선 후기에 조성된 우물로 추정된다.



고평마을 공동샘 전경



고평마을 공동샘 위치도

화원면



화원면(花源面) 우물 이야기

화원면은 본래 백제 황술현의 한 지역으로 통일신라에는 양무군에 딸린 황원현 땅이었으며, 고려에는 영암군 관할의 황원군 땅이었다. 조선시대에 해남현에 속했으며 1445년(세종 27)에 진도감목관을 황원곶목장으로 옮기면서 진도목장을 속장으로 했다. 이 지역의 면리는 『여지도서』(1759년)에 장서면(場西面)과 장동면(場東面)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목장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1872년 해남현 지도에는 장내면으로 나온다.

1906년 지방제 개편에 따라 감목관이 혁파되고, 그 자리에 관저면(管底面)이 신설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관저면은 7개 동리, 장서면은 20개 동리, 장동면은 20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이때에 세 개면 47개 동리를 합하여 15개 동리로 개편하고, 화원면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화원면의 명칭은 1445년 황원곶목장이 설치된 지역이라 하여 황원곶목장(黃原串牧場)의 ‘원(原)’자를 따서 지은 것으로 전한다.

화원면은 남쪽으로 문내면과 인접하여 있고, 동쪽으로 금호호를 사이로 산이면과 마주 보고 있으며, 북쪽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영암 삼호읍과 목포 신외항을 바라보고 있으며, 서쪽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장산면과 마



조선후기 화원목장과 장내면 부근도(1872년, 해남현지도, 규장각 소장, 奎10464)

주하고 있다.

화원면은 화원반도의 끝부분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금호호, 서쪽으로 바다, 북쪽으로 해남만이 있다.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농지는 동쪽 금호호와 남서쪽의 바닷가에 주로 분포한다. 주요 산은 일성산(日星山) [335m], 운거산(雲居山) [300m], 지령산[294m], 매봉산[247.7m], 갯대봉[231.1m], 큰봉산[235.5m] 등으로 해발 200m 넘는 산들이 남북으로 뻗어 있다. 『조선지형

도』에서 화원반도를 살펴보면, 서쪽과 동쪽 일대의 해안선은 드나들이 복잡하고 여러 섬들이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활발한 간척사업으로 지금의 해안선은 그때보다 단조로워졌고, 섬들도 없어졌다.

화원면의 15개 법정리는 금평리(錦坪里), 청룡리(靑龍里), 신덕리(新德里), 인지리(仁智里), 주광리(周光里), 화봉리(花峯里), 산호리(山湖里), 장춘리(長春里), 성산리(星山里), 마산리(馬山里), 영호리(靈湖里), 구림리(鳩林里), 월호리(月湖里), 매월리(梅月里), 후산리(厚山里) 등이다.

문화유산으로는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715호 2011.6.21. 지정], 해남 화원 청자 요지[2004년 2월 13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220호 지정], 서동사 대웅전[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74호 1990.2.24. 지정], 해남 구 목포구 등대[등록문화재 제379호 2008.7.14. 지정]가 있다.

화원면의 우물은 2011년 해남문화원에서 간행한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라는 마을유래지가 지명유래편에 상리마을 간뎃샘을 포함한 26개소가 기록되어 있다.

이번에는 구지마을 큰샘을 포함한 총 22개소의 우물이 조사되었는데 실제 현지조사결과 마을 상수도의 보급, 농지정리, 도로개설, 상수도보급 등으로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새로 발굴된 우물도 17개소에 이른다. 화원면 우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가운데 여기서는 인지리 장수마을 큰샘을 포함하여 화원면을 대표하는 우물 8개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번	설명	리	마을	명칭	주소	출전, 조사
1	○	청용리 靑龍里	상리 上里	간뎃샘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386	하 708
2	○	청용리 靑龍里	상리 上里	주랫샘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95-1	하 708
3		청용리 靑龍里	중리 中里	서당샘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327	신조사
4		금평리 錦平里	금평 錦平	신평리길 80-1 우물	해남군 화원면 신평리길 80-1	신조사
5		금평리 錦平里	금평 錦平	신평리길 68 우물	해남군 화원면 신평리길 68	신조사
6		신덕리 新德里	사동 巳洞	신타호길 417-2	해남군 화원면 신타호길 417-2	신조사
7		신덕리 新德里	사동 巳洞	사동리길 39 우물	해남군 화원면 사동리길 39	신조사
8		신덕리 新德里	사동 巳洞	공동샘	해남군 화원면 사동리길 28-4	신조사
9		인지리 仁智里	장수 長水	연등샘	해남군 화원면 장수길 96	신조사
10	○	인지리 仁智里	장수 長水	큰샘	해남군 화원면 인지리 820-3	신조사
11	○	인지리 仁智里	인지 仁智	참샘	해남군 화원면 인지리 308-1	신조사
12	○	구림리 鳩林里	구림 鳩林	큰샘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100-1	신조사
13		영호리 靈湖里	저상 苧上	공동샘	해남군 화원면 저상길 66	신조사

연번	설명	리	마을	명칭	주소	출전, 조사
14		영호리 靈湖里	별암 別岩	공동샘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373	신조사
15		영호리 靈湖里	장재 壯才	큰샘 (아랫샘)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888-1	하 736
16		영호리 靈湖里	장재 壯才	웃샘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893	하 736
17		영호리 靈湖里	구지 九之	큰샘	해남군 화원면 구지길 37	신조사
18		마산리 馬山里	월산 月山	큰샘	해남군 화원면 월산길 97	신조사
19		마산리 馬山里	월산 月山	참샘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49-2	하 748
20		구림리 鳩林里	섬동 蟾洞	공동샘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327	신조사
21		매월리 梅月里	월내 月內	공동샘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619	신조사
22		후산리 厚山里	후포 厚浦	통샘	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1240	신조사

상리마을 간땃샘

- 위치: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386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70cm, 세로 174cm, 높이 70cm

간땃샘은 청용리 상리(上里)마을에 있다. 상리마을은 화원면 소재지에 위치한다. 1789년 편찬된 『호구총수』에는 장동면 목상리로 나오고, 황원곶목장에 속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이 되면서 장서면과 관저면이 합쳐져 화산면에 편입되었고 관저면의 중리, 상리, 하리, 일부가 화산면 청용리가 되었다. 상리마을에 감목관이 거주하는 관청이 있었는데 목장을 감독하는 감목관의 위세가 대단했다고 한다.

마을 우물은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에 상리 가운데 있는 우물인 간땃새암과 상리 서북쪽에 있는 주랫시암 등 2개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간땃샘은 마을 아녀자들이 정보교환장소로 기록하고 있다. 이 우물은 상리마을 중심부에 있고 방형의 판석을 사용하여 방형으로 쌓았고 후대에 시멘트로 보수하였다.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우물 뚜껑이 덮여져 있다. 물의 수질은 관리가 되고 있어 좋은 편이다.

상리 주성배 씨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부터 먹었던 우물로 금평, 신평, 상

리, 중리, 하리 등의 소재지 사람들이 사용했다. 물이 시원하고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고 1년에 2~3차례 정도 마을 사람들의 울력으로 청소를 하였다. 현재 금평리 사는 사람이 지하수를 사용하여 수량이 많이 줄었고, 아랫집 한 집만 먹고 있다고 한다.

우물의 형태가 방형이고 장방형의 판석을 사용하여 조성한 점, 마을의 기록이 1789년 『호구총수』에도 기록되어 있어 조성 시기는 조선 후기로 추정된다.



상리마을 간땃샘 전경



상리마을 간땃샘 위치도

상리마을 주랫샘

- 위치: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95-1
- 크기: 방형(方形), 가로 230cm, 세로 230cm, 높이 57cm

주랫샘은 금평리 상리(上里)마을에 있다. 상리마을은 화원면 소재지에 위치하며 옛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중리, 금평리, 하리, 상리, 신덕리가 둘러싸고 있으며, 도로를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다.

마을 우물은 『우리마을의 삶과 문화』에 상리 가운데 있는 우물인 간댓새샘과 상리 서북쪽에 있는 주랫시앸 등 2개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에도 2개소가 그대로 남아 있다.

상리마을 서북쪽 위쪽인 금평리의 논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이 우물은 방형의 판석을 사용하여 정방형으로 쌓은 우물을 후대에 시멘트로 보수하였는데 물을 뜨는 곳을 제외하고는 시멘트를 두껍게 쌓았다. 주변에는 농자재 쓰레기가 산재해 있다. 물의 수질은 관리가 되지 않아 좋지 않다. 주변에 돌담이 둘러져 있다.

상리 거주 주성배의 제보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부터 존재했다고 전해지며, 평리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공동관리 하였다. 복개하면서 물이 줄었으며, 농약을 사용하면서 먹지 않고 있다. 현재는 농업용수로만 사용한다고

한다.

우물의 형태가 방형이고 장방형의 판석을 사용하여 조성한 점, 마을의 기록이 1789년 『호구총수』에도 기록되어 있어 이 우물의 조성 시기는 일제 강점기나 그 이전으로 추정된다.



상리마을 주랫샘 전경



상리마을 주랫샘 위치도

장수마을 큰샘

- 위치: 해남군 화원면 인지리 820-3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79cm, 세로 179cm, 높이 34cm

큰샘은 인지리 장수(長水)마을에 있다. 장수마을은 산이면 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약 6km 거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인지마을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바닷가가, 북쪽으로는 매봉산이 있다. 남쪽으로는 파인비치골프링크스 골프장이 있다.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에는 장서면 공수포리(公須浦里)로 기록되어 있고 이 마을에 공수포라는 포구가 있었다. 이 포구는 간척사업으로 인해 농토로 바뀌었다. 뒤에 장수리로 바뀌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인지리, 장수리와 예의리를 합하여 화원면 인지리가 되었다.

매년 음력 1월 3일 당산나무 앞에서 도제를 지내고 있으며, 현재는 마을 사람이 줄어 제관을 이장이 맡는다고 한다.

마을에는 거석문화의 증거인 입석 2기가 마을회관 근처에 남아 있어 고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을 증명한다.

이 우물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위치는 장수마을 중앙의 작은 지천 앞의 논둑에 있다. 시멘트를 사용하여 방형으로 쌓은 우물로 우물의

1/2은 땅속에 덮여 있다.

장수마을 거주 천우영과 김태선의 제보에 따르면 장수마을 120여 호가 먹던 공동우물로, 150여 년 전에 마을이 생기면서 뚫다고 전해진다. 물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1달에 한번 정도 청소를 하였다. 1992년까지 사용했으나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사용하지 않았다. 새로 뚫다고 해서 새샘으로도 불린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여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매년 음력 1월 3일에 마을제사인 도제(땡나무에서 지땡)를 지냈다. 우물 주변에 초하루날 금줄(새끼 줄을 왼쪽으로 꼬았음)을 쳤고, 도제 때는 샘굿을 하였다. 이때 동전을 던지면 부가 들어온다는 전설이 전해져 마을 어르신들이 동전을 던졌다. 현재도 계속해서 약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물이 좋아서 오래 살았다고 하여 마을 이름이 장수(長水)마을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마을 사람들이 지천에 한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우물 때문이라 믿고 있다고 한다.

이 우물은 방형의 시멘트로 된 우물이나 마을 사람들의 제보에 따르면 150여년 전에 조성된 우물로 전해져 우물을 보수하면서 현재의 상태로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우물은 마을의 도제와 연관성이 있어 민속학적으로도 가치가 큰 우물이라 생각된다.



장수마을 큰샘 전경



장수마을 큰샘 위치도

인지마을 참샘

- 위치: 해남군 화원면 인지리 308-1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19cm, 세로 112cm, 높이 44cm

참샘은 인지리 인지(仁智)마을에 있다. 인지마을은 화원면 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약 4.8km 거리이다.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에는 공수포리(公須浦里)로 나온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인지, 장수와 예의리를 합하여 화원면 인지리가 되었다.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라는 의미로 인지마을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우물은 마을회관에서 좌측으로 230m 정도 떨어진 곳의 밭 아래 있다. 시멘트를 사용하여 방형으로 쌓았고 4개의 기둥이 있어 지붕 형태의 비가림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시멘트로 된 뚜껑이 우물 상부 일부분을 덮고 있다. 수질은 좋은 편이며 현재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주변에 ㄷ자 형태로 돌담이 둘러져 있다.

인지마을 거주 김현우의 증언에 따르면 인지마을에는 80여 호가 살았고 샘이 3개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참샘만 남아 있다. 참샘은 참말로 물이 좋아 붙여졌다고 한다. 다른 우물에 비해 참샘 만이 마르지 않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물이 매우 차가웠다. 마을 주민들이 조를 편성해서 청소

및 관리를 했다. 처음에는 웅달샘 형태였으나, 일제강점기 때 샘 형태를 갖추었는데 당시 마을에 목수가 있어서 작업했다.

이 우물은 방형의 시멘트로 된 우물이나 주민의 필요에 의해 작은 웅달샘에서 우물 형태로 바뀐 과정을 알 수 있어 가치가 있다.



인지마을 참샘 전경



인지마을 참샘 위치도

구림마을 큰샘

- 위치: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100-1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96.5cm, 세로 205cm, 높이 85.5cm

큰샘은 구림리 구림(鳩林)마을에 있다. 구림마을은 면소재지에서 북쪽으로 약 6.5km정도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역수마을과 경계하고, 서쪽으로는 월하마을과 접해있다. 남쪽으로는 월산마을과 이웃하고, 북쪽으로는 성동마을과 인접하고 있다. 화원반도 끝자락이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영암, 진도, 목포, 신안과 연결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조선시대에는 해남현 장동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구림리와 역수리 일부지역을 합하여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가 되었다.

민속행사로는 구림마을 남쪽 입구에 있는 제각에서 정월 초하루에 당제를 모셨다. 제단에는 “양당지신위(兩堂之神位)”라는 비가 있다. 제관은 3명을 뽑고 보통 초하루 밤에 당에 들어가 제를 지냈다. 마을에서는 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굿을 쳐주었고, 제사가 끝난 다음날에는 지신뱃기와 별신굿 놀이를 하였다. 현재는 당제를 지내지 않는다.

마을 우물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현재는 구림마을 큰샘 만이 남아

있다.

이 우물은 구림마을 회관에서 서쪽으로 14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방형의 기둥석 4개를 세우고 장대석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방형으로 쌓은 우물로 입구는 벽면이 설치되지 않고 뚫려 있다. 상부는 토사로 덮여 있고, 입구 쪽에 흙을 파서 물이 흘러 내리게 했으며,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구림마을 거주 장병훈의 증언에 따르면 마을 사람 80여 가구가 먹었던 우물로 마을에서 가장 커서 큰샘, 그리고 우물을 먹으면서 마을에 질병이 없어져 짓샘으로 불리었다. 원래 구림마을이 큰 안골에 있었으나 태풍이 심해 가옥이 전파되어 현 위치로 옮기면서 판 우물로 전해지고, 마을의 당산 나무의 수령이 250년으로 추정되어 우물도 250년 정도 되었다고 전해진다. 마을 당산제를 모실 때 우물에서도 제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지내고 있지 않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매월 청소를 하며 관리하였다고 한다.

이 우물의 조성 시기는 장방형의 판석을 방형으로 축조한 점, 구림마을이 250여년 전에 현 위치로 옮기면서 조성되었다는 구전이 전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 후기에 조성된 우물로 추정된다.



구림마을 큰샘 전경



구림마을 큰샘 위치도

섬동마을 공동샘

- 위치: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327
- 크기: 방형(方形), 가로 130cm, 세로 133cm, 높이 59cm

공동샘은 구림리 섬동(蟾洞)마을에 있다. 섬동마을은 면소재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7.5km정도 거리이다. 해남현 장서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억수리 일부지역을 합하여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가 되었다.

이 우물은 섬동길 68-9 주택 앞에 있다. 판석을 사용하여 방형으로 쌓은 우물로 후대에 보수하면서 시멘트로 상부를 높게 쌓아 올렸으며,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수질은 좋은 편이다.

섬동마을 김동선 씨에 따르면 마을 약 40호가 식수로 사용했던 우물이고, 여름에는 수시로 청소를 하였으며, 나머지 계절에는 월 1회 청소를 실시하였다. 4년 전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13호가 사용한 우물이다. 아이를 못 낳은 사람들이 이 우물물을 먹으면 아이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실제로도 외지인이 이 우물물을 먹고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 또한 몸이 아픈 사람에게도 좋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신경통이 있는 사람들이 이 물을 먹으려고 많이 방문하였다고 한다.

이 우물의 조성 시기는 장방형의 판석을 방형으로 축조한 점, 섬동마을의
입향이 1746년으로 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선 후기로 추정된다.



섬동마을 공동샘 전경



섬동마을 공동샘 위치도

구지마을 큰샘

- 위치: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513
- 크기: 방형(方形), 가로 215cm, 세로 215cm, 높이 70cm

큰샘은 영호리 구지(九之)마을에 있다. 구지마을은 면소재지에서 북쪽으로 약 3.5km 떨어져 있다. 해남현 장서면 지역인데 관저면으로 개칭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장동면의 장재리, 저상리, 저하리, 별암리와 관저면의 구지리와 상리 일부를 합하여 화원면 구림리가 되었다.

우물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현재는 구지마을 큰샘 1개소 만이 남아 있다.

큰샘은 구지길 37 주택 앞에 위치하며 방형의 기둥석을 세우고 3면을 판석을 사용하여 쌓았다. 입구에는 벽면을 세우지 않았다. 후대에 시멘트를 사용하여 높이 쌓아 올렸으며, 상부를 시멘트로 덮어 비가림 역할을 하게 하였다. 주변에는 ㄷ자형 돌담이 쌓여 있고 주변 지형보다 낮다. 물은 관리를 하지 않아 수질이 좋지 못하고 현재는 농업용수로 사용한다.

구지마을 신재동에 따르면 우물이 2개소가 있었으나 개울가에 있는 샘은 메워졌으며, 가장 큰 우물이라 하여 큰샘으로 불리고 있다. 1970년대 후반 마을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했고 1년에 3~4차례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였다. 우물 앞이 현재보다는 훨씬

씬 넓었다고 한다.

이 우물은 구림마을 큰샘과 크기만 다를 뿐 형태가 거의 유사하고, 방형의 판석을 사용하여 축조한 점, 마을의 입향이 400여년 전으로 전해져 조성 시기는 조선 후기로 보인다.



구지마을 큰샘 전경



구지마을 큰샘 위치도

후포마을 통샘

- 위치: 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1240
- 크기: 방형(方形), 가로 208cm, 새로 178cm, 높이 50cm

통샘은 후산리 후포(厚浦)마을에 있다. 후포마을은 면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약 6km 떨어져 있다.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에 기록된 장서면의 상후포리, 하후포리 지역이었는데 뒤에 장동면 후상리와 후하리로 개칭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장동면의 온득리(溫得里), 후상리(厚上里), 후하리(厚下里), 가마리(加馬里), 질마리(叱馬里)를 합하여 화원면 후산리가 되었다.

마을 우물에 대한 기록은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에 샘둑병이라는 우물을 식수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통샘이 샘둑병인지는 알 수 없다. 통샘은 후포마을 입구 정자 길 건너편 논 앞에 위치하고 있다. 시멘트를 사용하여 방형으로 쌓았고 외곽이 파손되어 있고, 깊이가 매우 낮다.

후포마을 김윤재의 제보에 따르면 마을이 형성된 때부터 사용했고 70~80호가 사용했다. 물이 옆에서 나온 것이 특징이고, 시멘트로 보수한 것은 1960년대이다. 원래는 잔돌로 동그랗게 쌓았던 우물이며, 주변보다 낮은 곳이었으나 경지정리하면서 논이 올라와 평지가 되었다. 주변에서 물이 넘

쳐 마을 주민들이 빨래를 하였다고 한다.

이 우물의 조성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670년 입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 후기에 조성되었다가 새마을 운동 때 원형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후포마을 통샘 전경



후포마을 통샘 위치도

3장

해남 우물의 특징



해남 우물의 특징

1. 머리말

해남군에서는 관내 우물의 정비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전수 조사를 하였다. 해남군에서 읍면 등을 통해 모은 자료가 165개소이고¹, 조사팀에서 정리한 결과 580개소에 이르렀다.² 이를 기초로 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272개소가 확인되었다.³

현장조사는 읍면사무소 협조, 이장단 회의, 개별 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위치, 현황, 사진, 규모를 기록하고 중요 우물은 실측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앞으로 해남 우물 보존 관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일반 이해와 홍보를 위하여 대표적인 우물 95개소를 선정하여 해설서를 내기로 하였다.

해남의 우물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특징과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

1 해남군청 문화예술과 자료, 2020

2 해남군, 해남문화원, 『마을유래지』, 1987 ; 해남문화원, 『해남지명유래총람』, 1994 ; 편찬위원회, 『해남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상·하, 2011.

3 읍면별 조사 현황과 주요 우물은 제1장 총설-해남 우물의 이해편 참조.

선은 일반론으로 샘과 우물의 연원과 종류, 축조의 목적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본 해남 지역의 우물에 대한 인식과 현장을 살펴볼 것이다. 고산 윤선도의 우물에 대한 인식과 형상화를 문집을 통해서 살피는 것도 전통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어 조사 정리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피면서 해남우물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앞에 정리한 총설편도 함께 참고하면 될 것이다.

2. 샘과 우물의 연원과 종류

샘은 “물이 땅에서 솟아 나오는 곳. 또는 그 물”의 뜻으로 “샘을 파다.”, “샘이 솟다.”등으로 쓰인다. 또 “샘물이 솟아 나오는 곳. 또는 그 언저리”라는 뜻으로 “샘터”를 말한다. 어원은 “심”(『훈민정음해례』)이다. 우물은 “물을 길기 위하여 땅을 파서 지하수를 피게 한 곳. 또는 그런 시설”의 뜻으로 “우물을 파다.”, “우물이 깊다.”, “우물에서 물을 길다.” 등으로 쓰고 있다. 어원은 “우물”(『월인석보』)이다.⁴

이처럼 샘은 물이 나오는 곳, 우물은 그 물을 길기 위한 시설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해남을 비롯한 전남 일원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보통 “샘” 또는 “시암”으로 통칭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물로 쓰기로 하였다.

우물의 축조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판 우물이다. 이들 우물은 해남에 남아 있는 우물의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군사시설 내에 설치된 우물이다. 해남에는 전라우수영과 이진진에 2개소가 남아 있고, 관에서 조성한 우물이라 조성 및 중수 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이 남아 있어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큰 우물이다. 세 번째는 가정집에서 사용하기 위한 개인 우물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이다.

우물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마을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우물이 필요 없게 되어 메꾸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외에도 경지정리에 우물이 포함된 경우, 도로개설 부지에 우물이 포함된 경우, 지하수 개발로 인한 우물 물이 말라버린 경우 등이다.

우물의 종류는 맨우물, 귀틀우물, 옹기우물, 돌우물, 도르래우물, 길고우물[桔槔], 물레우물[轆轤], 용두레, 펌프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⁵

맨우물은 물이 솟는데까지 땅을 파기만 하였을 뿐 벽을 쌓지 않은 것이다. 가장 원초적이라 할 것이다.

귀틀우물은 통나무나 한쪽을 평평하게 쪼갠 널을 우물 정(井)자 꼴로 짜 맞추어 벽을 삼은 것이다. 논산 마전리에서 청동기시대 귀틀 우물이 확인되었다.

옹기우물은 바닥을 뚫은 우물을 쌓아 올려서 벽을 삼은 것이다. 익산 왕궁리, 무안 몽탄면에서 조사되었다. 돌우물은 냇가 돌이나 다듬은 돌로 벽을 친 우물이다.

도르래우물은 우물 양쪽에 세운 기둥위에 가로대를 걸고 가운데에 도르래를 붙박아서 푸는 우물이다. 1123년(인종 1) 고려를 다녀간 서긍(徐兢, 1091~1153)의 사행보고서인 『선화봉사고려도경』[제23권 잡속(雜俗)2 한탁(澣濯)]에 "우물을 내 근처에 판다. 위에 도르래를 걸고 퍼서 개수통에 부으며, 콩은 배를 닦았다[鑿井汲水 多近川爲之 上作鹿[轆]盧 輸水於槽 槽形 頗如舟云]" 하여 고려시기 도르래 우물의 존재를 알려 준다. 쇠도르래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왔다.

길고우물은 물가에 세운 기둥위에 긴 장대를 걸고 한쪽에 두레박, 그 반

5 김광언, 『동아시아의 우물』상 한국, 민속원, 2017, 35~58쪽

대쪽에 돌을 달아 맨 것이다. 줄을 당겨서 두레박을 우물에 넣었다가 물이 찼을 때 줄을 놓으면 돌의 무게로 저절로 올라온다. 1778년 『북학의(北學議)』에 기록이 보인다.

물레우물은 우물 양쪽에 세운 낮은 기둥에 등근 가로대를 걸고 한 쪽 끝에 손잡이를 붙박아서 물을 끄는 우물이다. 『훈몽자회』에서 녹노를 처음 소개하였다.

용두레는 세모꼴로 묶은 장대 위에서 내린 줄에 좁고 길게 판 배[船]꼴 그릇을 매달고 손잡이를 당겼다가 밀어서 웅덩이의 물을 건너쪽으로 떠 옮기는 도구이다.

펌프는 입을 덮은 우물에 지름 10센티미터쯤의 긴 관을 박고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물을 길어 올리는 시설이다. 일제강점기에 들어 왔으며 1980년대에는 모터를 장치한 자동펌프가 선보였다.

3. 해남의 우물 관련 기록과 유적 현황

해남의 우물이 언제 처음 축조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자세하지 않다. 청동기 시대에 논산 마전유적의 우물처럼 선사시대부터 사용했을 것이다. 특히 해남 지역에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 다수 분포⁶하여 많은 부족들이 살았을 것이고 그들의 생활공간에서 물은 매우 중요한 요소여서 우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밝혀줄 유적이나 유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옥녀봉토성은 지표조사에 흙과 돌로 쌓은 성으로 둘러져 있고 산 정상에는 제를 지낸 장소와 우물, 군사를 훈련 시킨 마장 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성 곳곳에 패총지와 당시 마한인들이 사용한 토기파편 등

6 1986년 조사에서 88개군 830여기가 조사된 바 있다. 최성락, 『해남지방의 선사유적·고분』, 『해남군의 문화유적』, 국립목포대학박물관·전라남도·해남군, 1986, 47~103쪽.

생활유물들이 다량 확인됐다.

고려시대 금강산성은 몽고군의 침입을 대비해 입보용(入保用)으로 쌓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굴조사 때 2트렌치 내부에서 확인되는 집수지(集水地) 시설은 일부 기반시설이 확인되었다. 3트렌치 5호 건물지 남동쪽에 집수지로 추정되는 평탄면이 위치하고 있다. 집수지는 금강산성 내 계곡부에 위치하며해발고도는 374~375미터 정도이다. 집수지 주변으로는 금강산성의 정문인 남문지와 여러 동의 건물지들이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다. 출입시설과 생활공간과 밀접해 있는 곳이다.⁷

조선시대 1429년 8월 26일 세종실록 기록에 “입암(笠巖)의 강변(江邊)에는 성(城)과 관(館)을 설치할 만한 곳이 없고, 어란(於蘭)의 강변에서 10리 거리에 있는 해진(海珍) 남면(南面)의 구산성(狗山城)안에는 경작할 만한 밭이 있고, 또 물과 샘이 있어서 성과 관소를 설치할 만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⁸ 내용이 보인다. ‘구산성(狗山城)은 현산고성일 가능성이 있는데⁹, 성과 관소를 설치할 장소에는 사람이 생활해야 할 샘과 우물이 기본적인을 알 수 있다. 이때 구산성의 관소 설치 논의는 제주도 목장에서 도망나온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하여 하륙(下陸)하는 초입인 해진 경내인 입암(笠巖)·어란(於蘭) 두 곳에 관(館)을 설치하고 성을 쌓은 뒤에, 제주사람을 관승(館丞)에 임명하자는 논의였는데, 샘과 우물이 있었던 구산성이 적지라고 한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해남현 성곽조에 “해남읍성은 돌로 쌓았으며, 둘레가 2천 8백 57자, 높이가 15자이며, 안에 우물 열둘이 있다.”는 기록¹⁰이 있다. 조선시대 왕권을 대행하는 읍치공간의 상징 시설물인 읍성 안에 열두군

7 고대문화재연구원·해남군, 『해남 금강산성 : 시굴조사 보고서』, 2020.

8 [笠巖]江邊, 無可設城館處, 距於蘭江邊十里許, 海珍南面狗山城內, 有田可耕, 且有水泉, 可置城館。 從之。『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8월 26일 경자 3번째기사)

9 해남군·재단법인 마한문화연구원, 『해남 윤선도유적』, 2016, 205쪽.

10 邑城: 石築 周二千八百五十七尺 高十五尺 內有十二井(『신증동국여지승람』(권 37) 해남현 성곽조.)

대의 우물이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해남 읍치에 12개의 우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지리지와 읍지류의 해남 읍성 규모와 부속 시설은 다음과 같다. 우물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동국여지승람』 이후 각 읍지류에 12개소가 나온다. 『여지도서』에만 9개소로 나온다.

<표> 해남 읍성 규모와 부속 시설 및 우물

지리지명	편찬연도	편찬자	규모 및 부속시설						
			둘레	높이	옹성	여첩(女蝶)	성문	연못	우물(井)
『세종실록지리지』	1454	관찬(왕명)	336보						-
『동국여지승람』	1481	관찬(왕명)	2,857척	15척					12
『동국여지지』	1656	유형원	2,857척				사방		12
『여지도서』	1759	관찬(왕명)	2,857척	15척	3	455	동서남		9
『해남읍지』	1791	관찬(해남현)	2,857척	15척		455	3, 동서남		12
『대동지지』	1864	김정호	2,857척		3		3, 남문 정원루		12
『해남읍지』	1899	관찬(해남현)	2,857척	15척		455	3, 동서남	無	12
『증보문헌비고』	1908	관찬	2,857척	15척	3	455	4		12
『해남군지』	1925	해남향교	2,857척	15척					12

조선 초기에 설치한 전라우수영에도 호지(濠池)와 우물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우수영(右水營) : 성의 둘레는 2천 4백 48척이며, 옹성이 네 개, 연못이 하나, 우물이 2개며”라는 기록¹¹이다. 문내면에 있었던 전라우수영 군사시설에도 우물이 필수적이고, 우물이 2개소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우수영에 있는 우물 2개소에 대한 명칭이나 위치가 남아 있지 않지만, 현재 남

11 右水營：城周二千八百四十八尺 瓮城四 濠池一 井二(『대동지지』 해남 영아(營衙)조)

아 있는 방죽샘이 2개소 가운데 1개소로 보인다. 전라우수영 안의 방죽샘
곁에 있는 중수비 가운데 1724년(경종 4, 雍正 2) 명문이 있어 축조 시기는 그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중수비는 모두 5개가 있다.¹²

1724년(경종 4, 雍正 2) 중수비는 앞면에 대시주 양심(梁潯)과 시주 4인, 감역
절충 이지만(折衡 李枝萬) 등 4인, 그리고 존위, 좌상, 공, 공양 등 직임과 인명
을 새겼다.¹³

1752년(영조 28, 乾隆 17) 중수비는 앞면에 시주, 감역, 별좌, 공원, 화주, 존
위 등의 직임과 인명(18인), 뒷면에 연기를 새겼다.¹⁴

1804년(순조 4, 嘉慶 9) 중수비는 한면에 연기와 4인 8구의 찬문, 지은이(製車
□□)와 글씨를 쓴 사람(書李□□)을 새겼는데 성씨까지만 보인다. 찬문은 “돌
을 다듬어 공사를 마치고 옛일을 이어서 지금을 기술하네 돌아보며 기르듯
산신께 잔치하니 맛 좋은 샘물이여 깊은 골을 받치소서 큰 물 모여 마르지
않고 날아서 나오듯 그치지 마소서 천년 또 만년토록 허물어지지 않고 흐리
지 마소서”라는 내용이다. 다른 면에 감역, 화주, 간사, 별좌 등의 직임과 인
명을 새겼다.¹⁵

12 2020년 7월 1일 탁본조사를 통하여 판독 확인하였다. 탁본은 황호균, 김희태, 장모창, 성대철,
이수경이 하였다. 그리고 정춘원님(전 전라우수영사적보존회장)과 장명수님(문화관광해설사)
이 참관하면서 자문해 주었다.

13 [앞면] 大施主 梁潯 施主 張漢柱 丁南奎 文尙彩 丁南樞 監役 折衡 李枝萬 閑良 葛敏弼 金大呂
李義昌 尊位 朴桂益 座上 朴世九 公 崔泰潤 供養 金時鳴 郭時海 [뒷면] 雍正二年甲辰三月 日.
중수비 판독원문은 제2장의 문내면 방죽샘 설명 부분에 비문의 표기 방식을 따라 가로로 정리
하였다. 본장에서는 이어쓰기 형식으로 제시한다. 이하 같다.

14 [1면] 治石告訖 續古述今 乳復燕山 泉甘盤谷 製車□□ 渾淵不渴 飛出無窮 千且萬年 不類不濁
書李□□ 嘉慶九年[甲子]三月日 [2면] 監役 朴碧東 李喜苓 梁達洙 李時恒 化主 金鱗海 張再良
田昌堉 申元淡 幹事 崔奉世 林啓喆 梁達泓 別座 李應啓 尊□ 公□ 石□ 治□ 助□

15 [앞면] 施主 朱德三 朴千水 金命大 施主 廉又興 金項石 金明九 施主 金益厚 監役 朴師謙 朴重大
尊位 崔錫泰 幹事 金世奉 別佐 邵回芳 公員 崔啓亨 化主 金萬壽 化主 廉又儉 宣□□ 丁昌說 田
有秋 [뒷면] 乾隆十七年壬申九月 日立.

1907년(光武 11) 중수비는 앞면에 감동 전주사 전풍주 등 6인과 사수(社首) 김재운 등 4인, 대시주 등의 직임과 인명, 뒷면에 연기를 기록하였다.¹⁶

1948년(단기 4281년) 중수비는 시주 6개마을(서하, 선두, 서상, 남상, 서의, 남하), 감역 6인의 인명을 새기고 뒷면에 연기를 기록하였다.¹⁷ 방죽샘 중수에 6개 마을이 시주로 참여한 기록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해남의 대표우물임을 알 수 있다.

이진진(梨津鎭) 안에 있는 이진마을 장군샘에도 1806년(순조 6) 병인년에 처음 만들고 1839년(헌종 5) 기해년 11월에 중수한 기록¹⁸이 있다. 우물의 형태도 조선후기에 많이 보이는 판재형 석재 결구 방식이다. 그렇더라도 그 자리는 물이 나는 자리로서 그 이전부터 우물이 있던 자리일 것이다.

이진진의 장군샘은 이순신장군의 이야기가 전한다. 임진정유왜란기에 이진진에서 나흘을 머물렀는데 토사곽란의 병세가 위중하였는데 이진 마을에서 유숙하면서 장군샘 정화수의 효험으로 회복했다는 것이다.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은 1597년 8월 20일 이진에 도착하여 배에 머물렀는데 곽란이 극심하여 8월 23일 배에서 내려 이진에서 유숙을 하였다.¹⁹ 그런데 다음날 24일 바로 이동 한 것을 보면 이진진에서의 유숙이 병세 회복에 큰

16 [앞면] 監董 前主事 田豐主 金章煉 林玟根 前主事 張亨遠 李道俊 田俊錫 社首 金在云 林璟楨 朴武(晨) 大施主 □ [뒷면] 光武十一年

17 [앞면 重修紀念碑 施主 西下里 先頭里 西上里 南上里 西外里 南下里 監役 金相午 朴泰春 李明奎 文有一 金泰俊 鄭金南 [뒷면] 檀紀四千二百八十一年戊子二月 日立

18 嘉慶十一年丙寅月日首朔」道光十九年己亥十一月日重修.

19 1597년(정유년) 8월 20일 이진으로 진을 옮겼다. 21일 곽란이 일어나 통증으로 인사불성이 되었다. 22일 곽란이 점점 심해졌다. 23일 병세가 극히 악화되어 선박은 불편함으로 배에서 내려 바다에서 나와 (이진진에서) 유숙하였다. 24일 일찍 도래지에 이르러 아침을 먹고 어란 앞바다에 이르렀다. [二十日戊寅 晴 前浦窄狹 移陣于梨津 / 二十一日己卯 晴 曉 得霍亂重痛。不省人事 達夜坐曉 / 二十二日庚辰 晴 霍亂漸重 不能起動 / 二十三日辛巳 晴 病勢極重 泊船不便 棄船出海而宿 / 二十四日壬午 晴 早到刀掛地 朝飯 到於蘭前洋](『이충무공전서』권8 「난중일기」4[한국고전종합DB])

구실을 한 것 같다. 그것은 이진 주민의 정성과 장군샘 정화수의 영험이었으리라 여겨진다. “장군샘” 이름도 이에 연유한 것 같다.

대홍사의 우물이나 미황사의 우물, 그리고 달마산의 금샘 등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송지면 달마산 봉우리 뒤편 깊은 산 속 석굴에 금빛 웅달샘이 숨어 있다. 사람 가슴 높이 쯤에서 바위벽이 수평으로 1m 정도 패어 들어간 자리에 30~40cm 깊이로 금빛을 담고 있다. 조금씩 돌 틈새로 넘쳐나는 물은 금가루를 입힌 듯 샛노란 금빛을 낸다. 바가지로 뜨면 금거죽이 물에 섞여 나오는데 물 밖에서는 1~2초 뒤면 금방 사라진다. 물맛은 목젖을 건드리는 질감이 부드럽다.²⁰

대홍사 심적암은 대한제국기 마지막 의병투쟁 장소이다. 이곳 암자터를 2019년 4월에 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했다. 그 결과 건물지 3동과 문지 1곳, 우물지 1기가 확인됐다. 우물은 심적암지의 가장 해발이 낮은 곳에 위치하며, 심적암지의 대부분의 물이 이곳으로 이어지도록 배수체계가 되어 있다. 남쪽 계곡에서 흘러 내려온 물과 심적암지 배수시설 등이 지상과 지하로 배수되어 우물로 연결된다. 우물은 2m의 치석한 판석을 이용하여 정사각형의 우물을 만들었으며, 우물에서 지대가 낮은 북쪽으로 배수시설을 통해 심적암 외부로 배수된다.²¹ 심적암의 우물은 스님과 신도의 생활공간이었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떨치고 일어났던 의병들의 생명수였다.

해남 관두산 풍혈 및 샘은 용굴을 중심으로 11곳의 크고 작은 풍혈이 있으며 겨울철에도 17~20℃ 온도를 유지하며, 풍혈 주위에 고사리와 이끼류가 자라는 특징이 있다. 관두산 풍혈은 겨울에 더운 바람이 나오는 구조로

20 정운섭, 『해남 문화유산탐구』, 향지사, 1997.

21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두륜산 대홍사·(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대홍사 심적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9.

지하로 유입된 물이 지하의 열원에 의해 데워져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가 관두산을 이루는 암석의 틈새를 통해 더운 바람이 올라오는 현상이다. 풍혈, 봉수대, 돌무더기, 너럭바위 등을 포함한 관두산 일대는 역사적 의의가 높다.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올라 있다.²²

4. 고산 윤선도의 우물 인식과 형상화

고산 윤선도(1587~1671)의 글을 통하여 샘과 우물에 대한 인식과 형상화 현장을 찾아보자. 먼저 시를 살펴보자. 윤선도는 1612년(광해군 4) 정월 어느 길가의 풍경을 읊는다. ‘날이 갠 것을 기뻐하며[喜晴]’라는 제목의 시 가운데 보이는 일부 구절이다. 샘과 관련해서는 “곳곳마다 물 길으며 의복을 세탁하네”라는 구가 보인다. 마을의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빨래터가 보이는 경관이다.

농부는 밭에 나가 민첩하게 밭을 갈고	農夫往田耒耜便(농부왕전되사편)
여행객은 길에 올라 거마가 가벼워라	行客登途車馬輕(행객등도차마경)
곳곳마다 물 길으며 의복을 세탁하고	汲泉處處濯衣裳(급천처처탁의상)
집집마다 명석 깔고 곡식을 말리누나	布席家家乾粟稭(포석가가건속경)
안개와 먼지 사라지니 뱃노래가 일어나고	霧捲埃宿起棹謳(무권애숙기도구)
산과 물 산뜻하니 노닐 마음이 더해지네	山明水麗添遊情(산명수려첨유정)
도인은 약을 말리며 시렁 옆에 서 있고	道人曬藥架邊立(도인쇄약가변립)
나무꾼은 낫을 차고 숲속으로 들어가누나	樵父腰鎌林下行(초부요겸임하행)

어느 시골 아침나절의 풍경이다. 농부는 일찍부터 밭을 갈고 여행객은 거

22 해남 관두산 풍혈 및 샘, 산림청[<https://www.forest.go.kr>] 국가산림문화자산.

마(車馬)도 가볍게 길을 나선다. 곳곳마다 우물이 보이고 동네의 공동 빨래터의 공간, 집집마다 곡식을 말리고, 멀리서 뱃노래도 일어난다. 도인은 약을 말리고 나무꾼은 숲속으로 든다. 그림을 보는듯한 향촌의 일상이다. 공동 우물 공간이 눈에 띈다.

윤선도는 1609년(광해군 1) 8월에 생모 안씨의 상을 당한다. 1611년(광해군 2) 10월 복을 마치고 해남으로 온다. 그리고 1612년 봄에는 진사시에 입격한다. 이 시는 1612년 정월이다. 해남에 있을 때인지 다른 곳의 경관인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밭갈이와 공동우물 등 향촌의 서경 경관이다.

53세 때인 1639년(인조 17, 기묘)에 지은 ‘동곽의 이로가 분매를 보내 주었기에 사례하다[東郭李老惠盆梅]’는 시가 있다.

이처럼 눈보라가 거세게 부는 때에	當此風饕雪虐時(당차풍도설학시)
홀로 꽃 소식을 옥 가지에 부쳤어라	獨將芳信寓瓊枝(독장방신우경지)
초나라 난초에 열매가 없음을 혐의한 듯	如嫌楚國蘭無實(여협초국란무실)
심강의 국화가 시든 것을 애석해하는 듯	似惜潯江菊已萎(사석심강국이위)
굳센 절조 그야말로 군자에 걸맞기에	勁節正宜君子以(경절정의군자이)
고인이 보낸 깊은 정이 더욱 느껴지네	深情更覺故人貽(심정경각고인이)
밝은 창가 궤안 위에 높이 올려 두고	高安靜几明窓裏(고안정궤명창리)
날마다 샘물 떠서 손수 적서 주리이다	日酌清泉手沃之(일작청천수옥지) ²³

이동곽이 매화 화분을 보내온 모양이다. 마음속의 국화와 밝은 창가의 분매. 날마다 샘물 떠서 적신다고 했다. 분매는 샘물을 길러다가 생기를 북돋고 마음속의 절조는 이상세계의 샘물로 적실 것이다. 시절이던 마음이던 눈보라가 치지만 군자의 절조는 지켜야 하고 그 근간은 샘물이다.

23 『고산유고(孤山遺稿)』제1권(한국고전종합DB)

윤고산은 그 전해 1638년 6월, 병자호란 때 분문(奔問)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되어 영덕(盈德)으로 유배되었다. 분문이란 임금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신하가 급히 달려와 문후(問候)함을 이른다. 이듬해 1639년 2월에 석방되어 해남으로 돌아와 수정동(水晶洞)에서 정자를 짓는다.

1645년(인조 23 을유) 59세 때 “샘물 가득 떠서 보리밥 말아먹으면”이라는 내용의 시를 읊는다. “밥상을 마주하고[對案]”라는 제목이다. 봄날인 듯하다. 고사리 싹이 돋는다. 앞산에 비 흠뻑린 뒤라 더 파릇하다. 일에 찌든 듯 어두운 찬부여 봄날이니만큼 얼굴을 펴보소. 샘물 한가득 보리밥 말아먹으면 마음마저 조용해지고 안정되니 이 살림살이를 누가 가난하다 하리요.

앞산에 비 온 뒤에 돌아나는 고사리 싹	前山雨後蕨芽新[전산우후겔아신]
밥 짓는 아낙이여 봄 왔으니 얼굴 펴오	饌婦春來莫更顰[찬부춘래막경빈]
샘물 가득 떠서 보리밥 말아먹으면	滿酌玉泉和麥飯[만작옥천화맥반]
유인의 살림살이 가난하지 않는다오	幽人活計不爲貧[유인활계불위빈] ²⁴

윤선도는 1640년(인조 18 경진)에 「금쇄동기(金鎖洞記)」를 짓고 1642년에는 「산중신곡(山中新曲)」 18장을 짓는다. 1644년 2월에는 상이 병환에 의약(議藥)토록 불렀으나 병으로 인해 상소하였다. 의약(議藥)이란 내의원(內醫院)의 제조와 의관들이 모여서 임금이나 왕비 등의 병환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진찰 및 투약 등의 일을 의논하는 것을 말한다. 윤고산에게 상이 의약토록 한 것은 그만큼 예우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를 짓던 1645년(인조 23)에는 「산중신곡」 2장과 「고금영(古琴詠)」 1장을 짓는다. 해남의 향촌 서경을 읊은 경관이 고 삶의 모습이다. 그 중심에 샘이 있다. “옥천(玉泉)”이라 하였다.

삼수에 유배되었을 때 그 지역의 우물 경관에 대해 기록하기도 한다. “삼

24 『고산유고(孤山遺稿)』제1권(한국고전종합DB)

강의 일을 기록하다[三江記事]²⁵라는 제목의 신축년(1661년, 현종 2) 시에 “얼음 녹여 쌀을 이니 쌀알에 구슬이 둥둥[銷水漸米珠和粒]”이라는 구절이 있다. 우물물을 길어다 밥을 해야 하는데 한겨울 우물이 얼자 그 얼음을 가져다 밥을 하려니 얼음 구슬이 둥둥 떠다니는 정경을 형상화 한 것이다. 75세 때다. 위리안치까지 당한 사정인데 달관일까 여유일까. 시의 끝에 세주[自註]를 달아 그곳의 경관을 적었다.

이 지방의 풍속은 진흙으로 지붕을 덮는다. 그래서 지붕 위에 풀이 무성하게 뒤덮여서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구름과 같다. 겨울이 깊어지면 우물과 시내가 밑바닥까지 얼어붙는다. 그래서 시내에서 얼음을 깨어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와서는, 솥 속에 넣고 끓여 물을 만들어서 일용(日用)에 쓴다.²⁶

윤선도는 1660(현종 1) 4월, 상소하여 자의대비(慈懿大妃) 복제(服制)의 삼 년 설을 주장하고 송시열이 종통을 부인한 죄와 산릉을 잘못 쓴 죄를 논하니, 정원에서 소를 올리지 않고 불태워버렸다. 이 일로 삼수에 안치된다. 겨울에는 <예설(禮說)> 2편을 짓는다. 1661년에 4월, 복청 이배의 명이 내려다가 환수되었다. 6월에 위리(圍籬)를 더하였다. 1662년 3월에 이르러야 위리가 철거되었다.

25 囚山不必說囚籬 氷鑑三時夏甌炊 地獄誰云信無有 溫公蓋未到而知 白頭雲氣接泥簷 風雪如從日夜添 窓壁霜凝光壁月 衣衾稜作利刀鎌 銷水漸米珠和粒 煖酒濡唇玉裹髯 銀海黃庭俱凍合 靈臺何事獨安恬(『三江記事[辛丑]』, 『고산유고』제1권)

26 自註 土俗以泥蓋屋 屋上草萊蕪沒 望之如丘隴 冬深則井泉溪澗徹底凍合 斫氷於溪 以牛輅曳來就釜中鎔作水 以供日用(『三江記事[辛丑]』, 『고산유고』제1권)

고산 윤선도가 지은 「금쇄동기(金鎖洞記)」에 샘[泉] 관련 기록이 세 군데 보인다. 두 군데를 살펴 본다.²⁷ 때는 1641년(인조 19) 세모(歲暮), 54세 때다. 그 하나는, 두 개의 도랑이 내려오다가 합쳐지는데 물은 없고 풀만 있는데 일단 합쳐지고 나면 물이 있으니 도랑의 근원이 샘물에 잠겨 있는 것이라 했다.

두 개의 도랑이 양쪽에서 내려오다가 좁은 곳에서 합쳐지는데 풀만 있고 물은 없으니 이는 마른 도랑이다. 그러나 일단 한데 합쳐진 뒤에는 물이 있으니, 아마도 샘물의 근원이 도랑 밑바닥에 잠복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²⁸

다른 하나는 집선대(集仙臺)라 명명한 곳인데 반석(盤石) 7좌(坐)가 두 줄로 열을 이루어 신선들이 도를 강론한 곳으로 본 것이다. 이곳에서 보면 앞으로는 폭포 상류의 샘물이 숲을 휘감는 모습이 굽어다 보인다고 하였다.

옆에는 반석(盤石) 7좌(坐)가 두 줄로 열을 이루고, 또 별처럼 흩어진 자리 몇 개가 있는데, 신선들이 도를 강론하던 장소가 아닐까 의심되기에 집선대(集仙臺)라고 명명하였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유희의 동쪽·서쪽·북쪽 경관의 절반을 얻었으며, 안으로는 월출암이 돌아다 보이고, 앞으로는 폭포 상류의 샘물이 숲을 휘감고 바위를 감싸는 모양이 굽어다 보인다.²⁹

27 “물이 시작되는 곳 북쪽에 2층의 섬돌과 두 그루의 교목(喬木)이 있고 섬돌 옆에 작은 우물이 있는데[水窮之北 有石砌兩層 喬木兩株 砌傍有小井](『금쇄동의 기문[金鎖洞記]』, 『고산유고』권5)라는 기록도 있다.

28 有兩溝挾行 會于狹處 而有草無水 是乾溝也 然既會之後即有水 想泉源伏于溝底(『금쇄동의 기문[金鎖洞記]』, 『고산유고』권5)

29 傍有盤石七坐 兩行成列 又有星散者數坐 疑是群仙講道之所 故命以集仙臺 其所見得有懷東西北之半 而內顧月出巖 前臨瀑上流泉縈林絡石之狀(『금쇄동의 기문[金鎖洞記]』, 『고산유고』권5)

그런데 선비들의 일상에서 산과 물은 서로 구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 세계는 임천(林泉)과 천석(泉石)이라 하여 자연 속에서 산과 숲, 물과 샘이 따로가 아니었다. 「금쇄동기」에도 “천석(泉石)은 괴상하고 특이하면서도 귀엽게 아양을 부린다[泉石怪特而媚嫵]”, “천석(泉石)이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서[泉石亦非方寸間物事]”, “천석은 비유하면 대나무라고 할 것이다[泉石譬則竹也]” 등 천석의 경관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천석과 원경을 다 온전히 얻기는 어렵지만 금쇄동은 십대의 원경과 일정의 천석이 서로 어울려 있는 회심의 경지라 말하고 있다. 이 천석과 원경의 경관에 앞에서 살펴본 샘이 있는 것이다.

천석(泉石)과 원경(遠景)을 둘 다 온전히 얻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천하 고금의 말이다. 그런데 십대(十臺)의 원경과 일정(一亭)의 천석이 수백 보 사이에 둘러 있고, 집이 그 가운데에 거하여 모두 통합해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³⁰

5. 해남 우물의 유형과 특징

1) 우물의 유래와 이름

해남 사람들은 우물에 대해서 어떠한 명칭을 썼는가를 살펴 보자. 우물에 대한 명칭으로는 샘과 우물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 해남에서는 우물을 대부분 “샘”, “시암”이라 불리웠다. 우물을 조성하거나 중수 등의 기록에 우물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우물 정(井)자와 샘 천(泉)자가 사용되었다. 황산면 우항

30 泉石遠景 難得兩全 此乃天下古今之言也 十臺之遠景 一亭之泉石 環列於數百步之間 而堂居其中 統而有之 此非會心者歟(『금쇄동의 기문[金鎖洞記]』, 『고산유고』권5)

마을 아랫샘과 황산면 기성마을 공동샘은 “공동정호(共同井戶)”라는 명문이 있다. 북일면 삼성마을 두륜샘은 돌레석에 “두륜천(頭輪泉)”이라는 명문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해남읍지』 등 지지류와 읍지에서는 “정(井)”으로 표기하고 있다.

우물에서 물을 떠서 먹는 것을 물을 길어다 먹는다고 하고 있으며, 마을마다 우물을 부르는 명칭이 다양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전해지는 우물 이름과 유래를 몇 분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향 : 동샘, 서샘, 웃샘, 아랫샘, 앞샘, 뒷샘, 가운데샘

·크기 : 큰샘, 작은샘

·입지 : 들샘, 서당샘, 너댓샘, 용샘[용샘골], 갯샘³¹, 새터샘³², 새샘, 원샘, 절샘³³

·풍수 : 청룡골샘³⁴

·속신 : 쌍둥이샘³⁵, 까치샘³⁶, 불로정샘³⁷

·물맛 : 두부샘³⁸, 참샘³⁹

·용도 : 관샘⁴⁰

2) 우물 축조의 재료와 형태

31 바닷가 근처에 있는 샘.

32 마을에 새롭게 집터를 잡고 판 샘.

33 절이나 절터에 있는 샘.

34 마을이 청룡형국이고 청룡이 물을 마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35 샘에서 물을 떠 먹고 쌍둥이를 낳은 샘.

36 병든 까치가 이 샘물을 먹고 낳았다고 붙여진 샘.

37 이 물을 먹고 마을 사람들이 장수를 바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

38 샘물로 두부를 만들어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39 물 맛이 참으로 좋다고 해서 붙여진 샘.

40 우수영을 지나던 관리들이 먹었던 샘.

우물을 축조할 때 쌓은 재료는 자연석, 판석, 장대석, 시멘트, 시멘트 토관[土管, 노깁] 등이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우물에서는 자연석, 판석, 장대석을 사용하여 우물을 축조하였다.

- 자연석 : 규모가 작고, 원형으로 축조할 때 사용⁴¹
- 판석 : 조선시대 마을 공동우물 축조 때 주재료로 사용, 장방형 판석 4면 축조, 6각형 축조⁴²
- 장대석 : 장대석을 방형으로 축조⁴³
- 시멘트 : 일제 강점기나 1970년대 새마을사업 때 보수하면서 축조⁴⁴
- 토관[노깁] : 시멘트 토관만 사용, 자연석 우물에 토관으로 보수⁴⁵

우물의 형태는 원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 다양하다.

- 원 형 : 자연석을 원형으로 축조, 시멘트 토관으로 보수⁴⁶
- 방 형 : 처음부터 방형 축조, 방형의 판석 사용 축조⁴⁷, 자연석 원형에 상부 방형⁴⁸
- 오각형 : 후대에 보수하면서 시멘트로 축조⁴⁹
- 육각형 : 방형 판석을 육각형 축조한 우물은 조선후기 중수 기록이 있는 방죽

41 송천마을 웃샘, 황산면 교동마을 공동샘 III 등.

42 문내면 서상마을 방죽샘, 문내면 명량마을 공동샘II, 문내면 동리마을 웃샘과 아랫샘, 북평면 이진마을 장군샘 등.

43 화원면 구림마을 큰샘이 등.

44 황산면 기성마을 공동샘, 화원면 상리마을 간땃샘, 문내면 동외마을 간대손가락샘 등.

45 황산면 일신마을 공동샘, 황산면 우항마을 아랫샘 등.

46 황산면 교동마을 공동샘 III, 황산면 우항마을 아랫샘, 황산면 일신마을 공동샘 등.

47 문내면 동리마을 웃샘과 아랫샘, 문내면 충평마을 아랫샘, 북평면 이진마을 장군샘 등.

48 황산면 충정마을 공동샘, 문내면 원문마을 앞샘 등.

49 문내면 남외마을 원샘 한 곳.

샘이 처음 등장⁵⁰, 시멘트 사용 축조⁵¹

·팔각형 : 자연석 원형 우물에 마무리를 긴 장대석으로 축조⁵²

3) 지역별[면별] 현황과 특징

해남읍은 문헌조사에서 66개소였고 9개소를 조사하여 4개소를 해설하였다.

·해리마을 덕봉쟁이샘 : 원형 토관(土管, 노깁)으로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다. 울력으로 청소를 하였다.

·옥동마을 동네샘 : 방형으로 삼면에 판석이 둘러 있고, 둘레석에 “동치[同治二年…]” 명문이 있어 1863년(철종 14)에 조성된 우물이다.

·기동마을 윗샘, 아랫샘 : 원형 토관,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용정마을 아르데미[아랫배미]샘 : 방형 판석이며 샘제를 지내기도 했다.

삼산면은 문헌조사에서 73개소였고 8개소를 조사하여 3개소를 해설하였다.

·상가마을 옷나무샘[들샘] : 울력으로 칠월칠석에 청소를 하였다.

·저산마을 참샘[당옥샘, 구슬샘] : 매년 양력 12월 27일에 동계와 겸하여 대동굿을 하면서 우물 고사[샘제]를 지내고 있다.

·옹암마을 마을샘 : 고정도르래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

화산면은 문헌조사에서 47개소였고 22개소를 조사하여 10개소를 해설하였다.

50 일제 강점기 모방 육각형 우물 문내면 난대마을 큰샘과 문내면 외암마을 용알샘 등.

51 문내면 원동마을 새샘, 문내면 원암마을 안샘 등.

52 지동마을 황소샘이 한 곳.

- 가좌마을 공동샘 : 방형 수조형으로 1968년[무신]에 개축한 기록이 있다.
- 갑길마을 공동샘 : 2미터 크기 방형 장대석 판석으로 축조된 수조형 샘이다.
- 흑석마을 공동샘 : 1800년대 우물로 보이는 우물이다.
- 봉저마을 공동샘 : 우물과 넓은 빨래터를 겸한 공동샘으로 가치가 높다.
- 석정마을 공동샘 : 원형 석축에 상부는 육각형 시멘트로 둘렀다.
- 연정마을 중앙샘 : 방형 수조형 장대석 판석으로 축조했다.
- 월호마을 공동샘 : 원형 석축에 상부는 팔각형 시멘트로 둘렀다.
- 호동마을 공동샘 : 지름 3.9m의 대형 원형 수조형 석축 우물로 해남에서 유일하다.
- 율동마을 샘골샘 : 방형 수조형 우물과 장방형 수조형 빨래터가 2단으로 연결되었다. 1971년 개축했고 설날이나 대보름 때 자손 잘되라고 공을 들인다.
- 해창마을 중앙샘 : 원형 석축 상부에 팔각시멘트로 둘렀고 보호각이 있다.

현산면은 문헌조사에서 33개소였고 11개소를 조사하여 2개소를 해설하였다.

- 백포마을 아랫배미샘 : 점판암 장대석 방형 결구 우물이다. 바닥에는 돌을 깔았다.
- 원진마을 공동샘 : 원형 석축에 상부는 방형이다. 1917년에 개축하였다.

송지면은 문헌조사에서 46개소였고 34개소를 조사하여 12개소를 해설하였다.

- 송암마을 공동우물 : 석축으로 1920년에 개축하였다.
- 해내마을 윗샘 : 100년이상 되었다 정월대보름에 아낙들이 인근 마을에서 샘물을 훔쳐오는 풍습이 있다.

- 화내마을 중간샘 : 원형 석축으로 인근에서 샘물을 훔쳐오는 풍습이 있다.
- 방치마을 뒷샘 : 모서리의 결구 방식이 독특한 장대석이고 1918년(무오)에 개축하였다.
- 현안마을 공동우물 : 방형으로 1979년 개축하였다.
- 성샘 : 비손할 때 정한수를 뜬 곳으로 원새끼로 부정을 막았다.
- 월강마을 가운데샘 : 장대석 판석으로 짜 맞춘 방형이다. 네군데 있는데 앞샘은 1909년(융희3 기유) 개축했고 가운데 샘에서는 정월 초이튿날 당제 때 음식과 허수아비를 놓고 샘굿을 친다.
- 미야마을 큰샘 : 장대석 판석으로 결구된 우물로 조선후기이다.
- 영평마을 공동샘 : 장방형 판석으로 결구된 식수원과 빨래터가 연결되었다. 물이 좋아 대보름에 인근마을에서 몰래 길여가기도 했다.
- 치소마을 새샘 : 막돌석축에 상부는 원래 통나무로 이어 붙였다. 노거수와 관련된 구전이 있다.
- 소죽마을 소죽샘 : 대보름에 인근마을에서 샘물대기를 했고 미나리황이 유명했다. 1808년(순조 8, 嘉慶 18 무진) 명문이 있다.
- 어란마을 아랫샘 : 어란진성 북문밖으로 장대판석 방형이다. 1915년(음묘) 명문이 있다.
- 사구마을 아랫샘 : 약효가 뛰어났다.

북평면은 문헌조사에서 19개소였고 10개소를 조사하여 4개소를 해설하였다.

- 동해마을 석정우물 : 마을 당산목과 노거수 보호림과 함께 있는 장방형 구유형 석조 우물로서 위아래 샘이 2단으로 높낮이를 달리해 조성되었다. 샘굿을 쳤고 1923년(癸亥十月日窵井記) 명문이 있다. 2019년에 해남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와룡마을 짜우락샘(龍淚井) : 갯벌 속에 잠겨있다가 썰물 때 드러나서 물이 솟아오르는 용천수이다. 1800년대 말부터 사용했고 용의 눈 관련한 구정이 있다. 2010년 복원했다.
- 이진마을 북문샘 : 웅성 안에 있고 성벽이 둘러싸여 있다. 샘제를 지냈고 당집이 있었다. 2000년 정비하였다.
- 이진마을 장군샘 : 지금 구조물은 1806년(순조 6, 嘉慶 11 병인)과 1839년(헌종 5, 道光 5 기해) 명문이 있다. 네 귀의 기둥석에 판석을 결구하였다. 샘제를 지냈고 이순신장군이 1597년 8월 20일부터 이진의 배에서 머물 때 토사곽란이 심했는데 23일 이진에 유숙하여 쾌유되었는데 샘물의 영험 때문이라 전하고 있다.

북일면은 문헌조사에서 27개소였고 4개소를 조사하여 2개소를 해설하였다.

- 금당마을 동네샘 : 방형의 수조가 2곳이 있다.
- 삼성마을 두륜샘 : 방형이며 네 귀에 육각형 기둥을 세우고 판석으로 짜 맞추었다. 1922년(頭輪泉 壬申) 명문이 있다.

옥천면은 문헌조사에서 42개소였고 16개소를 조사하여 8개소를 해설하였다.

- 백호마을 샘 : 5개의 공동우물로 해남에서 가장 많다. 정월 대보름에 화춘마을과 물싸움을 하였다.
- 영신마을 영신샘 : 낮은 방형으로 바위틈에서 솟구치는 석간수이다.
- 송운마을 아랫샘 : 200년이 넘었다고 하며 정월대보름에 이웃마을과 물싸움을 했다.

- 호산마을 고래샘 : 낮은 방형으로 정월 대보름 도제(都祭)를 지낼때 전날 제관이 샘 청소를 했다. 우물 펴오기 싸움도 했다.
- 문촌마을 동네샘 : 방형은 식수로, 큰 원형은 다양한 용도로 썼고 2020년 정비하였다.
- 용정마을 용샘 : 낮은 방형으로 보호각이 있다. 용샘의 용이 하늘로 올랐다 전하고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끼리 물싸움을 했다.
- 탑동마을 시암샘 : 백호와 청룡 사이 음에 해당하여 물이 잘 나오며 정월 대보름 탑제 때 정화수로 쓴다. 이웃 마을과 물싸움도 했다.
- 이목마을 청룡샘 : 자연 샘으로 호룡불[등잔] 형국으로 기름이 새듯이 모인 것이라 한다.

계곡면은 문헌조사에서 25개소였고 9개소를 조사하여 4개소를 해설하였다.

- 강절마을 골샘 : 잔돌을 막쌓기하였고 보호각이 있다. 약수로 알려졌고 정월 보름 전날에는 불을 켜고 지켰다. 계곡가(溪谷歌)에 “골샘에 목욕하고 탁동에 놀아보세”라는 구절이 있다.
- 당산마을 참샘[중덕샘], 동쪽샘 : 450여 년 동안 마르지 않아 ‘혼의 우물’이라 했다.
- 덕정마을 덕정샘 : 물맛이 좋고 약수로 유명하며 ‘진양주(眞釀酒)’는 이 샘물로 빚어야 제맛이라 한다.
- 신주마을 현시암 : 가뭄 때는 물이 부족하여 정월대보름이나 2월 초하루에는 물끌기 풍습을 해왔다.

마산면은 문헌조사에서 40개소였고 13개소를 조사하여 4개소를 해설하였다.

- 산막마을 산막샘[통샘, 山幕井] : 방형으로 2개의 낮은 수조이다.
- 덕인마을 통샘 : 방형으로 낮은 수조 형태이다.
- 월곡마을 우데미샘[웃샘] : 방형 토관으로 무지개 다리와 보호각이 있다. 150년 되었고 정월 대보름에 물싸움하며 지켜왔다. 구렁이 관련 전설이 있다.
- 지동마을 황소우물 : 육각형으로 2.5m로 크다.

황산면은 문헌조사에서 54개소였고 52개소를 조사하여 13개소를 해설하였다.

- 초월마을 우댕이샘 : 자연석과 판석이다.
- 송호마을 들샘 : 토관을 사용했고 2014년 개축했다.
- 송청마을 청룡골샘 : 자연석 원형에 상부는 육각형이다.
- 외입마을 충신터샘 : 정방형이고 보호각이 있다. 약수로 유명하여 인근학생들이 운동중 다치면 이 물로 치료했다.
- 병온마을 공동샘Ⅱ : 판석을 방형으로 쌓았다.
- 우항마을 수랑샘 : 판석 육각형이며 우항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었다.
- 우항마을 아랫샘 : 토관 원형으로 1936년 명문이 있다.
- 남리마을 두부샘 : 장대석을 방형으로 쌓았는데 이 물로 두부를 만들면 맛있다고 한다.
- 남리마을 관샘 : 판석 방형이며 전라우수영으로 지나던 관리가 먹었다 해 관샘이라 하고 정월대보름에 샘굿을 했다. 2019년 보호각을 세웠다.
- 내산마을 아랫마을샘 : 자연석을 방형이며 1971년 보수했다.
- 옥동마을 공동샘 : 방형이며 물이 깊이가 낮고 작은 잔돌을 수평 쌓기한 특이한 우물이다.
- 관춘마을 뒷샘, 평덕마을 아랫샘 : 판석 육각형으로 조선후기로 보인다.

산이면은 문헌조사에서 38개소였고 11개소를 조사하여 4개소를 해설하였다.

- 노송마을 죽마을샘, 동쪽샘 : 육각형으로 물이 마른 적이 없다.
- 지사마을 돌샘 : 판석 방형이며 지사대감이 내려와 금을 떨어뜨렸던 곳에 만든 것으로 전한다. 보호시설이 있다.
- 상공마을 땅골샘 : 방형이며 연결된 빨래터에 보호시설이 있다.

문내면은 문헌조사에서 44개소였고 51개소를 조사하여 17개소를 해설하였다.

- 용암마을 공동샘 : 판석 방형이며 보호시설이 있다. 대덕산 용암산제 때 제관들이 이물로 목욕했다. 청소 때는 장닭 머리를 땅에 묻은 뒤에 했다.
- 동내마을 새샘 : 판석 장방형이다.
- 명량마을 공동샘Ⅰ과 공동샘Ⅱ는 판석 방형이다.
- 서상마을 방죽샘 : 판석 육각형으로 『대동지지』에 기록된 우수영 2개소 중 하나로 본다. 1724년, 1752년, 1808년, 1907년, 1938년 중수비가 있어 조선 후기 이후 지속적으로 중수하면서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1948년 중수비에는 6개마을이 시주한 것으로 나온다. 해남의 대표적 우물이다. 방죽샘과 동내마을 새샘이 풍수지리상 호랑이 눈이라고 전해진다. 1970년까지는 금줄을 치고 방죽샘 제사를 모셨다.
- 서외마을 갯샘 : 방형으로 바닷가에 있다. 백중날 보리개떡을 먹으면서 청소하였다.
- 서외마을 큰샘, 작은샘 : 방형이다.
- 동리마을 옷샘, 아랫샘 : 방형이며 옷샘에는 을미년(乙未年, 1895년 추정) 명문이

있다.

- 난대마을 큰샘 : 판석 육각형으로 2015년 보호시설을 했다.
- 외암마을 용알샘 : 판석 육각형으로 조선말기이며 1972년과 2019년에 정비했다.
- 용정마을 공동샘Ⅱ, 공동샘Ⅲ : 방형으로 자연석과 판석을 함께 사용하여 조성한 특이한 예이다.
- 중도마을 가운데샘, 충평마을 아랫샘 : 판석 방형이다.
- 고당마을 구름샘 : 판석 방형으로 보호시설이 있다.
- 고평마을 공동샘 : 네귀에 기둥을 세워 짜맞춘 판석 방형이다.

화원면은 문헌조사에서 26개소였고 22개소를 조사하여 8개소를 해설하였다.

- 상리마을 간땃샘 : 판석 방형으로 지붕이 있고 울력으로 청소했다.
- 상리마을 주랫샘 : 판석 방형이다.
- 장수마을 큰샘 : 방형이며 음력 1월 3일에 도제 때 우물 주변에 초하루날 원새끼 금줄을 쳤고 샘굿도 하였다.
- 인지마을 참샘 : 웅달샘에서 방형이 되었다.
- 구림마을 큰샘 : 네귀에 기둥석을 세우고 판석을 짜 맞춘 방형이다. 우물이 좋아 질병이 없어져 깃샘이라 하고 당산제때 샘제도 지냈다.
- 섬동마을 공동샘 : 판석 방형이며 아이를 못 낳은 사람들이 이 물을 먹으면 아이가 생긴다고 전하고 신경통 약수로 알려졌다.
- 구지마을 큰샘 : 3면이 판석 방형이다.
- 후포마을 통샘 : 방형이며 물이 옆에서 나온 것이 특징이고 1960년대 보수했다.

6. 맺음말

해남의 우물이 언제 처음 축조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자세하지 않다. 청동기 시대에 논산 마전유적의 우물처럼 선사시대부터 사용했을 것이다. 특히 해남 지역에는 청동기 시대 고인들이 다수 분포하여 많은 부족의 생활공간에서 물은 매우 중요한 요소여서 우물이 있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금강산성은 몽고군의 침입을 대비해 입보용(入保用)으로 쌓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곡부에서 집수 시설이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1429년 8월 26일 세종실록 기록에 “해진(海珍) 남면의 구산성(狗山城)안에는 경작할 만한 밭이 있고, 또 물과 샘이 있어서 성과 관소를 설치할 만하다는 기록이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해남현 성곽조에 해남읍성 안에 우물[井] 12개소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 뒤이은 지리지 읍지류에도 12개소가 기록된다.

조선 초기에 설치한 전라우수영에도 호지(濠池)와 우물 2개소가 있었다는 기록이 『대동지지』에 보인다. 우수영에 있는 우물 2개소에 대한 명칭이나 위치가 남아 있지 않지만, 현전하는 방죽샘이 그중 1개소로 보인다. 방죽샘 곁에 있는 중수비 가운데 1724년(경종 4, 雍正 2) 명문이 있어 축조 시기는 그 이전임을 알 수 있다. 1724년 중수비는 앞면에 대시주 양심(梁溍)과 시주 4인, 감역 절충 이지만(折衡 李枝萬) 등 4인, 그리고 존위, 좌상, 공, 공양 등 직임과 인명을 새겼다. 이어 1752년(영조 28, 乾隆 17), 1804년(순조 4, 嘉慶 9), 1907년(광武 11), 1948년(단기 4281년) 중수비 등 모두 5개가 있다. 시주와 감동, 감역, 별좌, 공원, 화주, 존위, 좌상, 공양 등 여러 직임과 인명을 기록하고 있다. 1948년 중수비에는 6개마을(서하, 선두, 서상, 남상, 서외, 남하)이 시주로 참여하고 있어 조선후기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내면의 대표적 우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진마을 장군샘은 1806년(순조 6) 병인년에 처음 만들고 1839년(헌종 5) 기해년 11월에 중수한 기록이 있다. 이때 지금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부터 우물이 있던 자리일 것이다. 이순신장군의 『난중일기』에 1597년 8월 20일 이진에 도착하여 배에 머물렀는데 객란이 극심하여 8월 23일 배에서 내려 이진에서 유숙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주민의 정성과 장군샘의 정화수의 영험으로 쾌유되었을 것으로 주민들은 믿고 있다.

고산 윤선도(1587~1671)는 ‘날이 갠 것을 기뻐하며[喜晴]’라는 시에서 “곳곳마다 물 길으며 의복을 세탁하네”라 하여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빨래터가 보이는 경관을 읊었다. 1612년(광해군 4) 정월이다. 1645년(인조 23 을유) 59세 때 “밥상을 마주하고[對案]”라는 시에서 “샘물 가득 떠서 보리밥 말아먹으면”이라 한다. 『금쇄동기(金鎖洞記)』에도 샘과 우물에 대한 기록이 있다.

대흥사나 미황사의 우물, 달마산의 금샘, 관두산 풍혈 및 샘도 중요하다. 심적암의 우물은 스님과 신도의 생활공간이었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떨치고 일어났던 의병들의 생명수였다.

해남 사람들은 방향에 따라 동샘·웃샘·앞샘, 크기에 따라 큰샘·작은샘, 입지 따라 들샘·서당샘·갯샘·절샘, 풍수를 반영하여 청룡골샘, 속신에 따라 쌍둥이샘·불로정샘, 물맛에 따라 두부샘·참샘, 그리고 우수영 관인들이 사용한다해 관샘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우물을 쌓을 때 재료는 자연석, 판석, 장대석, 시멘트, 토관[土管, 노깡]이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자연석, 판석, 장대석을 사용하였다. 우물의 형태는 원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 다양하다. 특히 방형 판석을 육각형으로 쌓은 우물은 조선후기 중수 기록이 있는 방죽샘이 처음 등장한다.

지역별[면별] 현황과 특징은 따로 요약하지 않는다. 샘고사나 당제 등도

우물이나 샘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민속문화 조사는 따로 해야 할 것이지만 기 조사된 자료는 각 우물 이야기에서 간략히 소개하였다. 신앙관습이나 속신에 대해서는 일반론에 해당한다 할 『산림경제(山林經濟)』의 복거(卜居)편 우물조 기록을 제1장 총설에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보존과 관리의 방향도 제1장 총설편에서 제안하였다. 우물을 중심으로 한 민속생활사와 향촌 사회사에 대하여 앞으로 더 조사연구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고산유고』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영암군지도』
『이진진지도』
『증보문헌비고』
『해남군지』
『해남읍지』(1791, 1899)
『해남현지도』
『호구총수』

경주박물관, 『우물에 빠진 통일신라 동물들』, 2011
김광언, 『특별전 '타임캡슐을 열다-색다른 고대 탐험' 연계 강좌 -동아시아의 우물』, 국립중앙박물관, 2012
김광언, 『동아시아의 우물』 상·한국; 하·중국·일본·민속원, 2017
박영자, 『해남의 옛 이야기』, 해남신문사, 2006
알레브 라이틀 크루티어 지음, 『물의 역사』, 예문, 1997
이필영, 『신앙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4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전북지방의 우물(샘)이야기』, 2014
천정영, 『임실의 우물과 샘』, 임실문화원 2015
최성민, 『우리샘 맛난물』, 한겨레신문사 1993
편찬위원회, 『해남 우리 마을의 삶과 문화』, 상·하, 201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해남문화원, 『해남지명유래총람』, 1994

해남군, 해남문화원, 『마을유래지』, 1987

구미래, 「우물의 상징적 의미와 사회적 기능」, 『비교민속학』 23, 비교민속학회, 2002

김광언, 「한중일 세나라의 민속 연구- 샘과 우물」, 『민속학연구』 18호, 2001

김재호, 「식수문화의 변화과정 -우물에서 상수도까지」, 『한국민속학』 47, 한국민속학회, 2008

김창익·김대덕·도영아, 「우물유구에 대한 분석과 조사방법」, 『야외고고학』 5집, 2008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ck.co.kr>)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해남군청(<http://www.haenam.go.kr>)

디지털해남문화대전(<http://haenam.grandculture.net/haenam>)

